

麟蹄民俗史

향토자료집 2004
(再版)



麟蹄文化院

麟蹄民俗史

향토자료집 2004
(再版)



麟蹄文化院



발 간 사

인제문화원
원장 방효정

우리 고장 인제는 전국 제일의 관광자원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명소
일뿐 아니라, 많은 향토 민속문화를 가지고 있는 산실임은 우리 인제군
만의 자랑입니다.

선대의 따스한 숨결이 배인 유형, 무형의 보배로운 자산을 은은히 이
어와 오늘에 꽃피우면서 식지 않는 선인의 숨결과 더불어 알게 모르게 군
민정신으로 승화되어 가고 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역사와 향토민속문화유산을 가꾸고 지켜 오기
는 했어도 정작 누구나 알기 쉽게 문헌으로 집대성한 것이 없었음을 아쉽
게 여겨 오던 중 다행히도 인제문화원에서는 우리 고장 인제인의 삶의 모
습과 애환, 그리고 숨결과 신명이 담겨 있는 민속생활상을 1983년도부
터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계기로 하여 연연히 한 소재씩 발굴하여
왔습니다.

이어서 1997년도에는 일부이기는 하나 그 간에 발굴하였던 대표적인
민속사를 재보완하여 한 권의 사료집으로 「인제민속사」를 발간하여 기
록·보존하게 되었고, 또한 후대에 계승하게 되었음은 매우 중요한 일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간에 인제민속사 책자는 지역 주민과 애향인, 그리고 특히
민속사를 연구하는 학계를 비롯한 여러 매체로 소중히 꾸준하게 보급되
어 가치를 크게 얻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쉽게도 인제민속사 책자가 찾는 이들의 수요에 부족하
여 오던 중 금년에 재판으로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미흡한 점은 앞으로 계속 보완하여 보다 완벽한 인제민속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편집, 집필, 발간 등 특히 발
간비를 지원해 주신 보조기관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발간사/방효정 · 3

권두언/이만철 · 7

■ 인제 뗏목 민속사

머릿글 · 11

뗏목의 역사 · 15

인제 지역의 삼림과 역사 · 19

인제 지역의 자연환경 · 25

인제 뗏목사의 과정 · 31

벌목작업 · 37

운목작업 · 43

벌 류 · 59

인제 뗏목 재현 · 82

■ 심마니 민속사

머리말 · 103

인제의 자연 환경과 산삼 · 106

자연적 배경과 심마니 · 108

심마니 용어와 俗信에 비는 祭文 · 118

심마니의 금기사항과 심보러 다닐 때 소리 · 126

산삼을 캐는 과정 · 130

인제 심마니 발굴 재현 · 135

결론 · 137

■ 숲굽기 민속사

머리말 · 141

인제의 자연환경 · 144

숲의 역사 · 148

숫가마 만들기 · 150
 숫굽기 작업과 과정 · 154
 숫굽기 생활과 人間史 · 159
 인재 숫둔골 숫굽기 놀이 발굴재현 · 160
 결론 · 169

■ 갈이남박 만들기 민속사

 머리말 · 173
 갈이남박 만들기의 특징과 배경 · 177
 목공예의 역사 · 181
 갈이남박(이남박) 만들기 · 183
 목기류 만들기 생활과 人間史 · 191
 인제 갈이남박 만들기 발굴재현 · 194
 결론 · 201

■ 군량동 채독 만들기 민속사

 머리말 · 205
 인제의 자연환경과 채독 민속사 · 209
 고증에 의한 선인들의 채독 만들기 · 211
 채독 만들기 민속사 재현 · 219

■ 대장간 민속사

 머리말 · 235
 대장간의 역사 · 236
 대장간의 구성 · 238
 대장간의 위치 · 247
 대장간의 기능 · 247

대장간 기구의 호칭 · 253
 대장간의 민속적 의미 · 255
 승냥간 배림질 발굴재현 · 258

■바지개 선질꾼 민속사

머리말 · 275
 바지개선질꾼 생활사의 특징과 배경 · 280
 원통장과 양양장의 형성과 역할 · 281
 바지개선질꾼 민속사 · 287
 바지개선질꾼 복장과 바지개 설명 · 293
 바지개선질꾼 재현 · 295
 결론 · 311

■인제 다릿골 무쇠점간 민속사

머리말 · 315
 다릿골 무쇠점간 민속사 · 316
 무쇠점간의 구성 · 320
 무쇠점간의 인적구성 · 323
 인제 다릿골 무쇠점간 발굴재현 · 325

■망대세우기의 전승형태와 민속문화적 성격

머리말 · 345
 마을개관 · 346
 전승유래 · 347
 망대세우기의 전승형태 · 348
 망대세우기의 민속문화적 성격 · 355
 결론 · 357



麟蹄民俗史를 집필하면서...

麟蹄 鄉土 史
研究員 李 萬 喆

역사의 재조명은 과거를 교훈으로 삼고, 현재의 삶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를 창조적으로 열어가는 것이 근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의 세월 속에 쌓여온 우리의 전통 문화의 일면인 민속사가 급격한 사회변동의 물결 속에서도 면면히 이어져 우리의 생활과 의식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왔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고장의 민속사를 재정립 함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랜 인고 끝에 “인제 민속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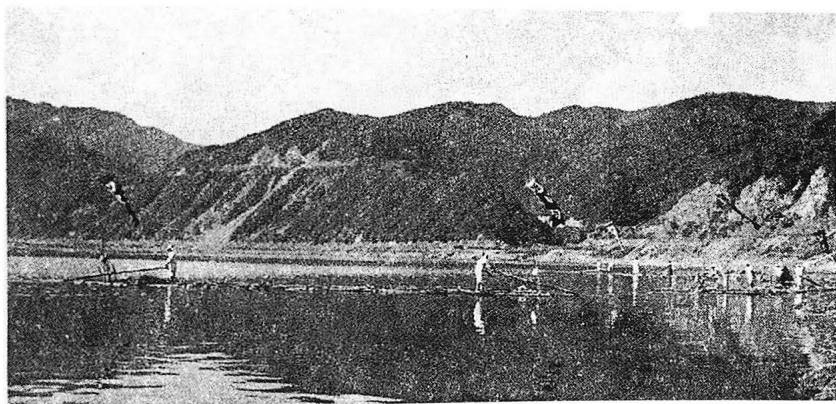
본 사료집을 통하여 우리 선조님들의 지혜로운 삶과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를 가꾸어 온 민속사를 터득할 수 있으며 나와 우리를 재발견 하는 계기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기대됩니다.

또한 과거를 이해하고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 향토 사회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고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게 하며 향토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신적인 자질을 함양하는데 귀중한 산물로 보탬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자료 수집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증에 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麟蹄 山林民俗史 研究

인제뗏목 民俗史



麟蹄 山林民俗史 研究

— 인제뗏목 民俗史 —

麟蹄郷土史研究所

研究員 李 萬 喆

〈 目 次 〉

- | | |
|------------------|-------------|
| 1. 머릿글 | 6. 벌목작업 |
| 2. 뗏목의 역사 | 7. 운목작업 |
| 3. 인제 지역의 삼림과 역사 | 8. 벌 류 |
| 4. 인제 지역의 자연환경 | 9. 인제 뗏목 재현 |
| 5. 인제 뗏목사의 과정 | |

1. 머릿글

우리 고장의 자연 환경에 따라 옛선조들께서 살아온 민속 생업사중 빼놓을 수 없는 중의 하나가 뗏목 생활사이다. 생업으로 뗏목 생활을 하여 왔던 것은 우리 선조들이 당시에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을 영유하는데 필요한 자원으로 임목자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의 등뼈인 태백산맥 준령에서 뺏어 내린 설악산/ 방태산을 끼고 있는 인제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림을 이루었고 그 속에 임목자원을 제공하는데 조건을 갖추고 있던 지방이었다.

또하나의 많은 임목자원을 제공하는데 절대적으로 용이한 점은 소양강을 이용한 운송수단의 조건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양강의 상류지점인 인제 합강의 합수머리까지 여름이면 비가 많이 내려 항상 물이 많이 차 있었기에 당시의 선인들은 임목자원을 뗏목으로 엮어 수로를 이용하여 수송하는데 좋은 조건이었다.

이러한 산림 생업의 민속사인 뗏목 생활민속사는 1943년 청평댐이 건설되면서 수로가 막히고 물길이 끊어짐에 따라 뗏목 생활사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러한 뗏목민속사는 우리 고장의 역사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속에 선조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였는가를 남겨 놓은 산업 활동이었기 때문에 50여년이 지난 지금으로서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확실한 자료를 수집하여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함은 자명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뗏목민속사는 앞서 1985년도에 제3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재현하게 됨으로 발굴을 서둘러 온 일이 있고, 아울러 대회에 출연하여 최우수상을 받으므로 널리 알려진바 있다. 이러한 중요한 민속사를 계승 보존하기 위하여 재현을 거듭하여야 하나 희미한 기억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이며 당시에 뗏목 생활을 하였던 촌노들도 많이 돌아가심으로 시급히 자료를 더 연구 조사하여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함에 이르러 금번 우리고장 민속사를 다루는 가운데 다시 한번 뗏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물론 뗏목사에 관하여 대충 얻어진 생각으로 알고 있는 분에게는 본문이 중요시되지는 않겠으나 시대의 흐름 속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옛민속사를 알려 주는 데는 큰 보탬이 되리라 믿어지는 일념 속에 의미를 갖고자 한다.

끝으로 이 고장의 과거를 되살려 볼 수 있는 역사. 민속자료

를 더욱 수집 연구하는데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고 고증에 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고증을 해 주신 분 ◀



성명 : 손 용 인 (孫 龍 仁)
생년월일 : 1913 년 10월 8일생 (85세)
본적 :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주소 :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땃목경력 : 1934년 (당시 21세)부터 11년간



성명 : 심 한 호 (沈 漢 浩)
생년월일 : 1920 년 3월 16일생 (77세)
본적 : 인제군 인제읍 합강2리
주소 : 인제군 인제읍 합강2리
땃목경력 : 1934년 (당시 14세)부터 11년간



성명 : 박 해 순 (朴 海 順)
생년월일 : 1925 년 1월 25일생 (73세)
본적 : 인제군 남면 부평리
주소 : 인제군 인제읍 상동4리
땃목경력 : 1942년 (당시 17세)부터 3년간

위 3분 이외에도 고증을 해주신 분이 당시의 경험을 살려 고증을 해주셨으며 특히 1985년 인제 뗏목 발굴재현에 고증을 하여주신 분으로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을 밝혀 보고자 한다.



성 명 : 김 계 근 (金 桂 根)

생년월일 : 1898 년 7월 16일생

본 적 :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100번지

뗏목경력 : 1918년 (당시 20세)부터 1943
년(당시45세)까지 25년간 뗏
목운행.



성 명 : 임 일 남 (林 一 男)

생년월일 : 1912 년 5월 10일생

본 적 : 인제군 인제읍 합강2리 297번지

뗏목경력 : 1930년 (당시 18세)부터 1945
년(당시33세)까지 15년간 뗏
목운행.



성 명 : 송 태 익 (宋 泰 益)

생년월일 : 1921 년 3월 8일생

본 적 :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624번지

뗏목경력 : 1937년 (당시 16세)부터 1945
년(당시24세)까지 8년간 뗏목
운행.

2. 뗏목의 역사

먼저 뗏목을 말하기 전에 “떼”란 용어를 알아보기로 하자.

다시 말하자면 “떼”란 물위에서 운반 수단으로 유용하기 위하여 만들어 사용하였던 것과 물위에 띄워 놓고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또한 어느 옛 문헌에는 중국 양자강에서 떼를 크게 만들어 띄워 놓고 그 위에 흙을 올려놓아 밭을 만들어 곡식을 심으며 경작을 하였다고 하며 또한 닭, 돼지등 가축을 사육하였다는 문헌도 있다.

이렇듯 “떼”란 수상(水上) 운반 수단과 물위에서 어떤 행위를 이루고자 할 때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떼”는 과거 도로가 발달하지 못하고 운송 기관이 형편없었을 때 육상(陸上) 보다는 수상(水上) 운반 수단이 훨씬 유용한 것으로 취급되었던 시기에 사용되었다고 본다. 일찍이 남아메리카 서해안 지역에서는 갈대 다발을 묶은 풀 뗏목이 있었으며 이집트는 파피루스(PAPYRUS)로 만든 것. 중국에서는 쇠가죽을 통째로 주머니같이 만들어 나무틀을 엮어 밑에 매달은 가죽 뗏목이 있었다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한문을 한글로 언해한 기록으로 조선 세조7년(서기 1461년)에 간행한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에 한문인 벌(筏)은 “떼”라고 읽는다고 있고 성종 13년(서기 1482년)에 간행된 <금강경삼가해(金剛經三家解)>와 중종 22년(서기 1527년) 최세진(崔世諺)이 지은 <훈몽자회(訓蒙字會)>에도 “떼”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선 초에는 떼가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고 85년도 인제 문화원에서 발간한 인제 뗏목 책자 <강원대학교 편찬>에는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고고학에서 연구되기는 이미 구석기. 신석기시

대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강이나 좁은 바다를 건널 때 넓은 나무토막이나 그것들을 엮어 만든 뗏목 비슷한 것을 이용하였다고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청동기시대에 와서는 사람이 죽으면 무덤으로 쓰기 위하여 만들던 고인돌의 덮개 돌을 다른 곳에서 옮겨올 때 강의 상류에서 채석한 큰돌을 뗏목에 실어 물길을 이용하여 하류로 옮기거나 강을 건넜다는 연구 조사가 되어 있다는 점으로 보아 이미 선사 시대부터 많이 이용됨을 알 수 있겠다. 그러므로 뗏목이란 “떼”에서 파생된 말로써 육로의 교통 수단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대에 좋은 목재들을 엮어서 물위에 띄워 산간 지역에서 수요지까지 운송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압록강 뗏목이 많이 성행하였다고 하며 남한에서는 수림이 울창한 강원도 영월/평창/인제에서 수도권으로 성행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보아 예전에 서울의 궁궐을 지을 때 그 재목은 남. 북의 한강을 통하여 뗏목으로 엮어 운반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중에서도 좋은 목재는 강원도 평창/영월/인제 지역에서 벌목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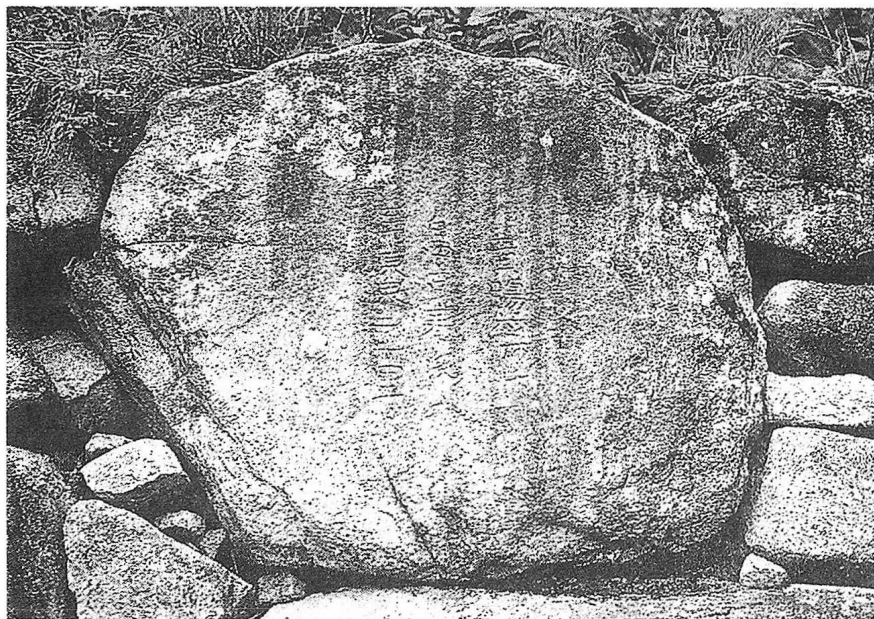
특히 우리 고장 인제에서 성행되었던 뗏목은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청평댐이 건설되기 이전까지) 뗏목 생활에 종사하였던 촌노들이 생존함으로 그분들의 생생한 고증을 얻어 상세히 알 수 있음으로 이 지방의 뗏목 역사를 증명해 준다.

이렇듯 뗏목 생활이 성행하면서 산에서 소나무를 마구 베어 수도권으로 운반하여 사용하는 이면에 나라에서는 너무나 산에서 벌채가 심한 것을 막기 위하여 산림을 보호하고자 곳곳에 나무를 벌채하지 못하도록 금표(禁標)를 세웠다. 이러한 금표는 원성군 소초면 학곡리 치악산(雉岳山) 구룡사(龜龍寺) 입구에 세워져 있고, 영월군 청냉포(淸冷浦) 근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우리 인제군에서는 북면 한계리 안산(鞍山)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한계리 황장금표(黃腸禁標)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말하자면 북면 한계3리 쇠리라는 민박촌 마을 북쪽의 안산(鞍山) 절골안을 약 1.2km 거슬러 올라가면 옛 절터가 나오는데 이 절터 뒷면에 돌축대 한복판에 위치하여 있다.

이 황장금표의 문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黃腸禁山 /自西古溪 /至東界二十里】



인제군 북면 한계3리(절골) 황장금산 금표문

이 절터는 운흥사지(雲興寺地)라는 절터로서 북면 한계3리 장수대 맞은편 위에 있는 한계사(寒溪寺)의 화재로 인하여

옮겨졌던 사찰이었다. 좀더 깊이 알아보고자 백담사에 있는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百譚寺 (江原道 麟蹄郡 北面 龍垞里) 史

一千六百七十四年(新羅眞德王元年丁未) 慈藏法師一寺를 雪嶽山 寒溪里에 扞하야 名을 寒溪라 하고 彌陀像三位를 造成泰安하다.

先是一千六百七十一年(新羅善德王十三年甲辰) 慈藏이 鳳頂庵을 扞하고 五層塔을 建하야 佛舍利를 泰安하고 또 觀音庵을 扞하얏다가 後三年에 寒溪寺를 扞하니 鳳頂庵과 觀音庵은 寺의 屬庵이 되니라.

一千七百四年(新羅文武王十七年丁丑) 元曉大師一鳳頂庵을 重修하다.

一千七百十七年(新羅神文王十年庚寅) 寒溪寺一災하다.

一千七百四十六年(新羅聖德王八十年己未) 寒溪寺를 重建하다.

一千八百十二年(新羅元聖王元年乙丑) 寒溪寺一災하다.

一千八百十七年(新羅元聖王六年庚年) 寺僧宗演, 廣學, 覺洞, 靈熙, 法察, 雪洽等이 寒溪寺를 古基의 下三十里地에 移建하고 名을 改하야 雲興寺라 하다.

二千十一年(高麗成宗三年甲申) 雲興寺一災하다.

二千四十年(高麗成宗六年丁亥) 寺僧洞薰, 俊熙寺이 雲興寺를 古基의 北六十里地에 移建하고 深源寺라 改名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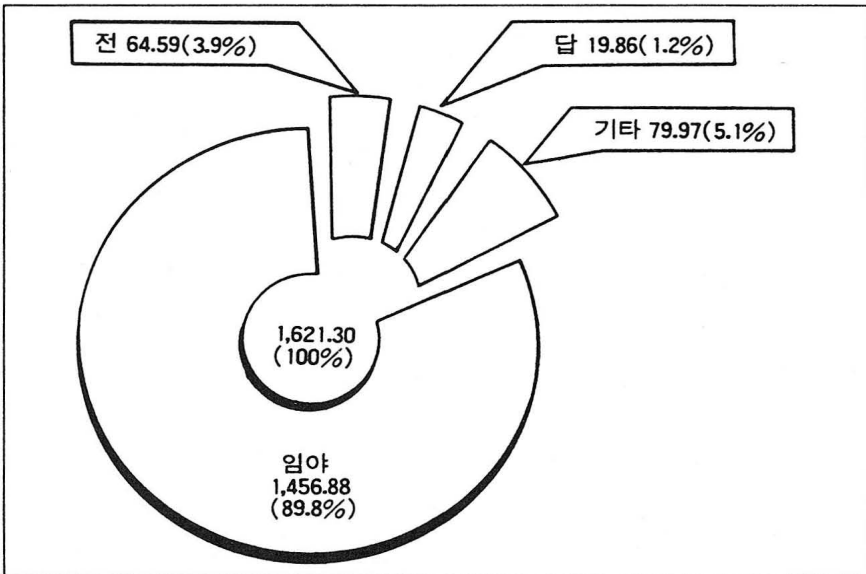
이 황장금산(黃腸禁山) 금표문은 조선 초에 들어와 한계리 일대의 울창한 소나무(黃腸木)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표문(禁

標文)을 절의 축대돌면을 이용하여 새겨 놓은 것 같다. 금표문의 내용으로 짐작하건대 금표가 있는 곳으로부터 서쪽 한계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동쪽 2-리까지 전지역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운 것 같다. 이곳에는 지금도 지름이 50cm 정도되는 소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많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전에 이러한 황장목들은 궁궐이나 큰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도 사용하였거나 왕족들의 관(棺)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여건으로 보아 인제의 뗏목은 그 옛날 서울 지역의 건축 산업과 가정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물론, 1898년 조선왕조가 압록강, 두만강 유역 울릉도 삼림채벌권을 러시아에 넘기고 그 후 이러한 권리가 1908년 1월 26일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일본이 그 지역 일대에 울창하였던 삼림을 벌채하여 일본으로 반출하였던 1945년 이전에는 두만강과 압록강의 삼림 벌채가 유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지역에 대한 뗏목사는 일제시대의 자료를 통하여 일부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뿐 이북 지역이기 때문에 깊이는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면에 남한 지역에서 우리 나라 역사가 흐르는 동안 최근까지 뗏목 산업으로 가장 번성을 보았던 우리 고장 인제 뗏목의 민속사는 당시에 직접 뗏목 생활을 하였던 사람들이 생존해 계심으로 인해 고증으로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과거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본다.

3. 인제 지역의 삼림과 역사

앞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계3리 운흥사지 돌축대의 넓
은 돌에 새겨 놓은 황장금산(黃腸禁山) 금표가 말해 주듯이

우리고장 인제에는 옛부터 산림이 매우 울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전면적의 89.8%가 임야로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공기가 좋고 물이 많은 지역이라 자연히 나무가 잘 자랄수 있는 환경 속에 오랜 역사가 흐르는 동안 사람의 손이 거의 미치지 않아 훼손되지 않고 잘 보호되어 내려왔기 때문이다. 특히, 태백산맥에서 뻗어 내려온 여러 산맥 중에 우리 인제에는 기린면의 방태산(芳台山 : 해발 1,435.6m) 개인산(開仁山 : 해발 1,323.9m) 서화면의 향로봉(香爐峰 : 해발 1,293m) 칠절봉(七節峰 : 해발 1,172m) 응봉산(鷹峰山 : 해발 1,172m) 등의 큰산에 산림이 울창하여 왔다. 현재에도 기린면 진동리(鎭東里) 일대에는 원시림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 우리 나라 임업사(林業史) 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지역으로 확산되어 있기도 하다.



인제군 토지(면적) 분포도

이렇듯 산이 많고 자연히 나무가 많은 우리 인제 군에서는 예로부터 산림이 풍부한 지역으로 우리 인간사에 자원을 제공하여 삶을 영유하게 하였고 그 속에 화목과 건축재료 또한 가구재료로 널리 공급하여 왔다.

다음은 또 넓게 우리 나라의 삼림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기록을 85년도 인제 문화원에서 발행한 “인제 뗏목” 책자 문헌에서 추려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삼림은 고려 초까지 인구가 적고 무성하여 삼림을 이용한다는 것보다 생활의 자연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고려 초에는 뗏나무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자 벌목을 금하는 사실이 고려사 현종(顯宗) 4년(서기1013년)의 기록으로

禮云 代一樹不以時非孝也 史云 松柏百木之長也 近聞百姓所代松柏 多不以時 自今除公家所用違時 代松者一切禁斷

즉, 예서에 기록하기를 한 그루의 나무를 났 때라도 그 시기를 고르지 않으면 효도를 잘 못하는 것과 같고 사기에 기록하기를 소나무, 잣나무는 모든 나무 중에 최고로 귀중하다 하였는데 최근 들으니 백성들이 소나무, 잣나무를 벌목하는데 그 시기를 택하지 않는 자가 많다하니 지금부터는 관청용이 아니면 시기를 위반하여 소나무를 베는 자는 모두 엄단할 것이다.

또, 현종 22년(서기 1031년)에도 <立春後 禁代木> “입춘뒤에는 나무를 채벌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도 벌채시기를 확정하였으니 모두 삼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또 삼림은 개인 소유로 하

지 못하게 한 기록을 보면 고려 충숙왕(忠肅王) 12년(서기 1325년)에

山林川澤興民共利者也 近來權勢之家自占爲和 擅禁樵牧以爲民害 仰憲司 禁約違者治罪

“산림, 강, 못은 백성이 같이 이용할 것인데 최근 권세자들이 독점하고 일반 나무꾼과 목부들이 입상 채취를 금하여 백성을 괴롭히니 헌사에 명하여 금약을 위반한자는 처벌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보아 고려 말기에는 산림의 개인소유가 극심하였던 것 같으나 조선 초에 들어와서는 개인소유를 금지하는 기록이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 금제조(禁制條)에 松占業場 枚八十 “땔감채취장을 사점하는 자는 곤장 80대” 라고 있어 엄중하였다.

그리고 나무를 함부로 벌채하는 것을 금하는 기록이 경국대전 형전 금제조에

諸道禁山 禁松犯所者 重論 大松犯所 十株以上 一律論 九株以不下減死定配

“각도 금산에서 금지된 소나무를 베는 자는 큰 소나무를 10그루 이상 베는 자는 사형 9그루 이하를 베는 자는 사형은 면하되 귀양을 보낸다” 라고 있으며 조선왕조가 성립되고 서울의 인구가 늘게되자 각종 건축물의 자재요 땔감으로 나무가 많이 필요하자 경기도와 강원도의 소나무는 채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다른 도는 금한 기록이 세종대왕 실록에 있는데

세종 21년(서기 1439년) 을미2월(乙未二月)에는

【議政府啓 都城內 未造家者頗多 京畿,江原松木斫代 勿禁之法載在續曲謄錄……의 정부에서 아뢰기를 서울안에 집을 짓지 못한 자가 많아서 경기, 강원도의 소나무 벌채를 막지 못하는 법이 속전에 등록되어 있거니와……】

라고 있어 조선 초기부터 강원도의 소나무가 서울의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겠으며 인제 지역 목재가 주로 소양강을 통하여 뗏목 운반으로 내려갔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우리 나라의 삼림이 이러한 금법이 엄하였음에도 서서히 황폐하게 된 원인은 조선초 후기에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이 확대됨에 따라 거주지가 팽창하고 목재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삼림채벌이 확대되었음에도 기인한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나라 선조들이 대부분이 생활지역을 중심으로 채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가 그리 많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나무들의 성장은 이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전국 각지의 깊은 산골에는 1800년대 말기만 하여도 원시림이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압록강, 두만강, 함경북도, 강원도 일대의 사람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인 밀림지대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뽕뽕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대한제국이 삼림벌채권을 외국에 넘겨주거나 그 뒤 일본의 삼림수탈이 행하여지면서 이 무진장한 밀림이 황폐화되어 가는 것이였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그들이 삼림 수탈을 하기 전에 “붉은 산”이 많았다고 거짓선전을하여 자기들의 삼림수탈 정책을 감추려고 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울창한 삼림에 눈독을 드리고 있었으나 1896년 러시아가 먼저 『무산(茂山) 압록강유역, 울릉도 산림 벌채권』을 획득하였음을 안타깝게 여기다가 1904년 노·일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1905년 우리나라와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되면서 한국전역의 삼림채벌권을 강탈하여 갔다. 이때 압록강, 두만강 일대의 나무는 앞갈나무 분비, 가문비나무 등이 300년 이상의 수령이었으며 높이 30m 지름 1m 정도가 대부분이었고 내금강 일대인 인제(麟蹄), 양구(楊口), 회양(淮陽), 김화(金化)에서는 거대한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이 뽕뽕이 들어차 있었는데 설악산 오대산의 것은 지름 1m 높이 20m에 달하는 것이 많았다고 한다. 1916년에 일본이 한국 삼림 자원을 수탈하기 위하여 조사한 각 도별(道別) 임상별(林相別) 통계에 의하면 강원도가 큰 나무지역 667,000정보 어린 나무지역 960,000정보, 나무없는 산 지역 278,000 정보인데 이 통계에서 보면 함경남도가 큰 나무 지역이 1,458,000 정보, 함경북도 880,000 정보 평안북도 879,000 정보로서 강원도가 네 번째로 삼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09년 조사된 국유림 조사 보고에 의하면 인제군 일대의 748정보가 국유림으로 되었는데 소나무가 대부분으로 총채적(材積)이 47,900㎥ 1정보다 64㎥이었고 금강산 일대의 국유림은 삼림 지역이 18,773정보, 총채적 4,326,100㎥ 1정보당 채적은 230㎥로서 강원도의 삼림이 우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山林자원을 수탈하기 위하여 1910년 이후 영림창(營林廠)과 출장소, 파출소를 전국 삼림 지역에 설치할 때 인제군 인제 면에도 출장소를 두어 69,000정보를 관할하였다. 1924년에 전국 65개서를 삼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때 인제, 양구, 화천, 금강산 등에 모두 포함되어 보호구역이 된다. 이

렇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전역의 삼림 자원이 그들의 수탈 대상이 되었을 때 인제지역 일대의 수목들도 큰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거대한 삼림자원은 일제의 수탈 작전에 의하여 무자비하고 무참하게 황폐되었는데 이때에 이용된 것이 압록강, 두만강, 한강의 뗏목 운행이었으니 1945년까지 일제 식민정책 밑에서의 뗏목은 우리나라 삼림을 황폐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4. 인제 지역의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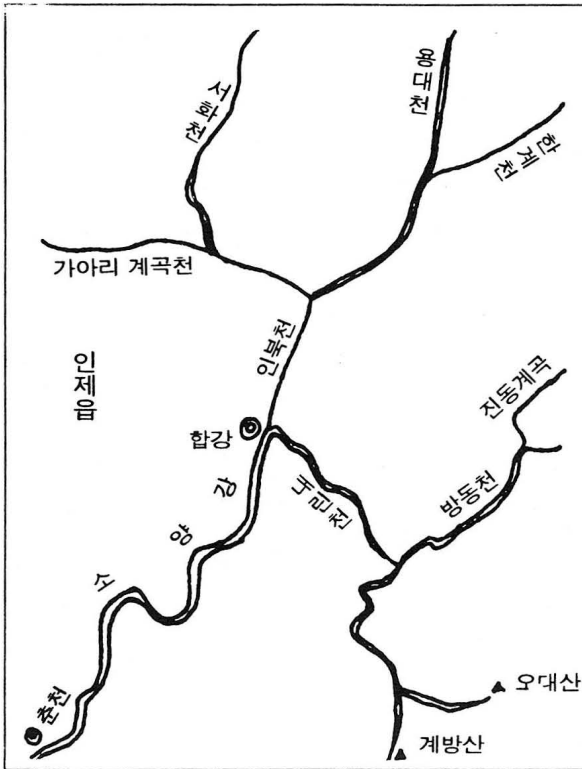
1) 지형과 지세

우리나라 동부 등뼈인 태백산맥 서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인제군은 위도 상으로 북위 $37^{\circ} 39' \sim 38^{\circ} 30'$ 이고 동경 $127^{\circ} 58' \sim 128^{\circ} 32'$ 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 넓이는 51.5km이고 남북의 길이는 72.2km이다. 산(山) 지세로는 높은 산들이 많은데 열거해 보면 연미산(戀眉山), 가조봉(可鳥峰), 추봉산(楸峰山), 설악산, 마등령, 대승령, 안산(鞍山), 한석산(寒石山), 가마봉(可馬峰), 향로봉, 대암산 가칠봉(加七峰) 등의 산이 있다. 물론 이와같은 산에는 산림이 울창하여 우리 인간사에 많은 자원을 제공해 왔으며 특히, 방태산 황장목은 뗏목으로 엮어져 소양강의 수로를 타고 광나루까지 타고 내려가 우리나라의 건축 재료로 널리 제공되어 왔다. 하천(河川)으로는 소양강을 이루는 상류 지역으로 높고 낮은 산계곡에서 발원하여 2~11m 이상의 하폭(河幅)을 이루며 흐르는 하천이 142개가 있다. 인제읍 합강리에서 합수되는 미륵천(彌勒川)의 합수머리는 기린면 방향에서 내려오는 내린천

(內麟川)과 북면방향에서 내려오는 인북천(麟北川) 물이 합하여 소를 이루고 인제읍 소재지 앞을 흘러 내려가면서 소양강을 이루게 된다. 내린천(內麟川)의 발원지는 평창군 도암면과 홍천군 내면의 경계를 이루는 오대산 계방산(桂芳山) 계곡에서 발원되고 인제군 상남면 개인산과 기린면 가칠봉, 방태산 계곡에서 발원되어 상남면과 기린면 앞을 지나 인제읍 합강리에서 인북천(麟北川) 물과 합수하는데 내린천을 이루는 발원지로부터 합강리 합수머리까지의 거리는 약 60km의 길이를 이루고 있다. 이 내린천의 특징으로는 물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대개 모든 하천은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인북천(麟北川)의 발원지는 서화면 이포리(伊布里)와 내금강지역 계곡에서 발원하여 장승리(長承里), 서희리(西希里)가전리, 후덕리, 수곡리를 지나 흘러 내려오면서 작고 작은 계곡들의 물과 합쳐지면서 서화리, 천도리, 서흥리, 백마촌, 월학리를 거쳐 가리계곡에서 내려오는 작은 물과 다시 합쳐 서저울 다리밑에서 한계리, 용대리에서 발원되어 흘러 내려오는 물과 합수하게 된다. 여기서 한계천은 한계령 밑 계곡에서 발원하여 장수대(자양밭), 하늘벽, 옥녀탕, 쇠리(민박촌)을 흘러 내려오면서 작은 계곡에서 발원하여 내려오는 물들과 합류하여 한계리에서 용대천물과 합류하게 된다. 또한 용대리에서 내려오는 물의 발원지는 진부령밑 계곡에서 발원하여 군계(고성군과 인제군 경계지역)를 지나 연화동 앞을 지나 창암(용대3리)에서 미시령계곡에서 발원하여 내려오는 물과 합수하여 진다. 이렇듯 인북천 물과 내린천 물이 합수하는 합강에는 수직과 주위 경관이 매우 좋게 자연을 이루어 이곳에 정자(합강정)를 세우게 되었고 또한 강건너 산 위에는 예전에 만호대가 세워

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음미하였다 한다.



인제군 하천약도

2) 인제 지역의 기상 <인제군지 (198) 74-82 >

강원도의 기후는 태백산맥을 두고 영동,영서지방으로 구분되어 각기 특이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영동지방은 해발 1,400m가 넘는 태백산맥이 병풍처럼 가로막고 있으며 앞은 동해에 접하고 있어 조류의 영향으로 겨울에 비교적 덜 춥고 겨울과 여름의 기온 차가 심하지 않다. 그러나 영서지방은 계절

풍 기후대에 속하여 겨울에는 대륙성 기후로 한냉·건조하며 여름에는 해안성 기후로 고온·다습해서 완전히 해양 화하는 계절풍 기후대에 속한다. 그 중에도 인제 지역은 산악이 중첩한 지방일 뿐 아니라 강원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다른 지방보다 좀 한랭한 편이며 겨울에는 -27°C 이하로 내려가는 때가 있으며 눈도 많이 내린다. 그러나 한 여름에는 기온이 $28^{\circ}\text{C} \sim 30^{\circ}\text{C}$ 로 남한 지역의 다른 지방 보다 낮은 편이다.

인제 지역은 해발 200~400m 사이에 자리잡은 완경사지이므로 남쪽 끝과 북쪽 끝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있어 내설악의 한계리와 기린면의 진동, 미산, 조경동과는 계절적인 추이가 약 15일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여튼 인제지역 기후의 특징은 기온이 낮고 해뜨는 시각이 늦고 해지는 시각이 빠르며 이상기온이 많이 나타난다. 봄과 가을에는 같은 위도의 다른지방 보다 $2\sim 4^{\circ}\text{C}$ 가 낮으며 1976년 5월에는 우박이 대량으로 쏟아진 일이 있어 식물 농작물 성장과 기후 조건에 있어서 피해를 입을 때가 있었다. 특히, 1978년 10월 28일 하오11시부터 다음 날 새벽6시까지 기온이 급강하고 돌풍이 습래하여 서화면을 제외한 군 전역의 나무가 피해를 입은 일도 있다. 최근 20년의 인제군 연평균 기온은 9.9°C , 연평균 최고 기온은 15.7°C , 연평균 최저 기온은 4.0°C 로 나왔다.

여기 인제에서 뗏목이 운행되었던 과거 1914년과 1942년 이전의 기온을 참고할 수 있도록 도표를 작성하였다.

단위 : ℃

연 도	구 분 월 별	1	2	3	4	5	6
1914년	평균기온	-7.4	-4.3	2.5	10.2	16.8	21.1
	최고기온	-0.9	1.2	7.5	15.8	22.9	26.2
	최저기온	-14.4	-10.9	-3.7	2.9	9.5	13.8
1939년 ~ 1942년	평균기온	-6.3	-3.4	2.2	9.9	15.8	20.1
	최고기온	7.0	5.7	20.0	24.3	29.5	33.2
	최저기온	-23.5	-24.5	-9.4	-5.1	4.6	7.5

연 도	구 분 월 별	7	8	9	10	11	12	평균
1914년	평균기온	24.2	24.3	18.8	12.0	4.5	-2.7	10.0
	최고기온	29.0	28.7	24.2	18.9	10.4	2.9	15.6
	최저기온	18.6	18.7	12.8	5.2	-1.3	-8.8	3.8
1939년 ~ 1942년	평균기온	23.9	24.3	18.8	12.0	4.7	-2.6	10.0
	최고기온	24.5	26.5	31.5	31.4	16.7	8.9	21.6
	최저기온	10.4	13.2	7.4	-2.0	-5.7	-12.6	-3.3

인제군의 월평균 기온

이 도표로 보아 여름의 기온이 높지 않았으며 겨울에는 추운 것으로 나타났으나 1914년과 1939년~1942년만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기후와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인제에서 가장 더웠던 기온은 1942년 7월 10일의 39℃ 였으며 최저기온은 1927년 12월 31일의 -30℃ 였다. 결빙이 되기 시작하는 최초의 날은 평균으로 10월 27일이

며 가장 빠른 결빙 일자는 1922년 10월 2일 해빙되는 최초의 날은 평균으로 4월 7일이며 가장 늦게 해빙된 것은 1919년 5월 12일 이었다.

눈이 내리는 평균 최초의 날짜는 11월 17일이며 가장 빠른 강설일은 1931년 10월 26일 가장 늦은 강설일 평균은 3월 29일 늦은 기록은 1961년 5월 4일에도 눈이 내린 일도 있다.

월별 강수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 : mm

연도 \ 월별	1	2	3	4	5	6	7
1916	145	19.9	45.3	65.3	93.8	113.9	204.9
1939~1942	-	-	37.7	64.1	172.5	107.5	144.4

연도 \ 월별	8	9	10	11	12	합 계
1916	213.9	104.0	34.5	38.0	17.3	965.3
1939~1942	118.4	47.2	89.8	44.1	17.5	843.2

△ 1939~1942년의 관측차는 평균치임.

위 도표로 보아 인제군은 3월경부터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하여 5~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며 가을철에도 강수량이 많은 편이었다.

최근 20년간의 연평균 강수량은 1,021.3mm로서 춘천 강릉 지방보다 적은 편이며 1일 최다 강수량은 1930년 7월 4일의

236.6mm 이었다. 이상과 같은 강수량과 그 시기를 보아 인제에서 뗏목을 운행할 수 있던 시기는 3월경부터가 적당한 것 같으며 끝나는 시기는 10월쯤 될 것으로 생각된다.

5. 인제 뗏목사의 과정

1) 벌목 장소 선택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그 옛날 우리 고장 인제의 삼림은 앞에서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가는 곳마다 좋은 임상(林相)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고증자에 의하면 당시의 선인들께서는 벌목 전에 수종이 좋은 삼림을 벌목할 산을 탐색하였다 한다. 그것은 벌목작업이 용이하고 운반하는데 어렵지 않는 곳을 살피기 위함이었다 한다. 다시 말해서 우선 나무가 좋고 나무를 베는데 용이하고 벌목한 나무를 하산하는데 거리가 가까우며 또한 적심하며 집목장까지 물에 띄워 운반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힘들지 않으며 인력과 비용이 적게 들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우리 인제에서는 서화(瑞和), 기린(麒麟)쪽의 산에서 벌목을 많이 하여 내린천과 서화천을 이용하여 적심으로 합강정 함수머리까지 운반하여 다시 집목하였다가 비가 많이 내려 강물이 늘면 때를 매서 서울 광나루에 까지 운반하였다 한다.

2) 벌목 인부(산판꾼)

임상이 좋은 황장목(黃腸木)을 벌목(伐木)하기 위하여 인력(人力)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 벌목을 하는 사람들을 통

상 산판꾼이라고 한다. 이들은 벌목을 전업으로 하는 직종에 종사함으로 산판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산판을 하게 되는데 그 댓가의 노임도 만만치 않았다 한다. 우리 고장 인제와 같이 뗏목생활사가 성행되어 큰 삼림이 벌목되는 지방에는 산판꾼이라는 벌목을 전업으로 하는 작업인부가 따로 있었고 인제의 삼림벌목은 이 전업 산판꾼들에 의하여 벌목이 이루어 졌다.

3) 벌목시기

산판꾼들에 의해 삼림을 벌목하는 시기는 목재이용상의 필요/지형/기후/목재운반 방법과 조건/시장상황/인부조건 등에 의하여 지방마다 같지는 않았다. 우리 고장 인제에서 예전에 이루어졌던 경우는 벌목수종이 모두 소나무였고 또한 수로를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강물이 늘어나는 시기를 택하여야 하는 제약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벌목시기는 비가 많이와 강물이 불어나는 여름철 이전 계절에 이루어 졌었다.

그러므로 인제의 벌목시기는 음력 10월에서 시작하여 다음 해 2월까지가 상례로 되어 있어 뗏목으로 운목되는 소나무는 반드시 이 시기에 벌목된다. 이같은 이유는 하산(下山) 작업과 운목작업이 하나이고 둘째는 때를 띄우는 시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겨울철에 벌목을 하면 적설기를 이용한 하산작업이 쉬울 뿐 아니라 하산된 운목을 때를 만드는 장소까지 운반하기 쉽기 때문이며 또 때를 연중(年中) 계속 띄우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는 수량이 적어 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강이 얼어 띄우지 못하므로 해빙기(解氷期) 이후 강물이 불어나야 때를 띄울 수 있기에 벌목은 뗏목을 띄우는 기간에 맞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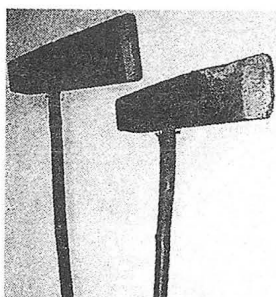
기 위하여 뗏목을 띄우기 이전 동절에 하였다.

4) 벌목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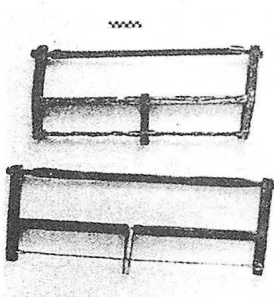
현대에는 문명이 발달하여 아무리 큰 나무를 자르는데도 그리 힘들지 않고 자를 수 있는 기계톱이 있다. 기계톱은 전력을 이용하여 사용하게 됨으로 아주 편리하고 힘이 들지 않다. 그러나 그 옛날 산판이 이루어져 나무를 자르는데는 꼭 사람의 힘을 가하여 톱질을 하므로써 벌목이 이루어 졌다.

톱이란 “끊침” 또는 “거도”라고도 한다. 톱에는 폭이 넓은 톱과 폭이 좁은 톱이 있고 벌목용은 폭이 좁은 것을 썼다. 톱은 날이 서지 않으면 나무가 잘 끊어지지 않으므로 톱의 날을 세우기 위하여 강철로 된 날세우기 기구인 “줄”을 가지고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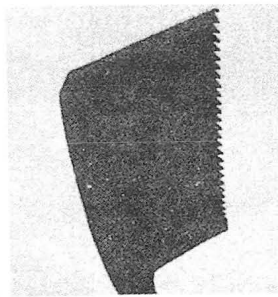
톱이 잘 들지 않으면 벌목 작업을 중단하고 줄로 톱날을 세워 다시 작업을 하였다. 산판꾼들은 좋은 톱으로 한 사람이 평균 2개 이상씩 가지고 다녔다. 또한 산판꾼들은 벌목을 하는데 큰 도끼를 사용하였다. 도끼로는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는데 사용하였고 넘어뜨린 나무의 가지를 치는데도 사용하였다.



도 끼



소 형 톱



거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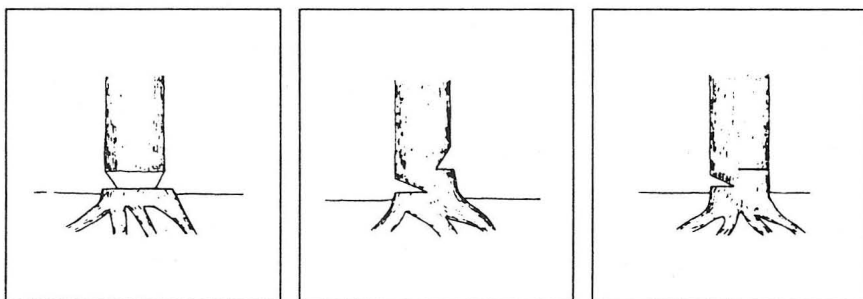
5) 벌목방법

산관꾼들에 의한 벌목 방법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나무를 잘랐다.

첫번째는, 나무가 서 있는 지형의 아래쪽으로부터 도끼로 나무를 돌아가면서 찍어서 벌목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두번째는, 나무가 서 있는 지형의 아래쪽을 먼저 좀깊이 도끼로 찍고 다음은 반대 방향으로 아래쪽의 찍은 데보다 조금 높게 찍어 벌목을 하는 방법이 있다.

세번째로는, 지형이 낮은 방향으로 도끼를 사용하여 나무를 찍고 다음 반대 방향으로 먼저 도끼로 찍은 곳보다 위로 톱질을 하여 벌목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① 도끼에 의한 벌목 ② 도끼에 의한 벌목 ③ 도끼에 의한 벌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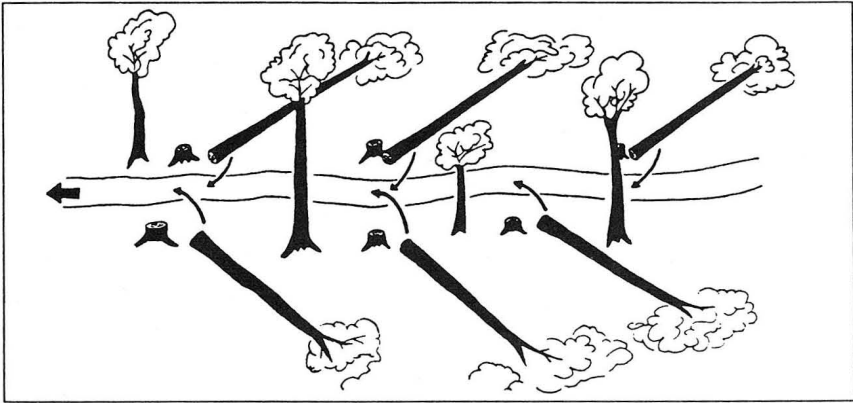
벌목 부위는 용재로서 가치가 있는 최대한 낮은 데를 택하고 작업하기 좋은 위치, 지표와 수간(樹幹)과의 수직관계, 어

디로 넘어뜨릴까 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벌목한다. 벌목은 반드시 양쪽, 즉 정반대 방향에서 해 들어가며 이 때 나무를 넘기려는 방향에서 먼저 벌목 작업을 하는데 이 방향에서의 벌목은 나무의 직경 정도까지 끊되 끊는 부위는 가장 낮은 곳을 끊는다. 이것은 톱으로 끊던 도끼로 끊던지 같다. 가장 낮은 곳을 먼저 반쯤 끊어 놓고 다음은 그 정반대 방향에서 벌목 작업을 하되 반드시 먼저 끊어 놓은 부위보다 높은 부위를 끊는다. 이렇게 끊으면 나무가 넘어질 때 높이 끊는 쪽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낮게 끊는 쪽으로 넘어지게 된다. 선 후 벌목의 벌목 부위 수평차이는 나무의 수세(樹勢), 지표면과의 수직성에 따라 수평성의 차이, 간격을 결정한다. 즉 나무가 넘기려는 곳으로 약간 기울어 있다던가 그쪽 수세가 강하여 나무의 중량이 그쪽에 있다던가 할 때에는 먼저 끊은 부위와 나중에 끊은 부위의 수평차이를 작게 하여도 쉽게 넘기려는 방향으로 넘어간다. 지표와 수세가 수직으로 되어 있거나 전자와 반대로 되어 있을 때에는 두 곳 벌목의 수평차를 많이 두어야 한다. 벌목을 톱으로 할 때는 나무의 손실이 작고 도끼로 하면 톱과 같이 직선 벌목이 불가능하여 엇비슷이 끊어가기 때문에 나무의 손실이 있다. 두곳의 벌목 작업이 거의 되면 적당한 때에 톱이나 도끼를 빼고 높이 끊는 곳에서 낮게 끊는 곳을 향하여 사람이 나무를 밀어 넘기기도 한다. 나무가 넘어가면 톱이나 도끼로 가지치기를 한다. 가지치기를 전 수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용재로 사용할 부분만 한다. 가지치기를 할 때는 되도록 원줄기 가까이를 자르되 원줄기에 손상이 가지 않게 끊고 가지치기를 한 뒤에는 때를 짜기 위한 길이인 20척을 재어 끊는다. 용재로 쓸 부분을 잘라내고 남는 윗동강이는 용재로서 가치가 없으므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그대

로 버려두었다가 다시 자른다.

6) 벌목수령(伐木樹齡)

황장목(黃腸木)이 많았던 인제 지방에서는 나무의 수령에 따라 벌목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굵고 길은 쪽쪽 뺀 소나무를 대부분 골라서 벌목을 하였다. 그래야 재목감이 좋고 또한 나무를 운반하기 쉽고 또한 뗏목을 매기 쉽다. 인제 지방에서 벌목을 하여 뗏목을 매어 나갔던 예전의 소나무는 대개 황장목으로서 나무의 길이는 20척이 원칙이었고 나무끝 즉 말구(末口)의 직경은 5촌(5寸) 이상이였다. 이러한 조건으로 나무의 크기는 목축으로 나무의 조건이 구비되었다고 여겨질 때 비로소 벌목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나무의 길이를 재어 자르는데는 벌목하는 사람이 대략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톱의 길이를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잘라 쓰러트리면 우선 가지를 다듬고 톱으로 나무길이를 재어 20척이 되게 말구를 자르게 된다. 벌목에는 개벌(皆伐)과 간벌(間伐)이 있는데 개벌이란 그 주위의 나무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베는 것을 말하였으며 간벌이란 좋은 나무 즉, 용도에 맞는 나무만을 골라서 베는 것을 말한다. 그 옛날 우리 인제 지방에서는 주로 좋은 황장목(黃腸木)을 많이 골라 벌목을 하였다 한다. 또한 벌목을 하는데는 산의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벌목을 한다. 그 이유는 나무의 도복(倒伏)과 베어 놓은 나무의 집목 편의를 고려하여서이다.



집재를 위한 벌목방향

6. 벌목작업 (伐木作業)

1) 입산(入山)

먼저 벌목장소로 선택하여 놓은 산으로 목상(木商)은 벌목 인부(또는 산판꾼)를 동원하여 입산을 하게 된다. 산으로 입산을 할 때마다 목상(木商)은 산치성(山致誠)을 올릴 제수물(祭需物)을 준비하여 가지고 입산을 하게 된다. 또한 직업적인 산판꾼들은 항상 본인들이 갖고 다니는 톱과 도끼 등을 주루목(홀치기)에 담아 등에 지고 입산을 하게 된다. 또한 산판꾼들은 약간의 먹을 것과 담배 또한 옷가지를 충분히 준비하여 입산을 하게 된다.

2) 산치성(山致誠)

목상(木商)은 벌목꾼들과 산판을 할 장소에 입산을 하게되

먼 먼저 벌목을 하기전에 산치성(山致誠) 또는 산신제(山神祭)를 올린다. 이는 산신에 대한 토속적인 신앙 행사로서 산판의 주인인 목상이 주관하여 지내게 된다. 주된 산치성이 올리는 목적은 많은 인부가 장기간 동안 벌목을 하면서 산판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동안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산판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신에게 비는 기원제이다. 산치성 장소는 일정한 곳이 없고 산판이 이루어지는 산의 아래로써 넓은 터를 잡아 산 위쪽을 향하여 제수물(祭需物)을 차려 놓고 지낸다. 제주인 목상이 준비하는 제물은 일정하지 않으나 예전에 종사하였던 노인네의 고증에 의하면 대략 기본적으로 돼지머리를 육류로 사용하였고 또한 막걸리를 사용하였으며 과일로는 사과, 배 등을 썼으며 밥과 떡을 차려놓고 지냈다 한다. 먼저 목상이 제주가 되어 헌작을 하여 술잔을 올리고 축원(祝願)을 빌었다 한다. 이 때 축원(祝願)은 축문(祝文)을 외는 것이 아니고 즉석에서 말로써 “이곳 산에서 벌목을 하니 작업이 끝날 때까지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산신께서 응감(應感)하사 큰 이익이 되게 살피 달라”는 내용의 원(願)을 구술한다. 벌목은 기구를 쓰는 탓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험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큰 나무들이 넘어지는데 오는 위험부담도 있어 벌목을 주관하는 사람이나 작업자가 다함께 재해에 신경을 쓴다.

축원문에서는 일정한 양식이 없어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 긴 축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짧은 축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일반적으로 치성제 뒤에는 소지를 하지 않는다. 산치성이 끝나면 제단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소나무를 한 그루 베어 넘긴다. 이때는 통상 톱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끼로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는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지 않고 벌

목꾼 가운데에서 가장 노련한 벌목꾼이 혼자서 한다.

거수(巨樹), 거목(巨木)을 벌목할 때 그 동티를 막는다는 속신에서 첫 도끼질을 하기 전에 벌목하는 사람이 나무를 향하여 “어명(御命)이요”라고 외쳐 왕의 어명으로 베는 것이니 베는 사람에게 동티를 내지 말라는 예방을 하고 도끼질을 하는 습속이 있으나 인제의 벌목에는 아무 말없이 도끼질을 한다. 이렇게 하여 처음 벤 나무가 넘어지면 모였던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고 그 자리에서 제수를 내려 음복과 주연이 베풀어진다.



산 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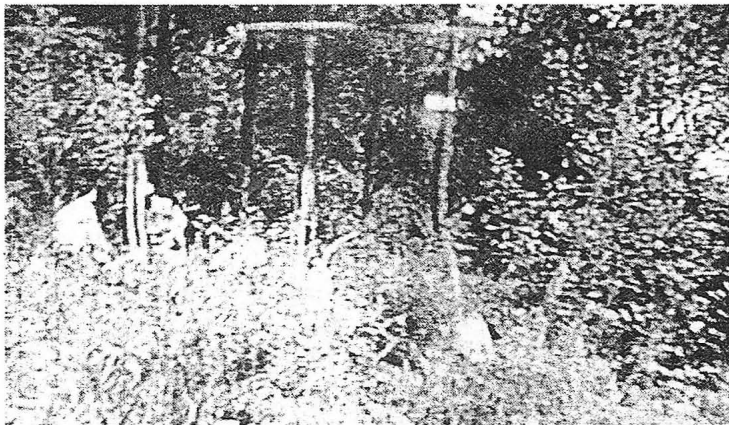


산치성 후의 첫 벌목(도끼만 사용)

3) 벌목(伐木)

산치성이 다 끝나면 본격적으로 벌목을 하게 된다. 벌목꾼들은 미리 준비한 톱과 도끼로 산록의 밑에서부터 흠어져서 나무를 넘어뜨리고 가지를 치면서 작업을 한다. 작업을 하다가 톱이나 도끼가 날이 무디어 잘들지 않으면 톱은 “줄”로서 날을 세워 사용하고 도끼는 “숫돌”에 갈아 다시 사용한다. 산판을 하는 벌목꾼들의 직업이 벌목하는 것이므로 항상 톱과 도끼 또한 줄과 숫돌은 필수적으로 주루목(홀치기)에 담아 가지고 다닌다. 작업을 한참하다가 힘이 들 때에는 주위에 모여 쉬었다가 물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는 다시 시작하게 된다. 나무를 베어 넘어뜨릴 때는 앞에서 벌목방법에 서술한 바와 같이 항상 나무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쪽의 하단을 먼저 톱질

이나 도끼로 찍은 다음 다시 반대쪽의 조금 높은 곳을 톱이나 도끼를 사용하여 넘어뜨리는데 이때 나무가 넘어간다고 소리를 지른다. 이런 행위는 위험을 피하는 수단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산밑에서 위에까지 베어 올라가면서 산판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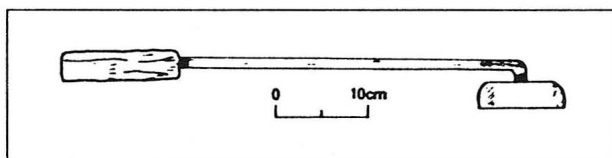
벌 목



마이산에서의 벌목광경(1930년대)

4) 표 지(標識)

벌목한 뒤에는 벌목한 나무가 누구의 것이라는 표지(標識)작업을 한다. 근년에는 벌목허가 관청에서 허가된 수량만을 벌목시키기 위하여 철로 된 표지인 나무마다에 표지하여 운반과정에서 누가 보아도 허가를 얻어 벌목된 나무라는 것을 식별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나 옛날에는 목상마다 자기 나뭇의 표지가 되는 ‘인방망이’를 가지고 있어 쇠로 된 인방망이로 벌목한 나무마다 한 그루도 빠지 않고 도장을 찍어 놓는다. 벌목장에는 밤에 나무를 지키기 위해 따로 숙직하는 것이 아니어서 혹 외인이 벌목한 나무를 가지고 갔을 경우 이 방망이의 표지에 의하여 자기 나무라는 것을 알아서 찾을 수 있고 더욱이 인제에서 때로 운반할 경우에도 운행중 강 위에서 때가 흐트러져 나무가 흘러내려 갔을 때 인방망이의 표지에 의하여 강 연변 부락에서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은 때를 띄우다가 때가 흐트러졌을 경우에도 그러하고 아직 때를 짜지 아니하고 잡목만 해 두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나무가 흘러갔을 때도 이 인방망이의 표지에 의하여 자기 나무를 찾는다. 벌채 허가관청의 인방망이 표지는 같은 것을 쓰나 목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방망이는 사람에 따라 그 표지가 다르므로 자기 나무의 식별이 명확하게 된다. 따라서 벌목 후의 인방망이 찍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인방망이는 쇠막대 끝에 직경 5cm 내외의 쇠로 양각된 도장으로 전체 길이는 40cm 내외며 나무에 찍기 좋게 만들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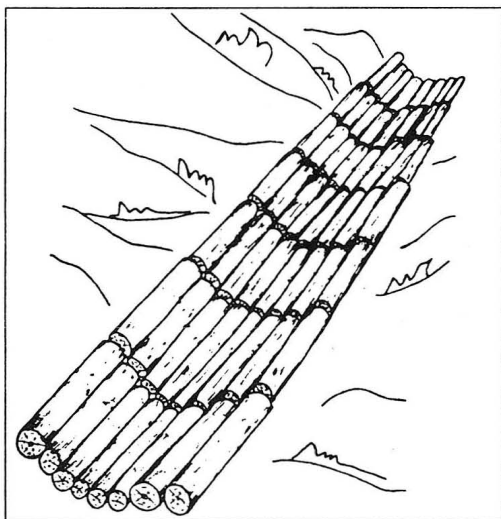
인 방 망 이

7. 운목작업 (運木作業)

1) 하산(下山)

벌목꾼들이 산판 작업을 모두 마치게 되면 나무를 모두 산 아래로 내려 집목장까지 운목하여 쌓아두게 된다. 우리 고장 인제 지방의 산지세를 보아 급경사를 대부분 이루고 있는 산들이기에 나무를 하산할 때에는 “통길”을 만들어 하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왔다. 통길을 만들어 사용하면 나무를 베어가지를 친 것들에 걸리지 않고 산밑에까지 한 번에 대부분 내려보낼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다. 이러한 방법의 하산은 옛날 선인들의 지혜로 나무를 굴러 잘 내려갈 수 있는 곳에서는 일일이 나무들이 산 아래로 굴러 하산시키기도 하였다.

2) 통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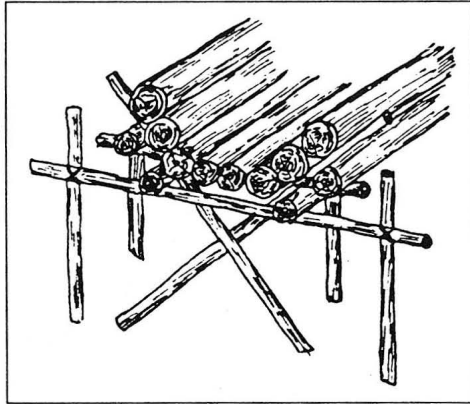
통 길

통길은 자른 나무를 산 아래로 하산시키고자 하는 특수한 방법인 것이다. 통길은 산곡(山谷)에 만든다. 경사도는 나무가 충분히 미끄러져 내려갈 만 하여야 하되 산곡의 굴곡이 심하면 미끄러지던 나무가 그 활강세 때문에 통길에서 벗어 나가던가 내려가지 못하고 막힐 수 있으므로 통길의 지세는 우선 이러한 조건들을 감안한 뒤에 목재 활강에 알맞은 곳에 만든다. 통길은 목재로 둥근 관을 반으로 자른 모양으로 산곡을 따라 만든다. 통길의 폭은 나무가 흘러내릴 수 있을 정도이면 되고 길이는 벌목 작업장에 따라 산정의 나무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 거리인 산정 가까이 까지 올라간다. 제작 방법은 맨 밑에 나무가 미끄러져 내리지 않게 가로 부목(敷木)을 대고 가운데 가는 나무를 계곡 따라 길이로 놓으며 가장자리에는 가운데 놓은 나무보다 굵은 나무를 놓는다. 이렇게 되면 계곡 자체가 우묵한데다가 가운데 가는 나무를 놓고 가장자리에 굵은 나무를 놓았으므로 그 가운데 공간은 둥글게 되고 활강시키는 나무가 튕겨 나오지 않고 잘 미끄러져 내려가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곡을 따라 세로로만 짜가는 것이 아니고 도중 여러 곳에 통길 나무가 튕겨지지 않게 가로의 부목을 설치한다. 계곡을 따라 세로로 놓은 나무의 길이가 꼭 같으면 튕겨 나오기 쉬우므로 길고 짧은 나무를 섞어서 짜이도록 한다. 통길은 목조활로(木造滑路)라고도 하는 것으로 삼림이 커서 작업이 여러 해 걸리면 상설 통길을 만들기도 하나 우리 고장 인제의 경우는 상설 통길은 없고 목재의 량과 운반기일이 짧고하여 그때그때 만들어 임시 통길을 사용하였다 한다.

통길을 통하여 삼림내의 목재를 다 하산시키고 나면 맨 위쪽에서부터 이 통길에 사용하였던 나무를 풀어 차례로 통길을 통하여 내려보내고 나면 통길은 저절로 없어지고 목재의

하산은 다 끝난다.

통길은 원목을 사용하여 만드는데 나무가 미끄러져 내리는 부분, 즉 바닥을 크기가 같은 원목으로 평면을 만들고 그 가장 자리에 바닥 원목보다 훨씬 큰 원목으로 활강시키는 나무가 튕겨지지 못하게 테를 짜는 방식과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반원형의 통길은 반원형의 중심부 위에 직경이 가장 작은 원목을 놓고 그것을 기점으로 좌우에 꼭 같은 직경의 나무를 놓되 중심에서 양쪽 밖으로 나갈수록 나무의 직경은 점점 커가야 하고 양쪽 맨 끝의 테는 미끄러져 내리는 나무가 튕겨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직경이 두드러지게 큰 것으로 짠다. 이런 방식으로 평지에 그대로 배열하여도 원목의 굽기 때문에 저절로 가운데 반원형의 공간이 생기지만 지세가 계곡일 때는 지세 자체가 이미 반원형으로 되어진 곳이 많으므로 그러한 지세에서 이런 식으로 통길을 짜면 활강시키는 나무가 밖으로 튕겨지지 아니하고 반원형의 가장 낮은 중심부를 따라 잘 활강하여 내려간다. 통길은 지형에 따라 땅에 깔아서 만들기도 하고 잔교(棧橋)로 만들기도 하나 우리 고장 인제에서는 예전에 땅에다 원목을 깔아서 통길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한다. 이것은 잔교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보다 작업이 복잡하고 시간이 더 걸리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었다 한다. 그러나 우리 인제 지방에서 잔교를 전혀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것은 지형세에 따라 땅이 움푹하게 깊이 파인 곳이나 바위를 비껴가야만 하는 곳이나 언덕과 언덕사이를 필연적으로 움푹해야 할 조건이 있는 형편에는 잔교를 필연적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곳에는 군데군데 잔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고 한다. 잔교는 다리를 만드는 원리와 같은 것으로 밑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반원형의 잔교를 짠다.



잔교의 구조

통길의 구배(句配)와 경사도는 활강시킬 목재의 크기, 활로면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활강시키려는 목재가 도중에 구배가 약하다던가 경사가 약하여 걸리는 일이 없을 정도로 취하고 지형에 따라 통길의 군데군데에 중간토장(中間土場)이라는 것도 만든다. 이 중간토장이라는 것은 지형상 정상에서 산록까지 한 번에 나무를 활강시킬 수 없을 때 도중에 산정에서 내려오는 원목이 모일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 중간토장은 주로 구배와 경사도의 문제 때문에 필요하며 이곳에 와서 머무른 목재를 다시 다음 통길에 넣어 활강시킨다.

그러나 인제의 삼림 통길에는 이중간 토장이 거의 없다. 통길의 마지막 종점을 토장이라하여 통길을 통하여 내려온 나무를 여기에 쌓았다가 다음 운반 수단에 의하여 운목된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 벌목을 하고 벌목한 나무를 통길을 사용하여 산아래로 내려 쌓아 두는 곳을 토장이라고 하며 이후에는 집목장(集木場)이라고 한다.

3) 소에 의한 운목

하산한 나무를 토장에 쌓았다가 적심장까지 운반하게 되는 데 이것을 운목이라고 하며 운목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지금과 같이 육로가 발달하여 차에다 듬뿍 싣고 운반을 하는 시대 이전에는 소를 이용하여 운목하는 방법과 목도를 적심장까지 운목하는 방법이 있었다. 우리 인제 지방의 집하장은 합강(合江)의 합수머리에 있었다.

소를 이용하여 운목하는 방법은 우선 소가 원목을 끌 수 있게 길을 대충 평평하게 고르어 다닐 수 있도록 작업을 한다. 즉, 노면이 파인데는 돌이나 흙을 메우고 울퉁불퉁 한데는 깎아내리고 바위나 돌이 있는 것은 치우고 나무가 있는 것은 베어 버리고 하여 길을 평탄하게 한다. 다음은 나무를 소가 쓸 수 있게 원목에 구멍을 뚫는다. 원목 밑동강쪽 절단부의 가장 가까운 곳에 도끼로 구멍을 뚫어 소가 끄는 밧줄을 꿰 수 있게 만든다. 구멍의 크기는 밧줄을 꿰 수 있을 정도면 된다. 불필요하게 크게 뚫으면 밧줄을 꿰기는 쉬우나 원목의 손상이 크기 때문에 밧줄이 들어갈 정도가 한계이다. 밧줄은 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산에 나는 칩줄을 사용한다. 인제 지방의 칩에는 드렁칩과 버덩칩의 두 종류가 있으나 원목에 꿰어 소가 운목을 할 때에는 드렁칩을 많이 사용하였다. 즉 이 드렁칩의 칩줄을 여러개 베어 이것을 하나로 합치어 칩 밧줄을 만들고 나무에 꿰어 그 줄의 양쪽 끝을 소의 목에 걸어 운목한다. 이때에 구멍을 뚫는 것을 “코뚫이”를 한다고 한다. 칩줄 이외의 피나무 꺾질로 밧줄을 꼬아 만들어 사용하였고 느릅나무 꺾질 또는 가지순으로 탱개를 틀어 사용하였다 한다.

4) 목도에 의한 운목

목도는 사람의 힘으로 운목하는 작업으로 여기에는 필요한 용구가 있다. 목도채는 길이 2m가 좀 넘고 굵기는 직경 15cm 정도의 각목이 아닌 둥근 나무를 썼다.

수종으로는 고로쇠나무, 소나무, 사시나무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 목도채는 나무가 생긴대로 원통으로 되어 있으나 양쪽 끝의 사람이 메는 부분은 메는 사람의 어깨에 맞도록 양쪽을 약간씩 깎은 것도 있다. 목도는 목도에 의하여 큰 중량을 운반하므로 목도채가 탄력성이 없는 나무면 부러지기 쉬우므로 고로쇠나무나 사시나무 등 탄력성이 강한 목질의 나무를 사용하였다. 목도줄은 목도 끈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직경 5cm 내외의 밧줄로 길이는 두겹으로 하여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목에 걸어 그 원목이 땅에서 15cm 정도 들릴 길이된다. 키가 작은 사람과 큰 사람에 따라 목도줄의 길이를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목도 줄로는 피나무 껍질이나 삼껍질을 썼다. 피나무 껍질은 산에서 살아있는 피나무의 껍질을 벗겨 물에 담가서 누굴누굴하게 한 뒤에 이를 밧줄로 꼬아 직경 5cm정도 되게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 피나무 껍질은 매우 질겨서 무거운 중량에 잘 견딘다. 삼껍질은 인제 지역에서는 “조락”이라고도 하는데 이 껍질로 밧줄을 꼬아 만들어 사용하였다. 목도질은 원목의 운목뿐만 아니라 한 두사람의 힘으로 운반하기 힘든 것을 옮기는데도 사용되었다. 목도질은 4목도, 6목도, 8목도가 있다. 운반하려는 원목의 크기, 중량에 따라 목도질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2목도 있다. 그 목도는 원목의 뒷 끝을 땅에 닿게 하고 원목의 앞끝에서 두 사람이 목도질을 하여 걸어가면 앞

끝은 땅에서 들렸으나 뒤끝은 땅에 닿은 채 끌려서 운목된다. 4목도는 4명의 목도꾼이 2조로 나뉘어 하고 6목도는 6명의 목도꾼이 3조로 나뉘어 하며 8목도는 8명의 목도꾼이 4조로 나뉘어 하는 목도이다. 신장이 비슷한 사람끼리 한조가 되며 6목도나 8목도의 경우는 키가 맞지 않으면 중량이 고루 실리게 목도 줄을 조절을 한다. 조와 조의 간격은 등분하여 고르게 한다.

목도 줄을 감고 목도채를 등에 올려놓으면 전 인원이 함께 일어서기 위하여 앞에서 선소리를 부른다. 그 선소리에 따라서 동시에 일어서고 선소리에 따라서 발을 맞추어 행진하며 운목을 한다. 발이 맞지 않으면 운반물의 요동이 심하여 운반하며 행진하기가 어렵다. 운목을 하다가 도중에서 쉰다던가 목적지에 다 운반하여 원목을 내려 놓을 때도 선소리 구령에 맞추어 일시에 앞는다.

목도질을 내려 놓을때도 선소리 구령에 맞추어 일시에 앞는다.

목도질을 할 때에는 반듯이 목도 소리를 한다. 목도 소리는 앞조가 부르고 나면 뒷조가 그대로 복창을 하게 되어있고 이것은 피로를 풀고 능률을 올리려는 일반 노동요와는 달리 걸음걸이를 맞추려는데 있다.

걸음걸이가 맞지 않으면 운반하려는 원목이 흔들려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자칫하면 몸을 다치기가 쉽다.



목도꾼 재현 사진

5) 적심운목

적심은 목도나 소로 잡목장까지 운목한 나무를 물에 띄워 떼를 짜는 마지막 집목장까지 수로로 운목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수량이 많으면 유실될 염려가 있고 수량이 너무 적으면 띄울 수가 없으므로 수량이 나무 하나가 또내려가기 알맞을 때 실시한다. 인제에서는 서화(瑞和)나 기린(麒麟)쪽에서 적심을 하여 합강정 밑까지 내려보내면 여기서 떠내려온 나무를 집목하였다가 떼를 짠다. 서화나 내린천의 수량이 떼를 띄울 정도가 되면 떼로 보내나 이쪽 두 강이 떼를 띄울 정도의 수량이 되지 못하면 원목 하나 하나를 물에 띄우는 적심의 방법을 이용한다. 원목을 물에 띄워 적심을 하면 원목은 수

세를 따라 하류로 흘러간다. 적심을 시작하면 적심을 한 나무를 집목하는 사람이 갈고리를 들고 합강정 밑 합강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속에서 원목을 갈고리로 찍어서 끌어낸다.

적심은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이 많으면 하지 않으나 적심 도중에 급수(急水)가 내려 적심한 원목이 유실되면 적심하던 사람들이 하류로 내려가 유실된 원목을 찾는다. 이 작업을 ‘거둠’이라 하고 거둠이 낀 원목은 합강정까지 끌고 와서 떼를 찐다. 이 거둠을 할 때에는 ‘인방망이’의 표지에 의하여 원목의 소유지를 식별하고 자기 나무만 찾아온다.

적심한 원목이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 가다가 바위나 지표, 또는 물 속의 장애물에 걸려 흘러내리지 않고 한 지점에 고정되는 수가 있다. 한 나무가 걸려 흐르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흘러내려 오던 나무는 모두 여기에 걸려 하나의 더미를 이룬다. 더미가 생기게 되면 운목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이것을 와해시켜 원목이 떠내려가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이 작업을 ‘데미떨이’ 또는 ‘데미치기’라고 한다. 소수의 원목이 더미를 이루고 있는 것을 빨리 발견하면 데미치기 하기가 쉬우나 많은 원목이 한데 엉켜 더미를 이루고 있을 때는 위험이 따르는 작업이 된다.

데미떨이는 숙련을 요하는 일로 그 기술자는 임금도 일반 인부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원목이 한 두 개 걸려 있을 때는 걸린 부위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따라서 손쉽게 데미를 칠 원목이 한 두 개 걸려 있을 때는 걸린 부위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따라서 손쉽게 데미를 칠 수 있으나 많을 때는 수 백본의 원목이 물의 상태에 따라 질서없이 엉키게 되므로 작업이 쉽지 아니하다. 이 데미떨이를 하는 사람을 ‘철떡꾼’이라고 부른다. 철떡꾼은 지렛대 하나를 들고 이 지렛대로 데미를 친다.

데미는 육지에서 칠 때도 있고 물 속에서 칠 때도 있으며 때로는 원목 위에 올라가서 칠 때도 있다. 데미를 쳐서 나무가 제대로 흘러가게 하는 작업을 ‘데미치기’라고도 한다.

데미떨이를 하여 원목이 무너져 내리면 철떡꾼은 나무보다 한발자욱 앞서 피신하여 안전을 도모한다. 적심한 원목의 수와 합강에서 건어올린 원목의 수가 맞아야 하고 적심이 끝났는데 합강에서 건어올린 원목의 수가 적심때의 수보다 적으면 철떡꾼은 지렛대를 들고 합강에서 적심하던 장송의 강변을 오르내리며 걸려있는 나무를 찾아 데미떨이를 한다. 데미떨이를 하는 철떡꾼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 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다. 벌목된 원목은 통길을 통하여 하산시켜 소나 사람의 목도에 의하여 강변까지 운목하여 적심을 통하여 때를 엮을 합강까지 운목되어 여기서 때를 만들어 목적지까지 때로 운목된다.

6) 데미떨이 작업

인제의 서화·한계리·기린의 산에서 높은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벌목을 하여 하산시켜 계곡토장에 쌓아 두었던 원목은 이듬해 봄철이 되면 비가와 계곡의 물이 약간 늘면 원목들을 물에 띄워 합강리 합강 합수머리까지 적심을 하여 운반하여 와 집목을 하였다.

이때 내린천이나 인북천으로 적심을 할 때 원목이 떠 내려오면서 바위나 물가장자리 장애물에 걸려 떠 내려오지 못하고 고정으로 원목들이 데미를 이루는 일도 있었다. 이럴때면 나무막대의 지렛대를 가지고 일일이 걸린 나무를 밀어 떠내려가도록 빨리 처리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 작업을 “데미떨

이” 또는 “데미치기”라고 하였다. 또한 이 데미치기를 하는 사람들은 ‘철떡꾼’이라고 불렸다. 이 작업을 하였던 ‘철떡꾼’들은 기술을 익혀 원목을 떼내려 보내고는 계곡의 물가를 오르내리면서 한 두 개의 원목이 걸려 있을 때 재빨리 풀어 떼내려 오도록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작업을 하였다 한다. 그 이유는 빨리 돌보지 않으면 한 두 개의 원목이 걸려 그 다음부터 떼내려 오는 나무마다 또 걸리게 되어 데미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에는 걸린 데미를 풀어 떼내려 보는데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 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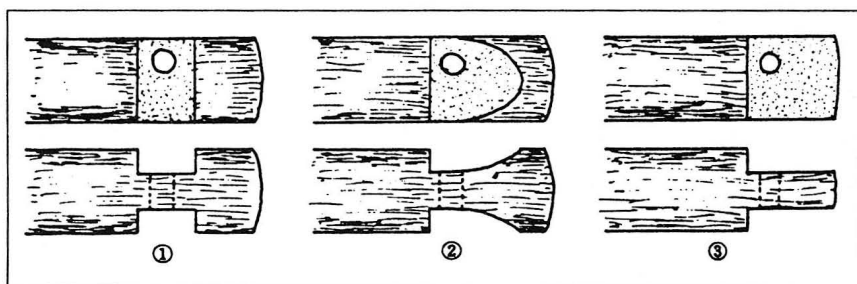
데미떨이를하여 원목이 무너지고 풀어 내리면 작업을 하던 철떡꾼들은 안전하게 나무데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위험을 피하며 안전을 찾았다. 토장에서 적심을하여 떼내려 보낸 원목은 합강정 합수머리에서 건어 올리게 되는데 이때 떼내려 보낸 숫자와 건어올린 숫자가 맞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모자라는 때가 많았다 한다. 이럴때면 철떡꾼은 다시 토장까지 오르내리며 원목을 찾아 다시 떼내려 보내게 하였다. 데미떨이를 하는 철떡꾼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 업을 전업으로 하였다 한다.

7) 합강의 뗏목 조립과 구조

인제 합강리 합강 합수머리에는 원목의 집하장이 있었다.

서화·한계·기린쪽의 산에서 벌목된 나무들을 운목하여 이곳 합강리 합강 합수머리에 집하하였다가 여름철이 되면 비가와 강물이 늘면 뗏목을 매여 서울 강나루까지 수로로 운반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뗏목조립과 구조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예전 인제 뗏목이 성행되었던 때 합강 합수머리에 집하되었던 원목들의 뗏목을 엮는 방법은 원목 양쪽 끝에 도끼와 끌을 이용하여 구멍을 먼저 뚫는다. 뚫은 구멍은 원목의 굵기에 따라 크고 작게 뚫었으며 이 구멍에다 막줄이나 칩같은 끈으로 막대기를 가로대고 엮어 매었다. 또한 뗏목 종류로서는 지름이 60~90cm, 길이가 600cm 이상되는 통나무를 엮은 것을 궁궐떼라 하며 지름이 15~16cm 길이, 360~360cm의 통나무를 엮은 것을 가재목떼라 하고 통나무를 네모기둥으로 제재한 나무를 묶은 것은 편목떼라 한다. 그보다 더 가는 것을 엮은 화목떼, 서까래떼가 있는데 엮는 방법은 모두 같았다.



통나무에 구멍뚫는 방법

인제 합강리에서 예전에 이루어졌던 뗏목은 모두 5동가리로 엮어져 한바닥을 이루는 뗏목이었는데 맨 앞동가리의 수량이 대략 35개 정도로 많고 그다음 33개 정도 셋째동가리가 31개정도 넷째동가리가 29개 정도 다섯째 동가리가 27개 정도로 엮어져 전체의 뗏목 모양은 역류선형(逆流線型)이었다. 그러나 강물의 양이나 여러 조건에 따라 나무의 수량은 달리 엮어졌었다. 이렇게 다섯동가리를 한바닥으로 뗏목을 엮을 때 첫째 동가리와 둘째 동가리를 연결할때는 앞동가리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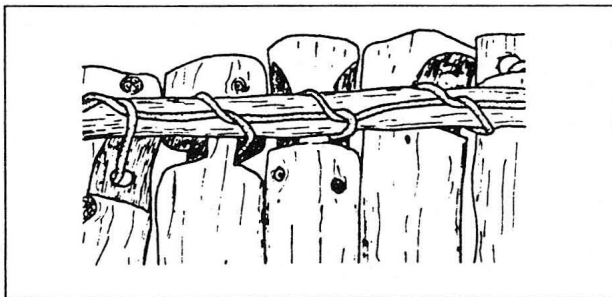
유롭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유있게 연결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앞동가리에 앞사공이 올라타서 뗏목을 운행할 때 자유롭게 운전을 하여 방향을 잡아 가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둘째 동가리부터 다섯째 동가리까지는 단단하게 연결시켜 장거리를 뗏목이 운행할 때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바닥을 이룬 인제 합강뗏목의 양은 요즈음 큰 차로 두 차분은 충분히 되었다.

또한 앞동가리의 앞머리를 묶을때에는 통나무의 뿌리쪽이 앞으로 가고 위쪽이 뒤로가게 늘어놓고 이미 뚫어 놓은 통나무의 구멍에 첩끈을 꿰어 묶는데 통나무가 흠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위에 ‘등테’를 대고 한구멍에서 다음 구멍으로 첩끈을 동여매는 사이 등테에 한 번씩 말아 묶은후 옆의 통나무 구멍에 꿰기 때문에 아주 든든하다. 이때에 쓰는 첩은 오래된 드렁첩을 물에 충분히 불렀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질겼다. 이러한 드렁첩은 우리 인제지방에 특히 많이 자생하였으며 또한 여러 가지로 우리 생활사에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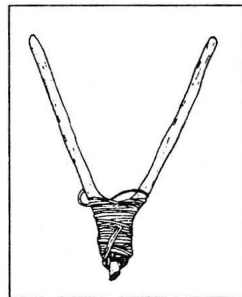
뗏목의 원목을 엮는데 움직이지 않게 원목위에다 엮어 엮게 되는 등테는 ‘등테가지’라고도 하는데 잘부러지지 않는 튼튼한 참나무를 사용하였으며 굵기는 6~7cm 정도이며 길이는 앞머리의 원목위에 대어 모두 묶을 수 있도록 5~9cm가 되는 것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등테는 각 동가리의 앞머리와 뒤쪽을 묶을 때 모두 사용하였으며 드렁첩을 꼬아서 만든 굵은 첩끈으로 앞머리의 등테 오른쪽 끝과 통나무를 한데 묶고 또 끈을 늘려 뒷등테 왼쪽끝과 그곳의 통나무끝을 한데 묶은 후 다시 앞머리 왼쪽끝과 뒤쪽의 오른쪽 끝을 ×자형으로 엮어 각동가리가 더욱 흠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 ×자형으로 묶은 줄을 ‘가줄’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뗏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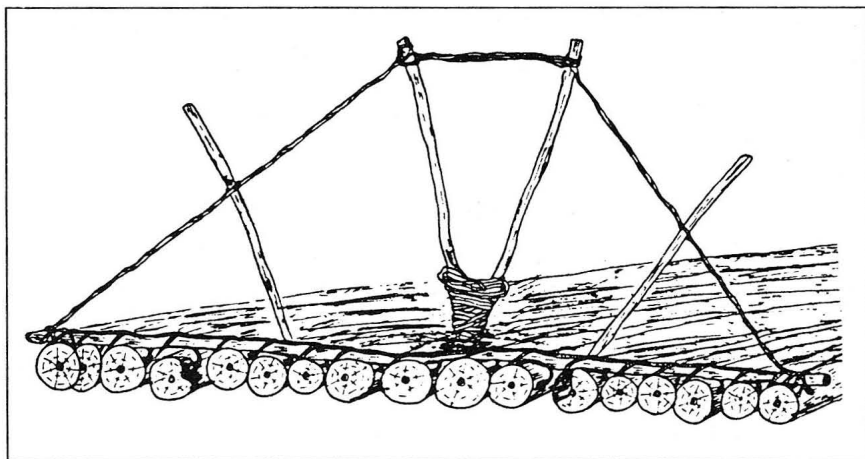
이 한바닥으로 완성되면 V자형의 강다리를 맨앞 동가리 가운데로서 등테 조금뒤에 원목에다 구멍을 파고 그 구멍에 박아 세워놓고 양쪽에 보조나무를 세워 첩끈으로 단단하게 양쪽으로 탕개를 틀어 잡아당겨 매어 고정을시켜 놓는다. 또한 맨뒤 다섯째 동가리 가운데 원목에도 앞테와 같은 원리로 강다리를 세워 놓는다. 다음 이 강다리 위에 가운데에다 ‘그레’를 얹어 뗏목의 운전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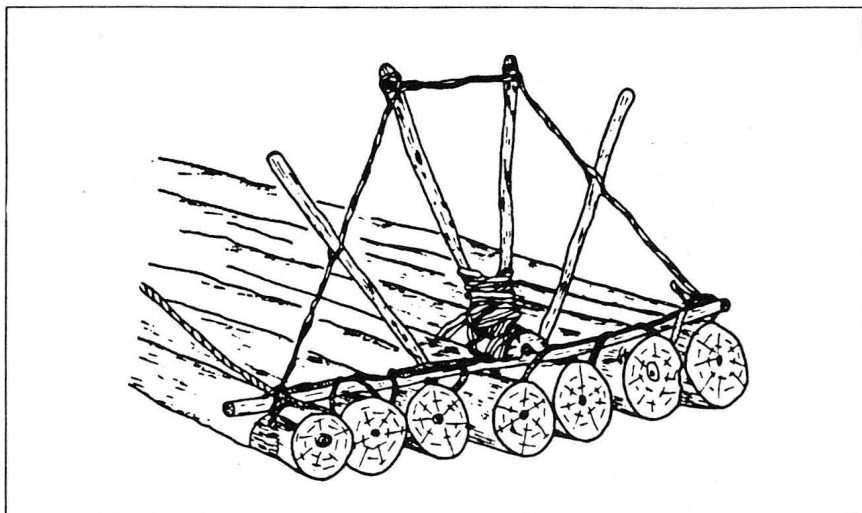
뗏목 엮는 방법



강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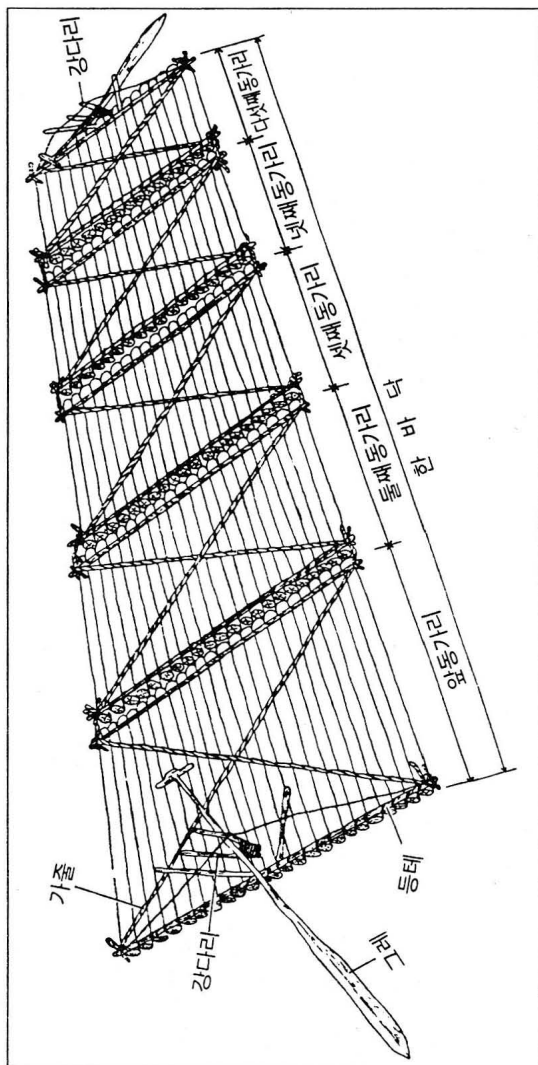


앞동가리의 강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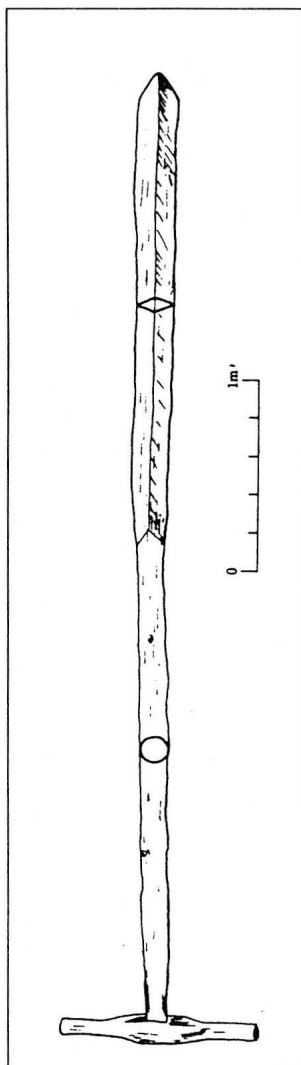


다섯째동가리의 강다리

다시말해서 V자형의 강다리 설치하는 ‘그레’를 올려 놓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레’란 무엇인가를 말하자면 배의 노와 같이 방향을 운전하고 물살을 세차게 밀어 내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다. 그레는 단단한 소나무를 깎아 위로는 T자형의 손잡이가 되고 또 아래쪽은 물살을 밀어 힘을 받을 수 있겠끔 납작하게 깎는다. 그레의 지름은 약 10~15cm 정도이며 길이는 약 5~7m 정도로 되어 있으나 일정하지는 않다. 이렇게 한바닥의 뗏목을 엮어 완성하는데는 3~5명의 기술자가 3일이상 걸려서 만들어 졌었다고 고증인들은 말해준다.



넛목의 완성모습과 부분명칭



그레

넛목이 강 위에 떠내려갈 때 앞과 뒤에 설치한 그레는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방향을 잡아 주는 키의 역할을 한다. 물론

강물의 흐르는 속도에 맞기는 것이지만 물길을 찾고 강을 낀 양쪽의 강변이 암벽·모래·돌판·계곡의 차이, 수심의 깊고 얇음, 느리거나 깊은 여울, 소용돌이·암초의 있고 없음을 파악하여 뗏목의 방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앞·뒷사공은 쉴 사이 없이 운전을 한다. 뗏목을 조립할 때 잊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샷대가 있다. 이것은 중간에 뗏목이 강 밑바닥에 닿았을 때 밀어내는 작업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제 합강에서 춘천까지 운항하는 뗏사공을 ‘골안뗏사공’이라 하며 이들은 춘천에서 되돌아 오는 사공이며, 그대로 춘천에서 정박하였다가 서울까지 계속 내려가는 뗏사공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춘천에서 서울까지만을 운행하는 뗏사공을 ‘아래뗏사공’이라 이름하기도 하였다.

인제에서 조립된 다섯동가리 한바닥 뗏목은 춘천에 와서는 북한강과 소양강이 합류하여 강물의 폭이 넓어지고 수심이 깊어졌음을 이용하여 세바닥을 다시 묶어 하나의 뗏목으로 합쳐 묶어 서울까지 내려간다. 이 때 앞에 다섯동가리 짜리 2바닥을 묶고 그 뒤에 1바닥을 꼬리같이 붙여 완성한다. 이 큰 뗏목에는 앞사공이 2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1명이 운행할 수도 있으며 뒷사공은 그대로 1명이었다. 춘천에서 서울까지는 강물이 넓고 깊으나 위험한 여울이 없어 큰 뗏목이 유유히 내려갈 수 있다.

8. 별 류 (筏流)

1) 강치성(江致誠)

인제 합강리 합수머리 집하장에서 뗏목을 엮어 출발하기

앞서 먼저 뗏꾼들은 강치성을 올렸다. 제수물은 돼지머리와 주·과·포를 진설하였고 소지용 한지3장(목상·앞사공·뒷사공)를 준비하여 지냈다.

강치성을 동서남북, 중앙, 사해팔방, 용왕신(龍王神)에게 빌면서 물살이 세고 어려운 많은 여울들을 잘 통과하여 목적지까지 아무사고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뜻에서 뗏목꾼들은 정성껏 강치성을 올렸다고 한다.

고종인들에 의한 강치성 제문(江致誠 祭文)은 다음과 같다.

유세차

불계부정 택일하여 홍동백서 좌포우혜 외적내탕 진설하고 소지발원 하나이다.



뗏목위에서 강치성을 드리는 사진

동방잡을 용왕신
남방병정 용왕신
서방경신 용왕신
북방임계 용왕신
중앙무기 용왕신
사해팔방 용왕신

소례로 드린정성 대례로 받으시고 합강정을 출발하니
앞여울 밑에 거미소, 실바우 밑에 평의여울
바트리 밑에 송곳돌, 패랭이 밑에 쥐젓여울
십리허간에 사리여울, 성황당 밑에 스레여울
포와리 밑에 개여울, 제비여울 밑에 망태여울
여울여울 구비구비 다 지나서 신연강을 지날갈 때
비나이다

무사하강을 비나이다, 무사하강을 비나이다.

강치성이 끝나면 약간의 음복을 하고 잠깐 쉬었다 출발을 한다. 이때 뗏꾼들은 목상에게 ‘발기장’을 받아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발기장이란 나무의 수량을 적은 즉, 송장이 되는 것이다.

이때 합강 합수머리에서 뗏목이 출발할 때 특이한 것은 가족들이 나와 전송을 하지 않는 것과 여자가 일체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특이한 습속(習俗) 이었다고 한다. 합강 합수머리에서 뗏목이 출발할 때는 앞사공과 뒷사공이 뗏목에 타서 가게 되는데 앞사공은 수로를 운행하는데 매우 지리적 여건이 나 모든 조건에 능숙한 사람이 하였다.

뒷사공은 앞사공을 보조하는 일을 하게 되며 뒷사공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여 뗏목을 많이 탔던 사람이 하였다.

그러나 앞사공과 뒷사공이 ‘공가’는 같았다고 한다.

2) 운 로(運路)

인제 합강리에서 뗏목이 한 바닥으로 앞사공 뒷사공이 타고 아침 8시~9시에 출발을 하여 춘천 소양로 윗다리 부근에 오후 4시경이면 주로 도착을 하였다 한다. 이들은 당시 점심을 준비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먹었다 한다. 다시 춘천에서 뗏목을 3바닥~5바닥을 모아 서울까지 운반 하는데 걸리는 기일은 7일에서 15일이 걸렸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서울까지 여러날이 걸리므로 뗏목위에서 밥을 해먹거나 주막집을 찾아 사서 먹기도 하였다고 한다. 밤에는 시간이 촉박할 때 계속 뗏목을 운행하며 가는 때도 있고 또한 잠을 자고 갈때면 “버레(강가에 있는 돌무지)”에 뗏목을 매고 자고 갔다. 인제에서 춘천간의 여울로는 합강 - 앞여울(첫돌바우) - 시루바우(실돌이, 인제 남북리 앞강) - 평의여울(송곳돌, 군축령근방) - 비투리(송곳돌, 가로리) - 쇠목여울(관대리) - 쾌괭이(급회전, 대흥리앞) - 사심이여울(대흥리밑) - 마른여울(물깊이가 가장 얇음, 양구수산리) - 쥐젖여울(양구 수산리) - 까치여울(양구, 수산리) - 작은포와리(양구 수산리) - 큰포와리(양구 수산리) - 두지아우(바위가 엇갈려 있음, 양구 수산리) - 거무여울(큰바위) - 개여울(사전리밑) - 망태여울(춘성 내평리 위) - 내평리 여울이 있다.

이중에서 가장 무섭고 험난한 여울은 ‘큰포아리’로 일명 호랑이 여울이라고도 불렀다. 집채만한 물더미가 머리위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 물속을 빠져 나가야 하므로 자칫 잘못하면 물길에 휩싸여 익사하거나 석벽(石壁)에 부딪혀 죽는 수가 있었다. 이때는 어김없이 떼가 난파(難破) 되었다고 한다.그밖에도 합강에서 출발하여 처음 만나는 ‘앞여울’ 또는 ‘첫돌바우’, 시루같이 생긴 바위가 물속에 있는 ‘시루바우’ 뽕죽한 바

위가 솟은 ‘송곳돌’, 또는 ‘평의여울’ 물살이 세어 뗏목 다섯동 가리를 모두 비틀어 이음새를 다 끊어 놓는다는 ‘비트리’ 소목같이 생긴 ‘쇠목여울’ 소용돌이가 있는 ‘쾌팽이여울’ 사슴뿔같이 생긴 바위가 있는 ‘사심이여울’ 물깊이가 얇아 뗏목이 얹히는 ‘마른여울’ 쥐젖처럼 물밑에 바위돌이 솟아나 뗏목을 잠아대는 ‘쥐젖여울’ 바위가 엇갈려서 있는 ‘두지아우여울’ 거미잡듯이 끌어들이는 ‘거미여울’ 물살이 한 번 뗏목에 덩벼들면 개처럼 물고 놓지 않는 ‘개여울’ 뗏목을 통째로 덮쳐 물속으로 싸잡아 들어가는 ‘망태여울’ 등의 여울이 모두 험난하고 특징있는 여울이다.

춘천에서 서울까지의 여울에는 다리아우(신영강 밑) - 마당골 - 가령갯까리 - 갯내울 쇠바리(소양강과 홍천강이 합수되는 들머리) - 전여울(청평댐 밑) - 고래이(수심이 가장 얕음) 등이 있다.

여울에는 인제에서 춘천까지 오는 여울이 매우 위험하며 춘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여울은 평탄하여 그리 위험하지는 않다고 한다.



여울의 위치

3) 정류처(停留處)와 주막(酒幕)이 있는 마을

예전에 뗏목군들은 인제 합강에서 춘천까지 다시 춘천에서 서울까지 뗏목을 타고 운행을 하다보면 매우 어려운 일들속에 위험이 따랐고 이면에 몸은 매우 피곤하였다 한다. 그것은 뗏목생활을 당시하였던 고증인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아야 실감이 든다.

특히 인제에서 춘천까지의 여울들이 매우 위험하여 여울들을 지날때면 다시는 뗏목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배운 것이 그것뿐이기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거둬 뗏목을 계속 타야만 했던 것이라고 고증인들은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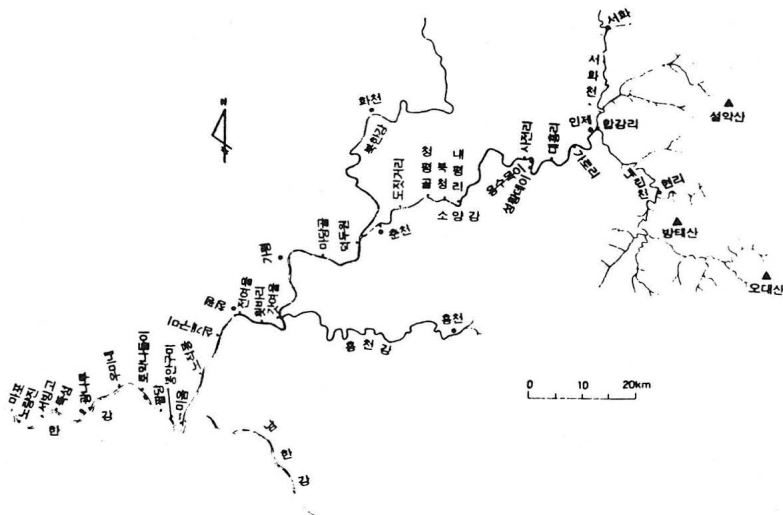
뗏목군들은 인제 합강에서 춘천을 경유 서울까지 약 15일 정도를 걸쳐 가는데 힘들때와 밤이되면 주막에서 먹을것과 잠을 해결하고 다녔다 한다.

이러한 정류처와 주막이 있었던 곳은 다음과 같다.

합강리 - 가로리 - 대흥리 - 성황데이 - 용수목이 - 사전리 - 내평리 - 북청 - 청평골 - 도지거리 - 춘천 - 덕두원 - 마당골 - 갓내울 - 횃바리 - 전여울 - 심개구미(청평 대성리) - 노적봉 - 미음(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수되는곳) - 봉안구미 - 팔당 - 토막나들이 - 우미네 - 광나루 - 뚝섬 - 노량진 - 마포 등이 있었다.

이중에서 주막거리로 유명한 곳은 도지거리, 덕두원, 미음, 팔당 등이며 특히 '미음'의 "색정네" 주막집은 썩쟁이(들병장수)가 8~9명이나 있는 가장 유명한 곳이었다.

미음은 북한강(北漢江)과 남한강(南漢江)이 합수(合水) 되는곳이기 때문에 남북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따라서 색주가(色酒家)로 붐빈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정류처와 주막이 있는 위치

4) 뗏목아리랑

뗏꾼들은 인제 합강에서 춘천을 경유 서울까지 뗏목을 장기간 운행하면서 뗏목 아리랑을 불렀다. 뗏꾼은 때를 장기간 운행하는 동안 인간(자기)과 자연(물)과 고독과 싸워야 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 험한 물살위로 험준한 여울마다 목숨을 걸고 밤잠을 지세우며 고달픔을 장시간을 자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사(人間史) 생활사(生活史)의 직업이기에 자신을 달래고 움직일 수 있는 흥과 힘을 내기 위해 알게 모르게 노래를 불렀고 또 불렀다.

뗏목아리랑은 뗏목꾼들의 노동요(勞動謠) 이었다.

■ 뗏목아리랑

①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우수나 경첩에 물풀리니
합강정 뗏목이 떠내려가네

②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창랑에 뗏목을 띄워 놓으니
아리랑 타령이 처량도 하네

③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도지거리 갈보야 술걸르게
보매기 여울에 떠내려가네

④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뗏목에 서방님이 좋다더니
포와리 신연강이 아직일세

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앞사공 뒷사공 조심하게
포와리 물사품 치솟는다

- ⑥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꽤팽이 포와리 다 지나니
덕두원 썩쟁이가 날반기네
- ⑦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를 넘어가네
합강정 뗏목이 많다더니
경오년 장마에 다 풀렸네
- ⑧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놀다가오 자고가오 잠자다가오
보름달이 지도록 놀다가 가오
- ⑨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놀다가 갈마음은 간절한데
서산 낙조에 해떨어지네
- ⑩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십년에 강산이 변한다더니
소양강 변한줄 뉘알았나
- ⑪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뗏목을 타고서 술잔을 드니
만단의 서름이 다풀어지네

- ⑫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뗏목을 타고서 하강을 하니
광나루 건달이 손짓만하네

- ⑬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를 넘어가네
놀기나 좋기는 합강정
넘기나 좋기는 거닐고개

- ⑭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뗏목에 생활이 좋다더니
신식의 생활로 변해졌네

뗏목아리랑은 젊은나이에 뗏군 생활을 하였던 인제읍 상동리에 거주하시다 작고하신 김계근(金桂根)씨와 인제읍 합강2리에 거주하시다 작고하신 임일남(林一男)씨와 현재 인제문화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해순(朴海順)씨로부터 예전에 채록(採錄)한 것으로 가락은 거의가 강원도아리랑 조이다. 기본 음수율(陰數律)은 3.4조~4.4조, 전 14연(聯) 1연 4행으로 짜여있다.

모든 연(聯)에 걸쳐서 한(恨), 원(怨), 애(哀),의 명암(明暗)이 낭만과 인간애(人間愛)를 잃지않고 있다. 전체적인 음

률은 애조(哀調)이다.

그것은 뗏목생활을 하는 뗏꾼들의 ‘한풀이’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슬픔이나 원한(怨恨)에 사무친 시(詩)나 노래를 짓는다거나 또는 감상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 슬픔이나 원한의 포로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짓고 또는 감상하는 투사행위(投射行爲)를 통하여 오히려 그런 감정에서 해방되기 위함인 것이다.

결(結)은 해(解)를 한(恨)은 해한(解恨)을 소망하고 도달하려는 인간의 감정과 욕구가 서로 교착(交錯)되고 교류(交流)하는 맥락(脈絡)속에서 생성·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원(恨怨)과 애조(哀調)로 직조(織組)되어 있는 『뗏목아리랑』은 고(苦)는 낙(樂)으로 애(哀)는 환(歡)으로 바꾸려는 의지와 소망이 표백되어 있다고 조명할 수 있다.

5) 뗏꾼들에 얽힌 일화(逸話)

뗏꾼들은 색주가(色酒家)에 있는 들병장수, 갈보(蝸甫)들을 ‘씩쟁이’라고 불렀다. 켉쟁이라는 말은 경기도 『미음』에 있는 ‘석정(石貞)네’라는 주막집에서 따온 것으로 통칭 ‘씩쟁이’라고 불렀다.

왜 켉쟁이라고 불렀냐는 물음에, 인제-서울 간에 『미음』의 켉정네 주막집이 제일 크고 유명했기 때문에 별다른 뜻도 모르고, 또 알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네들끼리 부르다 보니 어느 사이에 켉쟁이가 들병장수·갈보의 별칭(別稱)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썩쟁이라는 낱말의 뜻을, 사전적인 해석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느낌과 의미를 함축(含蓄)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썩쟁이-썩은 ‘쟁이’와 같은 천한 사람, 육체와 정신이 다 썩어빠진 사람, 또는 육체와 육체를 섞은 사람으로 해석된다. 즉 썩은(腐)것과 섞은(混)것을 모두 합친 사람을 뜻한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재미있는 느낌이 있고, 의미가 분명하며, 어감(語感)마저도 맞아 떨어지는 낱말이 아닐 수 없다. 뗏꾼들이 그 의미(意味)를 모르면서 사용했다고 하지만, 실은 술을 팔고 몸을 파는 들병장수를 부혼자(腐混者)로 불렀다면 더 이상 적절한 표현이 없을 것 같다.

썩쟁이들의 나이는 대개 20대에서 30대이며, 뗏꾼이 『미음』에 뗏목을 대고 쉬면 썩쟁이가 지금의 나룻배 같은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며 다가와 뗏목에 오른다. 술과 안주를 내놓고 갖은 교태와 수작을 부리면서 술을 많이 마시게 한다. 막걸리 1잔에 2전, 물고기 조림 1개에 2전, 튀긴 두부 1개에 2전씩이며, 썩쟁이의 아양에 넘어가 술을 잔뜩 마시고 거나하게 취하면 서울행도 잊고 노래와 춤판을 벌린다. 뜻이 통하거나 금전적인 계산이 맞으면 정사(情事)도 서슴치 않았고, 바다의 어선과는 달리 뗏 위에 여인을 올려 놓는 것을 전연 금기시(禁忌視)하지 않았다 한다.

『인제(합강리)』에서 『서울(노량진)』까지에 썩쟁이가 있는 소문난 주막집은 춘성군 신북면 윗샘밭에 있는 『도지거리』, 춘성군 서면 의암댐 근방의 『덕두원』, 경기도 양주군 북한강·남한강이 합수되는 근방의 『미음』, 경기도 양주군 팔당댐 근방의 『팔당』이며, 그 중에서도 강원도의 『도지거리』 주막과 경기도의 『미음』 주막은 썩쟁이로 가장 유명하였다.

‘도지거리 갈보야, 술거르게’라는 가사가 뗏목 아리랑에 담겨 있듯이 『도지거리』는 인제(麟蹄)-춘천(春川)간의 마지막

통과 주막이고, 다음은 춘천 제1소양교 밑인 종착지(終着地)이기 때문에 유명할 수 밖에 없었다 한다. 경기도의 『미음』주막은 썩쟁이가 가장 많은 곳으로 보통 8~9명이 되었다고 일러준다.

춘천-서울 간에는 험난한 여울이 별로 없어 떼 운행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청평댐 근방의 『전여울』을 지나고 『고래이』를 지날 때는 그곳 동리 사람들에게 통과비(通過費)를 내야했다. 『고래이』는 그 일대가 물이 얇아 통과하기가 어려웠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안 『고래이』사람들은 물 밑의 모래를 깊게 파서 떼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댓가로 돈을 받았다. 이른바 골 찢 값이다. 이것은 강주인한테서 받아내지 못하는 자비부담이었다.

뗏꾼들의 의리와 협동은 대단했다. 앞에 가던 떼가 여울에서 파손된 것을 보면 뒤에서 오던 뗏꾼들은 갈 길을 멈추고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연 개의치 않고 망가져서 흩어진 그 떼를 다시 주워 엮은 다음 출발케 한다. 반대로 뒤에서 오던 떼가 망가졌다는 전갈을 받으면 앞에 가던 떼는 갈 길을 멈추고 몇 십리가 되어도 강가 옆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그 망가진 떼를 다시 수습해 준 다음에 그 떼를 타고 내려와 자기 떼를 운행한다.

다 같이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뗏꾼들한테서 동료의식으로 가득찬 의리(義理)와 협동(協同)을 빼놓으면 남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고 궁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편 여울같은 곳에서 떼가 망가져 나무를 잃게 되면 ‘강주인’은 그 나무 값을 ‘공가’에서 제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찾아내야 했다. 또한 강가의 사람들은 여울을 잘못 타거나 불의의 사고로 흩어져버린 뗏목나무를 주워서 땅 속에

깊숙이 파묻어 두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꺼내서 썰으며, 목상(木商)은 자기가 직접 나서거나 염탐꾼을 고용하여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숨겨 놓은 뗏목나무를 찾게 하였다 한다.

뗏꾼 사회에서는 노임(勞賃)을 ‘공가(工價)’라 했다. 어디에서 연유된 말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공가’라 했다. 아마 뗏사공의 노임이라고 하여 붙인 명칭인 것 같다.

춘천~인제간의 ‘공가’는 일제치하에서 광목 한 통을 살 수 있는 5~6원이었고, 춘천~서울까지는 30~35원이라고 하는가 하면, 군수(郡守) 월급이라고까지 과장하기도 한다. 이 때 쌀 한말에는 1원5전이었던 한다.

한편 춘천~서울 행 때는 목상이나 강주인을 잘 아는 뗏꾼만이 탈 수 있었다고 한다. 아무리 때 기술이 있어도 이들을 잘 알지 못하면 서울행 승벌(乘筏)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인같은 사람을 사이에 넣거나 뇌물을 주어야 했다. 뇌물을 주면서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때를 타려고 한 것은 돈을 만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돈을 만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때를 타야 귀한 현금(現金)을 쥘 수 있었던 것이다. 살기 위해서는 뇌물을 주고서라도 서울 행 때를 타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요악(必要惡)이었다고 회고한다.

때가 인제(麟蹄)에서 출발할 때 ‘발기’에 기록된 뗏목나무 숫자대로 춘천(春川)이나 마포(麻浦)·노량진(鷺梁津)까지 무사히 도착시키면 강주인(江主人)은 이를 확인한 후 ‘공가’를 지불한다. 출발할 때 30~40% 선불(先拂)받은 나머지를 지불받는다. 이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고 하며 자기가 제일인 것만 같았다는 회고담이다.

현금을 손에 쥔 뗏꾼은 광목을 사거나 가사(家事)와 처자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동대문 안에 있는 여인숙(旅

人宿) 『박한봉네 집』으로 가서 하룻밤을 잤다.

다음 날 기차나 버스 편으로 춘천까지 온 다음 이곳에서부터는 대개 걸어서 인제의 집까지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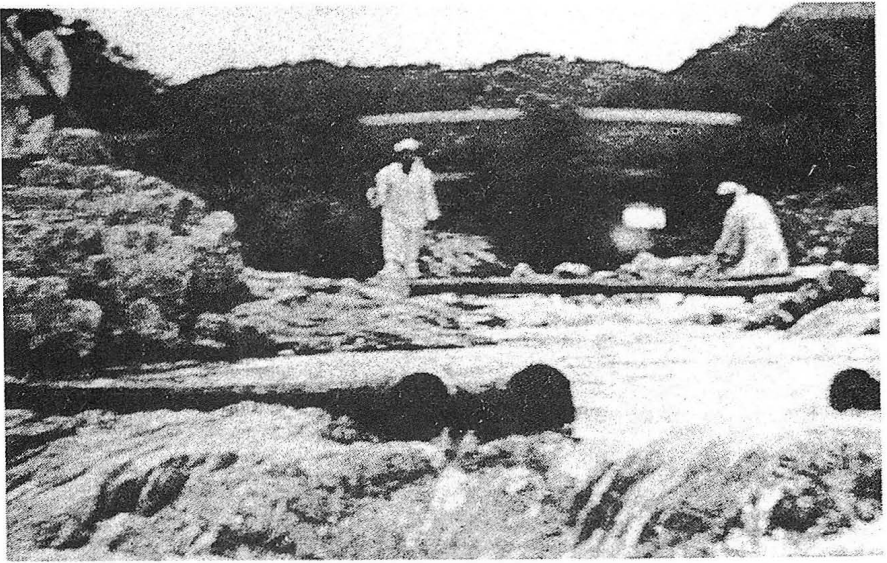
서울에서 인제까지 걸어서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는 밤낮 4일이 걸렸다. 동대문-망우리-가평-춘천-샘밭-내평리-사전리-한골-상수래-인제가 그 당시 걷는 길이었다.

썩쟁이와의 농탕질이나 투전(鬪錢)으로 돈을 다 날리고 걸어서 올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며 끼니를 굶어서 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때도 있었고, 낮이나 저녁때 인제에 당도하게 되면 해가 질때까지 숨어서 기다렸다가 몰래 담을 넘어 안방을 피해 사랑방으로 들어가 새우잠을 자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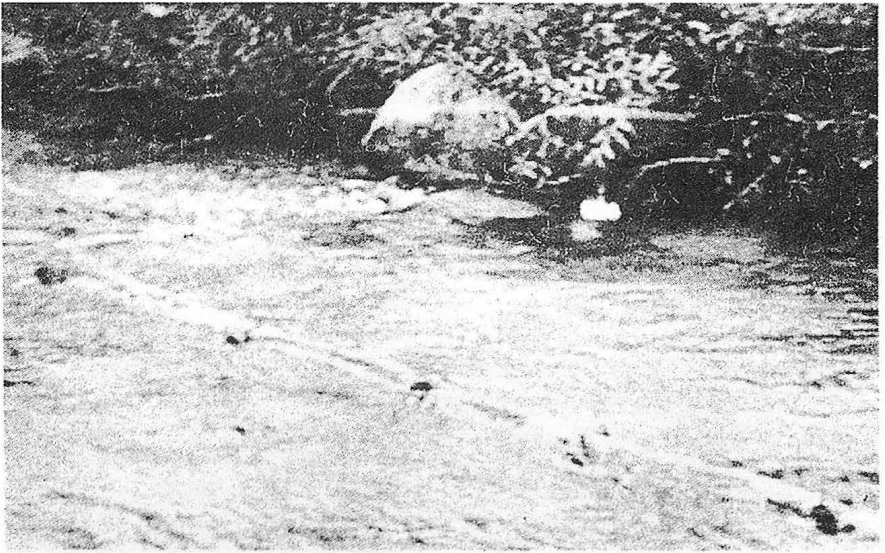
그러나 귀향(歸鄉)은 뗏꾼들에게는 오랫동안 객지생활의 노고를 풀어주는 즐거움이었다. 돈을 벌어 가지고 오건, 다 날리고 돌아오건 간에 귀향은 좋고 기뻐다 한다. 집에 돌아왔으나 돈 한푼 내놓지 못할 때는, 다음에는 주색잡기와 투전놀이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처자 앞에 굳게 맹세하기를 여러번 했다고도 증언한다. 그러나 또다시 뗏을 타고 주막거리를 지날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과 썩쟁이와 투전에 빠지게 되곤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뗏꾼들은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강통(江通·江統)’이라고 자부하면서 스스로 평가절상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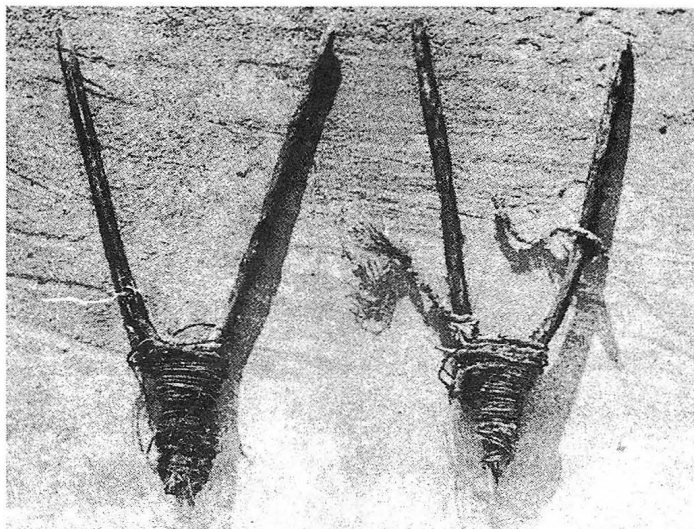
수많은 고락(苦樂)과 애환(哀歡)이 담긴 뗏꾼생활도 개화(開化)로 화천담·청평담이 생기면서 서울행 승벌(乘筏)이 끊겼고, 겨우 춘천행 정도였으나 그나마 횡수가 줄었다. 해방이 되어 인제(麟蹄)가 이북(以北) 인공치하(人共治下)에 들어가자 저절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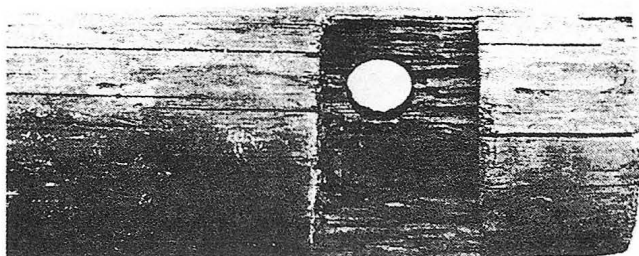
통나무의 적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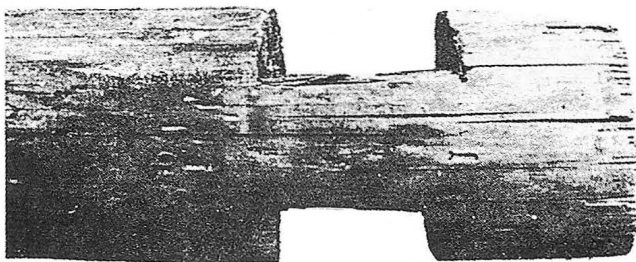
적심된 통나무가 흘러가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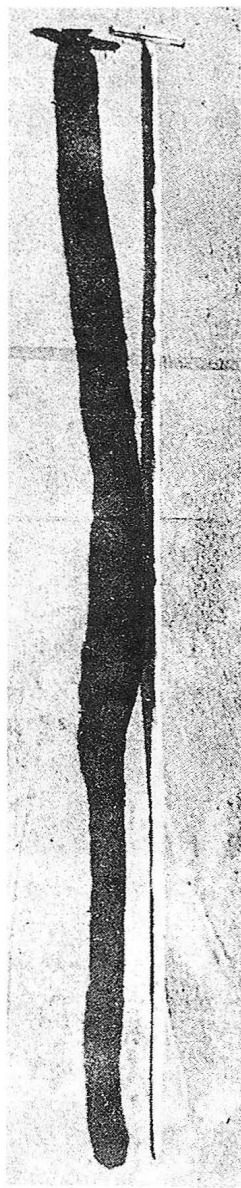
강 다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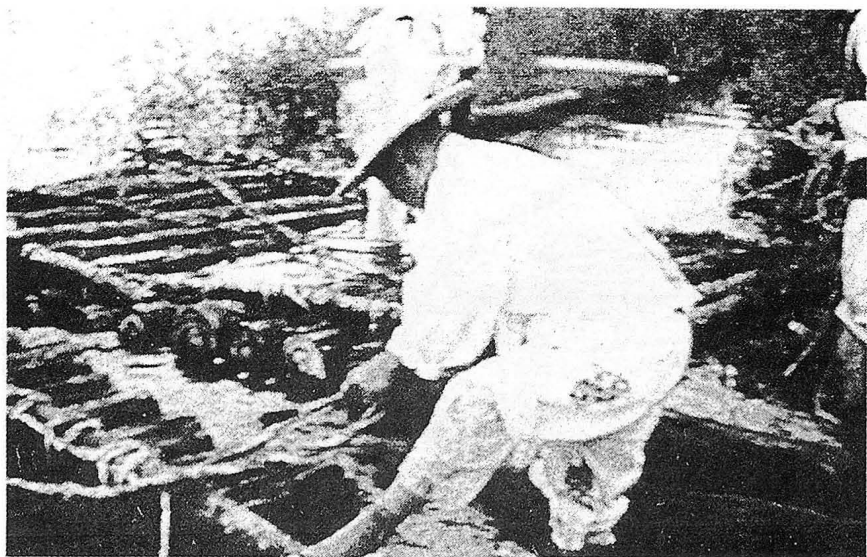
뗏목을 엮기 위해 구멍을 뚫은 통나무(옆에서 본 모습)



뗏목을 엮기 위해 구멍을 뚫은 통나무(위에서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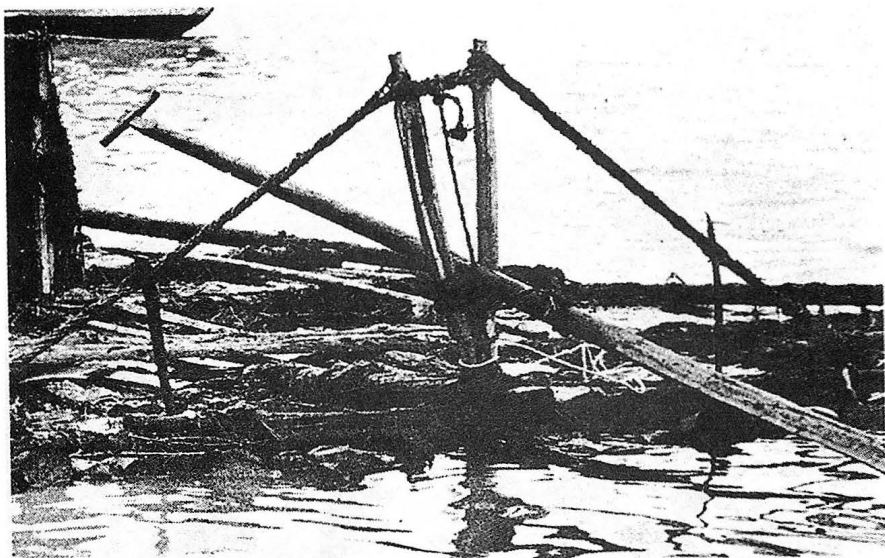
그 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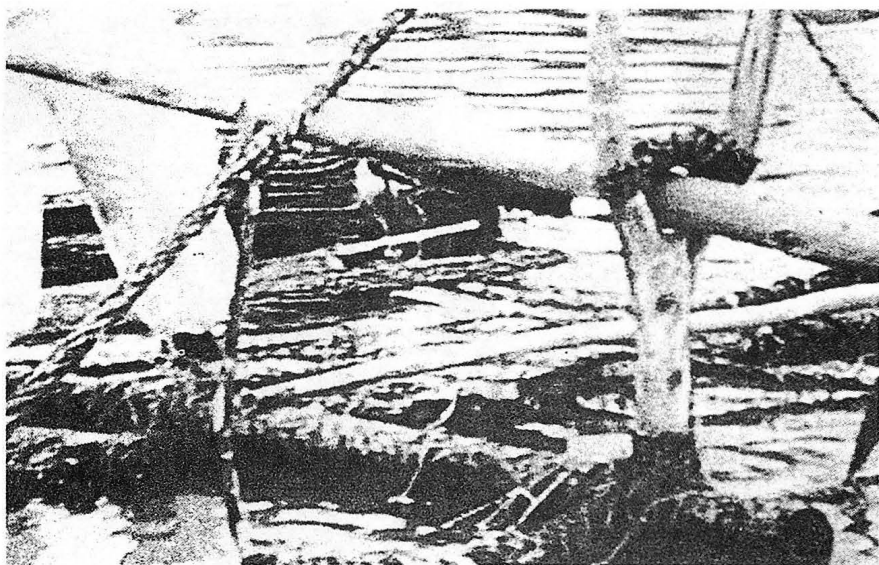
뗏목을 엮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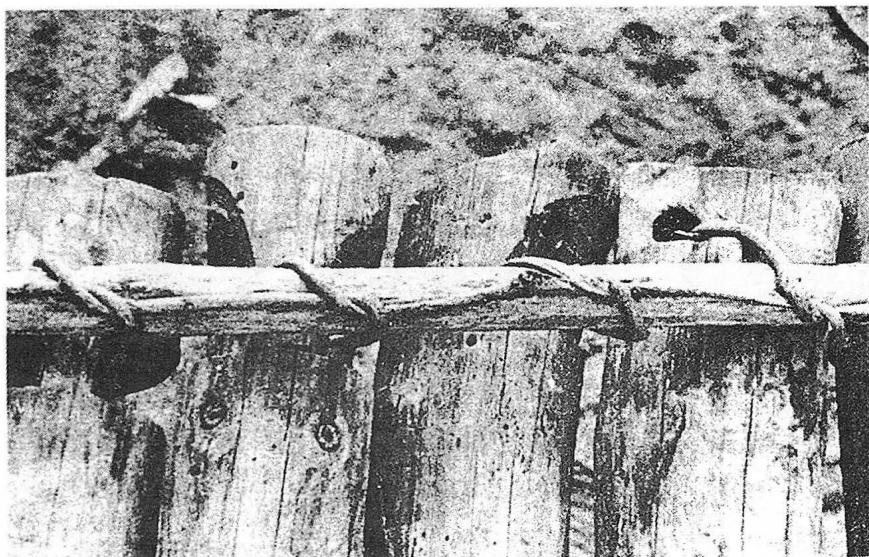
뗏목을 엮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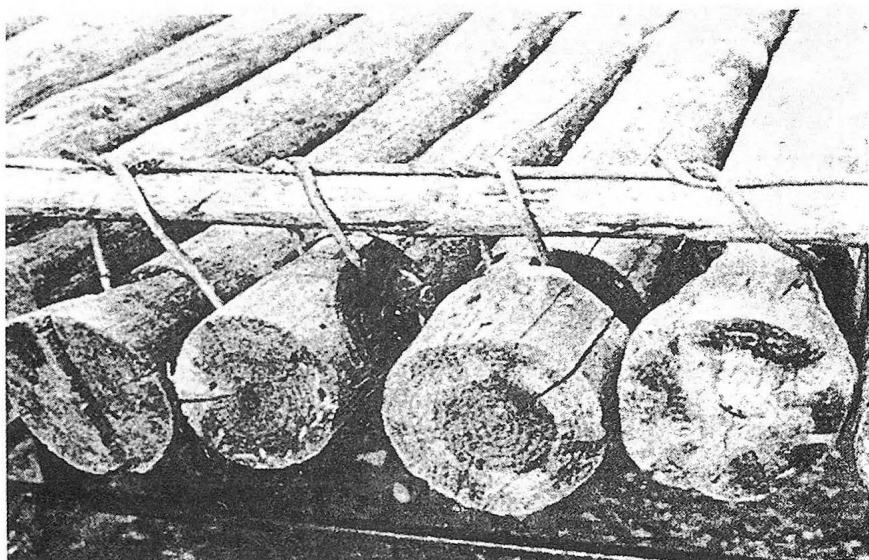
그레와 강다리



가까이서 본 그레와 강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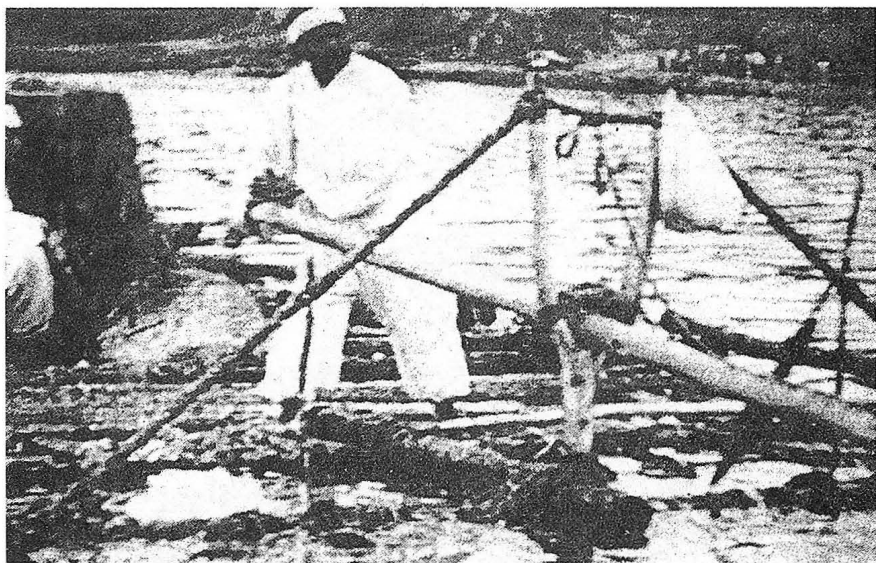
완성된 뗏목의 윗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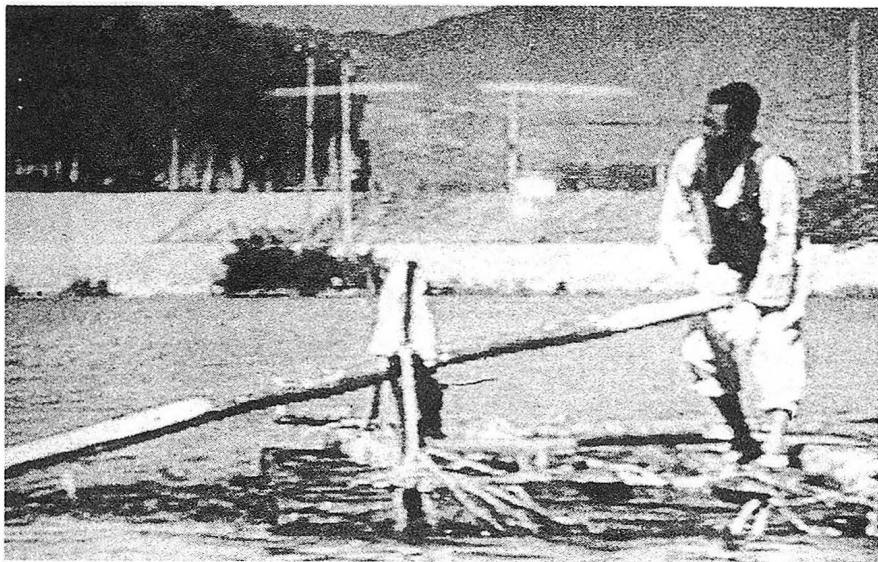
완성된 뗏목의 앞부분



강다리를 세운 모습



그레를 짓는 모습



그레를 져는 모습



압록강의 뗏목계류장(1930년대)



급류를 지나는 압록강의 뗏목

9. 인제뗏목 재현

1985년 6월 13일과 14일 2일간에 걸쳐 제3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가 속초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 대회에 우리 고장 인제군에서는 인제뗏목 민속사를 발굴하여 경연함으로 그 공로와 민속사관을 인정받아 강원도지사(김영진)로부터 종합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회 경연대회에 앞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전에 뗏꾼생활을 하면서 합강리에서 춘천을 경유하여 서울 광나루까지 뗏목을 하였던 노인네들의 고증을 받아 기록으로 정리를 하고 강원대학교 최승순교수, 박민일교수, 최복규교수님의 감수와 경연과정의 시나리오를 받았다.

대회를 앞두고 인제군청 공보실과 문화원이 주관하여 마을 남·여 노인회원님을 주축으로 인제고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을 지원받아 약20일간에 연습을 당시에 인제읍 소재지 앞강에 마련되었던 공설운동장에서 가졌었다.

이 뗏목놀이 연습에는 실제 예전에 뗏목생활을 하였던 원로 노인네 손용인씨, 심한호씨, 송태익씨, 박해순씨가 직접 참여하여 출연자의 역할을 맡음으로서 매우 효과적인 민속사의 재현이었다.

아울러 놀이화 연습지도에는 문화공보실 공보계장이었던 박동화씨와 박해순(현 문화원장 재직)씨의 지도로 연습을 충분히 하게 하였다.

이 뗏목놀이의 연습과 경연대회를 위하여 또한 소품준비를 물이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하였는데 제일 중요한 뗏목나무는 당시 인제군수였던 최욱선 군수님께서 12자짜리 좋은 원목을 군유림에서 제공하여 주셨고 문화원에서는 군보조비를 받아 리어카(손수레)와 의복 등 많은 소품을 준비하였고 출연진의 식사를 맡아 제공함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다.

■ 출 · 연 · 과 · 정

해설자 : 지금으로부터 인제뗏목을 놀이화하여 그 원형을 재현하겠습니다.

● 입 장 (入場)

- 큰기수(인제뗏목놀이)를 선두로하여 작은기수, 목상, 농악대, 뗏목꾼 및 목도꾼, 아낙네(씩쟁이), 집사 등으로 입장을 한다.
- 뗏목꾼 및 목도꾼은 도끼, 톱, 자구 등을 넣은 주루목(홀치

기)을 등에다 메고 입장한다.

- 입장할 때는 농악을 경쾌하게 울려주며 출연진은 농악장단에 맞추어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입장한다.
- 큰기수는 중앙에 위치를 잡고 기를 세우고 춤을 추며 출연진은 둥그렇게 원을 그려 둘러서면서 간격을 잘 맞춘다음 소품을 중앙부쪽으로 내려 놓는다.
- 농악대 상쇠는 간격을 맞추고 소품을 다 내려 놓은 것을 확인한 후 농악소리에 멈추게 한다.
- 출연자는 관중을 향하여 일제히 돌아선다.
- 이때 징잡이는 징소리를 크게 울려주며 아울러 출연자는 일제히 관중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인사를 한다.
- 조금 후 징잡이는 다 징을 쳐 소리를 내면 출연자는 모두 일어나 소품을 다시 소지한다.
- 다시 상쇠는 쇠를 쳐준다. 이때 출연자는 입산을 하게된다.

● 제1과장 : 입산(入山)

해설자 : 이제 벌목을 하러 벌목꾼은 산으로 입산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자 :

- 벌목꾼만 주루목(홀치기)을 지고 소나무를 세워 놓은 산으로 입산을 한다.
- 목상은 중앙에, 농악대는 후미에 일렬 횡대로 서게 되며 농악을 계속 울려주고, 썩쟁이 집사는 각자 제자리에 소품을 놓고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춘다.
- 벌목꾼은 입산을 다하게 되면 주루목을 벗어 놓는다.
- 입산 행렬이 다 끝나면 농악 상쇠는 농악을 멈추게 한다.

● 제2과장 : 산치성(山致誠)

해설자 : 다음 둘째 과장은 산치성을 드리는 과장이 되겠습니다.

출연자 :

- 집사는 재빨리 세워놓은 소나무 앞에다 돛자리를 깔고 상을 놓고 상위에 제물을 차려 놓는다.
- 농악은 이때 약하게 농악을 울려준다. 다시 그치게 한다.
- 제물준비가 다 차려 놓아지면 목상이 제주가 되어 배례를 한 번하고 술을 잔에 부어 제사상 위에 놓는다.
- 다시 제주(목상)는 배례를 하고 있게 되며 이때 축관이 축문을 읽어간다.
- 축문이 완료되면 제주는 일어나 2번 배례를 하고 일어나 잔술을 들어 소나무 주위에 골고루 뿌린다.
- 이때 농악은 크게 울려준다.

● 제3과장 : 벌목(伐木)

해설자 : 다음 과장은 나무를 베는 벌목과장이 되겠습니다.

출연자 :

- 벌목꾼은 주루목에서 도끼를 꺼내어 세워 놓은 소나무에 다시 가서 벌목준비를 한다.
- 선소리꾼이 ‘어명이요’하고 큰 소리를 지른다.
- 벌목꾼은 양쪽으로 나무를 도끼를 찍는다. 몇 번 찍다 조금 후 나무들을 넘어 뜨리게 된다.
- 벌목꾼은 다시 도끼와 톱으로 나무가지를 치고 또한 나무토막을 12자 정도로 자른다.
- 이때 농악은 농악을 계속 쳐준다.

- 나머지 기수와 목상,씩쟁이 등은 농악에 맞추어 춤을 계속 춘다.
- 나무를 12자로 다자르게 되면 벌목꾼은 원목을 2줄로 나란히 정리하여 놓는다. 이것은 운목을 하기 위한 사전의 작업이 된다.

● 제4과장 : 운목(運木)

해설자 : 다음은 넷째과장으로 원목을 하산하고 목도로 운목하는 과장이 되겠습니다.

출연자 :

- 벌목꾼들은 나무를 하산하기 위하여 일렬로 놓은 원목 옆으로 목도채를 가지고 조를 이루며 서게 된다.
- 나무를 끌기 위하여 벌목꾼들이 원목옆에 일제히 정돈하여 서게 되면 선소리꾼은 “자! 나무를 끌어 하산을 하세”라고 크게 소리를 지른다. 모두 “네!”하고 대답한다.
- 선소리꾼은 나무를 끄는 선소리를 준다.
- 나무를 하산하는 출연자는 후소리를 받는다.
- 나무끄는 소리는 다음과 같다.

이나무가 어디서 왔나	여차하니 여차
방태산 제일봉에	여차하니 여차
낮이면 일광을 타고	여차하니 여차
밤이면은 이슬을 먹고	여차하니 여차
낙락장송 되었다가	여차하니 여차
만인간의 힘을 빌어	여차하니 여차
인제 합강에 나왔도다	여차하니 여차
이나무를 끌어다가	여차하니 여차

기역자로 집을짓고	여차하니 여차
한오백년 살고지고	여차하니 여차
가자가자 어서가자	여차하니 여차
고향찾아 어서가자	여차하니 여차
나귀 등에 솔질하여	여차하니 여차
소고안장 지어 타고	여차하니 여차
오작교건너 광한루가자	여차하니 여차
노류장화 인개유지	여차하니 여차
만첩청산 어디러나	여차하니 여차
다죽다죽 드린정이	여차하니 여차
어이하여 변할손가	여차하니 여차
도중한식 바쁜몸이	여차하니 여차
점심참이 늦어진다	여차하니 여차
날아가는 원앙새야	여차하니 여차
너와나와 짝을지어	여차하니 여차
노세노세 젊어노세	여차하니 여차
늙어지면 못노나니	여차하니 여차
마오마오 그리마오	여차하니 여차
사람팔시 하지마오	여차하니 여차
이팔청춘 소년들아	여차하니 여차
백발보고 웃지마라	여차하니 여차
먼데사람 듣기좋게	여차하니 여차
결의사람 보기좋게	여차하니 여차
뜨물동이 호박씨날 듯	여차하니 여차
빨랫줄에 제비놀 듯	여차하니 여차
어화둥실 잘도논다	여차하니 여차
창포밭에 불나비날 듯	여차하니 여차
둥실둥실 잘도논다	여차하니 여차

· 한참동안 선소리와 후소리에 맞추어 나무를 끌게된다.

- 다음은 목도로 운목하는 과정을 한다.
- 먼저 선소리꾼이 “자! 이제 고만 끌고 목도로 운반하세”라고 한다.
- 출연진은 “네!”하고 대답한다.
- 나무를 끌던 출연진은 일제히 끈을 풀어 목도준비를 한다.
- 목도줄을 원목에 걸고 목도채에 끈을 켜다듬 정리가 되면
- 선소리꾼은 “자! 목도로 운반하세”라고 한다.
- 출연진 모두는 “네!”라고 대답한다.
- 선소리꾼은 목도소리를 선창 한다.
- 출연진은 목도소리 후창을 받는다.
- 이렇게 목도로 운목을 하는 과장을 한참하며 원목을 미리 조립하여 놓은 곳에 갔다 놓는다.
- 다시 농악을 울려준다.
- 뗏꾼은 운목한 일부 나무를 미리 조립하여 놓은 뗏목에 마주 엮어 놓는다.
- 뗏목이 다 엮어졌으면 강치성 드릴 준비를 한다.

● 제5과장 : 강치성(江致誠)

해설자 : 다음 다섯째 과장은 강치성을 드리는 과장이 되겠습니다.

출연자 :

- 먼저 집사는 뗏목위에다 돛자리를 깔고 젣상을 놓은 다음 주·과·포 정도로 제물을 차려 놓는다.
- 제물이 다 차려져 있으면 다시 목상은 강치성을 드린다.
- 제주는 먼저 잔을 올리고 배례하게 되면 축관은 축문을 읽어 내려간다.
- 축문이 끝나면 제주는 다시 일어나 절을 두 번 한다.

- 제주는 다시 술잔을 뗏목위에 골고루 붓는다.
- 이때 농악은 작게 울려준다.
- 뗏꾼은 음복을 골고루 한다.

● 제6과장 : 벌류(筏流)

해설자 : 다음 여섯 번째 과장은 뗏목을 운행하는 과장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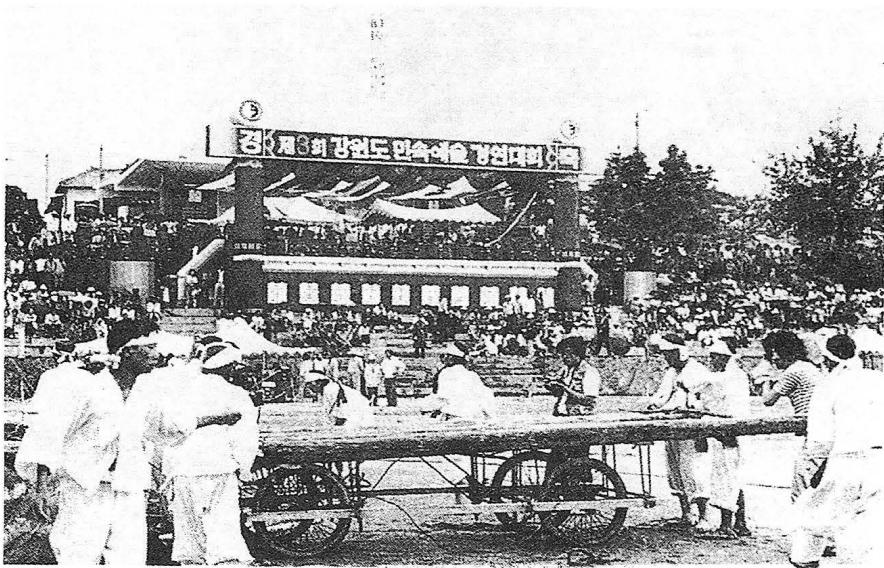
출연자 :

- 선소리꾼이 먼저 뗏목아리랑을 부른다.
- 출연자 모두는 후소리를 받는다.
- 뗏목이 서서히 움직인다.
- 앞사공과 뒷사공은 강다리위에 놓여있는 그레를 저어간다.
- 농악은 뗏목아리랑에 맞추어 약하게 장단을 쳐준다.
- 선소리꾼의 뗏목아리랑 소리에 맞추어 뗏목꾼들과 출연진 모두는 후소리를 받으며 한참동안 뗏목을 운행한다.
- 뗏목이 운동장 중앙부에 도달하면 선소리꾼은 “자! 주막집에서 쉬었다 가세”라고 소리를 지른다.
- 출연진은 모두 “네!”하고 대답한다.
- 씨쟁이들은 술동이를 이고 뗏목위로 올라간다.
- 씨쟁이들은 뗏꾼들에게 술을 쪽바가지에 푸어 뗏꾼들에게 준다.
- 선소리꾼은 뗏목아리랑을 부른다.
- 씨쟁이와 출연진 모두는 춤을 춘다.
- 한참동안 술과 안주를 주고 받으며 뗏목아리랑에 맞추어 놀게한다.
- 다시 선소리꾼은 “자!, 이제 그만 다시 떠나세”라고 하면 출연진 모두는 “네!”하고 대답한다.

- 선소리꾼은 뗏목아리랑을 계속 부른다.
- 앞사공 뒷사공은 후렴을 받으며 손을 흔들어 주막집 썩쟁이들에게 인사를 한다.
- 썩쟁이들은 마주 손을 흔들어 잘가라고 답례를 한다.
- 이렇게 계속 뗏목을 운행하여 간다.
- 한참 후 서울 광나루 기수있는 곳에 가면 뗏목은 서게 된다.
- 선소리꾼은 “자!, 이제 다왔습니다”하고 한다.
- 농악은 약간 소리를 내어준다.
- 다시 강나루에서 나무를 받을 장사꾼이 뗏목위에 올라가 받기장(송장)을 받고 나무를 세어간다.
- 처음에는 송장의 나무숫자와 수량이 맞지 않아 투덜댄다.
- 뗏꾼은 다시 세어 보라고 한다.
- 서로 숫자를 세어 맞추어 본다.
- 수량이 맞게되면 장사꾼은 광목 및 엽전몽치를 뗏꾼에게 건넨다.
- 이때 다같이 출연진은 “야!”하고 소리를 지른다.
- 농악은 경쾌하게 쳐준다.
- 출연진은 중앙으로 모두 모여 한마당놀이를 한다.
- 이때 소품을 높이 던지고 옷을 벗어 일부 던지고 짚세기를 일부 하늘 높이 던지며 “우와”, “야!”하고 소리를 지르며 춤을 신나게 추면서 한마당 놀이를 한다.
- 한참동안 한마당 놀이를 하다가 농악대를 선두로 처음 인사할 때와 같이 원을 그려 둥그렇게 서게된다.
- 상쇠는 정리가 다되게 되면 농악은 멈추게 한다.
- 징잡이는 징을 쳐준다.
- 출연진은 모두 엎드려 인사를 한다.
- 징을 다시 울려준다.
- 출연진은 모두 일어나 다시 퇴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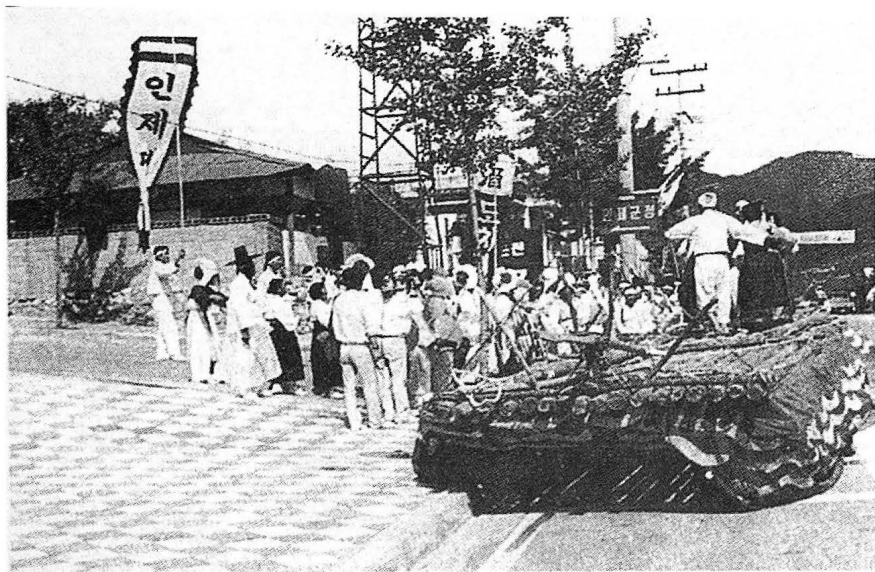
'85년도 인제앞강 공설운동장에서 연습과정 사진



제3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속초) 경연중 뗏목조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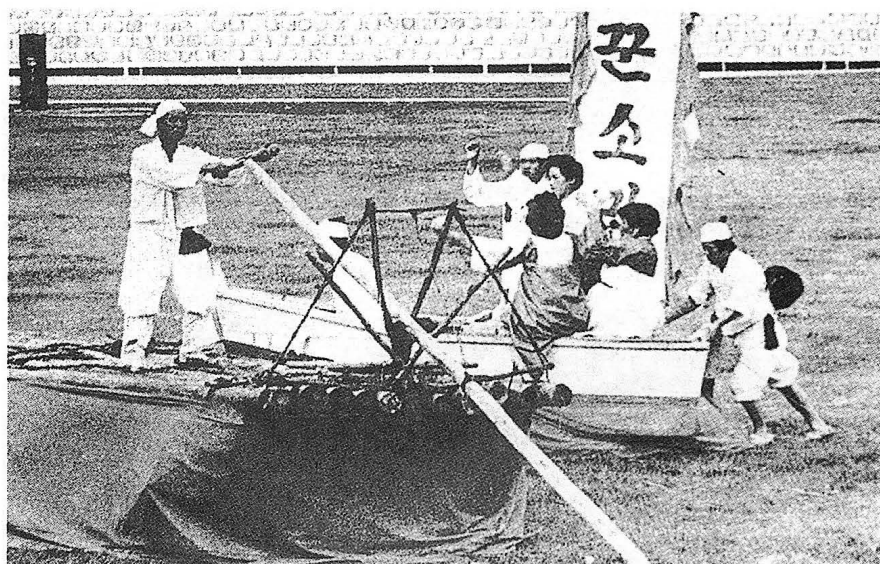
뗏목아리랑을 부르는 박해순 씨



뗏목 위에서 썩쟁이들과 함께



뗏목 위에서의 씨쟁이와 어울려 즐기는 뗏목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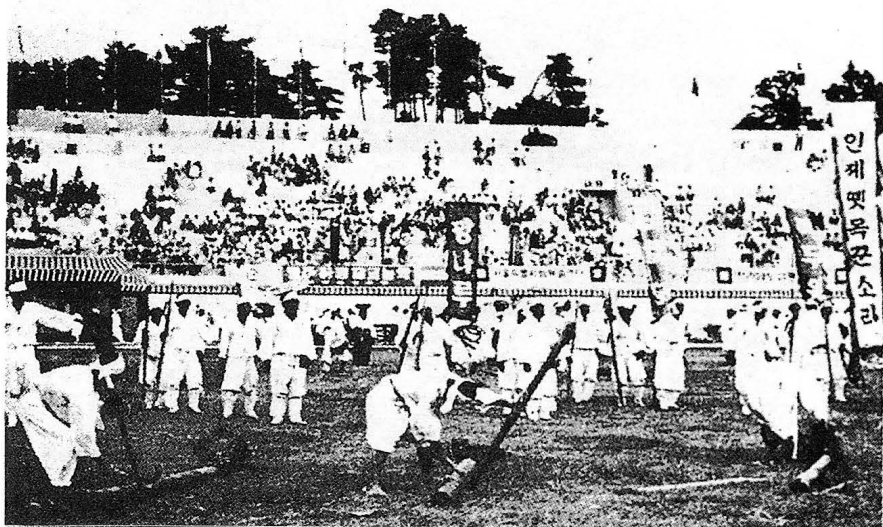
운행중인 뗏목에 다가가는 주막의 씨쟁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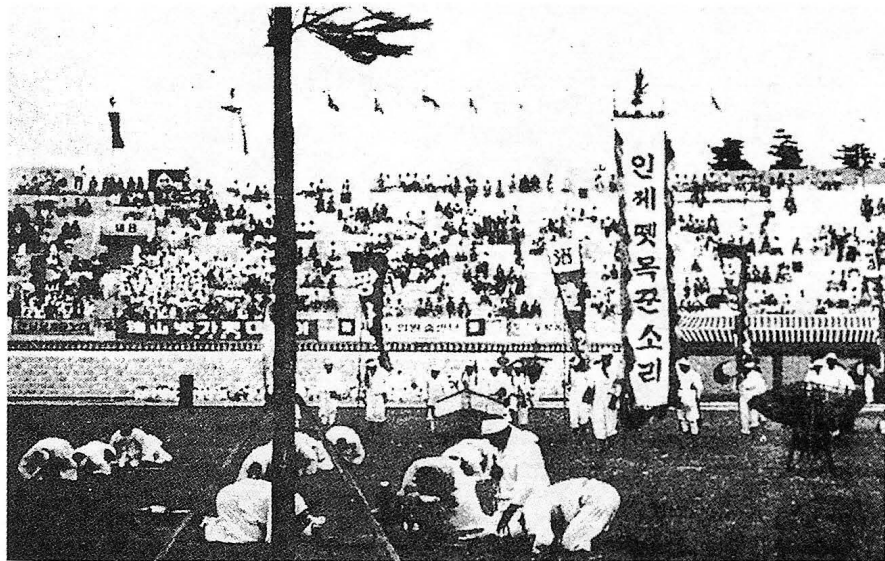
상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의 시연모습(목도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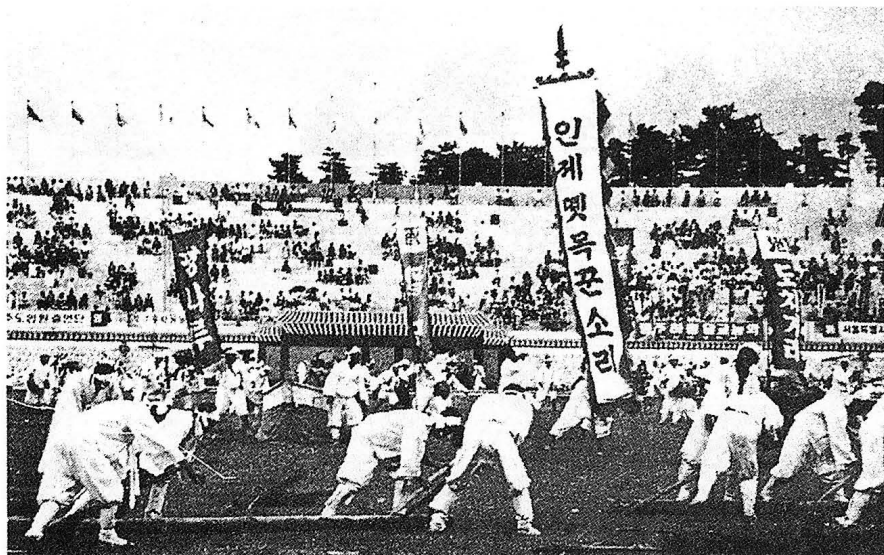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의 시연모습(뗏목운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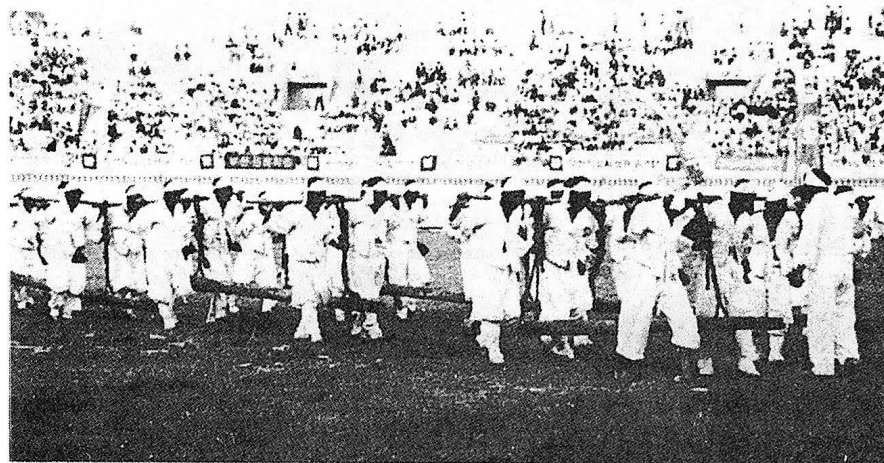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의 시연모습(가지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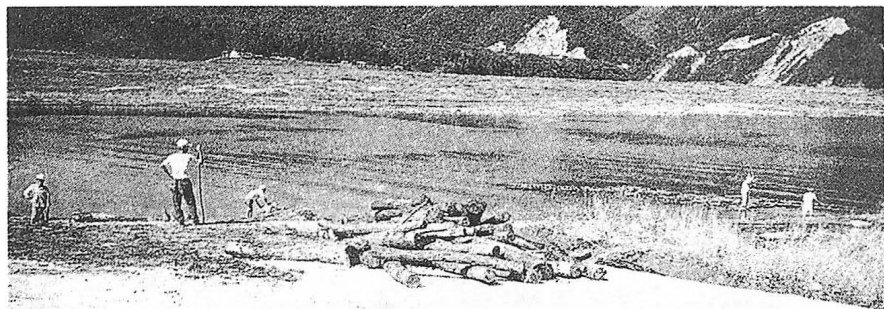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의 시연모습(산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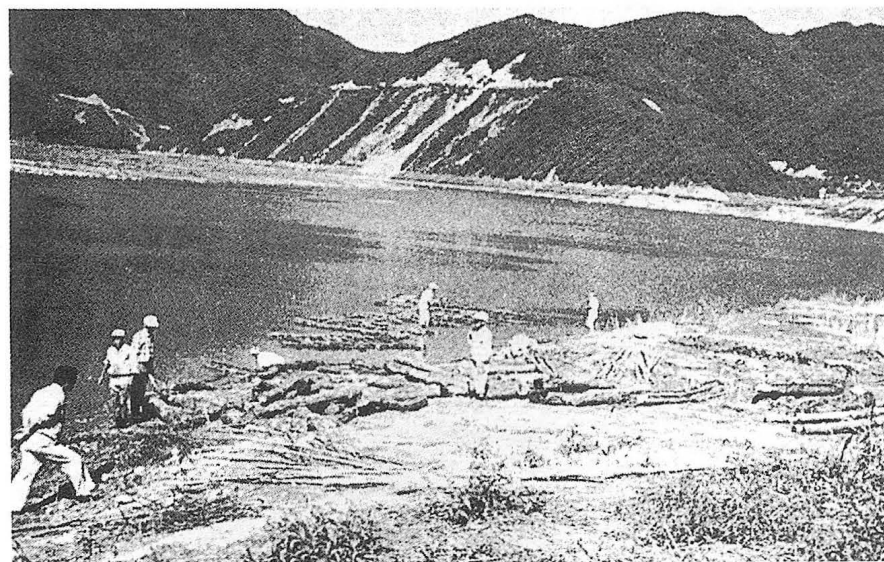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의 시연모습(목도줄 메기)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의 시연모습(목도운반)



집목장에서 드렁침으로 뗏목을 엮는 모습



집목장에서 뗏목을 엮는 작업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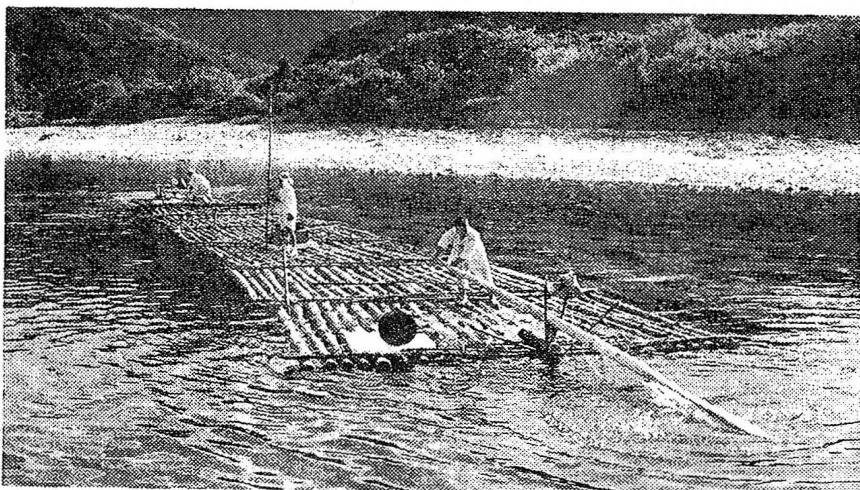
거친 물살 헤치는 용기 북돋워

소리꾼 朴海順씨



인제 뱃목 아라리

1주일~보름간 수많은 여울 지나며 사투
앞·뒷사공 소리 주고받으며 힘실는 노동요



◇인제 뱃목아라리는 입강에서 마포까지 7일에서 보름간 걸리는 물길물 앞사공과 뒷사공이 소리를 주고 받으며 용기를 북돋는 소리다.

인제 함강~춘천~서울마포

멧목아라리는 노동요이다. 때론 때를 운송하는 동안 거대한 자연과 고독과 싸워야 했다. 때론들은 자신을 달래고 움직일 수 있는 흥과 힘을 내기 위해 알게 모르게 노래를 불렀고 또 불렀다.

인제함강~가로리~대흥리~성함데이
~을수목이~사전리~내평리~북침~침
평골~도지거리~춘천~덕두원리~마당
골~갓내골~윗바리~전여울~심개구미
~노적봉~미음~봉안구미~말담~토막
나들이~우미내~광나루~죽섬~서방고
~노랑진~마포들 인제에서 춘천까지
하루, 춘천에서 서울까지 7일에서 15일
까지 걸리는 물길은 물길은 노련한 앞사공과
앞사공을 보조하는 뱃사공이 함께하며
메기며 받으며 노래를 불렀다.

恨怨哀歡 명암 저변에 깔려

「멧목아라리」는 「강원도아리랑」보다는 느리고 「정선아리랑」보다는 빠르다. 가락은 거의 「강원도아리랑」조로 전 14연 1연4행으로 짜여져 있다. 모든 연에 겹쳐서 恨(한) 怨(원) 歡(환) 哀(한)의 명암이 남만과 인간애를 잃지 않고 있다.

인제지역의 멧목 운항시기는 3~10월까지로 통절기, 설악산 대암산 대우산 함로봉 등지에서 벌채된 원목은 인북천으로, 가리산 정봉산 방태산 개인산 등지에서 벌채된 원목은 내린천으로, 뒤편내 두강골이 합쳐지는 함강리에서 원목을 수거, 강변 뱃사공에 아직 한 다음 이를 멧목으로 만들어 북한강 수계를 이용, 서울로 운반했다.

인제함강에서 춘천까지 운항하거나 서울까지 가는 뱃사공을 「꽃아멧사공」이라 하고 춘천에서 서울까지 운항하는 사공을 「아래멧사공」이라 하였다. 이들의 工價(공가·노임)는 쌀한말 가격이 1원5전인 시절 춘천~인제간은 광목한물을 실 수 있는 5~6원이고 춘천~서울까지는 30~35원으로 비교적 후한 편이었다.

서울행 잇고 출판 벌이기도

인제~춘천에는 20여개의 여류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무섭고 험난한 곳은 지금의 인제군남면수산리 큰포아리여류로 짐채만한 물녀미가 머리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물길에 휩싸여 익사하거나 석벽에 부딪혀 죽는 때도 많았다.

인제~서울간에는 도지거리 덕두원미음 삼남골 수많은 정류처와 주막거리가 있어 물길에 지친 뱃사공들이 멧목을 대고 쉬면 석재가 나뭇배를 타고 다가와 송과 인주를 내놓고 갖은 교대로 송유 많이 마시게 했다. 사람들은 석재이며 아얌에 넘어가 송유 잔뜩 마시고 기나아게 쉬하면 서울행도 잇고 노래와 춤판을 벌이기도 했다.

인제지역 함강에서 엮어 서울로 내려가던 인제멧목은 1943년 청평댐이 건설되어 수위가 낮아지기 전까지는 목재운반량도 많고 나무질도 좋았기 때문에 아주 유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면서 함강에 청평댐을 각종 댐이 건설되어 물길이 끊어지고 45년 국토가 분단되면서 멧목운송에 종사하던 때꾼들은 모두 생업을 잃어버리게 되어 다른 직종을 찾게 되었다.

문화원장 맡으며 현역 활동

분단과 함께 잊혀졌던 때꾼들의 노랫소리는 40년뒤인 85년 인제문화원의 노력으로 멧목운항 생존자들의 고증을 거친 「인제멧목아라리」로 제3회 강원도 민속경연대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민속놀이로 재현된 인제멧목아라리의 소리꾼은 1942년(당시17세)부터 해방 전까지 뱃사공으로 멧목을 3회 운항했던 차海順(박해순·72·인제군인제읍상동리)씨. 천부적인 소리꾼인 차씨는 대부본의 사설과 가락을 그대로 기억, 산치성 범목작업 하산작업 목도운반 감치성 멧목벌유동 산간지방 특유의 민속과 소리를 전승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인제문화원장을 맡으면서도 각종 민속경연대회의 현역 소리꾼으로 활동하고 있는 차씨는 멧목소리를 가르칠 젊은 사람들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趙時=朴永昌기자>

장정 통 강릉대교수

「뱃목을 타고 술잔을 드니 아리랑 타령이 저절로 난다」는 소리꾼 차해순(박해순·72)씨.

그는 인제문화원장직을 맡고 있어서 걸로 보면 대표적인 느낌을 갖게 했는데 구성지게 뱃목아라리를 읊어나가는 모습에서 친근한 소리꾼의 면모가 엿보인다.

차해순씨는 남면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뱃목아라리를 듣고 자랐다. 자신은 때론으로 경성을 살지 않았지만 한 때 뱃목아라리를 부르면서 순천가는 들길인 「골인때」를 거쳐 칠명근처 「아랫강때」까지 이 일에 종사했다. 물이 졸을 때는 당일이나 사나흘 걸려 당도했지만 한여가 다가는 「막사리때」는 들살이 새차서 보통씩도 걸었다.

뱃목은 겨울에 나무를 작업하여 살아올린 종이를 해놓았다가 봄철들어 인제 내린천 소름개들에 담그는 작업을 한다. 이것을 앞들은 25개 뒷들은 20개 정도씩 힘으로 묶는데 앞사공과 뒷사공 두명이 방함키인 「거레」를 움직이면서 강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봄철에 처음 뱃목이 나가는 것을 「갯때가」라고 한다.

들길이 짧고 주변경관이 빼어난 말강나무에서 감치성을 울리고 떠나면 뱃목아라리는 경선아라리처럼 느리게 불리는데 그것은 유속이 느린 여울(여울)에서만 소리를 하기 때문. 실제로 들살이 섰곳에서는 목숨이 왔다갔다 하기에 소리할 새가 없다.

인제 때문들은 내린천과 인북천이 합쳐지는 이곳 말강에서 출발하면 편이 난다는 「경에여울」을 지나 들살이



비물어지는 「비불이」를 통과하고 신남 선착장인 「괴평이」와 가장 녀차가 심해서 두렵다는 포하리 서남평이를 지나면 마중나오는 사람이 있다. 누구일까.

때와 함께 웅기실고 소실고 떠나면서 부를때는 유희요

방태산서 나무베고 묶을땐 빠르고 힘찬 노동요 넘새

석쟁이 날만겨주네.

여기서 「석쟁이」는 들방장사라고도 하고 꿈지갈보라고도 부르는 술집 작부들이다. 때문들의 두견봉이나 석쟁이와와 사람들은 지나간 일이지만 자주 되돌아보고 싶어진다. 그것은 때문들의 생전과 별 수 없는 또다른 삶의 모습이다.

인제뱃목아라리는 때와 함께 웅기도 실고 소도 실고 떠나가면서 부르는 소리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아라리의 유희요 같은 느낌이 났지만 이들이 산에서 나무를 베는 작업과정의 소리는 또렷도움없다.

그들은 방태산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어멍」이라고 외치고 나무를 베다. 다음엔 나무를 쇠꼬챙이인 「도비」로 당기면서 일노래를 부른다. 땀과목일이 중심이기에 소리는 빠르고 힘이 들게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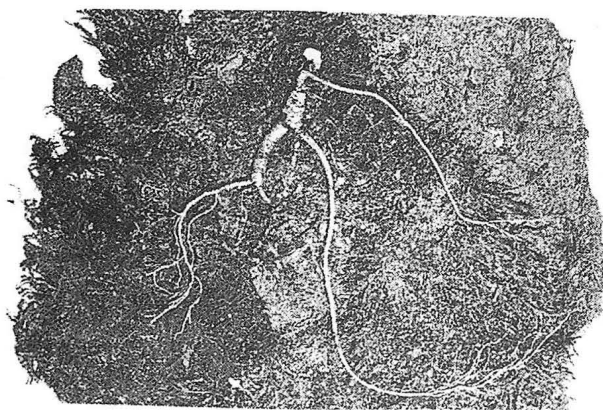
「여여차, 이 나무가 어디서 왔니/방태산 삼상봉에/비바람에 시달리다/낙각장승 되었는데/금줄자로 명을 받아/어멍소리 한마디로/방태산을 떠나왔네/만민간에 힘을 얻어/목로천리 수로천리/인제말강에 나왔구나, 여여차」 이렇게 끝고 와서 말강에 띄우게 된다.

차해순씨는 인제 같이남박만드는 소리도 하고 술값은 소리도 알한다. 그의 입에서 나오면 소리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 듯하다. 그래서 자신은 늘 고맙프다고 한다. 문화원장이 목에 힘주는 자리가 아님은 분명하지만 소리꾼으로 이곳저곳에 불려다니는 것이 참으면서도 불편함이 엿보인다.

인제가 살길은 설악산과 함께하며 케이뽀카라도 높은 일이라는 차해순씨. 한계령을 넘으면서 이 고개가 내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묻고 싶었다. 산과 물이 어우러진 소리를 만드는 차해순씨. 그의 소리는 한계령 메아리처럼 오래 귓전에 남아있다.

麟蹄靈藥山蔘家業民俗史研究

심마니 民俗史



麟蹄靈藥山蔘家業民俗史研究

— 심마니 民俗史 —

麟蹄鄉土史研究所

研究員 李 萬 喆

〈目次〉

- | | |
|----------------------|-------------------|
| 1. 머리말 | 5. 심마니의 금기 사항과 소리 |
| 2. 인제의 자연 환경과 산삼 | 6. 산삼을 캐는 과정 |
| 3. 자연적 배경과 심마니 | 7. 인제 심마니의 발굴 재현 |
| 4. 심마니 용어와 俗信에 비는 祭文 | 8. 결 론 |

1. 머리말

민족의 뿌리를 찾아 명맥을 계승하는 일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누구나의 과제요, 사명인 것은 앞에서 열거한 점이지만 다시 한 번 본문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가 옛 선인들이 자연 환경에 따라 생활하여 온 민속사중 매우 비중이 크게 지배하였던 생활사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가치성을 다시 한 번 지면에 주지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선인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과 그 속에 담긴 슬기로운 지혜를 찾아내어 그 모든 자료들을 한데 묶어 한 권의 사료집으로 발간함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교훈

이 되고 또한 민속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보탬이 될 것이며 크게는 전통 문화를 찾는 일은 일찍이 각처에서 시작되어 잘 보존되고 계승하여 오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숨어 있는 민속사를 찾지 못한 것도 많고 또한 대충 구전으로 들어 알고 있는 사관속에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민속사도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고장 인제에서 자연 환경에 따라 우리 선인들께서 생활수단의 한 방법으로 산에 입산하여 영약인 산삼을 캐서 생활을 영유하여 왔던 민속사를 적립하여 그 자료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필자는 본문을 정리하게 되었다.

1) 심메마니 민속사의 조사 경위

앞에서 주지한바와 같이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생활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한 자료를 모아 기록으로 남기고자 본문에서는 우리 고장에서 예로부터 생활의 수단으로 산 속에 입산하여 영약으로 특효인 산삼을 캐면서 살아온 민속사를 조사하게 되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산삼을 캐는 것은 전국의 깊은 산 속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지금도 많이 캐고 있다. 대체적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심마니들이 흩어져 살고 산삼을 캐 수 있는 지역은 크게 4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금강산·오대산·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과 덕유산과 지리산을 포함하는 남부지방 그리고 북한 땅에는 혜산·갑산·통산을 중심으로한 개마고원 일대와 강계·자성·혹창 지역에 있는 연화산 회색봉 일대에서 산삼이 많이 난다고 한다.

본문에서는 설악산을 비롯한 대암산·향로봉·한계산·가리산·점봉산 등을 지니고 있는 우리 고장 인제에서 예로부터 산삼을 캐어 가업을 영유하여 왔던 민속 생활사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조사 방법

우리 고장 민속사 자료를 수집하여 사료집을 발간하고자 본원에서는 97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한 가지씩 자료를 수집하여 원고 정리에 착수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주로 원로 노인네를 찾아 고증을 받는데 주력을 하였고 그의 문헌을 찾아 인용하였으며 특히 우리 고장의 자연 환경에 따라 예로부터 입산자원을 얻어 생계를 유지하여 왔던 민속사를 조사하여 재현한 바 있는 강원도 민속 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한 소재들을 참고로 하여 정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많은 참고가 되는데 용이하였다. 따라서 본문에서 정리하고자 하는 심마니 소재도 96년도 제4회 강원도 민속 경연대회에 출연한 바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였으며 또한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관내 노인회를 순회하면서 직접 산삼을 캐서 가업을 꾸려 왔던 노인네들과 부업으로 산에 입산하여 산삼을 캐 왔던 노인네와 구전으로 들려주는 말을 고증을 받아 정리하게 되었다.

마침 생각 외의 일로 산삼을 캐 왔던 노인네들이 많았으며 또한 친절하고 자세하게 고증에 임해 주어 매우 고마웠다. 조사하던 중 설악산 가까이에 인접해 있는 북면에서 많이 고증을 받았으며 원통리와 한계리에서 예전부터 심을 보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왔다는 것이 나타났다.

3) 고증을 해주신 분

최병권(69) 인제군 북면 한계1리

김춘봉(85) 인제군 인제읍 합강1리

동기주(64) 인제군 북면 한계2리

이현재(62) 인제군 북면 한계2리

2. 인제의 자연환경과 산삼

우리 나라 중등부의 대표적인 산악지대로 설악산의 서쪽 일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800m 이상의 높은 산이 약 200개나 솟아 있다. 인제의 산하는 범상한 자연이 아니라 나무숲이 우거지고 기암 괴석이 하늘을 찌르며 맑은 물 깨끗한 바람을 쏘는 글자 그대로 산자수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인제 산하의 겉을 본 것이지 속을 본 것은 아니다.

자연은 우리 인간의 생활 터전이기 이전에 모든 생명을 낳아 주고 키워 온 범연히 보아서는 그 실체를 알지 못한다. 이 산하의 갈피 갈피 속에 점철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의미있게 들여다 볼 때 그의 참모습을 알 수 있고 관심을 알게 한다.

그 관심이 곧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 사랑이 향토애로 승화된다.

인제의 산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땅이 이곳이요 참으로 사랑할 값어치가 있는 땅임을 실감케 한다. 특히, 다른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야생 동물들의 낙원이다.

평 · 뜰부기 · 원앙새 등의 야생 조류가 많이 자생하고 있는

곳이며 설악산에는 반달곰·사슴·노루·멧돼지·너구리·산양·오소리 등 50 여종의 포유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고장이다.

특히 40~50 여종의 신비한 각종 약재가 채취되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부업으로 봄, 가을 채취에 나서 상당액의 소득을 올리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중요한 약초로는 검초(강장보혈제), 박주가리(강장제), 삼주(건위제), 작약(보혈제), 지황, 자호, 족두리품, 박지, 천궁(보혈), 단너삼(방한제), 땅두릅(감기, 신경통), 복령(신경안정제) 등이 있다.

이밖에도 많이 나는 약재로 전호승마·산수유·산약·사삼·만삼·패모·구기자·지모·두충·오미자가 있다.

이러한 약초와 더불어 특히 신비의 영약으로 알려진 산삼의 산지로 깊은 산골마다 산삼이 많이 나는 지역이다. 이로 인하여 설악산과 대암산 향로봉·방대산·점봉산 등 인제안의 큰 산 깊은 계곡에서 산삼을 보기 위하여 심마니들이 산삼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살아왔다.

여기서 주지하고자 하는 말은 현대에는 문명이 발달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하는데 생활에 근거를 두지 않았지만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옛날 선인들은 첩첩산중으로 되어 있는 이 고장 인제에서는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생활을 영유하였던 비중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산림자원중에 산삼이 귀하고 값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는 횡재의 희망적 생활을 영유하는 심마니들이 전문적인 가업으로 살아왔다.

이에 본문에서 이 고장의 옛 심마니 민속사를 정리하고자 한다.

3. 자연적 배경과 심마니

1) 자연적 배경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중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인제군이 지니고 있는 설악산은 원래 산세가 좋고 물 맑고 경치 또한 좋아 금강산 다음가는 명산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병풍처럼 둘러선 기암절벽과 아람들이 고목이며 반달곰을 비롯한 희귀 동물과 이름 모를 산새들이 지저귀며 맑은 개울물과 에델바이스를 포함한 아름다운 고산식물들은 이곳을 한 번 찾아본 이들은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돌아가곤 한다. 그러기에 방랑시인 김시습은 “목메어 우는 한계의 물아 먼 산을 밤낮 흐르다”라고 읊었다고 한다. 그러한 명산인 이 고장 설악산에 옛날부터 산삼에 얽힌 전설이 많아 심마니들이 이곳을 찾아오곤 한다.

2) 산삼에 얽힌 전설

구전에 의한 전설을 찾아보면 신라 선덕여왕 10년에 왕정웅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그가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 산신령이 현몽하기를 설악산 어느 계곡에 가면 이름 모를 꽃이 피어 있는데 그 식물을 손으로 뿌리째 캐어서 여왕에게 진수하라는 꿈을 꾸었다 한다. 왕정웅은 하도 신기하여 그 이튿날 산신령이 가르쳐준 장소에 가 봤더니 정말 이상하게도 생긴 식물이 있기에 신기하게 여겨 정성껏 캐어 여왕에게 진수하였더니 마침 여러 날 식음을 전폐하고 앓아 누웠던 여왕이 그 뿌리를 달여 먹고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그 후로는 병으로 앓

아 누운 적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이조 숙종 13년에 지금 한계리에 김유정이란 당대의 이름난 효자가 살았는데 그 효자는 자기의 노모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갖은 약을 다쓰고 산신령께 어머니의 병환을 낳게 해 주십사하고 매일 아침 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궁둥이의 살을 한 점 베어 어머니께 드리면 낳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후 칼을 솥돌에 잘 갈아 머리맡에 놓고 자는데 꿈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효성이 지극한 유정아! 너의 효성에 감탄했노라” 하면서 설악산 어느 곳에 가면 이름 모를 약초가 있는데 그 뿌리를 캐어다 어머니께 달여 드리면 너의 모친 병이 깨끗이 낳을 것이라는 산신령의 말을 듣고 그 산에 가 보았더니 정말 보지 못 하였던 이름 모를 산초가 있어 신기하고 이상하게 여긴 유정은 그 뿌리를 정성껏 잘 캐어 어머니께 다려 드렸더니 정말 이상하게 깜짝 놀랄 정도로 어머니의 병이 깨끗이 낳았다고 한다. 산삼에 관한 전설은 이외에도 많은데 그후로 세인들은 앞을 다투어 심마니를 시작했다고 하며 근래에도 산에 산삼을 캐러 가는데 산신령으로부터 현몽을 받고 캐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금도 심마니들은 산삼을 함부로 캐 수 없다느니 산신령께서 주어야 캐다느니 복있는 사람만이 캐 수 있다느니 하는 설이 분부하다.

그처럼 산삼은 그 신기한 베일을 아직도 드리운 채 심마니들의 가슴을 태우게 하고 있으며 심마니들은 산삼을 보게 해 주십사하고 늘 산신령께 빌고 있다.

3) 인제의 심마니

천연 산삼의 약효는 생약 중에 으뜸으로 친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에서 캐는 산삼이 가장 우수하다고 중국의 옛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산삼을 캐고 살던 사람들의 내력은 기록에 남던 시대보다 훨씬 앞선 시대로 더욱 더 거슬러 오른다. 요즈음에 와서는 선대부터 대물림으로 산삼을 캐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어 드물지만 예전에는 산삼만 바라보고 한 집안의 가계를 꾸려 가는 가업으로 삼아 생활을 영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30대도 있었고 가까운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산삼을 만났던 것을 시작으로 전문적인 심마니 생활로 나선 40대 여인네도 있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산삼을 캐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산에 잘 들어가지 않으므로 심마니 생활을 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한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인제에서는 설악산과 대암산·향로봉·방대산·점봉산 등 인제 안의 큰 산 깊은 계곡에서 산삼을 캐는 것을 가업으로 삼아 대를 물려 가며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많았다.

심마니들이 산으로 들어가 있을 때의 얼굴과 캔 산삼을 돈으로 바꿀 때의 얼굴 표정은 엄청나게 다르다. 처음의 표정은 신선과 대화하며 영원한 산 속의 증인이 되어 있는 얼굴이요, 후자의 표정은 산삼을 찾아 헤맸던 고생을 보장받겠다는, 단돈 얼마라도 더 받아 내야 한다는 욕심을 못 감추는 표정이다. 기약 없이 많은 날들을 산 속에서 헤매다 겨우 찾아낸 노다지 금덩이 앞에 나선 금광 주인의 눈빛이 그럴 수 있을까? 심마니들은 인제군의 원통리, 한계리, 용대리와 양양군의 갈천리, 오색리에 많이 모여 살았고 평창군의 오대산 부근에는 송정리 소리골 호명리와 월정산 뒤편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다. 그들에 대한 정확한 분포나 채삼(採蔘) 물량 등에 대한 형

편은 확실하게 통계로 나타나 있지 않고 있다. 그저 산삼과 관련있는 심마니들, 약초꾼, 또 이를 사가는 상인들과 거간들이 동태를 대충알고 있을 정도이다. 산 속에서 산삼이 아무에게나 눈에 띄는 것이 아니듯 심마니의 생활과 산삼캐는 습속 또한 안개 속에 묻힌 암산이나 안부(鞍部)처럼 들어가서 눈과 귀로 확인하지 않으면 모를 만큼 묻혀있는게 특징이다. 대충 이런 것이려니 하는 짐작으로 옛이야기처럼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산삼을 어디 사는 누구가 캐었다는 것도 얼마에 누가 사 갔다는 것도 그들 심마니 세계에서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그 산삼의 크기와 질을 놓고도 뚜렷한 계량의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다.

다음은 우리 고장 인제에서 산삼을 캐러 다녔던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다.

아주 옛날부터 이 고장에 산삼이 많이나고 있으므로 산삼을 가계로 삼거나 부업으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산삼을 캐던 심마니들이 많았겠지만 문헌의 기록이 없으므로 금번 조사에서는 6.25동란 이후 수복 당시부터 산삼을 보았던 심마니들 또는 산삼을 캐던 사람들을 대략 조사해 보았다. 그러나 대부분 연로하여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또한 거동이 불편하여 집에서 쉬는 노인네가 많았다.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괄호안의 연령은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명기해 둔다.

백성봉(85) 인제군 북면 원통4리
엄하섭(81) 인제군 북면 원통1리
김남천(81) 인제군 북면 원통1리

박광복(82) 인제군 북면 원통1리
 김종진(82) 인제군 북면 원통1리
 이운봉(85)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윤길용(81)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최종국(70) 인제군 인제읍 합강3리
 이맹도(72)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정정길(71)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함기중(85) 인제군 남면 어론리
 박용택(77) 인제군 북면 용대1리
 이성조(84) 인제군 북면 원통리
 조준복(70) 인제군 북면 원통리
 최병천(69) 인제군 북면 한계2리
 홍기주(63) 인제군 북면 한계2리
 이권일(58) 인제군 북면 한계2리
 이현재(62) 인제군 북면 한계2리
 이권희(62) 인제군 북면 한계2리
 김춘봉(85) 인제군 인제읍 합강1리
 진분희(여 52) 인제군 인제읍 합강1리
 안상근(67) 인제군 북면 원통5리
 손천유(67) 인제군 북면 원통1리
 박재철(70) 인제군 북면 원통7리
 이종우(75) 인제군 상남면 하남1리(매화동)

이외에도 심마니 생활을 하였던 분들과 여가를 이용하여
 산삼을 캐던 분들이 많으나 다조사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이분들중 산삼을 보기 위하여 계속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크고 적은 산삼을 캐 사람들이 있다. 대체적으로 지

금은 가게를 꾸려 나가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심마니 생활을 하는 분들은 드물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산에 들어가 산삼을 보는 분들이 많다.

다음은 본문에 기록된 분들 중 산삼을 캐던 이야기를 열거하여 본다.

먼저 인제군 북면 원통1리에 거주하였던 엄하섭(85)씨의 이야기이다.

엄하섭씨 그의 부친도 내설악을 비롯 오대산까지 산삼을 캐러 다니던 일이 있다 하나 밭농사를 주업으로 했으니 순연한 심마니라고는 할 수 없는 분이다.

엄하섭씨는 장가를 들어 10여년 동안은 원주에서 옷가지를 메고 행상을 하다가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들어와 정착을 하게 된 것이 34살 적이었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살아왔던 이성조(당시 69세)를 따라 한계령 계곡에 처음으로 입산을 하게 되었던 것이 처음의 동기가 된다.

그후로부터 엄하섭씨는 어려운 가업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인제안에 산삼이 난다는 곳은 자주 가게 되었다. 엄하섭씨가 '83년 8월 그믐께 자신이 50년된 산삼을 캐을때의 이야기이다. 8월 초순 아침 7시 30분쯤에 입산을 했다가 오후 4시에 하산을 하기 시작하는 당일치기를 보름쯤 계속했다 한다. 구광터를 찾아다니며 세잎짜리라도 하나 찾아보려고 애를 무척 썼다 한다. 아울러 그의 말에 의하면 무턱대고 가는 날이 별로 없고 좋은 꿈을 꾸거나 기분 좋은 날 대부분 산에 들어간다고 한다. 열흘 동안 한 뿌리의 산삼을 못보고 다녔지만 열이바쳐

보름을 채우겠다고 닳새를 더 다녔다. 그러나 산삼을 캐지 못하였다 한다. 작약이나 당귀 등 약초가 자주 눈에 띄어도 정성이 흠어질세라 한 뿌리도 캐지 않고 오로지 산삼 잎사귀 한 대만이라도 나타나기만 해 달라고 중얼거리며 쏘다녔다 한다. 결국 보름째도 허사였다. 집에서 며칠 쉬고 있는데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 잠이 들었던 이불을 박차고 나오면서 [애, 너! 당선이 됐다. 그것도 몰표가 나왔어]라고 하였다 한다. 엄하섭씨는 잠에서 깨어 이상히 여기면서도 길몽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한다. 아침일찍 부인에게 점심밥을 싸 달라고 하면서 산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한 다음 망태를 등에 메고 원통 건너편 갈골 계곡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눈에 띄는 것은 작약뿐이었다 한다. 점심때가 되어 가지고 간 점심밥을 산 제당에 바치고 간략하게 소원을 빌면서 산신제를 지냈다. 그리고 두 시간쯤 산 속을 헤매면서 산삼을 찾았다. 그러나 산삼은 쉽게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을 다시 먹고 송이라도 왔던차에 따라야지 하고는 송이버섯을 열댓개 따서 망태기에 담고 넓은 바위 위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쉬게 되었다. 한 참을 쉬고 집으로 하산을 하려고 담배불을 비벼 끄려고 발밑을 보니 4구 가닥이 쌍 앞으로 네 대가 솟아나 있는 것이 눈에 확실하게 보였다 한다. 주위를 바라보니 아무도 없는지라 심봤다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고하여 네 대의 산삼을 정성껏 캐어 바위 이끼에 싸서 망태에 담았다.

점심밥으로 산신령께 바치면서 절 네 번하고 횡재를 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은 인제읍 함강1리 김춘봉(85세)씨와 같은 마을에 사는 진분

희(52세)씨의 이야기이다.

김춘봉씨는 젊어서부터 인제에서 오래도록 살아오신 분으로 지금 대한노인회 인제군 지회장을 맡고 계신 분으로 신수가 좋고 건강하여 현재에도 젊은 사람들이 못따라 올 정도로 산을 잘 타는 분이며 85세의 고령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불일 보러 다니시는 건강한 분이다. 또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부인따라 몇 년전에 영세를 받은 분이며 한 주라도 거르지 않고 주일마다 성당에 나오시는 분이다. 그 주변에 진분희(52)라는 여자분도 7~8년전에 남편을 잃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김춘봉씨의 두 부부는 어렵게 주위에서 살아가는 진분희씨를 불쌍히 여기면서 돌보아 주었다. 또한 김춘봉씨는 산을 좋아하고 잘 타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도토리를 주우러 산에 가면 함께 진분희씨를 데리고 여러 명과 함께 산을 찾아가게 되었다. 또한 산나물을 뜯으러도 이와 함께 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진분희씨가 좋은 꿈을 꾸어 길몽이라 여겨 김춘봉씨와 같이 산에 입산하였으며 그 길로 산삼을 보게 되었다 한다. 그러기를 몇 해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두 분이 캔 산삼만도 32뿌리가 된다고 한다. 주로 인제안의 가리, 덕적리, 설악산 등에서 산삼을 캐다고 한다. 금년에도 평창 오대산에 산삼을 보아 둔 것이 있어 진분희씨와 가기로 하였다 한다. 주로 진분희씨의 현몽으로 꿈을 꾸어 캔다고 하며 김춘봉 노인네는 눈이 좀 어두워 진분희씨가 주로 심을 본다고 하며 캐는 산삼은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고 한다.

다음은 필자가 중학교에 다닐 때 방학을 이용하여 마을 어른들을 따라 산에 입산하여 산삼을 캐던 이야기이다.

필자는 양구군 남면 가오작리(광치)에서 태어나 6.25사변 때 원주로 또한 충청도 괴산군까지 피난을 갔다왔다. 수복 당시 고향인 양구군 남면 가오작리(광치)에 와서 살게 되었으며 학교를 양구에서 다녔다. 중학교 3학년때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우연히 마을 어른을 따라 인제 갯골 안막침에 산삼을 캐러 왔었다. 당시만 하여도 산삼을 보지 못하여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때였다. 다만 같이간 어른들께서 오갈피 나뭇잎을 따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생겼는데 잎사귀 줄기 따라 하얀 솜털 가시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광치 윗골짜기인 너래골(너른골)을 따라 인제 갯골과 경계인 말등을 넘어 갯골 안막침에 도달했다. 어른들은 한참을 쉬고는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갈대풀을 베어 지붕을 해 이었다. 쉽사리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움막을 지었다.

해가 석양에 질 무렵 준비한 항구<군인 그릇>와 냄비에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어른들은 밥을 먹기 전에 간단히 산신령께 제를 지내기 위하여 제당을 정하고 나무가지를 가로질러 놓고 거기에 소지를 걸고 지은 밥을 놓고 또한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면서 산삼을 캐게 해 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필자는 선대 때부터 천주교 신앙을 철저히 믿어 왔기 때문에 제는 올리지 않고 어른들의 행동에 따라 제를 지내는 것을 지켜만 보았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늦게까지 어른들은 이야기꽃을 피우며 대화를 나누었다. 필자는 어린 탓인지 집에만 가고 싶은 생각뿐이며 재미가 하나도 없었다. 어느덧 밤이 깊어서 움막에서 잠을 이루고 하룻밤을 지루하게 넘

졌다. 역시 아침에도 어른들은 밥을 지어 제를 지내고 식사를 하였다. 한참 있다가 산삼을 캐러 제각기 한 방향으로 거리를 두고 산을 올랐다. 필자는 어른들을 놓칠까 봐 멀리 떨어지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비슷하게 생긴 풀들을 유심히 보면서 때로는 손으로 뽑아 어른들에게 물어 보면서 산을 누볐다. 오후를 지나 한참 산을 올라갈 무렵 앞에는 갈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갈잎 소리가 앞에서 들렸다. 눈을 돌려 소리 나는 곳을 유심히 보았다. 이게 웬 일인가? 조그마한 꽃땀이 내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었다. 필자는 너무 무서워 재빨리 뒤로 돌아 뛰어 내려왔다. 한참을 내려와 다시 산을 오르기 위하여 옆으로 방향을 돌려 가는데 큰바위가 있었다.

그 바위를 쪼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눈에 띄는 풀이 어른들이 가르쳐 주었던 산삼의 잎과 모양이 같았다. 필자는 그 풀을 손으로 쑥 뽑아 자세히 보니 오갈피 나뭇잎 모양에 하얀 솜털이 줄기를 따라 있었다. 분명히 이것은 산삼이다 라고 생각되어 옆에 있는 어른에게 가지고 가 물어 보았다. 그리고 어른에게 산삼 캔곳을 알려 주었다. 그 어른께서는 내가 캔 곳에서 한참 둘러보았다. 또다른 어른들이 모여 산삼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더 캐지는 못했다. 필자는 비록 내피(외잎) 산삼이지만 어린 나이에 처음 캐 본 산삼이라 매우 만족함을 느끼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그후 집에 돌아와 더 키우겠다고 화분에 심었다. 그러나 산삼은 누렇게 잎이 변하더니 결국은 살지 못하여 다시 울타리 밑에 옮겨 심었다. 그러나 며칠 있다 보니 심은 산삼은 잎이 망가지고 뿌리를 헤쳐 보니 삭아 없어졌다. 그 당시 필자는 매우 허무하여 며칠을 우울하게 지낸 적이 있다.

4. 심마니 용어와 속신에 비는 祭文

1) 심마니 용어

심마니가 산에 입산하여 공통어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어인마니 : 나이가 많고 산삼을 캔 경력이 가장 많은 사람.
- 천둥마니 : 산삼을 캔 경력이 대체적으로 적은 사람.
- 5구 : 50년생 산삼.
- 6구 만달 : 60년생 산삼.
- 7구 두루부치 : 200년~300년 묵은 산삼.
- 닷잎내피 : 잎이 다섯 달린 산삼.
- 세잎내피 : 3~4년생 산삼.
- 주루먹 : 짚이나 나무껍질로 줄을 모아서 엮어 만든 망태기
- 모듬·움막(초사니막) : 산 속에서 심마니들이 기거하는 막사.
- 산신당(제당) : 산신께 제례를 드리는 장소.
- 마대 : 심마니들이 사용하는 지팡이(편리하게 짚고 다니면서 나무를 때려 소리를 내면서 서로의 위치를 알리는데 사용함.)
- 해동 : 조선땅
- 영정한 : 부족한
- 물알로 : 물 아래로
- 쉬머 : 너그러운 보살핌
- 희망간성 : 잘 받아들이 좋게 느낌.
- 상시부모 하술처자 : 위로 부모 모시로 아래로 처가 거

느림.

- 고분성 · 백운성 : 산줄기 · 계곡
- 찌기 : 바위
- 감재비 : 낮
- 고갱이 : 관솔
- 모래미 : 쌀
- 두루미 : 밥 · 메
- 중미리 : 돼지
- 올림대 : 숟가락
- 흘림 : 술

2) 속신에 비는 제문

심마니들은 속신에게 소망을 빌면서 영약인 산삼을 캐고 있다. 산신에게 비는 제문(祭文)은 비록 산삼을 보게 해 달라는 소망만을 비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안택과 산삼을 캐러 다닐 때 조금이라도 다치지 않게 해 달라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제당은 일정한 곳에 정하고 제물은 정성껏 준비하는 사람과 간소하게 준비하여 차려 놓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 보편적으로 준비하는 제물로서는 메(밥) · 주 · 과 · 포 · 소지 · 향 등이 된다.

필자는 1986년 제4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을 위하여 우리 인제군의 전통 민속 생활사인 심마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출 시나리오를 작성한 바 있다. 이 당시 심마니 민속발굴 고증에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거주하였던 박광복씨와 김종진씨에게 고증을 받은바 있다. 이분들은 예전부터 심마니 생활을 오래도록 해 오신 분들로 산에 입산하여 산삼을

개는 과정을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이분들에 의하면 입산하여 산삼을 캐기 전에 산신에게 제를 드릴 적에 축문이 있고 산삼을 캔 후에 제를 지내면서 드리는 축문이 있다고 고증해 주었다.

먼저 박광복씨의 축문을 밝혀 보고자 한다.

산삼을 캐기전 축문은 다음과 같다.

유세차 병인년 칠월 초이튿날 천지대여 골라루 일상 생기 이중천 이사바 절제 사중유현 오상하혜 육중복덕 생기복덕 골라내니 그 의미로 대기량 하읍기로 설악명산 대천들어와 정성발원 드리오니 연가부 하소서. 유세차 해동은 조선국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박광복 근친 산천드령이 충암절벽은 가지를 지르는 듯 하고 만학천봉은 어깨를 누르는 듯 한데 천지인간에 북매산이나 천태산이나 산신이 내리우니 이 산천들어와 축원 봉축 드리오니 축원문이 소중하다 말으시어 부정타거늘 먼저 할 축원 소지항사 내중하기에 등 할 축원 먼저 하드래도 풀어 해월불지 어기 추알 천항신은 목덕으로 왕한지요, 광상지태 일진 구지십팔수 구용설은 은하수가 나리시고 지항신은 하두 들어와 한이 동방에 천지지신 호방지신 인나지신 오유소친은 부모귀수 하온고로 선구대시 나가시고 수인신은 조민화시 가훈걸어 팔만사천 귀두아인 하귀시고 인생이 인하니 인황신은 형지구이니 분장구두하여 오류삼강이 아리시고 물생어묘 아니금용수 하통오해이 나가시고 귀생은 인하니 죽전죽지와 음향지도가 복하시느 회호팔개하여 남은 여가를 마련하온고로 산심 기왕이 나리시고 언황성탄은 지은대함 감흥만에 신난뜰이 비를비으 대우방수 천기하온고로 천도천

조단마리 나가시고 천하무사 제갈량은 남중산하에 칠성단을 모아놓고 동남풍을 일어내어 만군중을 파하여서 어디자고 이래로 죄새죄생 하오리다. 아려한고로 천하 천하하시든 공. 맹자 대승이는 춘추 대성 산구주 산처대산 전기도하 송할발언 마련되기 때문에 제사제문 법이 마련되고 함께 짓는 수하들에 장구지랴다 하신지 일년은 십이생 대원은 십삼세수 어른이시고 일대원은 삼십일 백만 삼만 육천 일삼백 육십 날에 이 십사절이 나타항우는 이씨 한양에 되기 아니듣는 춘춘 방방 곡곡에 같은 값이니 이승지 하루 열매를 의구청비단 홍비단의 비단 배필같은 의구 청실홍실 느릴 적에 기러기로 전안하고 삼학사에 검은 고아 탄 임금에 뭇로 정할고 대공실 걸어 의구천지로 맹세하고 일월 누중인 대궐 산천누루 이야하여 태산같이 높은 인연과 하해같이 깊은 정을 맺어 놓고 안과태평 하올때는 가난이 적막하고 의욕이 대침하여 살아놀길 들어 울기에 통천에 드어온 저가 설악명산 대천 인제서 육구만 달 오구에 다했으니 점지시켜서 대수대통 드리든지 나를 두고 지지강생 남이여라. 마니드은 이 산천을 들어가 집을 지거든 불지 생기 불제 덕이라 하옵고 이 산천 들어가니 층암절벽은 가시를 지르는 듯 하고 만학천봉은 어깨를 누르는 듯 한저루 천지이행 간에 북매산이나 천태산이 사람이 없는 이 산천 드어가서 머리감아 정성이요 목욕하여 정성에 정성을 다한 후에 정한의복 갈아입고 세수하여 정성이요, 목욕하여 지성이요 수족 씻어 정성으로 금욕기를 가려내어 뒷넷물을 길러가니 두견 열두 무던수라 부정타 놔 젖혀놓고 앞넷물을 길러가니 웨전육중 누던수라 부정타 젖혀놓고 돌아드는 구곡천은 원앙수라 더욱 부정타 젖혀놓고 칠월칠석 은하수는 전우직녀와 둘이 마주쳐라 부정타 젖혀놓고 동방에는 청과수요 남방

에는 적가수요 서방에는 백가수요 북방에는 흑가수 중앙한가수를 이리저리 젖혀놓고 흘러가는 청저수요 땅에서 솟아오른 녹고수를 씻어들어 논으로 상생지 서양은 눈으로 발전된 기계 방에 정미소에 여자지기 구의지여 강태공의 노적방에 한 번 찢어 하생미요, 두 번 찢어 중생미요, 세 번 찢어 삼생미를 금광별로 골라내어 전라도 돌절구 유자나무 공이 뒤에 삼칠일이십 일에 스물한 번 찢고 찢은 메마른 메를 지을 적에 재티 불티 날아오를까 양손에 행주는 오금에 일기와 바다에 마리와로테 유가병 하수일리를 바쳐 놓고 양초일상 불 밝혀 드룽반에 바쳐 놓고 향을 향해 불을 분향재배 드리며 심마니 옹은 산천에 드어와 정성발원 드리오니 소의로 드린 정성 대의로 받으시고 대의로 드린 정성 태산같이 받자고저 태산은 고사하고 소산은 불침 하옵소서. 이은마니는 가난이 정막하고 구역이 대심하여 없는 것은 많사옵고 있는 것은 적사옵니다.

소의 제문을 고하건대 설산에도 양지 끝이요 광풍에도 난지 같사오나 속담에 이르기를 양지의 만삭국밥 나기 천식국을 다드려도 정성이 부족이면 재시 없나요. 빈자에 생응배 일기와 주곽피라 이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선 이기에 피루여경 안오저 각기가에 피부여 양이라. 공든탑이 무너지는 힘든낙이 무너지오라.

노나라 순양설두 이 무사 기도 후에 공자님을 생계하고 내명부 위심으로나 막간 바로 이에 충열은 생계하고 원하무사 재갈량도 남경산하에 칠성단을 모아놓고 동남풍을 일어내어만 궁중을 다하엿사오니 자거히 내로 퇴새퇴생 하오리다. 이러한 고로 옥황님 귀의선은 제의신명 매련하고 드린 신명은 강생을 매련하옵기 때문에 손오공 선생님네는 서천서역두 들어가서 팔만대장경을 모시다가 강원도 금강산 유정사에 오시

사 뿌리건자로 문명자리라하여 합척문에 내를 빌어놓고 필만
 대장경을 들이하니 강생도의 정이하고 이 산천 드어와 산신
 령님 전에 이 정성 발원드리오니 소의로 드린 정성 대의로 받
 으시고 대의로 들인 정성 태산같이 받자고저 이러한 안인수
 인간은 쇠슬로 밥을먹어 통기도중 못가리고 초정일자로 앞을
 가려 내달리지 못하고 지척을 분별치 못하는 금수와 다름이
 없는 인수인간이 오고 신령님네는 상풍천눈하고 그리라고 명
 령말려 하신 듯 신령님네나 수배님네가 상좌하리 상좌하고
 중좌하리 중좌한 후 하강하리 하강하리 차례차례 어차례 뒤
 차례 쌍무지개 서릿발과 외무지개 서릿발과 아홉 가닥 구곡
 줄과 여덟 가닥 팔개줄과 일곱 가닥 칠성줄과 여섯 가닥 육각
 줄과 다섯 가닥 오행 줄과 네가닥 사괴줄과 세가닥 삼전줄 흙
 양봉축법드루하고 여기온 김마니, 엄마니, 박마니가 여기에
 모듬을 짓거든 모듬할머니도 곱어 사리셔서 돌봐주시고 산에
 가면 산신님이 더르리고 길을 가면 도로장을 물에 가면 용왕
 님이 더그리고 산에 가면 산령님이 더그리고 육구만달이나
 오구나 세잎쌍대 네잎이나 가구새끼나 두루 방석심이나 폐심
 이나 줄심이나 육구 잔술백이나 구구쌍대나 있는 대로 소망
 성취하여 주시옵기를 비웁니다. 천구천지 하시나니 자연 감
 흥으로 몽을 주시더라도 천동마니는 알 수가 없어 모두가 명
 명길 이골이나 저골이나 앞산이나 뒷산이나 귀미든지 안내하
 는 대로 갈 생각이오니 또한 돌을 가래던지 풀을 가래던지 나
 무를 가래던지 누구든 침침침연 심마니가 등축을 밝힌 뒤 십
 오야 밝은달이 빛인 듯이 뚜렷이 보이도록 잠지하여 주십시
 오. 조선국 해동이로다. 단군이 비로소 국토를 설립하니 부연
 은 백일후에 궁궐이나 송도는 왕씨에 대궐이라 선천하신 우
 리 선군 한양에다 터를 닦고 뿌릴 성기 궁궐이요 해가 좌향에

바리를 백두산이 주산되고 한라산이 남산이라 무악의 설교를
삼도전이나 자열할 때 두만강이 청용되고 앞록강이 허허 산
대하였으니 우리 조선민이 태평승지하고 국태민안 하옵니다.

골고마다 명다이요 한산마다 중지로 다천지행중 일지심이
요 묘산에 비보하니 항상 그 봉에 있으리라. 이 산천 둘러보니
붉은 산이 내려와서 이 산천 땡기웁고 백두산이 자정하여 설
악산이 대쳐지좌 청룡우백호로 앉았으니 어찌 산삼이 없으리
까. 지정님네는 가서 이번 소망성취를 지위점지 시켜달라고
여러 마니는 축원봉축 하나이다. 또한 우연히 다니드라도 손
톱하나 발톱하나 다치지않고 눈큰 짐승. 발큰 짐승 진대나 아
무 짐승에게도 해를 입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심마니
들은 신령님 전에 백배 봉축 드리오니 자연감동 하강을 하옵
소서.

두 번째로 김종진씨의 산삼을 캔 후 치성축문을 밝혀본다.

보기추알 천하언제 시리오마는 소지 명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거하는 마니가 설악산에입산하여 육구만달 채삼
소망을 입었사왔기에 어찌 소망 얻고 그냥 있으리요. 야와 설
악산 산신령님 하에다가 검은 대마니 치성 드리오니 정성 부
족타 말으시고 일기 동반에 하위동심하여 내로 흠망하옵기를
천망봉축 아뢰올 제 모든걸 깨끗하고 부정치 않게 하느라고
해왔사와도 부정하고 누추한 것 절로 소멸 하옵시고 불로 해
발 하옵시고 일기 동반에 하위동심하여 내로 음망받자 읊고
비뚜로 감홍 하시라고 이날에 이 정성이 마련되리 오니 내로
흠양 반가이 받으시길 천만봉축이뢰올제 금일 날에 와서 이
정성을 드린 후에 명일에도 산을 재러 나가게되면 육구만달

채삼발으로 불러내 주시고 소망을 다시또 얻게 지위 점지해 달라고 봉골산천 산신령님 전에 이 정성 발원 드리웁니다.

하옵고 우리 마니들이 어느 마니 소망 없고 어느 마니 소망도 얻으면 되겠습니까마는 김마니 이마니는 소망을 얻었사와도 박마니 이마니는 소망을 얻지 못해서 와서 산신님 슬하에와 웃음으로 연락하게 지위점지 해 달라고 봉골산천 산신령님 전에 축원발원 드리옵나이다.

하옵고 모든 것은 산신님이 그저 우리 김마니 가족이던지 이마니 박마니 엄마니 가족 이래도 일년 열두 달 삼백예순날 관년 열석달이 가더라도 아디가 아프더냐 슬프더냐 소히없고 낮이면은 물이 맑고 밤이면은 불이 밝아 수승청령 환명옥에 지위점지 해줄 적에 나무눈에 계수나무 정자아래 일추월장 시켜줄제 오동나무 상상지에 봉학같이 지위나 점지 해 달라고 봉골 산천 산신령님 전에 축원발원 올립니다. 삼재팔난 지액이나 관제 것을 지역이나 정월달에 드는 액은 이월영동 막아내고 이월 달에 드는 액은 삼월 삼일 막아내고 삼월에 드는 액은 사월초파일에 막아내고 사월에 드는 액은 오월단오에 막아내고 오월에 드는 액은 유월유일에 막아내고 유월에 드는 액은 칠월칠석에 막아내고 칠월에 드는 액은 팔월이라 한가윗날 골비 송편으로 막아내고 팔월에 드는 액은 구월구일에 막아내고 구월 달에 드는 액은 시월말일에 막아내고 시월 월이라 드는 액은 동짓달에 동지 팔죽으로 막아내고 동지 달에 드는 액은 선달이라 그믐날에 만두국으로 막아내고 선달에 드는 액은 정월이라 대보름날 오희밥으로 막아내어 일년 열두 달에 누구나 그저 이 사인의 마니는 액을 막아내어 온가정이 안과 태평하게 지위점지 해달라고 축원이옵고 온 가족이라도 어디가 아프거나 어디가 슬프거나 소리 없게 그저 다

일년 열두 달 심백예순날이 가더라도 안과 태평하게 지위점지 해달라고 축원이옵기 우환질병 걱정근심 범수 태평을 지위점지 하옵나이다.

5. 심마니의 금기사항과 심보러 다닐 때 소리

1) 금기사항

산삼을 캐러 산에 입산을 하게되는 사람은 치성을 드리는 것 말고도 정갈한 몸가짐과 부정을 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금기(禁忌)가 많다. 좋은 꿈을 기다리니 때는 아내와도 멀리하고 집안이나 이웃에 궂은일이 일어나거나 있다해도 보아서 안된다. 피치 못할 일이 생기면 입산을 하기로 약속을 했가도 취소를 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닭고기와 개고기는 자신은 물론 가족이 먹어서도 안된다. 개고기를 꺼리는 것은 호랑이가 야산에 내려오면 먼저 찾는 밥이 개라는 믿음과 산신의 화신이 호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고기를 먹은 사람은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는 산속(山俗)이다. 닭고기를 먹어서 안된다는 것은 귀신이 나타났다가도 어둠 속에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에 모든 귀신은 사라지고 산신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닭고기를 먹으면 산신을 부르는 결과가 된다고 믿는다.

여기서 금기사항을 지키지 않아 혼이 났었던 엄하섭씨의 이야기를 필자가 86년도 자료수집시 기록해 두었던 것을 옮겨보고자 한다.

어느 날 가리봉계곡에 산삼을 캐러 갔었다. 그때 도시에서 피서를 온 등산객과 만나게 되었다 한다. 그들은 먹을 것을 많

이 장만하여 왔다. 그리고 잡은 닭을 여러 마리 가지고 와서 맛있게 양은술에 끓여놓고 여러명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먹고 있었다 한다. 그때 엄하섭씨는 그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더니 이리로 와서 음식을 같이 먹자고 하였다.

좀 꺼림직 했지만 닭고기 냄새가 구수하게 나기에 거절을 못하고 먹게 되었다. 안주 삼아 소주 몇 잔을 얻어 먹게 되었다 한다. 한참을 맛있게 얻어먹은 후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산에 오르게 되었다. 얼마쯤 가다가 큰 나무 밑둥치 벌어진 가진 틈에 돌 끼운 것을 보았다. 언제인가 누가 여기서 산삼을 캐다는 표시이다. 엄하섭씨는 그 나무 주변을 한참 두리번거리면서 산삼을 찾아보았다. 반반한 바윗돌 하나가 그 밑에 있기에 한 발을 내닫고 그 주변을 돌아보려는데 갑자기 넘어지면서 그 아래 언덕으로 거꾸로 굴러 떨어졌다 한다. 머리부터 내려가면서 떨어져 꼭 죽는 줄로만 알았다 한다. 한참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무릎을 다쳤다 한다. 절뚝거리며 재빨리 산 제당으로 올라가 정화수 떠놓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산신령께 빌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2) 심마니가 부르는 소리

심마니들은 산삼을 캐러 산에 오를 때나 산에서 산삼을 보면서 쉬는 시간 또는 하산할 때 가끔씩 나뭇대로 소리를 한다. 그들의 삶의 애환과 고독 그리고 희망 속에 우연히 타령 또한 우리 민족의 한과 열이 숨겨있는 아리랑 등을 주로 부르고 다닌다고 한다.

① 산타령

심을 보자하고 이산으로 들어오니
이산이 무슨 산인가 강원도땅 설악산이 아닌가
단군님이 강림하여 이 땅을 경영할 제
만백성이 하나되어 하늘같이 섬길 제
삼신산이 예아닌가 기산영수 아니던가
심을 보러 나왔더니
첩첩산중에 만학 청봉이 하늘아래 걸렸도다.
재게재게 발을 돌려
물도 맑고 정갈도한 바위틈에서
심을 보세 심을 보세
산신님이 점지하고 내리신 심을 보아
천 년 만 년 살고 지고

② 미나리타령

다박다박 다박녀야 너어디로 울며가니
우리 어머니 묻은 곳에 젖먹으러 나는가요
우지마라 우지마라 너어머니 오마더라
외양간 밑에 3년묵은 쇠뺨다구
살이 붙어 원앙 소리나면 오마더라
병풍에 그린 황계숫닭 꿩치며 울면
설광밑에 삶은 팔이 짝이 나면 오마더라
뒷동산에 만년 묵은 고목나무에
꽃이 피고 잎이 피면 오마더라
날과가자 날과가자 네어머니 있다더라

나와 가면 오마더라 나와 가면 오마더라

이른 아침 만난 동무 해질골세 이별일세
이산저산 양산간에 울고 간다고 국산이야
노세 노세 젊어노세 늙어지면 못노니라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명년춘삼월 돌아오면 꽃도 피고 잎도 피련마는
우리 인생 늙어지면 다시 젊지 못하리라
어제오늘 성탄 놈이 저녁나절 병이 드니
조르나니 어머니요 찾느나니 냉수로다
나물가세 나물가세 우리 삼동세 나물가세
모시대 참나물 쓰러진 골로 우리 삼동세 나물가세
오늘 해는 다 갔는지 골골마다 그늘일세
우리 마니 명일아침 다시 만나 산을 재며 놀아보세

③ 얼얼아라리

얼얼아라 아라리요
얼얼아라 아라리요
삼신산천 심산계곡
백년묵은 삼삼캐서
우리한번 잘살거니
얼얼아라 아라리요
얼얼아라 아라리요
어제저녁 꿈길에서
산신령님 나타나서
산삼캔다 하더이다.

6. 산삼을 캐는 과정

1) 입산

심마들이 입산하는 날은 음력으로 1일 3일 5일 7일 등 양수(陽數)의 날 이어야 하고 일진이 호랑이 날(甲寅·丙寅·戊寅)들은 피해야 한다고 한다.

양수의 날은 택하는 것은 잡신이 범접하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이고 산신의 화신이 범이기 때문에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호랑이 날은 피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나온 습속이다. 그러나 좋은 꿈을 꾸었을 때에는 이런 택일 습속은 입산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부정(不淨)한 일만 없도록 한다.

부정탈만한 일을 보지 않고 산삼을 캐겠다는 정신집중은 차츰 입산 택일보다 중요한 습속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좋은 꿈을 꾸지 않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좋은 날이 있는데 이때 함께 잘 다니는 심마니에게 연락을 하여 입산을 할 때에는 주루묵(망태)다 먹고 입을 것 또한 제물·낫·곡괭이 등을 가지고 입산을 한다.

2) 묘둑(산막·움막·움집·초막) 짓기

심마들은 일단 산에 입산하게 되면 비를 피하거나 밤을 지내는 잠자리의 집을 짓게 되는데 통털어 묘둑·산막·움집·초막이라고 부른다.

묘둑을 지을 때는 같이간 일행과 함께 안전한 곳에 터를 잡아 대충 터를 닦고 가지고 간 톱과 낫으로 나무를 잘라온 다음 움막을 짓게 된다.

움막은 사귀기둥을 세우고 옆으로 나무를 가로질러 붙잡아 맨다. 이때 옆으로 사귀를 아래 위로 기둥이 움직이지 않게 단단하게 맨다. 바닥은 조금 높이 나뭇가지를 잘라 마루 식으로 놓고 풀을 깔아 놓는다. 지붕역시 나뭇가지로 석가래를 엮어 깔고 그 위에 갈대풀 같은 것을 깔아 엮는다. 옆의 벽도 나무 밑이 많은 가지를 잘라다 앞에만 나두고 양옆과 뒤쪽을 막아 아늑하게 만든다.

심마들이 다녀간 계곡에는 힘안들이고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 묘둑이고 한 번 지어 놓으면 그 뒤에 다른 심마들이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산신제

심마들은 움막을 짓고 그 주위에 제당을 정하고 대충 터를 잡는다.

제당은 대개 큰 나무 밑에 아니면 큰바위 밑에다 정하는데 제당에 넓은 바위 돌을 놓고 그 위에 예단걸이 나뭇가지를 당쪽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위에 막대기를 가로질러 놓는다. 제당을 만들 때 일부 심마니는 밥(메)을 짓고 모든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준비가 끝나면 제물을 차린다. 먼저 소지(문 창호지)를 걸고 양쪽에 초를 켜놓고 다음은 주·과·포를 진설하고 밥(메)을 떠놓고 그 가운데 숟가락을 꽂는다. 소주잔에 술(홀림)을 부어놓고 가운데 향을 피워 놓는다.

다음 어인마니가 가운데 앉고 양옆으로 깔이간 심마들이 앉는다. 모두 함께 일어나 절을 네 번 먼저 하고 앉는다. 다음은 어인마니가 제문을 읽는다.

제문 외기가 계속되는 동안 양옆의 심마들은 손바닥을 비

비며 제단을 향해 머리를 굽혔다 일으켰다 한다. 제문이 끝난 다음 어인마니가 먼저 헌작한 다음 다른 마니들도 각기 헌작하고 다함께 절을 네 번 한다. 이렇게 산신제가 끝나면 음복들을 한다. 이들은 음복을 할 때 『지극 정성으로 드린 치성 잘 흠양 하셨으니 이 술을 음복하옵니다. 이 길로 떠나서 소망보게 하옵소서』라고 한다.

이외에 아침저녁 밥을 해 먹을 때마다 메밥을 산 제당에 먼저 놓을 절을 하면서 간단히 제를 지내고 식사를 한다.

또한 입산할 때부터 정화수만 떠놓고 입산 제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제사는 산삼이 심마들의 눈에 띄게 해 달라는 기원이기도 하지만 심마들이 산삼 캐러 산에 다니는 동안 다치지 않고 액운으로 목숨을 잃거나 하는 횡액을 만나지 않게 해 달라는 치성이기도 하다.

심을 봤을 때에는 산삼을 다 캐고 난 자리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산신제를 지내는 일도 있다. 옛날에는 심마니들이 옷 한 가지씩을 그 자리에 묻었다고 하며 그것은 산신령께 고맙다는 보은의 뜻이라고 한다. 또한 큰 산삼을 캐게 되면 먼저 마을에 내려와 마을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돼지를 잡고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잔치를 치렀다고 한다.

4) 산삼캐기

심마니들은 산신제를 드리고 식사를 든든히 한 다음 산삼을 캐러 출발을 한다. 산삼이 날만한 곳을 찾아 함께 떠나게 된다. 산삼이 나는곳은 북향을 하고 습기가 있는 산에서 많이 난다고 한다. 등에다 흘치기(망태)를 지고 한쪽 손에는 막대

기를 들고 풀을 헤치며 다니는데 홀치기(망태)속에는 점심밥과 산삼을 캐 수 있는 작은곡괭이·낫 등 소지품을 넣고 다니며 짚고 다니는 막대기(마대)는 산을 오르고 내려 다닐 때 지팡이로 사용하고 또한 서로의 위치를 알리기 위하여 나무나 바위 돌을 때려 소리를 내는데 사용한다고 한다.

심마니들은 산삼을 캐기 위하여 깊은 산을 오르고 내려 다닐 때 절대로 떠들지 않고 다니며 한군데 모여 다니지 않는다. 또한 사람이 잘 다니지 않았던 곳과 구광터(예전에 산삼을 캐던 자리)를 찾아다닌다. 세심하게 천천히 잡풀을 헤치며 다닌다. 심마니들이 산삼을 캐러 갈 때는 자신들이나 가족 중에서 좋은 꿈을 꾸고 입산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움막에서 현몽하기를 바라는 소망의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들은 산에 들어가 움막에서 가끔씩 잠을 청하는데 잠을 잘 때는 구광터(전에 산삼을 캐던 곳)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반듯하게 배위에 손을 얹고 잠을 청하면서 현몽하기를 바란다. 또한 그들은 산을 타는 도중 나무 그루터기나 비탈진 언덕에서 잠시 쉬더라도 눈을 붙인다고 한다.

그것은 꿈을 얻기 위함이다.

그들이 길몽이라고 여기는 꿈의 내용들은 대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

- 돼지를 몰거나 돼지를 자신이 잡는다.
- 어린아이를 안거나 업는다.
- 학이 품에 들어오거나 집안에 들어온다.
- 사람을 붙잡거나 죽여서 피를 본다.
- 짐승을 붙잡거나 죽여서 피를 본다.

- 피를 뿌리며 쓰러지는 시체를 업는다.
-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녀를 안는다.
- 어떠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소를 끌어다 준다.
- 백발노인이 나타나 무를 준다.
- 시체를 보거나 장례를 치른다.

그들은 가령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다고 해도 산신령의 성별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 남자 산신령이 나타나면 길몽이지만 여자 산신령이 나타나면 정성이 부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각별한 치성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산삼이란 영물(靈物)이라서 산에서부터 심마니의 눈에 잘 띄지 않고 방금 보았다가도 없어져 버리거나 다른 풀로 둔갑해 보인다는 말이 많이 있을 만큼 신비의 묘약임을 입증하는 얘기도 된다. 심마니들은 산신을 믿는다고보다 산삼 그 자체를 신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돈을 열심히 모으고 모으는 과정이나 돈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사람을 믿지 않으려는 이들에게서 만날 수 있는 화폐신앙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돈에도 가짜가 있는 것처럼 산삼에도 가짜가 있을 수 있다. 산삼은 우선 물에 넣어도 갈아 앉지 않고 뜯다고 한다. 아무리 어린 산삼이라도 반듯이 노두가 있고 마당심(산삼밭)이 틀린다고 한다. 천연삼이 아닌 산삼을 장뇌라고 부른다. 종자나 꽃을 피우지 않고 천연으로 생겨난 천연초(天然草)는 신화와도 같이 가장 희귀한 것이기에 최상품으로 친다.

심마들이 예전엔 산삼을 캐던 자리나 그 부근에서 찾아낸 산삼은 씨가 떨어져 생겨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산삼 씨를 까마귀, 까치 또는 다람쥐 같은 짐승들이 옮겨가 떨어 뿌렸거나 노루 사슴이 씨를 먹고 그 배설물에 삼씨가 섞

겨나와 생겨난 경우로 준장뇌 혹은 되뽕미란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그 하나는 밭에 심은 인삼씨를 깊은 산에 옮겨 심어 자라도록 한 경우와 산삼씨나 유삼(幼蔘)을 깊은 산에 옮겨 심어 천연삼으로 가장한 경우다. 이 되뽕미도 이름이 많은 것을 보면 산삼이 많다는 이야기도 된다.

그들은 이런 산삼을 두고 치자·양지파·도라지·길림·루피·되뽕미·초산되뽕미 등으로 부른다 한다.

7. 인제 심마니 발굴재현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제4회째인 1986년도에 우리고장 인제에서는 『인제 심메마니』란 소재를 발굴하여 출연한 바 있다.

그 배경은 앞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우리고장 인제 내설악은 기암절벽과 더불어 아름답리 거목이 총림을 이루고 있고 반달곰·사향노루·멧돼지 등의 희귀동물과 온갖 수천 가지의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산자수려한 명산이 쌓여있는 고장인 것이다. 이와 같이 원시림으로 우거진 명산에는 예로부터 산신령이 점지해 주었다는 영약 산삼이 자생하고 있어 우리 선인들께서는 이 산삼을 보러 다니는 심마니들이 드물지 않게 살고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특징과 배경이 서려있는 심마니의 전통적인 민속생활사를 심마니 생활을 주업으로 하였던 옛 노인네들의 고증을 얻으면서 발굴하여 놀이로써 재현한바 있다. 물론 세부적인 발굴은 하였지만 민속경연대회의 출연시간이 제한되어 있기로 중요한 부분만 재현하였다.

■ 당시의 주요 고증을 해주신 분 ■

박광복 : 인제군 북면 원통1리

엄하섭 : 인제군 북면 원통1리

김종진 : 인제군 북면 원통1리

위와같이 우리고장 전통민속사의 한 가지인 심마니 생활사를 발굴하기 위하여 당시 문화원장이었던 김진용(현 북면 원통3리 거주) 원장을 비롯한 공보실직원 및 필자는 위 고증인을 찾아가고 또한 문화원 사무실로 모셔서 카세트 녹음과 기록으로 고증을 받아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출연에 앞서 재현의 연습을 하였다. 당시 성인들로 출연진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농악대만 원통노인회 농악대로 10여명 구성하였고 그외 출연진은 원통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승낙과 배려로 원통고등학교 남녀 학생 50명으로 구성하여 재현하게 되었다. 또한 연출지도에는 원통고등학교 교사였던 장복한 선생님의 지도로 재현을 하였다.

당시 연출지도자 장복한 선생님은 강원대학교 재학 때부터 연극을 해 오던 경험으로 인제고등학교에 부임하여 인제에 연극단을 모아 “안살뵈”라는 이름을 지어 태동시키고 3~4회의 공연을 갖은바 있다. 또한 민속에도 심메마니·숫굽기·갈이남박 만들기 등 지도에 도움을 주었던 교사였다.

비록 제4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삼척시에서 개최될 때 본 소재를 가지고 출연하여 입상은 못하였지만 우리고장 전통민속사인 『인제 심메마니』 생활사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 당시의 출연 과장은

제1과장 : 심메마니들의 입산

제2과장 : 모듬짓기 및 산신제

제3과장 : 심(산삼)찾기

제4과장 : 산삼을 캔 후의 한마당놀이

위와 같이 4과장으로 연출을 하였다.

8.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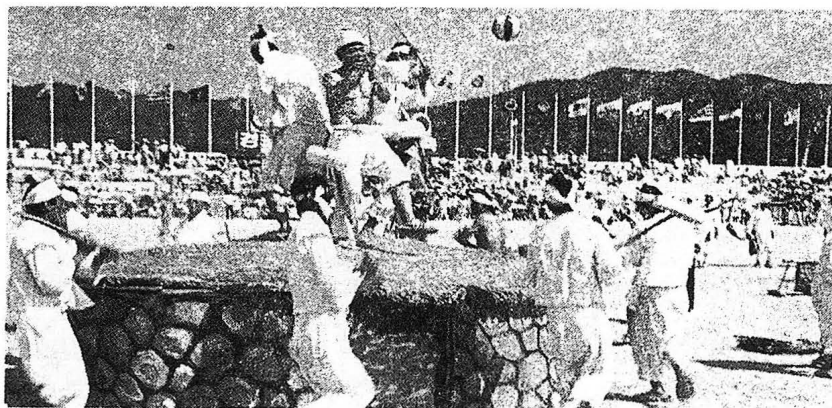
민속사를 계승 보존하는데는 소재의 가치성이 크게 부여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어느 민속사이건 모든 전통적인 민속사는 그 지역의 자연적인 특징이고 배경에 따라 우리 선인들이 껴서 살아온 생활사이기 때문에 고유적인 생활사에 가치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다루는 심마니 생활사도 도심지에서나 또한 산삼이 나지 않는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활민속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소한 사람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록으로 후대에 전승시킴은 나름대로 가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민속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한 논문을 별로 써 본 일도 없어 위와 같이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여 기록을 남기고자 글을 써보지만 이 글을 쓰면서 읽는 이로 하여금 흥미 될까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을 넓은 이해로 구하면서 읽어주시면 필자는 더 바랄 것 없으며 이에 힘입어 더 노력할 것을 자각해 본다.

麟蹄山林産業民俗史研究

숯굽기 民俗史



麟蹄山林産業民俗史研究

－ 숯굽기 民俗史 －

麟蹄郷土史研究所

研究員 李 萬 喆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5. 숯굽기 작업과 과정 |
| 2. 인제의 자연환경 | 6. 숯굽기 생활과 人間史 |
| 3. 숯의 역사 | 7. 인제 숯둔골 숯굽기 놀이 발굴 재현 |
| 4. 숯가마 만들기 | 8. 결 론 |

1. 머리말

민족의 풍류와 애환이 담겨 선조들의 생활채취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민속생활사는 오랜 세월의 흐름과 현대화의 물결에 밀려 세대간의 전승되어 계기없이 무관심속에 우리의 주변에서 사라지고 기억속에서 잊혀져가고 있음은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다. 고유한 민속사가 없는 땅은 척박하고 건조하며 미래를 열 수 없게 되는 것이며 민속사가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곳이라면 영원히 전진하고 영원히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번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늦게나마 시급히 우리 고유의 특유한 민속사를 조사 정리하여 보존하고

계승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 민간 민중속에 남아 있거나 전해지고 있는 전통신앙/설화/풍속/생활양식/관습/종교의식/미신/가요/언어/속담/민간지식 등의 민속사는 어느 한 사람의 지혜로써 구할 수 없는 것이요, 한 개인의 힘으로써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고장의 민속사 또한 지혜나 힘으로써 생취되고 얻어질 수 없다. 어떠한 민속사도 위에서 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갱신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명의 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출현하는 민속사야 말로 한 지방의 젊음과 정력을 북돋아주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이땅의 주인이 우리의 민족이듯이 인제의 주인은 인제의 언어/풍습/습관/신앙/설화/생활양식/가요/속담/민간지식 등에서 싹터 인제인의 가슴속에서 자라고 있는 인제인의 혼을 요구한다.

혼을 인제인이라 하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찬란한 번영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허공속에 뜬구름과 같은 명분이 되어 무너지고 만다. 아울러 인제인의 혼이 인제인의 民俗에 배어 숨쉬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인제인이 누리는 民俗은 모든 인제인의 열매를 기약하는 희망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큰 의미에서 인제의 민속사를 조사하여 기록으로 전승하게 함은 우리 인제인의 혼을 한군데 모으는 작업이요 그러므로써 미래에 대한 확신의 꽃을 피움으로 알찬 열매를 약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잃어버린 우리 고장의 민속사를 가까운 곳에서 찾고 되새겨 올바른 전통민속사를 정립하여 전승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다. 향토 전승문화의 큰 짐을 짊어지고 있는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물론 인제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향토사를 이어가는데 다함께 동참하여 자료를 발굴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힘입어 필자는 금번 인제민속사에 몇 가지나마 수집하여 정리하고자 산간문화의 전통사를 집필하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 고장의 민속사가 새로움을 더하고 그 빛 또한 전통의 열매로 승화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 조사경위

1997년 5월 1일부터 필자는 인제문화원의 사무국장으로써 또한 인제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우리 고장의 옛 선조님들의 생활사를 조사하여 기록을 남기고자 마음을 먹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옛 촌노들을 만나고 실제 당시에 숯을 구워 생계를 꾸려왔던 원로 노인네들을 찾아 고증을 받기로 하였다. 또한 1987년 8월 27일과 28일까지 홍천군에서 열렸던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연하였던 【인제 숯둔골 숯굽기놀이】 민속출연 자료를 참조하고 당시에 고증을 해 주셨던 고증인을 만나 자료를 얻게 되었다. 이에 고증인들께서는 숨김없이 진지하게 응해주어 자료를 수집하는데 용이하였다.

2) 조사방법

앞서 나타난바와 같이 '87년 강원도 민속경연대회를 출연키 위해 조사되었던 자료를 참고하고 또한 관내 6개읍면 노인회를 찾아가 당시에 숯굽기 생활에 직접 종사하였던 연령이 많으신 노인네를 만나 녹음과 더불어 메모한 내용을 풀어 집필을 하였다.

금번 산림산업 민속사 조사에서는 이 고장에서 옛선조들이

생계를 영유하여 왔던 숯굽기 생활에 모든 현상을 문화적 양상과 문학적 현상을 나타나도록 주력하여 산림산업 민속사의 기층문화를 정립하는데 큰 뜻을 갖게 되었다.

3) 고증을 해 주신분

손용인 (85)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이주은 (84) 인제군 인제읍 합강2리
박해순 (74) 인제군 인제읍 상동4리
조성구 (73)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선순영 (76)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김학수 (85) 인제군 남 면 신남2리

2. 인제의 자연환경

인제군은 옛부터 산이 많고 물이 많아 자연히 나무가 무성하였다. 인제군의 총면적을 1,621.³⁰km²이며 이중 1,456.⁸⁸km²로 산림면적이 88.8%를 차지하고 있는 짙은 산림지역이다.

또한 전면적의 약 30%가 평저지(平低地)이고 나머지는 산악지대로 되어 있으며 산맥은 동북단의 금강산맥과 동남단의 오대산맥이 유입하여 연미산/하마봉/추봉산/설악산/마등령/대승령/안산/한석산/가마봉/향로봉/대암산/가리산/점봉산/개인산/구룡덕봉/주억봉/가칠봉 등이 웅림하여 산간계곡으로 형성된 산림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인 자연환경에 따라 우리 고장의 옛 선조들은 산 속에 기거하며 산에서 나는 임산자원을 이용하여 생계를 꾸려 생활을 하였다. 그 예로 뗏목생활사, 목기를 만들어 영유하였던 생활사 등이며 그

중 솥굽기 생활사가 성행하였다. 그러므로 옛 노인네의 고증에 의하면 대표적인 곳이 남면 화탄리 일명 "솥둔골"에서 솥을 많이 구웠던 곳이며 인제읍 갯골 안막에서도 많이 구웠었다고 하며 골짜기마다 참나무가 많았던 곳에서는 대부분 솥을 구웠다고 한다.

1) 솥둔골 '화탄리' 자연환경과 솥굽기史

솥둔, 솥둔골, 禾炭里라는 명칭과 더불어 불리우고 있는 남면 어론 2리의 총면적은 342ha 이중 밭 78.7ha 논 20.3ha로 7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87년도의 조사한 자료내용으로 당시 73가구에 마을인구가 총 296명 이었으며 농가 70가구에 284명 비농가 3가구 12명이 살고 있었던 농촌이었다. 이 솥둔골은 약 300년전에 함씨, 지씨, 박씨를 가진 세가구가 맨처음 이곳에 정착하여 솥을 구워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다 한다. 이에따라 함지박골 이라고도 불리었다 하며, 또한 이 곳에서 벼농사도 지었는데 벼가 잘되어 벼禾자와 솥炭자를 합쳐 禾炭이라 불리워졌다 한다. 일제시대때 솥둔골의 '참솥'은 전국 최상품으로 소문 났었다고 일러 주지만 지금의 솥둔골은 그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마을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약 1km 지점에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가면 작은 비탈진 밭이 있는데 밭흙이 까맣고 아주 섬세한 솥뎡이가루 뭉치가 보일 뿐이다.

2) 갯골 안막의 자연환경과 솥굽기史

인제읍 남북리 국도에서 서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계곡으로서 골이 매우 깊고 갯골 맨끝을 지나 산등 일명 '말등'을 넘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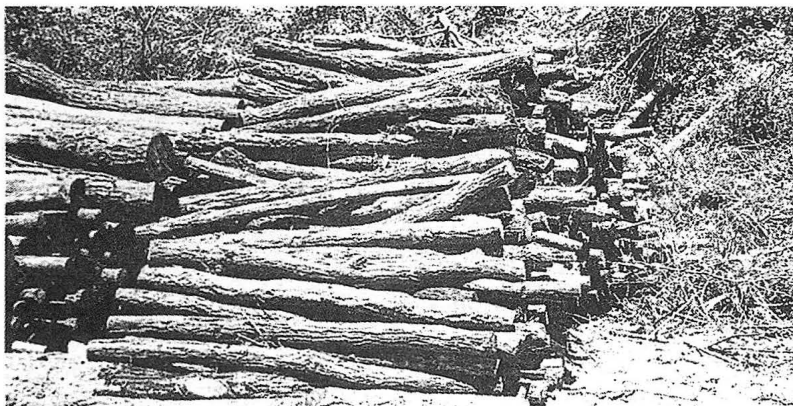
면 양구군 남면 가오작리 ‘광치’가 나온다. 갯골은 일명 ‘포곡(浦谷)’이라고 불리우며 갯골 막바지에는 수복후 60년대만 하더라도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고 초등학교 분교도 있었다. 그러나 70년대 화전정리 사업으로 부락민이 이주하여 지금은 마을이 없어졌다. 갯골 남쪽으로는 아미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기룡산이 있으며 골짜기 안막치기까지 잡나무는 물론 참나무가 많이 있어 숲을 구워 생활하기에는 여건이 좋았다.

필자가 어려서 양구군 남면 가오작리 2구 일명 ‘광치’에서 살았는데 당시 중학교때 어른들을 따라 산등(말등)을 넘어 갯골 안막에 와서 숲을 가져갔었던 일이 생각난다. 물론 당시의 어른들도 생계의 수단으로 양구 광치에서 살면서 산등을 넘어 갯골에 있는 숲가마터(숲생산지)에 와 싸게 사서 <쌀, 곡물과 교환도 하였음> 가지고가 마진을 남겨 생활을 하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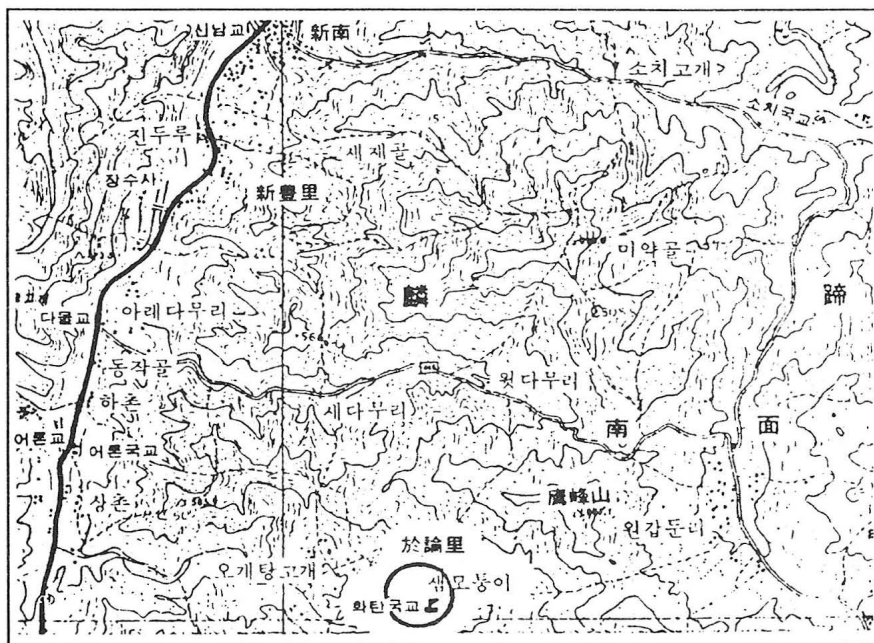
당시의 갯골에는 숲가마터가 여러군데 있었던 것으로 생각나며 시기로는 늦은 가을부터 겨울철로써 때로는 눈이 너무 많이와서 눈구덩이를 헤치며 다녔던 생각이 떠오른다.



— 갯골 안막의 참나무 수림지 —



－ 솥을 굽기 위한 참나무 적재 －



〈 인제 솥둔골의 지리적 배경〉

3. 숲의 역사

숲의 역사에 관하여는 1988년 12월 강원대학교 박민일 교수의 논문집에 잘 나타나 있다. 이를 인용하여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불을 사용한 선사

불을 사용한 선사시대에 숲이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타진된다. 벼락에 의한 불, 물체 간의 자연적 접촉에 따른 불, 인공적 마찰에 의한 불, 나무를 태우기 위해 불을 보았고, 이를 생활에 이용함으로써 숲의 生成原理를 알았을 것이다. 숲의 역사는 櫛文土器를 만들었던 신석기시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것은 토기를 구울 때 생기는 숲의 일종인 <검당>을 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기록이 없어 개연성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숲의 사용 역사는 언제부터인가.

BC 1000~2000년경인 청동기시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시대는 청동기를 제작하기 위해 연금 치금하는 연료로서 숲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과 사실성이 증명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예기가 저술된 전한시대에 숲이 사용되었음이 문헌에 보인다.

大漢韓辭典에

炭은 숲탄, 燒木未炭, 불똥탄, 볍일탄, 석탄탄, 草木黃落 乃代薪爲炭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三國遺事 脫解王條에 처음으로 炭이 보인다.

…곧 내려와 찾으니 바로 瓠公의 집이었다. 계락을 써서 몰래 礪炭이었다.

서기 57~79년인 탈해왕 때 <숯>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지금부터 1930여년 전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존재했을 것이다.

三國史記 憲康王條에도 숯 記事가 보인다.

王은 侍中 敏恭에게 이르기를 민간의 집을 기와로 덮고 초옥으로 하지 않으며, 밥을 짓는데 나무를 쓰지 않고 숯을 쓴다 하는데 사실인가.

15세기 言語인 世宗 25년에 만든 訓民正音解例 用字例에 <숯>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세조 8년에 간행된 樞嚴經諺解에 『지와 숯근 觸이 類』로 표기되어 있다. 16세기 言語인 中宗 22년에 간행된 訓蒙字會에도 ‘炭은 숯탄’으로 표기되어 있다. 朝鮮宮闕에서 溫突煖房燃料로 ‘숯’을 사용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문화재관리국 조사팀에 의해 밝혀졌다.

궁궐의 난방 연료는 장작이 아닌 숯이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87년 11월부터 경복궁 자경반 十長生 굴뚝과 峨嵋山 6각형 굴뚝 해체작업을 벌여온 문화재관리국은 18일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굴뚝들이 정교하게 축조됐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혀냈다. 처음으로 해체, 보수작업이 가해진 이 굴뚝들은 塼을 깎아 건축한 모양새와 굴뚝면에 나타난 무늬들이 아름다워 각각 보물 810호 및 811호로 보호되어 왔던 것이다. 해체작업에서 이 굴뚝에 그은 흔적이 없어 궁궐의 난방 연료로 숯이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제까지 궁중에서는 장작 대신 숯이 사용되어 왔다고 구전되어 왔는데 이 해체작업에서 이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실제로 大邱 팔공산에서 궁궐용 참숯을 구워 궁궐에 보냈다는 얘기가 있다. 金周

泰 문화재전문위원은 ‘장작불로는 방의 온도를 조절하기가 어려웠고 또 궁궐 안에 연기를 뿜어낸다는 데서 화재 염려도 적잖았으며, 王이 사는 성역의 지존함에도 장애가 된다고 여겨 솥을 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솥이 주방의 調理연료, 방안의 火爐연료, 醬담그기와 우물의 除毒淨水用 외에 궁궐의 溫突 난방연료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됨으로써 전국적으로 그 수요가 대단했을 것임을 알게 해준다.

4. 솥가마 만들기 (가마박기)

1) 가마터 선정

솥가마 만들기는 지역마다 대동소이하다.

먼저 솥가마터를 잡는데는 주위에 솥을 만들 수 있는 참나무가 많은 곳을 택하여 약간 비탈진곳이나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지형으로서 아늑한 곳을 택하여 자리를 잡는다.

2) 가마만들기 사용도구

솥가마를 만드는데는 도구로써 나뭇대로 흙을 팔 수 있는 팽이,삽 등이 필요하고, 흙과 돌을 나를 수 있는 삼태기,지게와 물을 담아 나르는 그릇,메,망치 등이 필요하다.

3) 가마박기

솥가마를 만들때는 선택된 땅(터)를 밑으로 일정한 크기로 사방을 깎아파는 통치기 작업과 통치기 한벽면에 무너지지

얇게 흙을 이겨 돌과 함께 쌓아올리는 전담쌓기 작업이 있다. 돌은 그리 크지 않은것과 흙은 진흙을 사용하며 진흙이 없는 곳에서는 개흙을 사용하기도 한다. 숯가마를 만들때는 여러사람이(5~6명 이상) 함께 만들게 되는데 가마는 작은가마, 중가마, 큰가마가 있다. 가마의 전체모양은 지붕처럼 중앙이 약간 높고 가장자리가 약간 낮으며 타원형으로 만드는데 가마별 크기는 다음과 같다.

① 작은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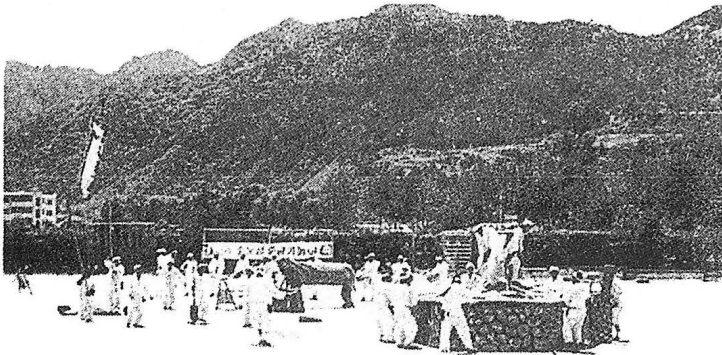
- 높이 : 중앙부분 6자 가장자리 4자
- 가로 : 11자(대략 2발) 7자반(대략 1발반)

② 중가마

- 높이 : 중앙부분 6자반 가장자리 4자반
- 가로 : 17자(3발반) 14자(대략 2발반)

③ 큰가마

- 높이 : 중앙부분 7자 가장자리 5자반
- 가로 : 24자(4발반) 18자(3발반)



- 숯가마 등치기 -

먼저 가마를 만들 때 통치기를 하고 전담을 돌과 흙으로 쌓는다.

전담을 쌓을때는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견고하게 쌓아 올린다. 가마만들기란 그리 쉽지 않은일로써 솟쟁이들에게는 큰 재산이 되므로 이들은 최선을 다하여 잘 보호한다. 가마만들기 소요일수는 작은가마가 6일정도, 중가마가 12일정도, 큰가마가 20일이상 되어야 완성된다.

4) 나무 세워넣기

통치기와 전담쌓기가 끝나면 바로 솟을 만들 재료 나무(참나무 등)를 가마속에 수직으로 세워 넣는데 이때 중앙에서부터 제일 큰나무들을 세워 넣고 가장자리로 나가면서 짧은 나무들을 넣어야 하며 나무를 세워 넣을때는 서로 뺄뺄하게 맞물려 틈새를 두지않고 가마가 꽉차게 넣은 다음 틈이 있는곳에는 나무로 췌기를 박는다.

솟을 만드는 재료의 참나무 길이는 대개 다음과 같다.

- 작은가마 재료木 : 중앙木 6자 / 가장자리木 4~5자
- 중가마 재료木 : 중앙木 6자~7자 / 가장자리木 4~5자
- 큰가마 재료木 : 중앙木 8자~8.5자 / 가장자리木 5자다.

이때 작은가마별로 들어가는 재료의 양은 각기 다르며 대략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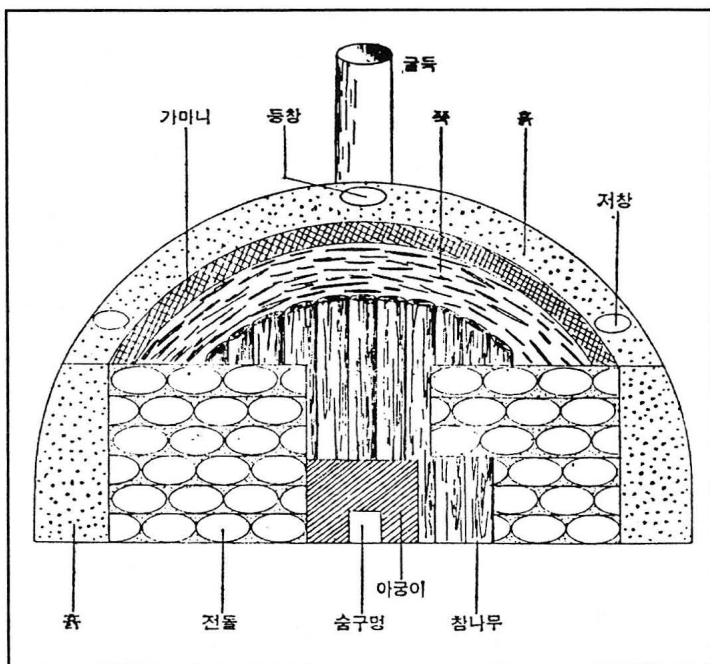
- 작은가마 : 30짐 정도
- 중가마 : 80짐 정도
- 큰가마 : 200짐 정도

5) 지붕덮기

통치기 작업과 전담쌓기 작업후 숯이 만들어 지는 재료 나무(참나무)를 째쳐워 세워 넣은 후에는 지붕을 덮게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너와지붕 올릴때와 같은 나무조각 판자를 정사각형으로 쪼개어 그 조각판자로 모두 덮는다. 이때 쪽을 덮는 이유는 불이 잘붙어 타도록 하기위한 쏘시개 역할이 된다. 그다음에는 조각 판자위로 가마니를 덮고 그 위에 덩어리가 질 수 있는 진흙(찰흙)을 모두 입혀 깔게된다. 이것은 가마속에 불길과 열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지붕전체의 두께는 약 1자 두께가 되면 정상적이다.

6) 등치기

지붕을 다 덮게되면 지붕위의 진흙(찰흙)을 여러사람이 막 대기로 숯가마를 빙빙돌면서 또 일부는 숯가마위에 올라가서 때려 다지는데 애벌레치기와 두벌치기로 다지게 되며 애벌레 치기는 10~12시간이 소요되고 두벌치기는 3~4시간이 소요 되도록 때려 다진다. 물론 모든 일을 하게되면 힘이 들게 마련인데 힘이들면 쉬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힘을 달래기 위한 소리도 하게된다. 특히 숯가마 등치기 할 때에는 장시간 일을 하게 됨으로 막걸리를 마셔가며 노동요로 등치기 소리를 하게 된다. 등치기가 끝나면 지붕위로 직경 6치 정도의 구멍을 3개 뚫러 놓는다. 이것을 등창이라고 부르며 기능은 바람구멍으로 바람돌리기와 사람이 서서 가마안에서 타는 나무를 들여다 보기 위함이다.



- 숯가마의 구조 -

5. 숯굽기 작업과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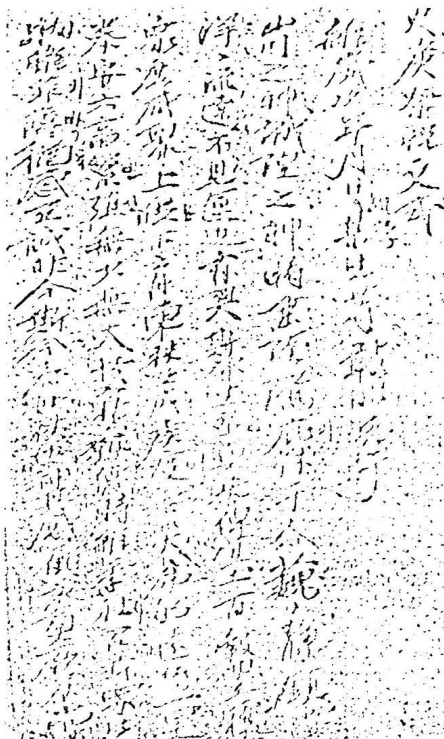
1) 가마치성

옛부터 공히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신앙의 한형태 행위로써 일이 시작되기 전에 신에게 이 일이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제부터 숯을 굽기 시작하니 숯이 잘 구워지게 신에게 비는 것이며 이때 제물은 주과포와 소지 정도이다.

먼저, 숯가마 앞에다 제물을 진설하고 배례를 한다음 술을

잔에 부어 올리고 다시 절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앉는다. 옆에서는 축관이 축문을 읽는데 이때 축문을 격식화하여 써서 읽을때에도 있고 아니면 외우고 있다가 통독하는 경우가 있다.

축문을 다 고한후 다시 배례를 하고 마지막으로 소지를 올리게 된다. 여기에서 밝혀두고자 하는 내용으로 1884년에 인제군 남면 어론2리 <옛지명> 화탄리에서 사용하였던 숯굽기 축문을 밝혀보고자 한다.



- 숯굽기 축문 -

이 축문은 1987년도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기

위하여 인제 숯둔골숯굽기를 발굴하여 고증을 얻으려 다닐 때 인제군 남면 신흥리에서 살고 있던 박성택(당시 73세 그후 사망)에 의하여 수집한 축문이다. 박성택(朴性澤)씨가 젊어서 숯굽기생활을 할 때 사용하였다 한다.

그 원문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化炭祭 祝文(甲申二月加衣) 筆寫本

維歲次年月日 幼學某生等 敢昭告于 山川之神 城隍之神 時垂陰陽
庇休干人 巍巍靜鎮 洋洋流通 不見運邊 有田大斯 發生殖興 居俾宜土
百穀豐穰 衆庶咸聚 上供下育 東秩旺成 疾疫無災 虎豹遠行 一里泰安
六畜繁殖 無少無大 莫非神德 時維季社 召我衆生 物雖菲薄 猶感至誠
非今斯今 春如秋如 神其感願 永尊厥居 尚饗

成就是 비는 대상과 施惠者는 山川神 城隍神이다. 洋洋流通하고 發生殖興 하기를 빈다. 百穀이 豐穰한 생산, 上供下育 하는 윤리, 疾疫과 재앙 없는 保健을 빈다. 虎豹 같은 맹수는 遠行하고 泰安과 六畜繁殖을 축수한다. 모든 일에 神其感願 해 주기를 기구한다. 敍事的 巫歌인 火炭祭 祝文의 의미구조는 萬事如意亨通의 祈願이다. 自己化 하기 위해 心身을 바쳐 최선을 다 하는 至誠感天과 신앙의 人間像이 각인되어 있다. 산천神 성황神의 全知全能과 인간의 無力함이 極對極으로 표출되어 있다. 神에 의지 의존해야 하는 나약한 인간의 存在와 그 存在를 유지하기 위해 祭儀를 올리는 基層文化의 한 양상이 랑그(Langue)와 빠롤(Parole)을 통해서 형상화 되고 구상화 되어있다.

2) 불집혀 지르기

가마치성을 신에게 올린다음 제물을 고시레하고 제주를 가마 주위에 골고루 부우며 숯을 잘구어 달라고 하며 음복을 한다. 다음 가마에 불을 지르면 위에서 아래로 타 내려온다. 이 현상은 숯가마 만들 때 정사각형의 쪽때기를 덮은 것이 등창으로 공기가 스며들면서 타기 때문이며 쪽은 또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쏘시개 역할로 점화와 소화를 촉진시키는 구실을 한다. 이때 숯쟁이들은 가마위에 올라가 3개의 등창을 들여다 보면서 등창을 막았다, 열었다 하면서 골고루 타게 불을 조절한다. 불자리가 잡히면 2~3일간 불을 올린다. 이후 가마 속의 숯자체가 타는 시간으로 약 7일이 걸린다. 불때는 시간은 (이미 숯가마가 만들어진 경우) 약 10여일이 걸린다.

3) 숯꺼내기

숯을 꺼낼때는 팔에다 토시를 끼고 장갑을 낀다음 양쪽 눈만 보게 뚫어 놓은 복면을 쓰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숯가마의 열이 매우 강열하여 몹시 뜨겁기 때문이다. 또한 긴 갈퀴를 사용하여 숯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천천히 꺼내야 한다. 잘못하면 얼굴이나 몸에 화상을 입게 된다.

숯을 먼저 꺼내게 되면 화력이 좋은 백탄을 만들게 되는데 백탄은 숯가마에서 900~1400℃의 고열로 구어진 숯을 꺼내 소분(消粉)이라고 하는 모래흙과 탄가루를 섞은 것으로 덮어 불을 끄고 하루 한나절이 지난 다음 모래흙과 탄가루 섞은 것을 헤쳐 꺼낸 숯으로 그냥은 흑탄보다 반정도가 줄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백탄은 쇠소리가 나고 다시 피워 사용할 때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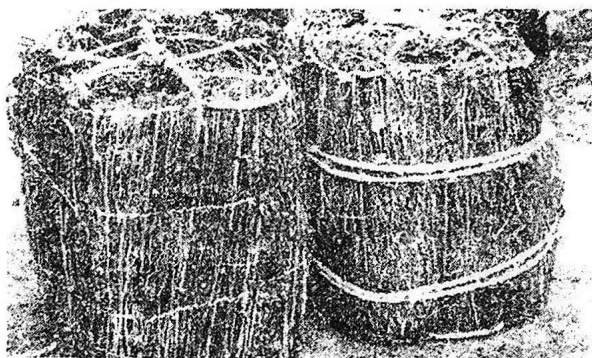
스가 전혀 나지 않으며 화력이 매우 강하여 값도 흑탄보다 매우 비싸다. 흑탄은 불을 끄고 약 일주일정도 있다 꺼내게 되며 그리 뜨겁지도 않아 작업하기는 용이하나 백탄에 비하여 품질이 좋지 못하여 값도 조금 싸게 거래된다.

4) 숯포에 숯담아 넣기

먼저 숯가마에서 숯을 꺼내게 되면 백탄과 흑탄을 구분하여 숯포에 담아 넣는 작업이 이루어 진다. 숯포는 숯가마에 불을 집혀 지르고 숯이 구워지는 동안 만들어 지는데 재료는 국수대나 싸리나무를 주로 베어다 찢이나 나무껍질 또는 가늘고 야들야들한 국수나무 가지로 엮어 만들게 된다.

대개 직경 53cm 높이 170cm 둘레 63cm 정도로 만들어 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숯포에다 흑탄과 백탄을 구분하여 놓고 그 양을 저울에 대략 달은 다음 양쪽 마구리를 역시 국수대나 싸리나무 또는 잡나무와 풀을 섞어 막아서 국수나무 가지나 나무껍질로 엮혀매어 숯섬을 만든다.

이러한 과정으로 숯만들기가 완성된다.



— 국수대·새·싸리로 만든 ‘숯섬’ 직경 53cm /높이170cm /둘레63cm —

6. 숯굽기 생활과 人間史

숯을 구워 생계를 영유해 나가기 위해서는 1년중 반년을 산속에서 지내야 한다.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가정을 잠정적으로 잊어가며 힘든 작업속에 반복되는 작업으로 고뇌와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숯쟁이들의 생활사는 내면적으로 빈곤과 인곤의 아픔이 늘 따라왔다.

그런데 숯쟁이들은 그런 불행한 신세를 한탄하기 보다는 어려운 현실과 알 수 없는 미래를 오히려 밝게 보는면도 나타나 있다. 막대한 노동력을 투입하는데 비해 그 대가가 고작 몇푼 안되는 돈과 좁쌀, 옥수수과 바꾸는 정도의 변변치 못한 대접을 받았지만 오로지 좋은 상탄 생산에 몸바친 그들의 태도는 순박함속에서 진지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이 엿보인다. 아마도 그것은 흙을 밟으며 자연과 함께 벼를 삼아 생활하기 때 문인것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전통적인 민간신앙을 굳게 믿고 살아온 속에서 천신, 지신, 성황신을 철저히 신봉하며 염원으로 오로지 좋은 탄을 생산해 달라고 빌어왔다. 이러한 숯굽기 민속사는 전국 어느지역에서나 이루어져 왔지만 특히 산이 많고 산림자원이 풍부한 인제지역에서 많이 성행하였다. 그러므로 특히 인제는 산림문화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다.



— 솥섬을 메고 팔러나선 노파(1900年) —

7. 인제 솥둔골 솥굥기놀이 밭굴재현

1) 배경

강원도에서는 1983년도부터 제1회를 기점으로하여 민속에
술경연대회를 주최하여 왔다. 이 대회에 깊은 뜻은 단순히 놀

이와 입상을 목적으로 삼아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화의 물결속에 우리의 주변에서 살아지고 멀어져 가는 우리 민족의 전통 민속생활사를 발굴하여 보존하는데 뜻이 있다. 물론 고증은 예전 숯굽기 생활에 종사하였던 원로 노인네들을 찾아 고증을 받아 발굴하였으며 재현하는 연습은 인제군 남면 어론2리 (화탄·숯둔골) 마을주민 50여명으로 구성하여 재현하였다.

● 당시에 고증을 해 주신분

인제군 남면 상수내리	장영창(68세)
인제군 남면 신남리	조만환(75세)
인제군 남면 어론2리	안득수(68세)
인제군 남면 신평리	박성택(72세)

2) 특징

인제군은 옛부터 산림자원이 풍부하여 소양강을 따라 뗏목으로 서울 궁중에 건축자재와 연료를 공급해 온 산림산업 문화의 발원지로서 영조대왕 이전에 만들어진 【黃腸禁標】가 바로 이를 뒷바침해 주고 있다. 특히 인제군 남면 숯둔골<화탄>에는 약 300년 전부터 숯을구워 생계를 유지해 온 곳이며 이로 인하여 이름도 숯둔골이라 불리어 왔고 비록 산골마을이지만 벼농사도 잘되어 벼 ‘禾’자와 숯 ‘炭’자를 써서 화탄 “禾炭”이라 명명되었다.

경복궁의 십장생 굴뚝 등을 해체 분석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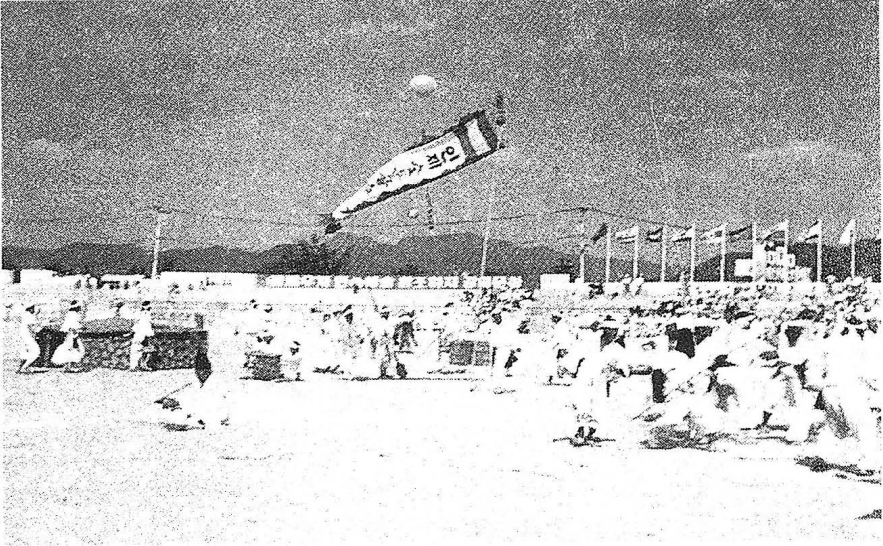
숯을 궁중의 화재방지를 위한 난방용 연료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바 있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숯으로 소문이 나

있었던 지난 날의 숯둔골 백탄과 흑탄이 궁중에까지 공급되었음을 짐작하게 된다.

이러한 산림문화의 발원지인 인제군에서는 우리 선조님들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해온 뗏목 생활, 심메마니 생활, 소금배만들기 생활, 목기류를 만들어 온 생활 등 많은 민속사를 발굴하여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한 바 있다. 주최측과 주위에 인정을 받아 숯굽기놀이 재현은 종합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같은 해 9월 29일부터 30일(2일간)에 안양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었던 제28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출연하여 우수상으로 문화부(당시 문공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는 가운데 산간 산림민속사를 널리 홍보한 바 있다.



- 강원도 종합 최우수상 상장과 전국대회 우수상장 -



— 전국대회 출연 재현장면 —

3) 출연과장

작품구성은 입산, 가마박기(숫가마만들기), 가마치성, 불지르기(점화) 한마당놀이로 구성되었다.

● 제1과장 : 입산

등걸잠방이 · 짚신 · 머리수건을 맨 일행이 도끼, 낫 등을 주루목에 넣어 지고 입산한다.

● 제2과장 : 가마박기(숫가마만들기) — 등치기소리

통치기와 전담을 쌓아올려 가마를 만들고 그 가마에 다음

은 나무를 세워놓고 지붕을 엮은 다음 ‘등치기 소리’를 천천히 빨리…… 소리에 맞추어 긴막대기 메로 애벌치기, 두벌치기를 한다.

● 제3과장 : 가마치성

아낙네들이 치성준비를 위해 제사음식을 만든 것을 진설하고 가마주인이 배례를 하고 축관은 축을 고하고 다시 배례를 한다음 소지를 올리고 음복을 한다음 술을 가마주위에 고루 부면서 가마가 망가지지 말고 솥이 잘 구워져 달라고 고한다.

● 제4과장 : 불지르기(점화)

솥가마에 불을 질러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면 參與者들은 모두가 환성을 지르며 사물(四物)을 강하게 치면서 솥가마 주위를 연기가 꺼질 때 까지 빙빙 돈다. 이러한 한편에서는 흥겨운 소리를 하면서 국수대나 싸리나무로 솥섬을 만든다.

● 제5과장 : 한마당놀이

參與者 모두 농악에 맞추어 지게와 어깨끈에 솥섬을 지고 아낙네는 솥섬을 머리에 이고 일부는 각종 도구를 들고 대기를 중심으로 소리를 지르며 빙빙돈다.

※ 한마당놀이가 끝나면 농악대가 선두로 원을 크게 형성하며 둥그렇게 맞춘다음 농악은 멈추고 각자 뒤로 돌아 인사하고 끝난다.

어화세상	벗님네야	에야탄이야 / 번개석이	보이누나	에야탄이야
이내소리	들어보소	에야탄이야 / 신수봉서	내려다보니	에야탄이야
해동조선	강원인제	에야탄이야 / 오개탕이	절경인데	에야탄이야
남면어론	숫둔골에	에야탄이야 / 금강석의	숫돌에다	에야탄이야
함씨지씨	박씨살아	에야탄이야 / 양면도끼	잘갈아서	에야탄이야
함지박골이	생겼는데	에야탄이야 / 떡갈나무	굴참나무	에야탄이야
숫을구워	먹고살아	에야탄이야 / 물갈나무	자작나무	에야탄이야
숫둔이라	불려졌네	에야탄이야 / 박달나무	느티나무	에야탄이야
소복산을	들어가니	에야탄이야 / 다람나무	재롱나무	에야탄이야
쌍술배기	눈에 띄고	에야탄이야 / 잡아당겨	휘청나무	에야탄이야
절골-을	들어가니	에야탄이야 / 둥둥울러	붕나무요	에야탄이야
안아닥쳐	덤불나무	에야탄이야 / 어허둥둥	탄이로다	에야탄이야
방구췌다	뿔나무라	에야탄이야 / 구월남풍	대맥황은	에야탄이야
한 대베면	두짐나고	에야탄이야 / 녹음방초	성화시라	에야탄이야
두 대베면	네짐나네	에야탄이야 / 산도종고	물 좋은데	에야탄이야
백탄흑탄	잘구워서	에야탄이야 / 한잔함이	어떠할고	에야탄이야
숫둔골의	부자말씀	에야탄이야 / 두사람이	서로얏아	에야탄이야
우리백탄	어느대감	에야탄이야 / 한잔주고	한잔부니	에야탄이야
안방화로	찾아갈꼬	에야탄이야 / 양인대작	산화개하니	에야탄이야
이내검탄	어느주막	에야탄이야 / 일배일배	부일배라	에야탄이야
지짐불로	찾아갈꼬	에야탄이야 / 허공중천	뜬구름아	에야탄이야
우리백탄	없으며는	에야탄이야 / 뭉게구름	웬일인가	에야탄이야
양반님네	설움일세	에야탄이야 / 보이나니	백탄이요	에야탄이야
우리검탄	없으며는	에야탄이야 / 들리나니	돈소리라	에야탄이야
조상제사	못지내네	에야탄이야 / 어허세상	어떠할꼬	에야탄이야
검탄백탄	잘구워서	에야탄이야 / 모든 것이	꿈이로다	에야탄이야
남부럽게	살아보세	에야탄이야 / 꿈아니길	바라건만	에야탄이야
숫둔골에	참나무는	에야탄이야 / 꿈은이미	깨어났네	에야탄이야

이나라에	보배로다	에야탄이야 / 이렇게나	저렇게나	에야탄이야
산푸르고	돌은흰데	에야탄이야 / 꿈이나마	남았는데	에야탄이야
사이사이	꽃이로다	에야탄이야 / 생각하면	무엇하나	에야탄이야
어텔가나	푸른산에	에야탄이야 / 숲이나구워	잘살아보세	에야탄이야
어텔가나	옥수로다	에야탄이야 / 비나이다	비나이다	에야탄이야
보고보고	다시봐도	에야탄이야 / 일구월심	비나이다	에야탄이야
살기좋은	우리숲둔	에야탄이야 / 가마치면	철판되고	에야탄이야
여기서도	백탄이요	에야탄이야 / 숲을구면	상탄되네	에야탄이야
저기서도	흑탄일세	에야탄이야 / 검탄백탄	우리탄아	에야탄이야
흑탄백탄	산적하니	에야탄이야 / 잘구워져	우리살자	에야탄이야
너도나도	탐을내네	에야탄이야 / 무정세월	가지마라	에야탄이야
백탄한섬	쌀한섬에	에야탄이야 / 이내청춘	늪어지네	에야탄이야
너도나도	불티나네	에야탄이야 / 한 번가면	다시못을	에야탄이야
일찍부터	배운포자	에야탄이야 / 이내인생	어찌할꼬	에야탄이야
갈고닭고	밭을내세	에야탄이야 / 공수래에	공수거인데	에야탄이야
남늘적에	놀지않고	에야탄이야 / 부귀공명	탐하지마라	에야탄이야
남쓸적에	아껴쓰니	에야탄이야 / 부귀빈천	돌고돈다	에야탄이야
거부장자	별것인가	에야탄이야 / 검탄백탄	우리탄아	에야탄이야
우리네도	돈벌어서	에야탄이야 / 잘구워져	우리살자	에야탄이야
부자한번	되어보세	에야탄이야 / 어허 - 라	탄이로다	에야탄이야

출연자

연출지도 및 출연자 명단

※ 출연 인원 : 66명 (남 60 / 여 6)

※ 조사·재구 : 朴 敏 一 (강원대 교수)

※ 연출지도 : 張 復 漢 (원통고등학교 교사)

※ 선소리지도 : 朴 海 順 (인제축산협동 조합장)

성명	연령	배역	성명	연령	배역	성명	연령	배역
최양준	75	가마주인	박공노	46	등치기꾼	전동준	49	소주인
구자윤	52	집사	임명권	30	등치기꾼	이웅춘	49	지계꾼
박성택	72	비수안	박동욱	29	등치기꾼	문제윤	60	지계꾼
박해순	63	선소리	이종수	35	등치기꾼	신봉길	50	지계꾼
김경섭	49	등치기꾼	심도흙	32	등치기꾼	정성국	55	지계꾼
윤희선	50	등치기꾼	송경상	31	등치기꾼	전동수	53	지계꾼
김주환	30	등치기꾼	김옥기	28	등치기꾼	김상혁	64	농악
김두수	45	등치기꾼	박철희	29	등치기꾼	전재봉	80	농악
윤기선	42	등치기꾼	최창득	34	등치기꾼	김영규	76	농악
윤기춘	49	등치기꾼	송경춘	34	등치기꾼	이종명	67	농악
박민부	44	등치기꾼	심군흙	28	등치기꾼	이주은	74	농악
함인엽	33	등치기꾼	최인득	28	등치기꾼	이상주	48	농악
구자훈	43	등치기꾼	박공호	49	가래질꾼	박재승	64	농악
윤태권	36	등치기꾼	장세한	55	가래질꾼	임경섭	71	농악
윤태성	23	등치기꾼	임덕만	53	가래질꾼	김순기	66	농악
문광철	46	등치기꾼	박광열	53	가래질꾼	신혜식	29	아낙
황경모	44	등치기꾼	안득수	68	가래질꾼	윤순옥	33	아낙
임명수	27	등치기꾼	김명환	48	가래질꾼	김순덕	25	아낙
윤재번	40	등치기꾼	윤영도	50	기수	최영진	30	아낙
염선경	45	등치기꾼	송경운	41	기수	문복순	48	아낙
장순길	50	등치기꾼	김종운	55	기수	김옥란	39	아낙
김진홍	31	등치기꾼	장영근	46	소			
김형만	39	등치기꾼	장일록	41	소			

4) 전통민속 발굴보존 주력

인제군은 현대문명과 급속도로 변해가는 산업사회 속에서

기억조차 하기 어려운 우리 지역의 고유민속을 재현 발굴하여 보존하는데 매우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 1985년도에 개최되었던 제3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인제 뗏목놀이’를 발굴 재현하여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1987년도에는 홍천에서 개최되었던 제5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인제 솥둔골솥굽기’ 놀이로 종합 최우수상을 받는 수훈을 세웠다. 아울러 같은 해 강원도 대표로 출연하여 우수상으로 문공부 장관상을 받기도 하였다. 그후에도 산간문화의 발원지였던 이 고장의 민속사를 계속 발굴하여 민속대회에 출연함으로써 다릿골 점간놀이는 종합 우수상, 갈이남박만들기 놀이도 종합 우수상, 바지개 선질꾼 놀이로도 우수상을 수상했고 그 외에 출연한 작품으로 공로상을 받는 등 높은 수훈으로 입상을 하였으며 지면을 통해 또한 우리 선조님들의 민속사를 널리 홍보하고 전통민속 발굴보존에 온갖 역량을 기하여 오고 있다.

西紀1987年6月29日 月曜日 1版 (日刊)

종합최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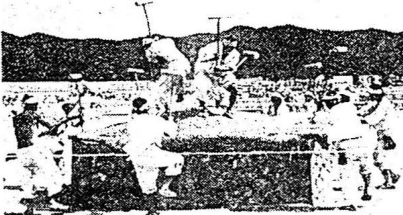
「솥둔골 솥굽기」

(麟蹄)

道민속예술경연대회 熱演 이틀 막내려

종합우수 오독떼기(州) 지게 행상놀이(縣)

인제민속예술경연대회
 종합최우수상 수상
 인제민속예술경연대회
 종합최우수상 수상



江
原
日
報

— 강원일보 1987年 6月 —

8. 결 론

근번 민속사를 수집 정리하는 가운데 솥굽기 민속사를 집필한 이유는 첫째로,

우리 지역의 특유한 조건상으로 옛 선현들의 생활사가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솥굽기로 생활을 영유하여 온 것이 그 대표적인 일부의 민속사이기에 수집하여 정리하게 된 동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우리 고장의 전통적인 고유민속사가 많이 발굴되어 보존 계승되고 내려오지만 산림민속사는 해방 이래 민속학, 문화인류학, 산업학 등에서 논구가 별로 없었으며 특히 솥굽기 생활민속사는 모든 기층문화 연구 장르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게 되었다. 깊이 문헌에 의하여 논의하고자 하면 솥의 역사는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에 찾아볼 수 있는 점으로 엿볼 수 있다.

BC 3000년경인 신석기시대인은 토기를 구울 때 나무를 때면서 사용하였고 이때 생기는 탄화된 솥을 보았을 것이며 이 솥을 사용하는 지혜도 있었을 것이다. 그후 삼국사기 헌강왕 6년(서기880)에 밥을 짓는데 솥을 썼다는 기사가 있고 15C 언어(言語)인 세종 25년(1443)의 훈민정음 用子例와 세조 8년(1462)의 문헌에도 <솥>으로 표기되어 있다. 솥은 조리연료로 사용되고 있음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문화재 관리국 조사팀이 경복궁의 자경반 십장생 굴뚝을 해체 조사한 결과 솥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조선 궁궐에서 솥이 온돌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이로써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솥들이 우리 인제지역의 솥굽기사에서 생산된 솥으

로 일부가 공급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쨌든 숲의 공급과 사용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옛 선조들의 생활사속에 숲을 구워 생계를 영유하면서 살아온 민속사가 중요한 것이며 또 이 민속사가 우리 지역의 고유 전통적인 민속사의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치성이 더욱 있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산림산업 민속사연구에 조금이나마 자료로써 보탬이 되고 보존하여 계승하는데도 가치성이 있다면 더 바랄 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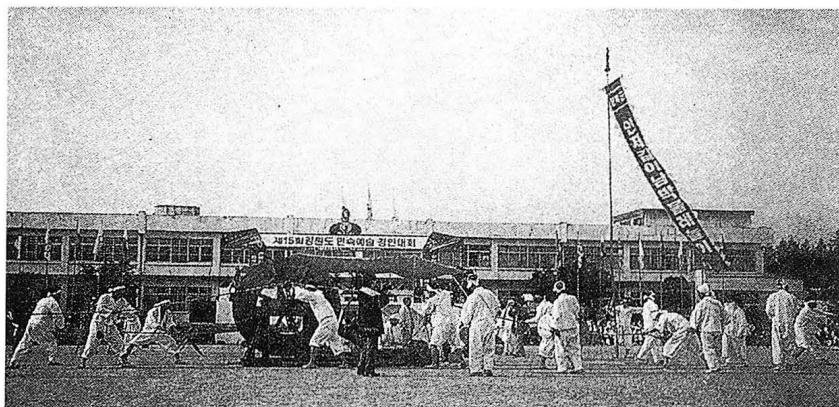
그동안 고증을 해 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민속사 연구에 더욱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인제 숲둔골숯굽기놀이 시나리오 원고, 1987.
2.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1988.
3. 강원 문화연구, 1988.
4. 원색동아 세계대백과사전, 1982~1986.
5. 강원일보, 1987.
6. 인제군지, 1980.
7. 인제뗏목, 1985.
8. 인제군 통계연보, 1996.

麟蹄山林産業民俗史研究

갈이남박만들기 民俗史



麟蹄山林産業民俗史研究

— 갈이남박 만들기 民俗史 —

麟蹄郷土史研究所

研究員 李 萬 喆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5. 목기류 만들기 생활과 人間史 |
| 2. 갈이남박 만들기 특징과 배경 | 6. 인제 갈이남박 만들기 발굴 재현 |
| 3. 목공예의 역사 | 7. 결 론 |
| 4. 갈이남박(이남박) 만들기 | |

1. 머리말

유구한 역사 속에 지녀온 향토의 민속 문화는 우리 고유 민족 문화의 뿌리이다. 그것은 우리 선인들의 삶의 모습과 애환 그리고 지혜와 숨결이 그속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속사는 우리를 남의 민족과 구분되게 하는 바탕이요,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민속 문화는 인류가 창조한 삶의 총체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으며 서민들의 질박한 자연적인 생활 현장에서 형성되어 뿌리를 내린 생활사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풍성한 민속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함께하는 정서를 공유

하고 있기에 우리 겨레는 민족 공동체 의식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의 새로운 창조도 풍성한 문화 전통의 토양을 바탕으로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삭막한 사막에 울창한 숲이 이루어질 수 없듯이 풍부한 전통과 자산의 축적없이 빛나는 문화의 우람한 꽃을 피울 수는 없다. 민족 문화의 원형을 보존하는 일은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속 문화의 보존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인 동시에 새로운 문화 창조의 마르지 않는 샘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므로 민속사는 일반 서민대중들과 함께 숨쉬고 살아온 까닭으로 지역적 특성과 시대적 생활상을 잘 간직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를 통해 전승되어온 삶의 모습이 여기서 단절되지 않고 후대에 전해지게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책무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저마다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고장의 전통적인 옛 생활사를 계승 보존하는데 함께 동참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전승문화의 꽃을 피우고 우리것을 영원히 보존시켜 먼 후대에까지 민족문화의 뿌리를 뽐어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역할과 보람을 찾아야 할 것이다.

1) 같이남박 만들기의 조사 경위

앞서 말한바와 같이 필자는 향토문화의 구심체적인 단체에서 몸을 담고 일을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민속사에 관심이 있는 인연으로 한 시대의 책임을 안고 금번 우리 고장의 연유된 민속사를 연구 수집하여 집필하고자 한다. 그러나 막상 이러

한 작업을 하기에는 두려움이 앞선다. 그것은 별로 알고있는 식전도 없거니와 추진과 능력에 부족함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만, 우리지역의 특성과 배경에 따라 산간문화가 전통적으로 발원하였고 그 여건속에 전승되어온 산림민속사를 수집하는데 용이한 여건이 있기에 집필을 해보고자 하는데 자신이 나뉠대로 생겼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옛 산림민속생활사에 체험을 하였던 촌노들의 고증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1989년도와 1996년도에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시 고증을 얻어 자료를 확보하였기에 좀더 보충하여 연구수집하면 된다는 일념이 앞서기 때문인 것이다. 이에 힘입어 필자는 1997년 5월 20일부터 확보하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들고 옛 갈이남박만들기 생활사에 종사하였던 원로님들을 찾아 수집하고 또한 관련 문헌을 찾아 원고를 집필하게 되었다.

2) 조사방법

우선 1989년도와 1996년도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고자 수집 정리하여 놓았던 자료를 찾아들고 다시 각읍면 노인회관을 순회하면서 젊은 시절에 갈이남박을 만들어 생활을 영유하였던 원로 노인네들을 찾아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고증을 자세히 받아 정리하게 되었으며 또한 여러 문헌을 찾아 관련있는 자료들을 읽어가며 기록을 하면서 원고를 집필하였다.

언제나 찾아가면 서슴없이 고증에 임해주시는 원로 노인네들께 다시한 번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한 마음을 드려본다.

3) 고증을 해 주신 분

이장수(71세) 인제군 기린면 방동2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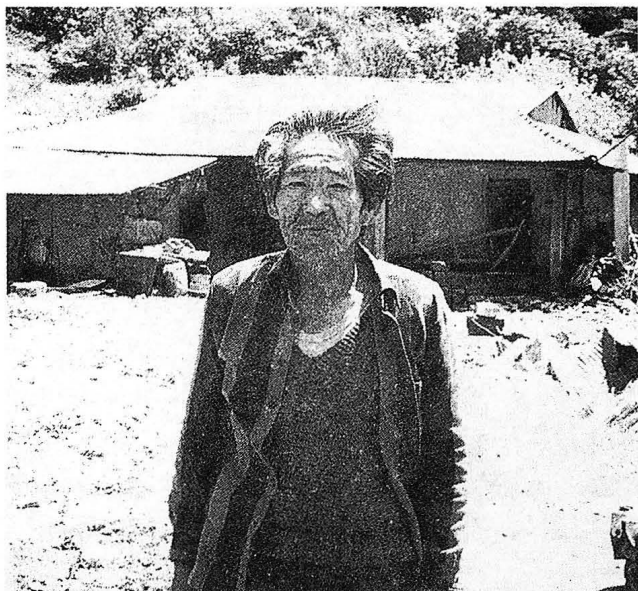
이병성(81세) 인제군 기린면 북3리

손용인(81세)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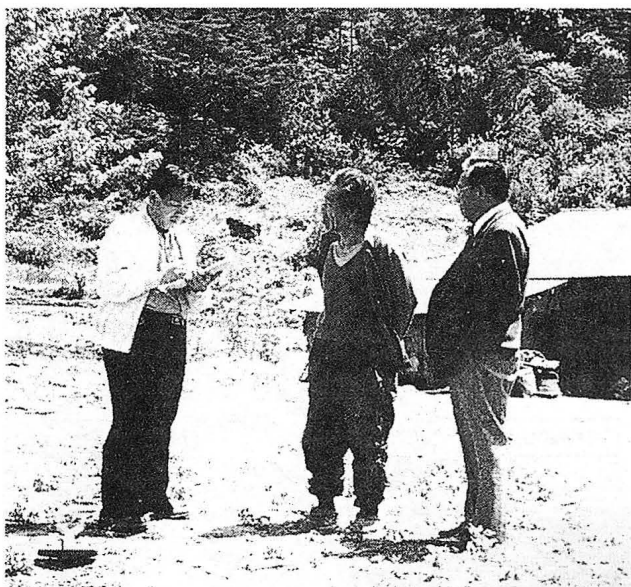
선순영(78세) 인제군 인제읍 상동1리

조해수(78세) 인제군 인제읍 남북2리

이종성(77세) 인제군 인제읍 상동1리



— 예전에 같이남박만들기에 종사하였던 이장수씨 —



— 고증을 받으며 박해순 원장(우) / 이만철 사무국장(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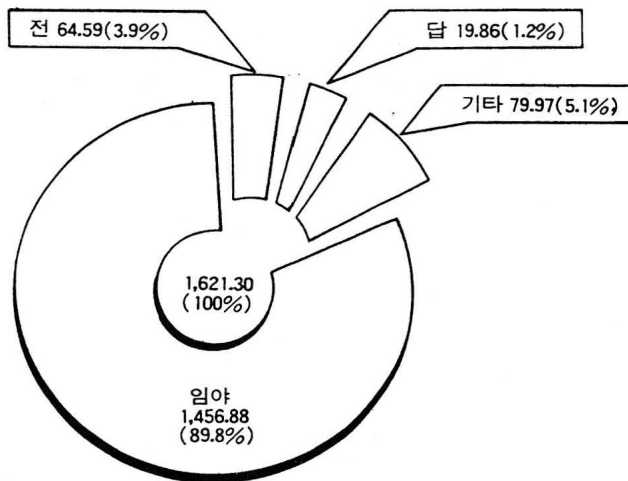
2. 같이남박 만들기의 특징과 배경

숯굽기 산림산업과 연구집에서 잘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인제의 자연환경 특징은 옛부터 산이 많고 물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인제군의 총면적은 1,621.39km²이며 이중 산림면적이 1,456.88km²로 88.8%를 차지하고 있는 산악지대이다. 이러한 자연적인 특징으로 옛부터 이지역에서 생활을 영유하는데는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할 특수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인제군의 민속사를 더듬어 보면 우리의 선인들은 지역적인 환경에따라 대체적으로 농사로는 화전을 일구어 곡식을 심고 수확을 얻으면서 일부의 어려운 생계에 보태어 살

아왔고 크게는 산에서 나는 임산자원을 이용하여 생계수단으로 살아온 것이다.

그 예로 이미 산림민속사가 많이 발굴되어 기록으로 전승되어 오고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뗏목/숯굽기/심메마니 민속사와 또한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같이남박만들기 민속사이다.



— 인제군 토지(면적) 분포도 —

1) 조경동(아침같이) 자연환경과 같이남박 만들기

조경동(아침같이)은 행정리로 인제군 기린면 방동2리 3반이 된다.

옛부터 자연부락명으로 조경동(아침같이)이라 불리워져 전

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아침갈이라 불리워지고 오는 이 지명은 마을에 밭이 적어서 아침나절에 다 갈 수 있다하여 아침갈이로 불리워지고 있다고 전해온다.

위치로는 방동약수터에서 동남쪽 방향으로 약 6km 더가는 곳으로 방태산 준령 한곳에 위치하고 있는 아늑한 곳으로서 옛부터 이곳에는 황장목과 목공예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많은 수림지이다. 이 방태산의 황장목은 1943년 청평댐이 건설되기 이전 뗏목생활이 왕성하였을 때 뗏목꾼들에 의해서 울 광나루까지 운반되어 목재와 여러 가지로 이용되었던 발원지이다. 특히 갈이틀로 깎아 만들 수 있는 공예재료 나무로 피나무, 엄나무, 박달나무, 난치나무(느릅나무 흡사) 등이 많이 있는 수림지였다.

이러한 지역적인 여건과 환경에 따라 우리 선인들은 이곳을 택하여 기거하면서 갈이틀을 만들어 놓고 갈이남박(이남박)과 함지, 목기 식기류, 목기접시, 촛대 등 목공예를 만들어 그것을 이용하면서 생활을 영유하여 왔었다.

갈이남박만들기 생활사가 성행하였던 구한말에는 이곳에 집이 여러채 있었으나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갈이남박 생활이 점점 사라지면서 한 집 두 집 이사를 하게 되고 또한 화전민 이주정책에 의해 이제는 다 떠나고 자취만 남아 있는 가운데 3가구의 집에 사람들은 나와 살다가 여름이면 들어가 살고 있다.

2) 대학동과 결가리 자연환경과 갈이남박 만들기 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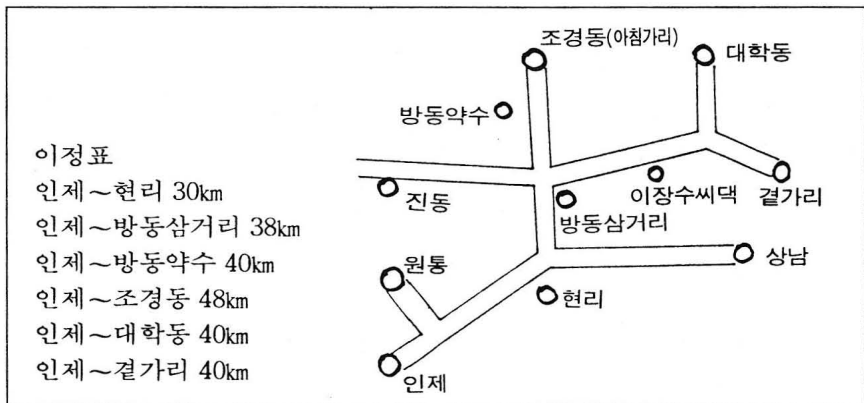
대학동과 결가리는 행정리로 인제군 기린면 방동2리 1반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태산의 준령밑에 있다.

앞서 나타난 바와같이 방태산은 그 어느산보다 수림이 매우 많은 지역이며 생태계 보존도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학술 연구 지도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다.

필자는 1965년도에 우연히 친구의 산판일로 인하여 친구와 함께 결가리 계곡을 따라 약 10km의 산을 올라가 본 일이 있었다. 당시만 해도 이 결가리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산중턱에 화전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살던 집 한채가 있었다. 이 집이야 말로 하늘아래 첫 동네의 집이었다.

그 당시만해도 목재를 많이 사용하던 시절이라 나무가 좋은 곳이라면 산판이 성행하였기에 이 대학동과 결가리도 황장목이 많아 예외없이 산판이 이루어졌었다. 또한 예전부터 피나무, 엄나무, 박달나무 등 목공예의 재료되는 잡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기에 갈이막 산판도 예전에 성행되었던 곳이다. 이곳 바로 밑에 살고있는 이장수씨는 예전에 조경동과 대학동 그리고 결가리에서 갈이남박만들기에 종사하였던 분으로 예전 당시의 상황을 소상히 말해주는 산 고증인이다.



- 갈이남박만들기가 성행하였던 조경동, 대학동, 결가리 위치도 -

3. 목공예의 역사

목공예의 기원이 인류의 기원과 마찬가지로 깊고 오래되었을 것이나 나무의 무른 성질 때문에 남아있는 선사시대의 유물은 그리 많지않기 때문에 목공예의 역사를 알아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에 있어 기본적인 운반도구인 목재의 지게는 원시시대에도 그 모양이었으리라 생각되며 그것은 지금도 농가의 필수적인 운반도구로써 비치되어 있다. 각 가정의 의식에 쓰이는 제기류(祭器類)는 대대로 물려가며 사용하는 것으로 상식화 되어있다. 설사 다른 가재 집기는 새로운 재료의 개발에 의하여 새롭게 만들어 진다해도 제기(祭器)만은 오히려 옛스러운 것을 간직하는 것을 가문의 전통과 긍지로 여긴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아주 오랜 목공품들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집트의 사막이나 일본과 같은 소택지(沼澤地) 유적에서 목공품이 상당히 수습된 바 있다. 또 중국의 한당(漢唐) 고분 출토품 가운데 많은 목공품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땅 속의 여러 가지 조건이 목질(木質), 기물(器物)의 상세한 잔존을 용납하지 않는 탓인지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발굴을 통하여 얻은바가 변변치 못하다. 그렇다고해서 한국인이 목기를 덜 사용했으리라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일반 민구(民具)중에서 차지하는 목물의 비중으로 보면 옛부터 대단하게 발전시켜 왔을 것을 상정할 만하다. 나무로 생활용구를 제작하는 지혜는 인간의 역사와 같이 해 왔으며 집을지어 정주할 무렵부터 의식주에 관계되는 목재 도구나 기물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즉 사람이 갖기 시작한 원초적 기구는 먼저 기거(起居)에 관한 것이고 그 다

음이 음식을 담아먹거나 곡식류를 간수하는데 사용되었던 도구이었다. 현존하는 목재 식기류의 본보기는 불가(佛家)에서 사용해 오는 이른바 바리때가 그것이다. 반구상(半球狀)의 대소 다섯 개 혹은 일곱에서 아홉 개가 한 벌을 이루는 이 식기는 큰 것은 표주박만한 것부터 작은 것은 종지만한 것까지 차곡차곡 빈틈없이 겹쳐지기 때문에 그 위에 납작한 뚜껑을 덮으면 정갈하게 간수하고 휴대하기 편리하게 되어있다.

각자가 제식기를 만드시 소지하고 옮겨 다니며 단체 생활을 하는 승려로서는 이룰데 없이 간편한 식기이다.

바리때는 부드럽고 가벼운 나무로 아주 얇게 깎아 안팎으로 옷칠을 하였기 때문에 밥과 국 및 반찬그릇을 모두 겸하며 그것을 한군데 포개어 바랑속에 집어넣으면 여정에 오를 수 있는 기본적 채비가 된다. 그런데 이 바리때는 갈이틀로 깎지 않는게 상식이며 일일이 옥나으로 내부를 후벼깎아 만든다. 이렇게 사용되는 바리때는 불교의 승려들이 사용하는 목기류로서 불교가 활발하게 성행되었던 신라시대때부터 많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목물(木物)을 다루던 관서로써 마전(磨典), 궤개전(機概典), 양전(楊典), 칠전(漆典) 등이 있었다.

磨典 : 담은 그릇으로서의 목기제작을 관장하던 관서

機概典 : 機와 盤床類의 제작을 관장하던 관서

楊典 : 버들가지와 대나무로 엮는 상자의 제작을 관장하는 관서

漆典 : 여러 가지 기물의 칠을 맡는 관서

이들 각 전(典)이 어느 부서에 예속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모두 기술분야를 맡은 관서이다. 이들 네 관서만 있으면

생활용구로서의 목물(木物)은 능히 해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전은 목기제작을 맡은 관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어느 범위까지의 목기를 포괄했을 것인지 문제가 된다. 건축 용어상 마조장(磨造匠)이라면 마감일로서의 도련을 하는 이른바 선각 기능공을 가르킨다. 마찬가지로 마전의 장인들은 칼로 깎아 다듬는 일을 해냈을 것으로 짐작되며 나아가선 물레와 같은 기능의 갈이틀을 이용한 목기제작도 가능했을 것이다.

갈이틀에 의하여 반구형내지 원통의 목기들이 제작되었다고 한다면 마전에서는 자잘한 식기로부터 제기(祭器)와 합(盒), 쟁반등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혹은 이남박과 함지 등도 깎음직한 것이다.

이렇게 나무를 이용하여 칼로 또는 둥글대를 이용한 갈이틀로 목기를 만들어 사용한 것은 그 명맥을 이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서민들 생활에 점점 생활화하여 내려왔을 것으로 추측되며 구한말 1900년대는 목기류를 만들어 소상공인들에 의해 전개되어 왔던 것이 구전에 의해 전해오는 것으로 옛 원로 노인네들에게서 고증되고 있다.

4. 갈이남박(이남박) 만들기

1) 갈이남박만들기 장소 선정

옛 선인들께서는 슬기로우며 지혜로써 주위의 여건에 따라 그시대를 살아온 생활양식이 너무나 각기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중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목공예의 생활수단은 산속 깊은 자리를 잡고 이남박과 함지 또는 제지류와 촛대 등을 갈이틀로 깎아 만들어 생활용품으로 사용하였음은 물론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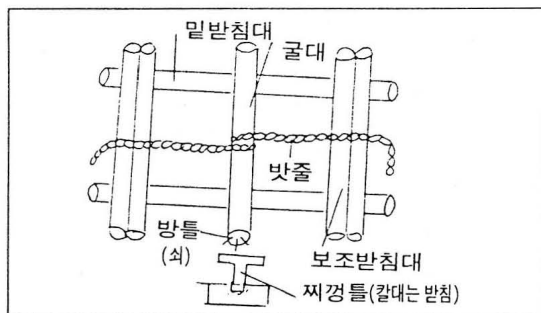
화하여 팔고 사는 상업속에서 생계를 영유하여 왔던 것은 또 하나의 산림산업 민속사의 대명제이다. 이러한 민속사는 전국 어디서나 산이많은 영역의 곳에서는 이루어져 왔겠지만 특히 우리고장 인제는 대표적인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잘나 타낸 바와같이 심심산천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인제군은 산림문화의 발원지로 고증되고 있는 산림민속 문화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갈이남박만들기를 위하여 재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산림지역의 계곡 평지를 택하여 자리를 선택한다. 그리고 이 터에다 갈이틀을 제작하여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작업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졌다.

2) 갈이틀만들기와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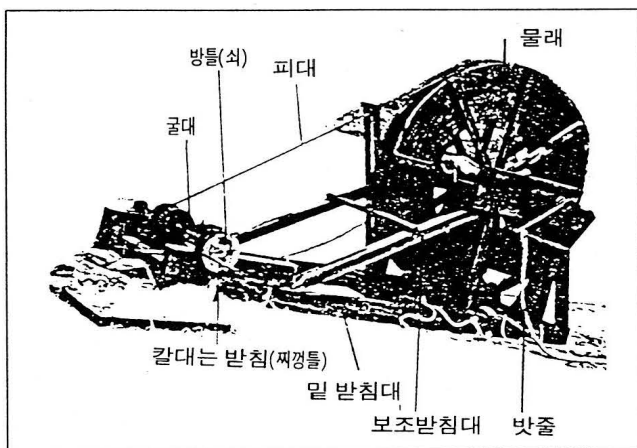
옛선인들이 사용하던 갈이틀은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굴대를 이용하여 사용하던 사각틀의 갈이틀이 조금 앞선 시대에 사용되었던 그 후 물레에 피대를 감아 돌리면서 사용되었던 물레형 갈이틀이 있다. 전자의 굴대형 갈이틀은 긴장축의 바침대를 양쪽으로 하고 또한 그 위에 양쪽 끝으로 움직이지 않게 보조반침대를 두 개씩 양쪽으로 대어 고정시켜 놓았으며 가운데에 굴대나무를 얹고 굴대 한쪽끝에 (방틀) 뽕죽한 쇠꼬챙이를 3개 박아 이남박이나 목공예 재료를 접착(쇠꼬챙이에 박음)시키며 그 앞에 찌경틀을 돌려걸어 양쪽에서 서로 맞추어 밧줄을 당겼다 놓았다 하면 굴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사각형 갈이틀의 구조이다. 또 하나의 물레형 갈이틀은 사각형 갈이틀이 사용되던 이후에 만들어져 사용되었던 물레형 갈이틀로써 사각형 갈이틀보다 힘

이 덜들고 목공예를 깎는데 굴대가 힘차게 잘돌아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 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레형 갈이틀의 구조는 양쪽으로 긴 받침대와 양쪽 끝에 또한 받침대를 대어 직사각형으로 받침틀을 짠 다음 한쪽 끝쪽으로 물레가 얹어 있을 받침목을 양쪽으로 세운 다음 물레를 얹는다. 다른 한쪽 밑받침대 위에 방틀과 피대를 걸을 심보를 얹어 고정을 시킨다. 방틀에는 역시 쇠꽃이를 3개 박아 목공예를 만들 원재료를 박을 수 있게 한다. 물레는 살을 8개정도 달아 튼튼하게 하고 물레가 잘돌아가기 위하여 심보를 달게 되어 있다. 방틀앞에는 대목이 칼을 대어 깎을 찌꺼기를 놓는다. 그리고 물레에 피대를 얹어 걸고 한쪽은 굴레 심보에 얹는다. 물레심보 양쪽에 밧줄을 걸어 양쪽에서 줄을 당겼다 놓았다 하면 물레가 돌아가면서 피대에 의해 굴래가 자연히 돌아가게 된다. 이때 대목은 방틀에다 깎을 나무를 박고 칼을대면 제품이 깎아지면서 작품을 만들게 된다. 이때 물레심보나 굴대심보는 주로 쇠로 만들어 사용한다. 물레갈이틀에는 움직이지 않게 나뭇대로 보조대를 세운다. 갈이틀을 만드는 나무는 단단하고 질긴 잡나무<박달나무, 참나무 등>로 만들고 물레는 소나무 각계목을 사용하여 짜게 된다. 갈이틀의 물레가 클수록 굴대의 회전수가 빠르게 된다.



- 사각형 갈이틀 구조 -



— 물레형 갈이를 구조 —

3) 갈이남박(이남박)만들기 작업과정

① 산신제

고중에 의하면 이남박 등 여러 가지 목기류를 만드는데는 목기류를 만들 재료가 많은 곳에서 우선 재료나무를 많이 잘라 확보하게 되는데 이것을 갈이막 산판이라고 불렀다 한다. 갈이막 산판은 먼저 재료나무가 많은 곳에게서 간단하게 제를 올리게 되는데 제물은 주과포 정도이며 그 뜻은 갈이막 산판을 할 때 아무사고 없이 무사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산신에게 빌며 좋은 재료를 많이 확보하여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물론 제주는 갈이작업을 하는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를 올리는 곳도 있고 안 올리는 곳도 있었다 하며 초기에 많이 이루어졌고 후에는 제를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② 벌목과 운반

목기류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 나무를 자르는 것을 벌목이라 하는데 총체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많이 할 때를 같이막산판이라고도 하였다. 인제군 기린면 방동2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장수(71세)씨의 고증에 의하면 주로 재료나무로는 가볍고 깎기 쉬운 피나무, 무겁고 단단한 박달나무, 무늬가 좋은 엄나무, 질기고 단단한 난치나무 등을 주로 용도에 따라 많이 사용하였다하며 때로는 소나무도 재료로 벌목을하여 사용하였다고 한다.(난치나무 껍대는 미끄러우며 비만치료제로도 약효가 좋아 사용되었다고 한다) 벌목을 할 때는 도끼·톱·낫 등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나무를 자르고 토막을 낼때에는 톱과 도끼를 사용하였고 가지를 다듬는데는 도끼와 낫 등이 사용되었다. 주로 벌목을 하는데는 5~6명이 3~5일씩하여 같이틀이 있는 곳까지 운반을 하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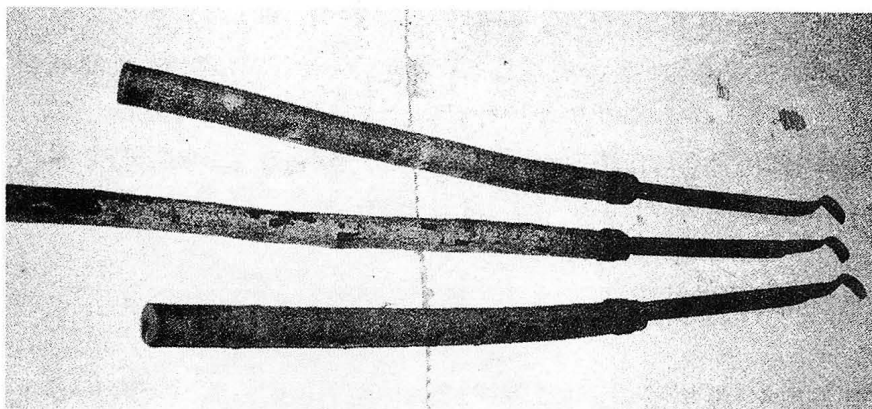
③ 겉투리 작업

벌목해서 토막을 내어 같이틀이 있는 곳으로 운반을 다해 놓으면 다시 목기류를 만들 용도대로 적당하게 토막을 내고 또한 토막을 반을 쪼개어 겉투리 작업을 하게 된다. 겉투리 작업이란 만들고자 하는 목기류 모형을 대충 자구로 깎는 것을 말한다. 이때 쓰이는 자구는 두 가지로써 예를 들어 이 남박을 만들 때 안쪽을 파면서 깎을때는 안자구를 사용하고 등쪽을 둥글게 대략 다듬어 깎을때는 바깥자구를 사용하게 됨으로 안자구와 바깥자구로 구분된다. 주로 겉투리 작업은 함지·도랑함지·이남박 등을 주로 하였다 한다.

④ 같이작업

목기류를 만들 재료와 겉투리작업으로 완성되면 방틀의 쇠꼬챙이에다 박아 밀착을 단단히 시키고 줄을 잡아 댕기면 물레가 돌아가고 피대가 돌아가면서 다른 한쪽의 굴대가 돌아가게 된다.

이때 방틀의 밀착시킨 겉투리 작업을 한 재료가 같이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대목(같이칼잡이)이 같이칼을 만들고자 하는 재료에 깎고자 하는 방향으로 대면서 완성품을 만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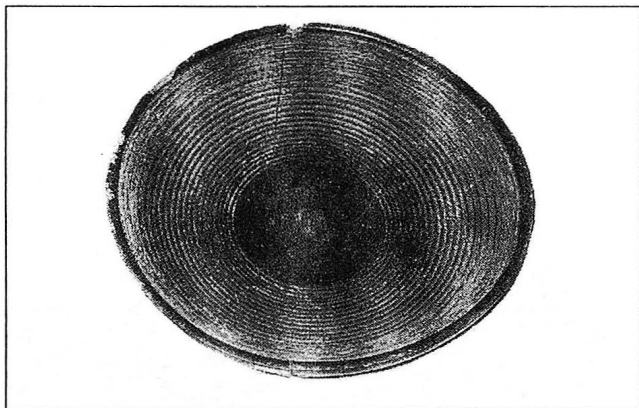
- 같이 칼 -

⑤ 세림작업(건조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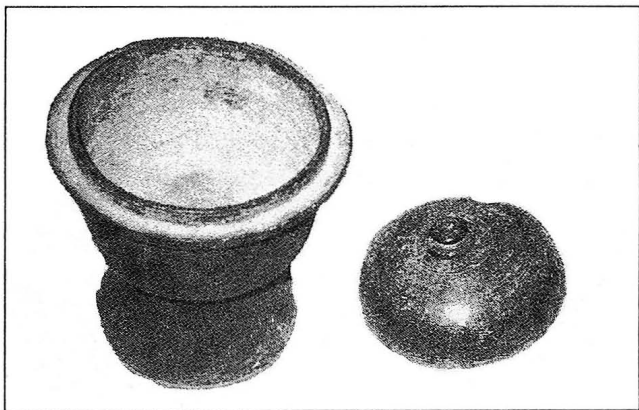
같이작업으로 제품이 완성되면 세림통에 넣어 제품을 건조시키는데 이 작업은 불을 약하게 때면서 연기와 김으로 또한 화기로 제품을 말려 터지지 않고 질긴 품질로 만들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제품의 크기와 양에 따라 건조시간이 좀 다르나
약 하루정도 하였다 꺼내게 되는데 꺼낼때는 잘된 제품과 잘
안된 제품을 가려서 상품을 구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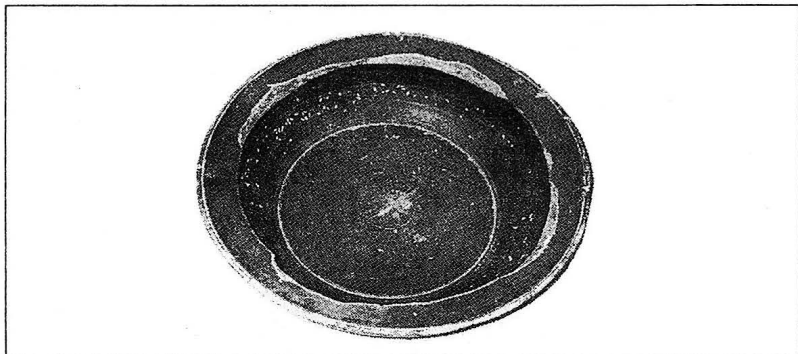
▶ 목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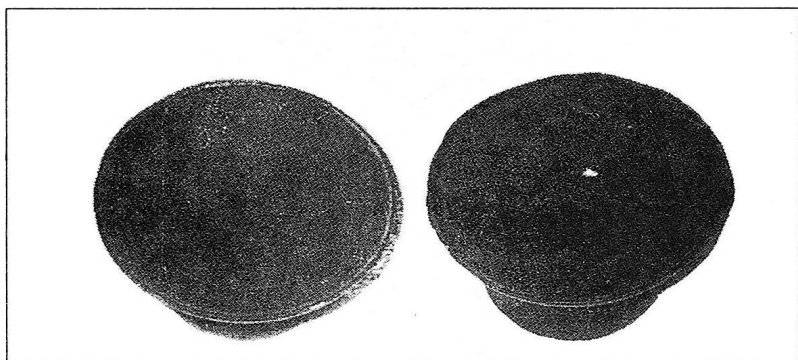
- 이 남 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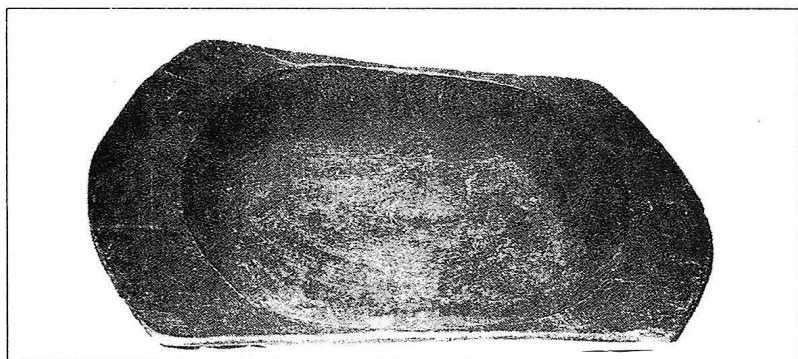
- 향 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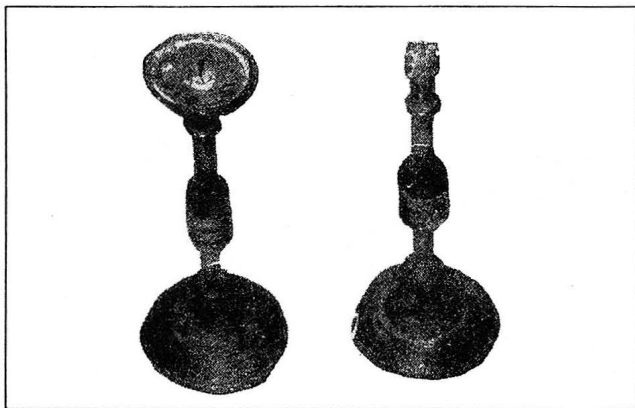
— 도랑함지 —



— 목기접시(제기) —



— 함 지 —



－ 촛 대 －

4) 상품거래

인제군 기린면 방동2리 이장수(71세)씨의 고증에 의하면 일정때 일로써 갈이남박을 만드는데는 업주가 따로있어 관리소에 허가를 받아 제품을 만들고 또한 검인을 받은후 반출증을 받아 제품을 출하하였다고 한다. 제품을 출하할 때는 소매도 일부 하였으나 대부분 도매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남박의 거래단위로써는 30개를 1태씩으로 2태를 1짐으로 하였으며 이를 또한 6죽(60개)이라고 하였다 한다. 또한 35개를 1태씩으로 2태를 1짐으로 한 것은 7죽(70개)이라고 하였다 한다. 이러한 제품은 도매상인들에 의해 홍천지방과 양구지방을 거쳐 여러 지방으로 팔려갔다 한다.

5. 목기류 만들기 생활과 人間史

우리 선조님께서서는 자연을 개발하여 생활에 이용하기 보다

는 자연에 순응하면서 지혜를 찾아내어 이웃과 함께 작은 일로부터 큰 일까지 두레정신으로 생활을 영유하여 왔다.

다시말해서 우리 민족은 5천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자연을 개발하지 못하고 문명이 일찍 발달하지 못한 것은 크게 말해서 많은 외침속에 시달려왔고 또한 국내적으로 분열과 다툼으로 인한것으로써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환경속에 계층마다 지녀 온 생활사는 각기 좀 다르지만 많은 서민들의 생활은 자연적 환경에 따라 생활을 영유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서민층 생활의 일면인 목기류 만들기 생활사도 주위의 환경이 산이 많고 산림이 풍부하기 때문에 산림을 이용하여 목기류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또한 상품화하여 서민간에 생활의 수단으로 상거래를 이루어 온 것도 자연환경에 따라 생활을 영유하여 온 민족생활사이다.

서민층. 아마도 그들은 권력도 명예도 재물도 없이 하루 하루를 힘든 노동일로서 많지않은 대가를 얻으며 생계를 꾸려왔다. 또한 이러한 빈곤과 인곤의 아픔을 안고 가족들과 생활을 멀리하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수 많은 날들을 보내며 노동생활을 하여야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 우리 민족의 인간사였다.

이러한 산간생활의 민속사는 산이 많은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루어져 왔겠지만 특히 우리 인제지방에서는 옛부터 산림자원이 풍부한 자연조건에 따라 목기류를 만들어 생활의 수단으로 생계를 꾸려온 고장인 곳이다. 따라서 예전에 목기류를 만드는데 직접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였던 옛 노인네들이 생존하시면서 당시의 생생한 생활사를 말해주고 있고 또한 목기류로써 함지·남박·목기접시·향합 등을 소장하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다.

이에 힘입어 우리 고장에서는 옛 선인들이 살아온 민속사를 발굴하여 계승 보존하는 일로써 금번 조사가 용이하게 되었다.



— 어머니가 머리예다 도랑함지를 이고 두 자녀와 함께 서있다. —



— 목기로 만든 함지박을 이용하여 사금채취를 하고 있다. —

6. 인제 갈이남박만들기 발굴재현

우리 고장 인제에서는 옛 민속사인 갈이남박만들기를 발굴하여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재현을 한 바 있다. 1989년도 9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동해시에서 개최하였던 제7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우수상을 받은바 있고 1996년도 9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철원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었던 제14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또한번 출연하여 재현함으로 우수상을 받은바 있다. 이로인하여 산간 민속사를 널리 알리는데 좋은 계기와 계승 보존시키는데 정립을 하게 되었다.

1) 배경과 특징

우리 인제군은 전체면적의 약 90%가 산림지역으로 옛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풍부한 자연을 이용하여 생계를 꾸려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인제뗏목생활사·숯굽기생활사·심메마니 생활사 등이 이미 발굴되었다.

그중에서 인제 조경동 같이남박 생활사는 깊은 산중에서 나무를 이용하여 생활의 필수품이었던 함지·남박·목기접시·촛대 등을 만들어 상거래를 하면서 생계를 영유하였던 또 하나의 대표적인 민속사인 것이다. 이러한 우리 고장의 민속사를 당시에 직접 종사하였던 옛 노인의 고증을 얻어 발굴하게 되었다.

2) 당시의 고증을 해 주신분

이장수(70) 인제군 기린면 방동2리

이병성(80) 인제군 기린면 북3리

손용인(80)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3) 출연과정

그 옛날 같이남박 생활민속사의 세부적인 과정을 경연대회에서 재현하기란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략 중요한 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재현하게 되었다.

제1과장 : 입산

목기류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벌목하기 위하여 출연진은 주루목에 톱·도끼·낫 등 각종 도구를 넣어 등에다 메고 산으로 들어간다.

제2과장 : 벌목 및 운반작업

출연진은 입상 후 등에 맨 주루목을 벗어 벌목할 도구를 꺼낸다. 이후 톱으로 나무를 베고 일부 출연진은 도끼와 낫으로 가지를 다듬는다. 다음 일부 출연진은 나무를 토막을 내어 목도나 지게로 같이틀 있는 곳까지 운반을 한다. 계획된 배정시간에 벌목을 마치고 가지를 다듬고 같이틀 있는 곳까지 나무를 운반하면 같이틀로 짊는 작업을 하게된다.

제3과장 : 같이작업

출연진 일부는 같이틀의 밧줄을 잡아당겨 굴대를 굴개하고 대목은 방아틀 재료목에 칼을대어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만든다. 또한 일부에서는 안자구와 바깥자구를 이용하여 겉투리 작업을 한다. 겉투리 작업이란 제품모형으로 대략 짊는 것을 말한다. 같이작업시에는 힘든 노동일과 애환을 달래기 위하여 노동요를 부르는데 이때 선소리꾼이 먼저 소리를 주면 다른 사람 모두는 후소리를 받아 맞추어 부른다. 또한 힘이 들게되어 한 번 쉬었다 다시 작업을 계속한다. 이 과정도 계획된 시간 배정을 지켜 과정을 하게 된다.

제4과장 : 세림과 제품검사

세림이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같이틀에서 만든 목기제품을 세림통에 넣고 밑에서 불을 약하게 때면서 훈기로 제품을 말리는 것이며 이 작업은 제품이 질기고 단단하게 하여 갈라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약 하루를 세립하고 제품을 세립 통에서 꺼낸다. 이때 잘된 제품과 잘못된 제품을 가리게 된다. 물론 상품은 도매와 소매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도매를 하여 같이남박 공장의 운영비와 품값으로 치루게 된다.

제5과장 : 한마당놀이

출연진은 모두가 한군데 모여 기수를 중심으로 빙빙돌면서 춤을 추며 소리를 지르며 신명나게 돈다. 이 뜻은 같이작업을 무사히 마치고 그 댓가도 잘 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기쁨을 나누며 흥을 내는 과정이 된다.

같이남박만들기 소리 ○

여기메가	어디메뇨	두메산골	인제로다
옛날옛날	아주옛날	오백년이	훨씬넘는
이태조가	등극하여	국태민안	시화연풍
산간문화	발달하여	목기시대	열었는데
긴린방동	조경동에	산으로는	방태산이
주 종 을	이루어서	골골마다	살펴보니
웅장하게	자란수목	휘영청청	늘어졌네
박달나무	물참나무	칭칭나무	지장나무
수백중에	남으로다	느티나무	찰피나무
십리안에	오리나무	둥둥울려	굴참나무
물도 좋고	경치좋은	피나무아래	자리잡아
가리산판	차려놓고	일자도끼로	찍는소리
동서남북	올려드니	넘어간다	넘어간다

아름드리	피나무가	와자직근	다넘어간다
피나무한데	비어다가	밑둥은잘라	대함지파고
허리통잘라	이남박파고	끝둥은잘라	뚝배기깎고
또한대잘라	춧대를깎아	연꽃같은	잔대를깎아
오밀조밀	목기를깎아	한광우리	담아놓으니
보기도 좋고	쓰기도 좋다	우리나라	조상님네
숨씨자랑	아깁손가	엄나무잘라	장틀을하고
박달을찍어	궁글대하고	피나무깎질	젖을싸서
세곱으로	줄을드려	암줄숯줄	매어놓고
암줄에는	두사람이	숯줄에는	다섯사람
스르륵스르륵	돌려주어	대목님이	칼을대니
구름같은	대패밥에	허공에	안개피듯
대함지파서	맷돌질하고	남박을깎아	돌가리하고
뚝배기깎아	국갱이하고	춧대는깎아	황춧불키고
잔대는깎아	잔받침하고	오곡백과	무르익어
삼색실과	접시에담아	홍동백서	좌포우회
외적내탕	진설하고	도포에다	정관하고
무릎꿇고	분향재배	괴눈같은	참쌀술을
두손들어	밟아놓고	신위전에	배례하니
백만사가	여이형통	영화로다	영화로다
부귀공명	영화로다	산은푸르고	돌은흰데
사이사이가	꽃이로다	산도 좋고	물도 좋은데
한잔함이	어떠한고	두사람이	마주앉아
한잔주고	한잔드니	일배일배	두일배라
인생일장	춘몽인데	아니놀고	무엇하리
노세노세	젊어오세	늙어지면	못노니라.

● 출연자

▶ 출연인원 : 6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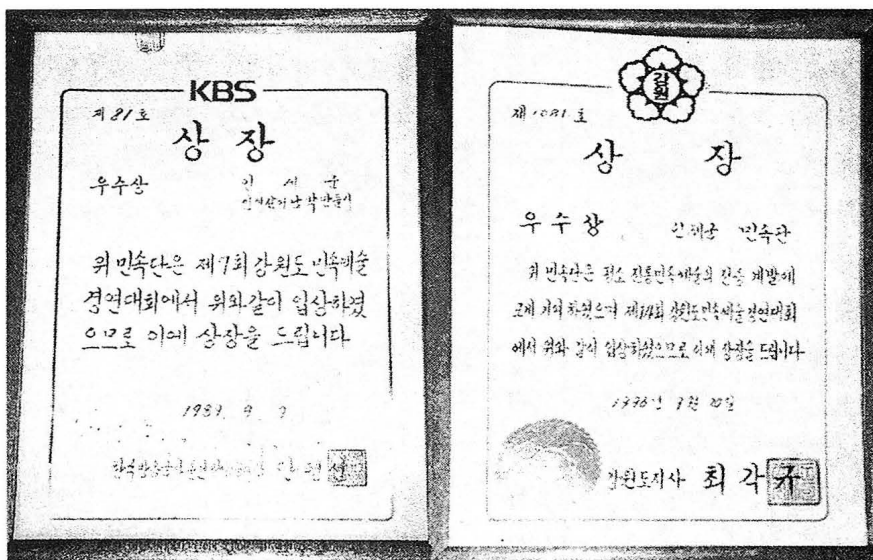
▶ 연출지도 : 이 만 철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 선 소 리 : 박 해 순 (인제문화원장)

성 명	연령	배 역	성 명	연령	배 역	성 명	연령	배 역
박해순	73	선소리	임상호	23	물레꾼	이재열	23	물레꾼
김상혁	74	농 악	이창기	23	물레꾼	김상선	22	물레꾼
이상주	55	농 악	이명희	22	물레꾼	오진성	24	톱질꾼
이종명	64	농 악	손연록	23	물레꾼	이대성	22	톱질꾼
이만식	67	농 악	이상식	23	물레꾼	주익록	24	톱질꾼
김유근	60	농 악	장인환	22	물레꾼	전현수	23	톱질꾼
허만영	63	농 악	천희옥	24	물레꾼	서승택	23	톱질꾼
남궁작	59	농 악	정신철	23	물레꾼	유장식	22	톱질꾼
김범수	57	농 악	임찬학	24	물레꾼	박세홍	22	톱질꾼
이수영	64	겉투리작업	이준영	24	물레꾼	김도형	24	톱질꾼
박기영	72	겉투리작업	예영수	22	물레꾼	최진용	23	다듬이작업
이동선	73	겉투리작업	최종환	23	물레꾼	임성권	24	다듬이작업
이동준	71	목 상	한성호	23	물레꾼	신종만	23	다듬이작업
선수영	70	대 목	이정모	22	물레꾼	이태진	22	다듬이작업
이종성	67	대 목	박준영	22	물레꾼	이태규	23	다듬이작업
최영준	71	기 수	김성남	23	물레꾼	진장일	24	다듬이작업
조성구	72	기 수	임 호	23	물레꾼	박현수	24	다듬이작업
박정근	24	기 수	김용환	23	물레꾼	전옥연	65	아낙네
명진노	23	물레꾼	이상현	22	물레꾼	김은순	64	아낙네
지명연	24	물레꾼	박형주	23	물레꾼	장옥자	56	아낙네



- 민속경연대회 출연 사진 -



- 민속경연대회 출연 우수상 사진 -

7. 결 론

민속이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살아온 환경과 실제 생활사를 말하며 또한 생활문화의 총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속사에 대한 접근은 그만큼 복잡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민속사는 고장마다 전통성이 각기 다른점이 많기 때문에 또한 복잡성을 갖게된다.

그것은 옛부터 인간은 자연의 지배를 받아 환경과 여건에 따라 생활을 영유하여야만 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하여 세계화를 이루는 인위적인 여건 조성으로 살지를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우리 조상님들이 그시대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또한 그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데 비추어 전통성을 되찾는다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민속을 연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연구성과 동향을 깊이 알리고 다양한 민속사를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는것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조사과정에서도 우리 지역이 옛부터 지니고 있는 자연환경에 따라 산간문화의 전통사인 같이작업 민속사를 조사하여 정리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앞에서 나뉘대로 서술하였기에 결론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민속사가 우리 조상의 전통적인 민속사중의 일부라는 것을 자료로써 보탬이 되고 후대에 계승 보존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 번 나타내고자 하는데 맞추고자 한다.

麟蹄 林産民俗史研究

군량동 채독만들기 民俗史



麟蹄 林産民俗史研究

— 군량동 채독 만들기 民俗史 —

麟蹄郷土史研究所

研究員 李 萬 喆

〈 目 次 〉

1. 머리말
2. 인제의 자연환경과 채독 민속사
3. 고층에 의한 선인들의 채독 만들기
4. 채독 만들기 민속사 재현

1. 머리말

금년도는 전통문화 보존 계승사업의 일환으로 향토사를 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한군데모아 사료집을 발간하고자 하였다.

이중에 우리 고장에서 옛선인들이 자연환경의 조건에 따라 영유하여 온 생활사들을 기록으로 남기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옛생활사를 널리 알리는 교육적인 가치와 후대에 게 보존 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의욕을 가지고 임하게 되었다.

조사를하여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과연 선인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옛 민속사를 깊이 알았을때마다 부끄러움과

아쉬움이 앞섰다.

그것은 우리의 민속사가 일제의 식민지 통치 속에 짓밟혀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우리 문화를 없애버리려는 말살정책의 국운 속에 살아오다가 45년 해방과 동시 밀어닥친 서구문명에 밀려 우리 민속사가 우리의 주변에서 멀리 사라지고 기억 속에서 잊혀간다는 안타까움이였다.

우리는 무관심 속에 현대생활에 매달려 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우리의 옛것을 잃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생활에 맞추어 합리성으로 핑계만을 댈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일념으로 잃어버린 우리 것을 가장 가까운곳에서 찾을 수 있는것부터 기록으로 남기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제 때늦게 금번 우리 고장의 민속사를 조사하고 수집하여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고자 하는데도 우리 고장의 전반적인 문화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원으로서의 의무적인 사명에 문제성과 책임성을 깊이 느낀다.

1) 조사경위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 고장의 전통적인 고유문화의 민속사를 일목연하게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데 큰 뜻을 가지고 금번에는 채독만들기 민속사를 조사하여 그자료를 정리하게 되었다.

특별히 우리 고장은 자연조건이 좋아 임산(林産)자원을 이용하여 옛선인들이 살아온 민속사를 폭넓게 조사하여 정리하는데는 금번에 조사하게된 채독만들기 민속사도 빼놓을 수 없는 사료이기에 조사정리에 임하게 되었다. 산에서 얻어지는

싸리나무를 이용하여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곡식을 담은 용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던 옛 선인들의 슬기롭고 지혜가 담긴 민속 생활사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채독은 어떻게 만들어 사용하였는지도 그 실체를 함께 알아보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도 매우 중요하기에 함께 조사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였으며 그외 당시의 전체적인 생활 민속사도 함께 나타내고자 하는데도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시키는데 보탬이 되기에 중요시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적 기일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찾기 위하여 고증이 될만한 자료의 문헌을 찾아보고 나이가 많은 원로 노인네를 찾아 상세하게 물어보고 하여야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것이라고 믿고 이에 근접하게 되었다.

2)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주로 옛부터 우리 고장에서 살아오신 원로노인네를 찾아 고증을 얻는데 주력을 하였다. 그러나 채독만들기 민속사는 이미 1991년도에 조사되어 그 자료가 어느정도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은 1991년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제9회 강원도 민속 예술 경연대회가 개최되었던 바에따라 우리 군에서 이 채독만들기를 놀이화하여 출연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당시 출연에 앞서 채독만들기 민속사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옛 원로노인네를 찾아 고증을 받게 되었다. 물론 군청 관계공무원과 함께 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면에 채독을 만들어 용기로 사용하였던 노인네께서는 산에서 싸리나무를 베어다 만드는 과정을 자세하게 알려주어 고증을 얻는데 용이하였다. 현재 그당시 관계 고증기록

문헌과 경연과정에서 만들어진 채독이 문화원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하여 금번에도 다시 원로 노인네들을 찾아 자료를 보충하게 되어 금번 사료집을 내는데 채독만들기씨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3) 고증을 해 주신분

본문에서 다루는 인제 군량동 채독만들기의 고증을 해 주신분은 1991년도에 고증을 해 주신분이 함께 있어 기록을 남기고자 한다.

① '91년에 고증을 해 주신분으로 기록된 것은

- 인제읍 귀둔1리 박주관 (당시 86세)
- 인제읍 귀둔2리 엄태현 (당시 74세)
- 인제읍 합강2리 김영기 (당시 79세)
- 인제읍 상동3리 손용인 (당시 77세)

② '97년에 고증을 해 주신분

- 인제읍 상동2리 이종성 (82세)
- 인제읍 합강2리 이주은 (84세)
- 인제읍 원대리 조성구 (78세)
- 인제읍 합강1리 동상인 (81세)

2. 인제의 자연환경과 채독민속사

앞서 몇 가지의 우리 고장 산림 민속사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우리 고장은 산이 많은 관계로 임산자원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다.

우리 선인들은 이고장 자연조건에 따라 임산자원을 이용하여 생활을 영유하게 되었다. 금번에 다루는 채독만들기도 산이 많은 관계로 자연히 산에서 많이 자생되는 싸리나무를 베어다 곡식을 담는 용기를 만들어 사용하여온 선인들의 지혜이다.

물론 채독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여 온 민속사는 아니지만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선인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였던 것과 더 나아가서는 그시대의 삶의 문화를 짐작하여 알게되고 선인들의 슬기로운 지혜를 역사 속에 담아 함께 전통생활사를 알고자 하는데 교육적인 큰 가치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고장에서도 옛부터 농경지를 이루어 농사를 지으며 곡식을 얻어 생계를 영유하여 왔기에 이에따라 곡식을 담아두는 용기가 매우 필요시 되게 되어 채독을 만들어 사용하였던 것이다. 또한 좀더 중요시 되는 것은 인제읍 군량동이라는 곳은 지명으로 보아 양곡을 쌓아두는 창고가 존재하였던 곳으로 생각된다. 또한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옛시절에 군량동의 창고에 양곡을 보관하는데는 채독을 많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선인들이 사용하였던 채독은 물론 마땅한 용기가 부족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많지만 싸리나무로 만든 채독을 사용하였던 것은 바람이 잘 통하여 곡식이 부패되는 일이없고 다른

용기로 담고 퍼내는데 편리한 점과 양도 많이 담아둘 수 있어 사용하는데 좋은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선인들께서는 이러한 장점을 알아내는 슬기로운 지혜를 가졌었다.

우리 고장에서 살아왔던 원로 노인네들의 구전에 의하면 화전을 일구어 농사를 짓거나 평지에다 농사를 짓던 집이나 어느집을 망라하고 싸리가지나무로 채독을 만들어 집집마다 사용하였다고 한다. 뒤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과정을 정리해보겠지만 선인들께서는 산에서 새순으로 자란 쪽쪽 뻗은 싸리가지를 베어다 껍질을 벗기고 쇠뚝으로 이겨서 채독안에다 돌아가며 발라서 마른다음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다.

그것은 좁쌀, 수수, 쌀, 콩, 팥과 같은 알이 작은 곡식을 담아 두는데 새어나가지 않도록하기 위함이었다 한다. 이러한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작품은 매우 훌륭하게 보아진다.

선인들께서는 이외에도 광주리, 다래키, 열래이, 소쿠리 등을 싸리가지 나무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근래에도 예전에 만들어졌던 광주리나 소쿠리, 다래키 등이 남아있어 사용하는 집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 속에 만들어진 용기들은 많이 우리 곁에서 사라져 없어져 가고 있으며 남아있는 용기들은 먼 후대에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될것으로 믿어지기에 이런 모든 물건들을 잘 보존시켜야 할 것이다.

이 조그마한 대수롭지 않은 물건이지만 우리는 깊은 관심 속에 중요하게 여겨 보존하는데 관심을 모아야 하겠다.

현재 저희 문화원 사료전시실에는 예전에 선인들이 사용하였던 싸리로 만든 광주리와 역시 싸리껍질을 벗겨서 만든 채반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근대에도 민속 경연대회에서 소품으로 사용되었던 싸리껍질을 벗겨 만들어진 채독이 5개가 있다.

3. 고중에 의한 선인들의 채독만들기

1) 싸리나무 베기

먼저 채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 싸리나무를 베어와야 한다.

싸리나무를 베어오기 위하여 주루목(홀치기)에다 솥돌에 잘갈은 낫을 2개정도 넣어가지고 짊어지고 아침 일찍 산으로 간다.

싸리나무는 새순으로 쪽쪽 뺏어자란 1년생으로 재료감이 아주 좋다고 한다. 특히 전년도에 산불이난 산에서 새순으로 자란 좋은 재료감이 많이 난다고 한다. 재료감의 싸리나무가 많은 곳에서는 잠깐동안 베어도 충분하나 그리 많지않은 곳에서는 한 나절 다니면서 골라 베어야 2~3단 정도 베었다고 한다.

재료감의 싸리가지를 베어가지고 단을 칫끈으로 묶은다음 다시 칫끈으로 뿔뿔을 메어 어깨에 메거나 등짐으로 지어서 집으로 하산하게 된다. 집에와서는 다시 싸리가지가 마르지 않도록 물에 담그어 두거나 아니면 그늘에 놓고 물을 자주 뿌려주어야 한다.

그것은 제품을 만들기위하여 껍질을 베끼는데 용이하기 위함이었다 한다. 싸리가지가 마르면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수분이 있도록 충분히 물에 담그거나 물을 뿌려주어야 한다고 한다.



싸리가지에 물을 뿌려주는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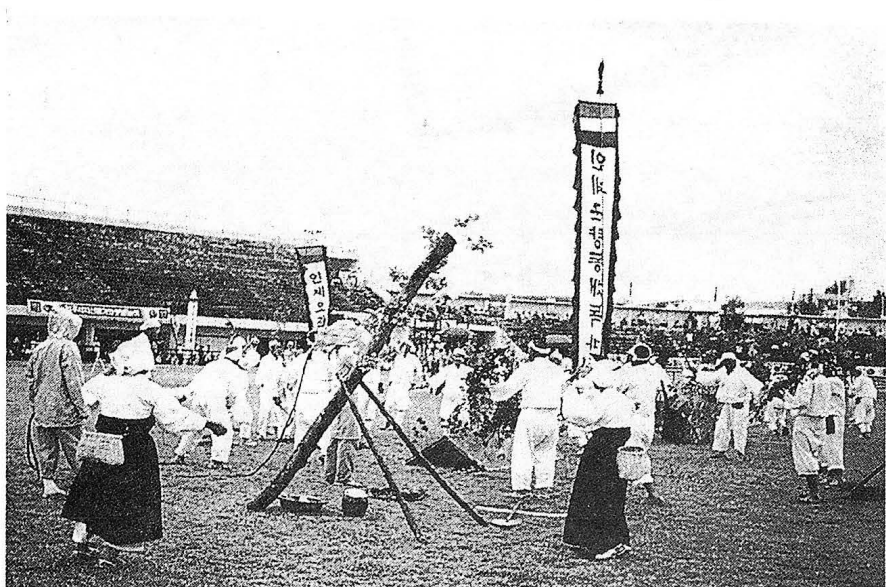
2) 싸리가지 껍질벗기기

채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에서 베어온 싸리가지의 껍질을 모두 벗겨야 한다고 한다. 싸리껍질을 잘 벗기기 위하여는 지름이 4~5cm 정도 길이가 30cm 정도의 나무가지를 한쪽으로 약 7~8cm 정도 쪼개어 지게, 집게를 만든다. 이 집게나무는 물푸레나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물푸레나무가 단단하여 사용하기가 좋다고 한다. 다시 쪼개진 집게의 한곳에 싸리가지를 끼어놓고 다시 싸리가지를 잡아당기면 껍질이 잘 벗겨진다고 한다. 물론 집게에다 싸리가지 하나씩을 걸어 잡아 당겨서 껍질을 벗기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린다고 한다.

그래서 껍질을 벗길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모여 빠른 시간 내에 벗겼다고 한다. 아울러 싸리가지가 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면서 물기가 있는 동안에 빨리 벗기기 위하여 여러명이 모여서 함께 벗겼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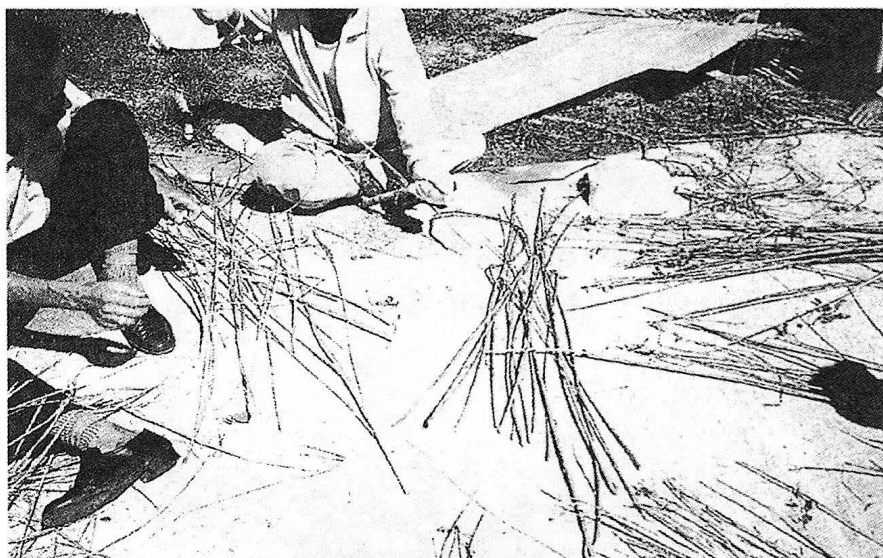
벗긴 싸리가지는 채독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였고 껍질은 밧줄로 꼬아서 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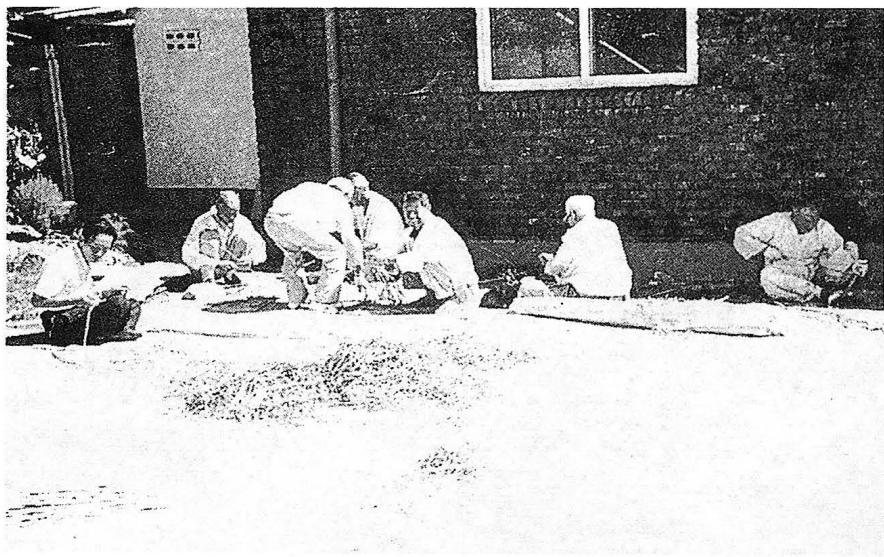
싸리가지 껍질을 벗기는데 사용되는 집게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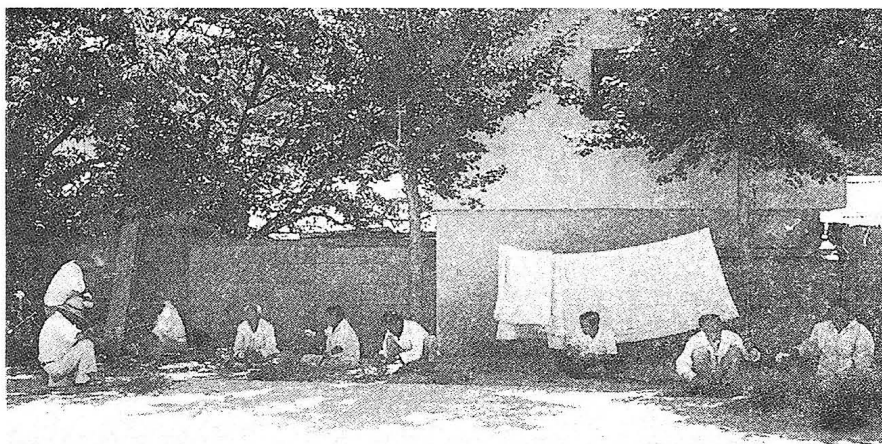
집게로 싸리가지 껍질을 벗기는 장면



싸리껍질을 벗기는 사진



여러명이 싸리가지 껍질을 벗기는 모습



여러명이 그늘에서 싸리가지 껍질을 벗기는 모습



벗겨진 싸리껍질(밭줄로 꼬아 사용함)

3) 싸리가지 휘어놓기

먼저 벗긴 싸리가지는 채독을 만들기 위하여 편리하게 휘어 놓아야 한다. 채독의 생김새가 둥글기 때문에 벗겨진 싸리가지는 약간 둥글게 휘어야 한다. 이 작업도 역시 벗겨 놓은 싸리가지가 마르기전에 즉시 휘어놓아야 한다. 이때 짧고 갈라진 싸리가지는 골라서 따로 놓는 선별작업도 겸하게 된다. 좋은 재료로 벗긴 싸리가지는 휘어서 한데 모아 놓아야 하며 역시 마르지 않도록 그늘에 놓아둔 뒤 물을 약간씩 뿌려준다고 한다. 처음 껍질을 벗긴 싸리가지의 색깔은 파란 색깔이 나지만 마르게되면 하얗게 변한다.

이러한 작업과정 속에 재료의 벗겨진 싸리가지의 길이는

대충 모두 갈아야 채독을 만들 때 편리하다고 한다.



껍질을 벗긴 쌀리가지



벗겨진 쌀리가지를 휘는 작업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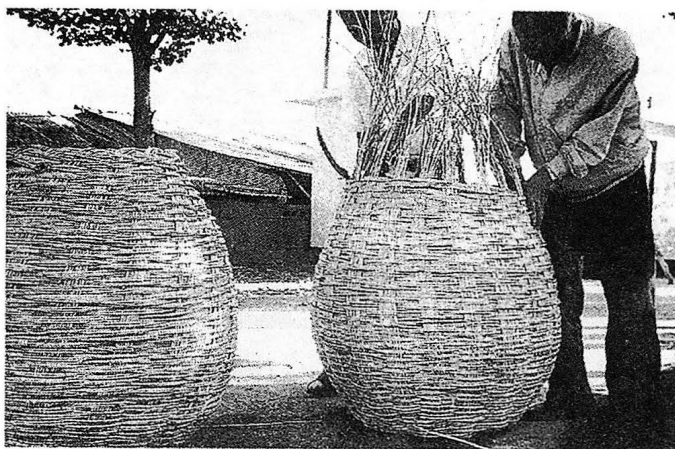
4) 채독만들기

싸리껍질을 벗겨서 휘어놓은 싸리가지지를 채독을 만들기 위하여 그늘진 곳에 놓고 채독을 만들게 된다. 그늘진 곳에 태우는 첫째 원인은 싸리가지가 채독을 엮는 동안 마르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또한 햇볕을 벗어나 그늘진 곳에서 하기 위함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채독을 만들기 위하여 먼저 밑바닥부터 엮어 만드는데 밑바닥에서 시작할때는 세로로 여러가닥을 올린다음, 다시 가로로 싸리가지를 안으로 넣어 엮고 다음에는 밖으로 엮어가며 계속한다. 엮어가는 과정에 둥글게 모양을 만들며 올려 엮어간다. 중간쯤에서 채독의 배가 제일 나오게하고 다시 좁혀가며 엮어 올려서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하는 작업도 아주 기술적으로 휘어감아 돌아가며 마무리를 하게 한다.



채독을 싸리가지로 엮어 만드는 노인네

5) 채독에 진흙, 쇠뿔 종이바르기

짜리가지로 채독을 모두 만들게 되면 다시 채독에다 진흙을 이겨서 안으로 바르거나 쇠뿔을 바르거나 또는 문창호지 같은 질긴 종이를 발라 말린다음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는 짜리가지로 만들어진 채독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함이고 또한 건조가 잘되고 아울러 좁쌀, 깨, 두태류 등 작은 곡식알이 새어나가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 사용하게 된 과정을 볼 때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절에 선인들은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채독을 만들어 사용하였던 것이다. 특히 채독을 만들어 진흙, 쇠뿔, 종이들을 발라 마른 뒤 사용한 지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의 가치성을 남겨주고 있다.

4. 채독만들기 민속사 재현

우리 고유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민속 예술 경연대회가 '83년도부터 금년까지 제15회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강원도 21개 시군에서는 제 1회 대회부터 금년 제15회를 맞이하기까지 자기 고장마다의 옛 민속사를 발굴하여 깊은 고증과 감수를 받아 인원과 소품을 구비하여 충분한 연습 끝에 출연을 하여 경연대회에서 재현함으로 잊혀져가던 전통적인 민속사가 많이 보존 계승해오고 있게 되었다.

이러한 대회를 계기로 우리 인제군에서도 우리 고장만의 특유한 옛 민속사들을 발굴하여 제1회때부터 금년까지 한 해도 빠지지않고 출연에 임하여왔다. 그중에 “인제뗏목”, “숫둔

골쫂꿏기놀이” 등은 대회의 종합 최우수상을 받아 우리 고장의 명예를 드높임은 물론 산간문화의 발원지로서 그 우수성과 가치성을 인정받아 널리 옛 전통문화를 알렸음은 물론이고 언론, 학계, 관계연구원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연구하고자 하는데 교육적인 가치성을 나타냈다. 그외에도 우수상, 장려상, 공로상 등을 받은 많은 소재들의 전통 민속사를 발굴하여 재현함으로 인정을 받고 널리 알리고 보존 계승하는데 노력을 다해왔다. 이중에 '91년도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었던 강원도 제9회 민속 예술 경연대회에 우리 인제군에서는 “인제 군량동 채독만들기”를 발굴하여 고증을 얻고 감수를 받아 씨나리오에 의해 약 20일간 인제노인회에서 연습을 하고 대회에 출연한바 있다.

물론 입상은 하지 못하였지만 주위에 인정을 받아 산간 전통문화의 민속사를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기회를 통하여 일찍이 우리 고장의 전통 민속사 중 “채독만들기” 민속사를 발굴 보존하여 오게되었다. 그리고 이를 좀 보완하여 금번 민속사료집을 발간하는데 원고를 신게 되었다.

다음은 '91년도 채독만들기 민속사 재현 시나리오를 밝혀 보고자 한다.

■ 출 연 순 서 ■

- 1) 입산 씨리가지 베기
- 2) 채독만들기 꺾질 벗기기, 채독만들기, 흙바르기
- 3) 채독모으기 3개마을 (용수골, 오작골, 곰배골)
- 4) 한마당놀이 중앙에서 농악대, 출연자 모두

해설 : 지금으로부터 인제군 군량동 채독만들기를 재현하겠습니다.

- 먼저 입장전에 베네다판자로 만든 “산”과 “초가집” 3채와 “싸리나무 세운 산”, “나무2대”를 운동장 적당한 장소에 가져다 놓는다.
- 입장순서는 맨 앞에서부터 기수(大) 농악대, 기수 2명(小), 촌장, 소리꾼 2명, 촌민 27명, 기수(小) 1명 순으로 입장하여 원을 그려 둥그렇게 서 있게 된다.
- 또한 입장시에는 농악에 맞추어 춤을 덩실덩실 추며 들어간다.
- 둥그렇게 원을 그려 춤을 추며 간격을 맞춘다음 농악이 멈추면 소품을 땅에놓고 각자 관중을 향해 뒤로 돌아선다.
- 다시 징소리가 나면 일제히 관중을 향해 인사를 한다.
- 또다시 징소리가 울리면 일어선다. 이때 농악이 울리면 소품을 들고 각자 농악에 맞추어 춤을추며 자기동네 마을로 돌아간다.
- 자기 마을로 돌아와 다 정돈하여 서 있으면 이때 농악은 멈춘다.

● 제1과장 입장과 싸리나무베기

- 먼저 소리꾼이 “자! 이제부터 채독만들기를 위해 싸리나무를 베러 산으로 갑시다”하고 소리를 지르면 용수골, 곰배골, 촌민들은 “네!”하고 소리를 질러 대답을 크게 한다.
- 이때 농악이 신나게 울리면 3개마을 촌민들은 일렬로 홀치기에 낫을 담아메고 춤을추며 중앙에 있는 산속 싸리밭으로 가서 둥글게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돈다.(이때, 아낙네

는 집에 남는다)

- 농악이 멈추면 홀치기를 벗어놓고 선소리꾼이 소리를 하면 촌민들은 낫을 들고 후렴을 받으며 싸리나무를 베기 시작한다.
- 이렇게 선소리꾼이 후렴을 받으며 싸리나무를 다 베게되면 농악에 맞추어 홀치기를 메고 산을 한바퀴 춤을 추며 돌다가 각자 자기 마을로 돌아온다. (돌아갈 때 싸리나무는 어깨에 메고 낫은 홀치기 속에 넣는다)
- 일행이 농악소리에 맞추어 싸리나무를 베는동안 해설자는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해설 : 우리 인제군은 옛부터 산림자원이 풍부하여 우리 조상들은 이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생활을 기거해 왔습니다. 그예로 산림과 약초들을 캐서 생활을 하였고 나무를 베어 숯을 굽기도 하고 또한 뗏목을 이용하여 건축자재와 화목을 전국에 공급하는 등 이러한 생활들이 산림문화의 발원지를 확실하게 뒷바침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놀이화하여 연희하고 있는 채독만들기는 우리 고장 인제읍 군량동에서 옛부터 많이 만들어 마른 곡식을 넣어 사용하는데 성행되어 왔던 것을 옛 노인네들의 고증을 받아 재현하고 있습니다.

군량동은 일명 군량밭이라고도 불려져 내려오고 있으며 전설에 의하면 넓은 평지대가 약 7만평이 되는데 어느시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군대의 무리가 머물러 농사를 지어 양곡을 저장하였던 곳이라고 구전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군량을 저장할 때 뒤주나 지금

재현하고 있는 채독을 만들어 사용하였다는 구전도 내려오고 있다.

지금 재현하는 것은 채독을 만들기 위하여 산에서 싸리나무를 베는 과정이 됩니다. 이렇게 싸리나무를 베어서 집으로 가지고와서 채독을 만들게 됩니다.

● 제2과장 싸리나무, 껌질벗기기, 채독엮기, 흙바르기

- 먼저 소리꾼이 “자! 싸리나무껌질을 벗겨서 채독을 만듭시다”라고 하면 3개 마을 촌민은 일제히 “네!”하고 대답을 크게 한다.
- 선소리꾼의 애환어린 소리가 나오면 후렴을 모두 받으며 촌민들은 껌질을 벗기며 신명스러운 몸짓을 한다.
- 농악은 아주 적은 소리로 장단을 쳐준다.
- 어느정도 껌질을 벗기다가 채독을 만든다.
- 작업을 계속하다가 선소리꾼이 “자!, 쉬었다가 하세”라고 하면 촌민들은 “네!”하고 크게 대답한다.
- 이때 농악은 신나게 울려주며 촌민들은 둥그렇게 돌아 앉는다. (출연자 일부는 윗 저고리를 벗는다.)
- 아낙네는 술동이에서 술을 쪽박에 담아 촌민들에게 돌린다.
- 한참있다 농악이 멈추면 선소리꾼이 “자!, 또다시 채독을 만들세”라고 하면 촌민들은 “네!”하고 크게 대답을 한다.
- 촌민들 일부는 채독을 계속 만들고 일부는 흙을 이겨댄다.
- 이때 선소리꾼이 애환섞인 소리를 계속하면 작업을 하는 촌민들은 후렴을 계속받으며 작업을 한다.
- 농악은 아주 작은소리로 리듬을 울려 쳐준다.
- 기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울동으로 춤을추며 기를 흔든다.

- 아낙네는 춤을추며 촌장은 3개마을을 빙빙돌면서 담배대를 물고 잔소리를 해가며 빙빙돈다.
- 일행이 소리에 맞추어 껌질을 벗기고 채독을 만들며 흙을 이겨가는 동안 완성된 채독을 내놓고 안으로 바른다.
- 이때 해설자는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해설 : 채독은 옛 선조님들의 슬기롭고 지혜가 담긴 속에서 만들어져 농산물의 마른 곡식을 담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산에서 싸리나무를 베어와 껌질을 벗긴 다음 통채로 5~6개의 싸리가지로 날을 여러 갈래로 엮어서 바닥을 만듭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싸리가지는 햇순이 나와 길고 곧게 자란 것으로 여름철 물이 올랐을 때 베어야 껌질이 잘 벗겨집니다.

바닥을 평평하게 만든 다음, 날위로 세워가며 가로로 다른 싸리가지를 사용하며 엮어 올라갑니다. 채독을 중간쯤 엮어 올라갈 때까지 항아리같이 배가 둥그렇게 부르도록 엮은다음 그 위로 부터는 윗부분까지 좁혀 엮습니다. 윗부분이 마무리될 때 휘감아 돌려서 마무리를 예쁘고 거칠지않게 합니다. 이렇게 채독이 만들어진다면 채독을 뉘어놓고 흙을 이겨바르는데 원래는 쇠똥을 흙과 섞어서 바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를적에 트지 않게 하기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흙을 발라 말리면 아주 훌륭한 채독으로서 곡식을 담아 사용하는 용기가 됩니다. 채독의 크기 종류는 만드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 크고 작고하여 큰 것은 대개 5가마정도 넣는다고 합니다.

● 제3과장 용수골, 곰배골, 오작골, 채독모으기

- 먼저 농악을 울리다 멈추면 촌장은 “자!, 이제 채독을 다 만들었으면 가지고 오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면 3개마을 사람들은 “예!”하고 대답한다. 촌장은 다시 “그러면 용수골부터 가지고 오시오”라고 하면 용수골 촌민들은 “네!”하고 아낙네만 집에남고 전부 일렬로 서서 채독을 가지고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중앙에 있는 촌장앞에 가져다 놓는다.
- 농악은 신나게 울려준다.
- 촌장은 채독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잘만들었다고 칭찬의 소리를 해주고는 옆에 있는 광목 1필을 준다.
- 용수골 촌민들은 감사하다고 절을 몇 번씩한다.
- 촌민들은 다시 농악에 맞추어 일렬로 춤을 추며 돌아온다. 이때 광목을 앞사람이 끝을잡고 맨 뒷사람까지 길게펴서 어깨위로 펴리며 온다.
- 이때 촌장은 잘가라고 손을 흔들어 준다.
- 용수골 사람이 자기 마을로 돌아와서 둥그렇게 서서 광목을 펴서 펴리며 춤을 춘다. 농악은 멈춘다.
- 촌장은 다시 “다음은 곰배골 채독을 가지고 오시오”라고 하면 곰배골 촌민들은 “네!”하고 대답하고 일렬로 서서 춤을 추며 채독을 가지고 촌장앞으로 온다.
- 행동내용은 용수골 채독모으기와 똑같은 순서로 똑같이 이어진다.
- 이렇게 똑같이 오작골까지 채독을 모은다.
- 이때 채독을 모을때는 중앙에 있던 베네다 판자로 만든 산과 나무 등 소품은 뒷편 한곳에 이동해 놓아둔다.
- 채독을 다 모은다음 촌민들은 원형을 그려 앉는다.

- 아낙네는 술동이에서 술을 쪽박으로 퍼서 돌린다.
- 촌민들은 술맛이 좋다고 하며 받아마신다.
- 채독모으기를 하는 과정에 해설자는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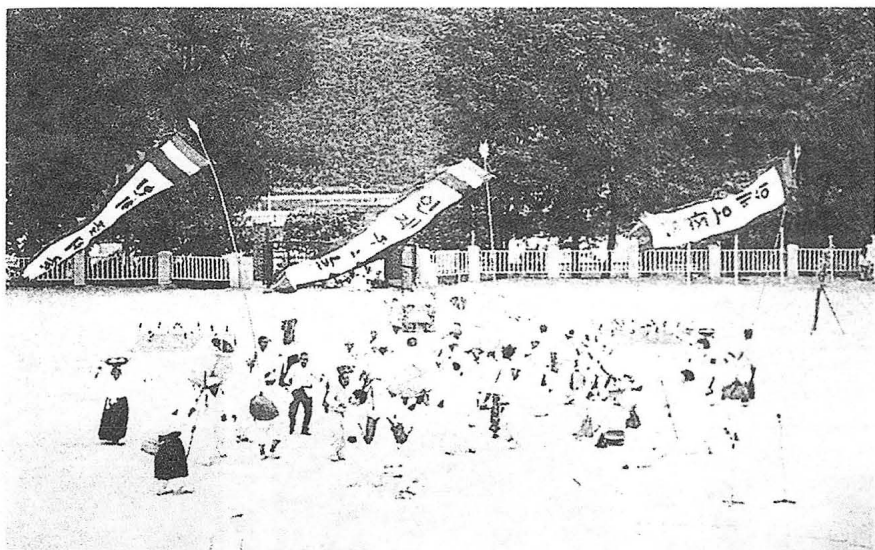
해설 : 이 과정은 싸리가지로 채독을 다 만든 것을 촌장이 거두게 되는데 먼저 용수골 부락에서 만들어진 채독을 거두고 그 댓가로 광목을 주는 과정이 됩니다. 물론 그 댓가는 광목 뿐아니라 곡식으로도 주었고 돈으로도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곰배골에서 만든 채독을 거두고 역시 그 댓가로 광목을 줍니다. 다음 또다시 오작골에서 만든 채독을 거두고 역시 광목을 줍니다. 용수골, 곰배골, 오작골, 군량동 인근에 있는 골 이름으로 용수골은 용수가 있다하여 용수골이라 불리어지고 곰배골은 고물게 갈다하여 곰배골이라 하며 오작골은 까마귀가 많다하여 오작골이라 불리어 졌다고 합니다.

● 제4과장 한마당놀이

- 큰 기는 중앙에 서있고 농악은 큰기수를 중심으로 선두에 서서 농악을 신나게 쳐주며 빙빙 돌아간다.
- 다른 사람들도 농악에 맞추어 춤을 신나게 추며 농악뒤를 따라 돈다.
- 소품은 여러 가지를 다 쳐올리거나 흔들며 소리를 지르며 신나게 빙빙 돌아간다.
- 시간은 약 5분정도 한마당 놀이를 한다.
- 농악이 빙빙 돌다 옆으로 나와 선두로 처음 시작할 때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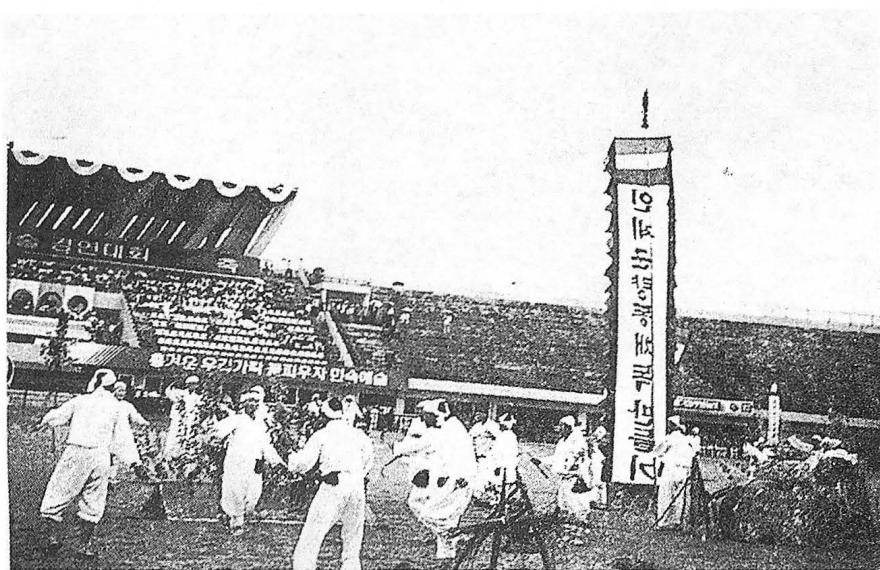
- 했던 식으로 원을 크게 그리며 돌아 본부석앞에 선다.
- 나머지 사람들도 농악의 뒤를따라 춤을추며 간격을 맞추어 원을 그리면서 돈다.
 - 이때 원으로 간격이 맞추어지면 농악은 멈춘다.
 - 징소리가 울리면 관중을 향해 인사를 한다.
 - 다시 징소리가 나면 일어나서 소품을 휴대한다.
 - 농악은 다시 신나게 치며 큰기를 선두로 퇴장하게 된다.
 - 이때 해설자는 이제 채독만들기 놀이 재현을 모두 마친다고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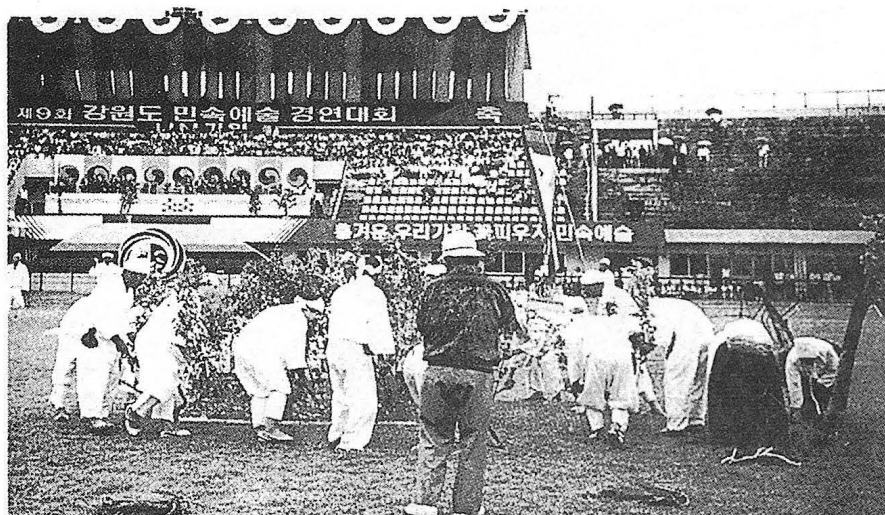
91년 9월 중학교 교정에서 채독만들기 연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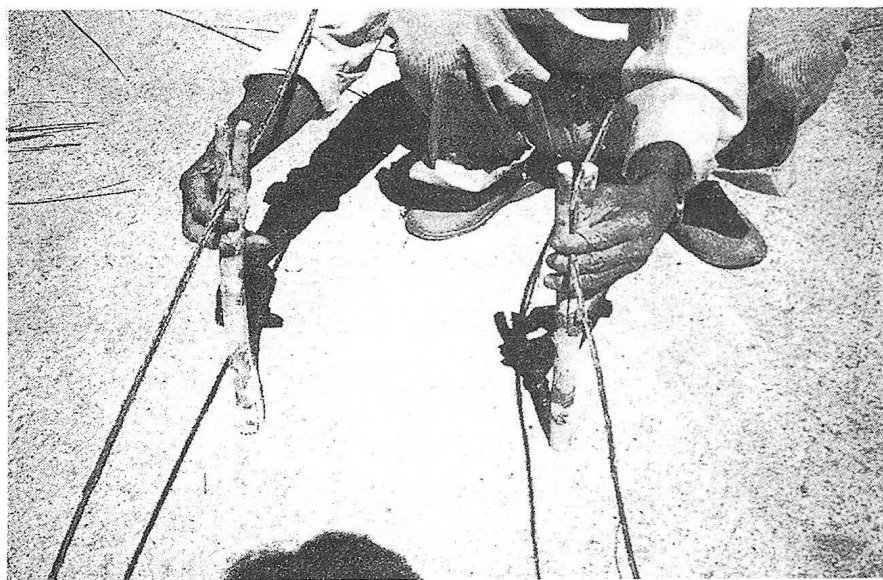
'91년 9월 중학교 교정에서 채독만들기 연습사진



경연대회에서 싸리가지 베러 입산하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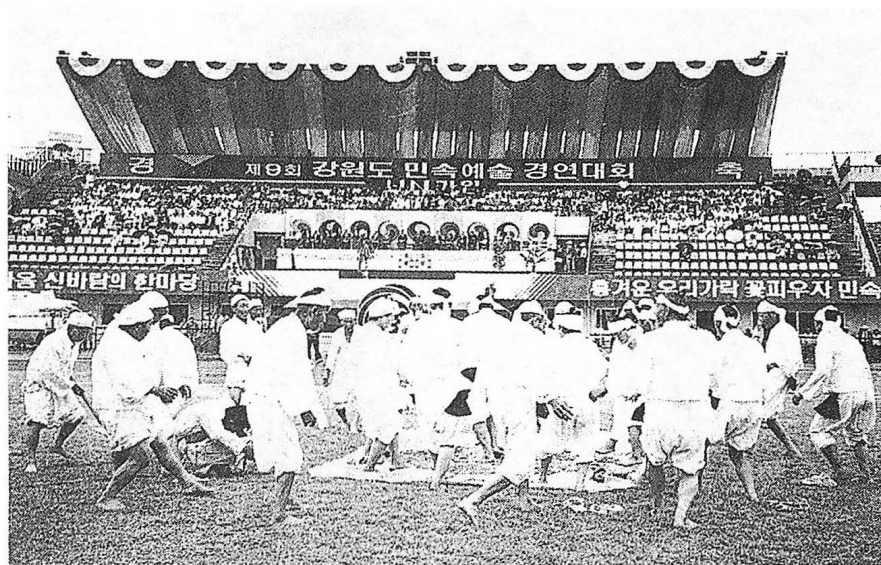
입산하여 싸리가지를 베는 과정



싸리가지 껍질을 벗기는데 사용되는 집게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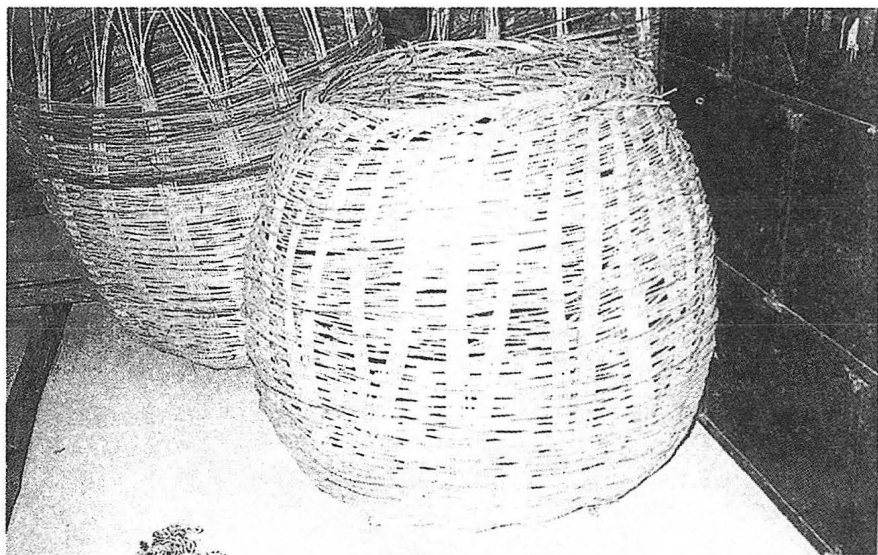
채독만들기 경연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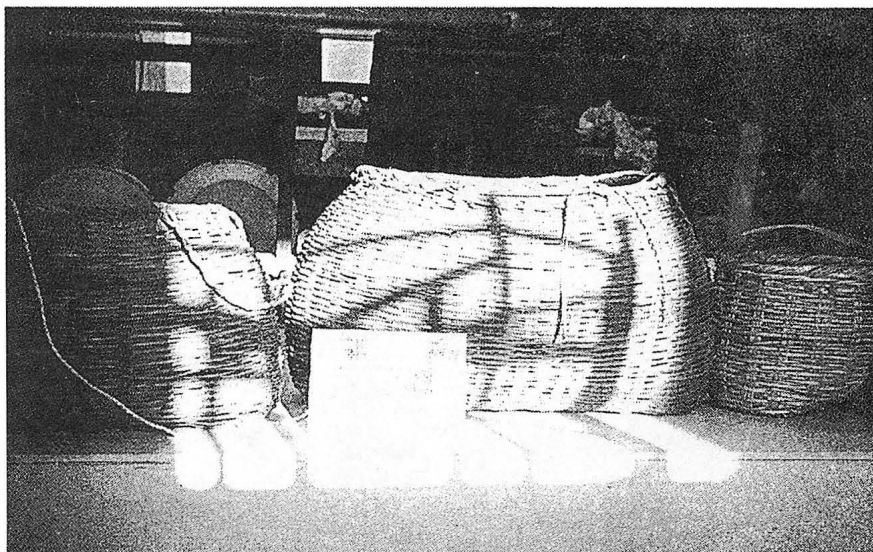
채독에 흙을 바르기위해 흙을 이기는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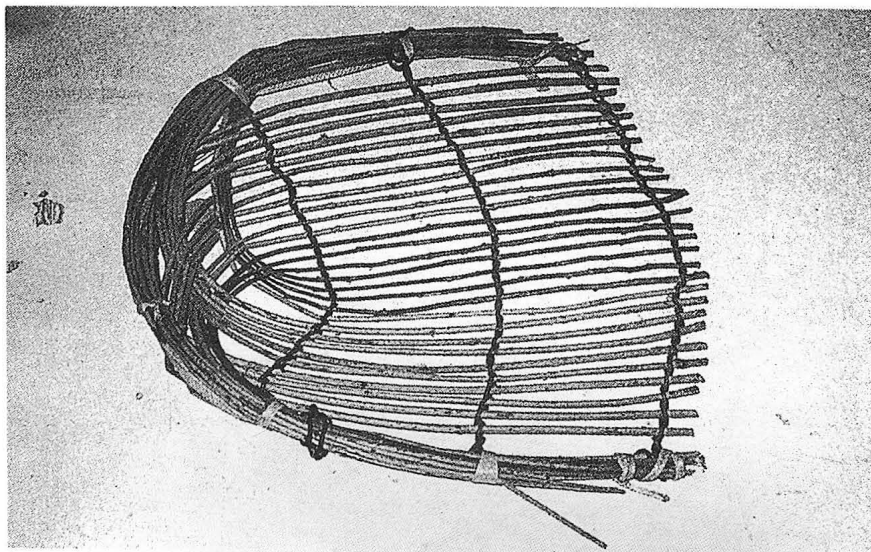
완성된 채독을 촌장이 모아서 높이 들고 있다.



싸리로 만든 채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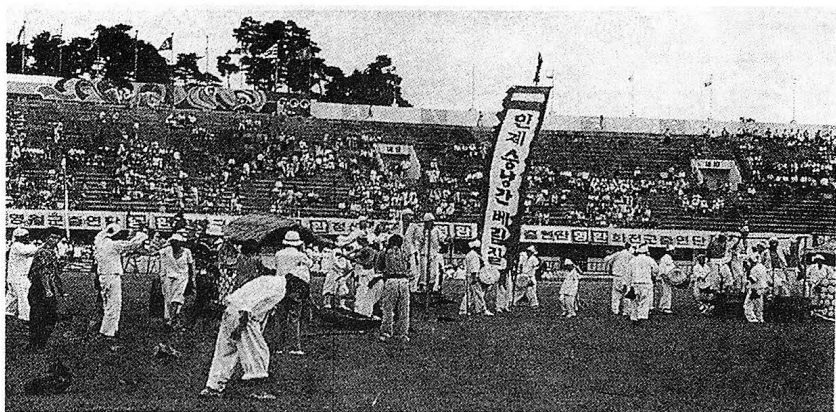
싸리로 만든 다래기



싸리로 만든 어랭이

麟蹄生業民俗史研究

대장간 民俗史



麟蹄生業民俗史研究

－ 대장간 民俗史 －

麟蹄郷土史研究所

研究員 李 萬 喆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5. 대장간의 기능 |
| 2. 대장간의 역사 | 6. 대장간 기구의 호칭 |
| 3. 대장간의 구성 | 7. 대장간의 민속적 의미 |
| 4. 대장간의 위치 | 8. 승냥간 베림질 발굴 재현 |

1. 머리말

우리 고장 인제의 토속적인 주된 민속사는 어떠한 것이 그 대표적인 것들인가에 대하여 아직도 이 고장에 살고있는 분들로서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이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 또한 문화원에 종사하다 보니 예전부터 지금에 이르기 까지 우리 고장 인제의 민속사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는 언론 매체의 방송사나 신문사 사람들과 학계에서 민속사를 연구하는 교수진이나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 문의를 해오고 있다. 이면에 이분들의 답변을 충분히 알려주기란 문화원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이 부여된다고 생각되지만 자료를 수집하여 상세하

게 기록된 것이 없기로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다. 대충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주고 또한 알고있는 분들을 연결시켜 주고있는 현실 속에 금번에 기존에 발굴된 민속사에 더 자료를 수집하고 보충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사실 지금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민속사는 대충 조사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것은 민속경연대회에 매년 출연하다보니 중요한 민속사의 소재를 발굴하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분석하고 자료수집과 연구를 거듭하여 해석을 내리는 쪽으로 이해를 도우면서 보존 계승하고 민속사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한 권으로 책으로 발간하는데 그 가치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한가지 덧붙여 이야기한다면 문명이 발달하면 할 수록 그에 반비례하여 토속적인 기층문화는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 가는 것이 상례이다. 그래서 우리 고장의 민속사가 잊혀져 가기 전에 한가지라도 더 발굴해 보자는 의도에서 관내를 다니고 책자를 보면서 필자는 본문의 소재를 다루게 되었다.

옛 선인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애환이 숨어있는 이러한 문화는 우리의 진솔한 삶의 모습이요 어제의 자화상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우리 고장 인제의 몇 가지 산림민속사와 그외 생업민속사에 대하여 논하였지만 한 가지의 민속사라도 더 서술하고자 본문에서는 대장간 민속사에 대하여 집필해 보고자 한다.

2. 대장간의 역사

농경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나라 전역에서는 대장간이 필수적으로 역할을 크게 하였다. 수복후 60년대 초만 하여

도 각 고장에 대장간이 있었고 그 대장간에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러나 70년대 이후로 변화하는 현대문명에 밀려 대장간은 점점 우리 곁에서 없어져 가게 되었고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대장간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던 것을 조사하여 그 기능과 민속적 의미를 조명해 보고 기록을 남기는 것은 또한 우리의 책무요 사명의 일부이다. 대장간의 역사가 확실하게 고유적으로 명기된 기록은 찾아보지 못했지만 철기문화가 시작된 기원전 3~4세기 이후부터 쇠를 다루었기 때문에 대장간 아니면 그와 비슷하게 구성된 쇠로 물건을 만드는 곳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지 위지동이전 변진조의 기록에 의하면 진한에서는 철이 나는데 이것을 한·예·왜에서 가져갔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모두 쇠를 가지고 해서 마치 중국에서 돈을 가지고 쓰듯한다. 이 쇠는 두 군에도 공급해 주었다 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두 군이란 “낙랑과 대방”을 말한다. 위의 기록을 보더라도 이미 기원전인 삼한시대에 진한에서 철을 생산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쇠를 가지고 돈 대신으로 사용했음도 알 수 있고 이 쇠를 이용하여 기원전에 이미 갑옷이나 투구·마구류·생활용구 등을 만들어 냈음을 보아 그 시대에 이미 대장간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기원후의 <삼국유사> 기록으로 탈해왕조를 보면 【탈해가 소년 시절에 토함산에 올라가 돌집을 짓고 7일 동안 머무르면서 성안에 살만한 곳이 있는가를 바라보았다. 산봉우리 하나가 마치 초사흘달 모양으로 보이는데 오래 살만한 곳 같았다. 이내 그곳을 찾아가니 바로 호공(瓠公)의 집이었다. 탈해는 이에 속임수를 썼다. 몰래 솥돌과 솥을 그 집결에 묻어

놓고 이튿날 아침 '문 앞에 가서 말했다. 이 집은 우리 조상들이 살던 집이요, 호공은 그렇지 않다고 하며 서로 다투었다. 시비가 생겨 이들은 관청에 고발하였다. 관청에서 묻기를 '무엇으로 네집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하자 탈해는 '우리 조상들은 본래 대장장이였소. 잠시, 이웃고을에 간 동안에 다른 사람이 빼앗아 살고있는 터이요, 그러니 그 집의 땅을 파서 조사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이요' 이 말에 따라 땅을 파보니 과연 솥돌과 솥이 나왔다. 이리하여 그 집을 빼앗아 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신라초기에 있었던 이야기이므로 이 시대에 이미 대장장이 직업이 있었음을 확실하게 들어 내주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경국대전> 공장(工匠)조에 보면 조선시대 당시 관서에 등록된 서울의 야장(冶匠)은 모두 192명이고 지방의 야장은 456명으로 이들은 중앙관서와 지방의 감영·병영·수영·군(郡)·현(縣)에 소속되어 각종 기구를 만들었다. 이 기록으로 조선시대에는 관아에 딸린 야장이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관아에서 물러난 장인은 시골장터에서 개인 대장간을 설치하여 농기구를 만들어 팔면서 생계를 유지해 갔다. 농경을 주로 생업으로 하여 살아온 우리 민족은 기원전 3~4세기 때부터 쇠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하여 최근에까지 농경을 해 왔음을 알 수 있게 된다.

3. 대장간의 구성

1) 물적구성

우리 나라 대장간의 크기는 대개 7~8평 정도이지만 그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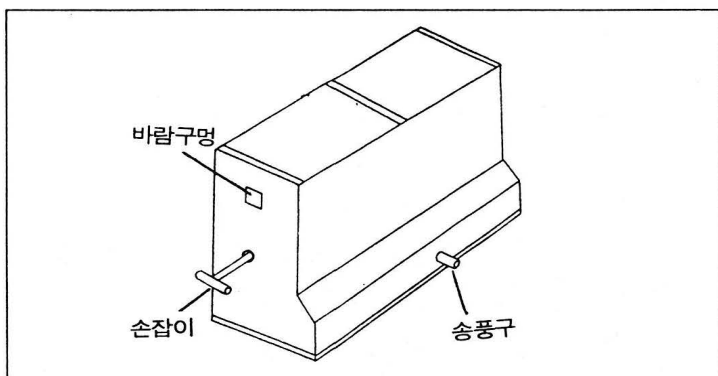
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곳도 물론 있다.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대장간에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물건들이 있다.

대장간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시설물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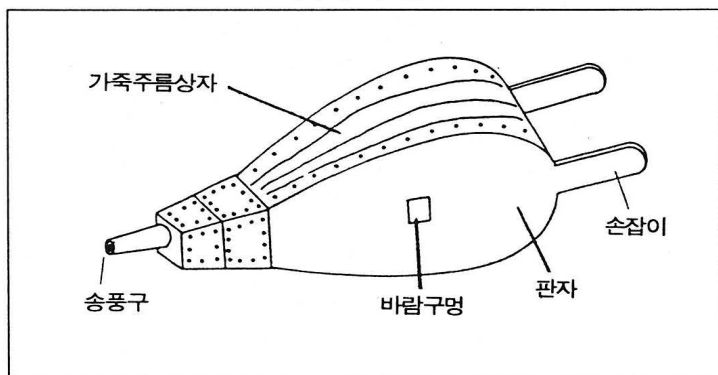
① 화덕 : 쇠를 달구는 화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이다. 대개 돌을 넣고 진흙을 짓이겨 발라서 만드는데 사람의 허리 높이쯤에 쇠를 달굴 수 있도록 불을 피우는 화구가 마련되어 있다. 화구 위로 굴뚝을 연결시켜 연기나 가스가 대장간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장치되어 있다.

② 풀무 : 쇠를 달구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의 열이 필요한데 풀무를 사용하여 송풍을 하면 화덕의 연료가 잘 타서 열을 내게된다. 대장간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옛날에는 나무나 숯 등을 썼고 석탄이 나오고 부터는 석탄을 쓰기도 했다. 풀무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긴 상자식으로 된 손풀무가 있는가 하면 가죽으로 만들어진 스프링식으로 된 밟는 풀무 즉 발풀무가 있다. 손풀무보다 발풀무가 더 고형(古型)에 속한다. 손풀무도 크기에 따라 대형·중형·소형이 있다. 손풀무에 있어 송풍구의 위치가 우측 중간에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좌측에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많이 쓰는 것은 앞에서 보았을 때 우측에 송풍구가 있는 것을 많이 쓴다. 따라서 이 풀무의 설치는 화덕이 왼쪽에 설치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좌측에 송풍구가 있는 풀무를 잘 쓰지 않는데 용인 민속촌에 있는 것이 좌측 송풍구의 것으로 대형에 속한다. 따라서 이 풀무는 화덕의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다. 발풀무는 우리 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는 상당히 썼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후에 차츰 쇠퇴한 것으로 보이고 야철지에서 쇠를 녹일 때는 대량의 송풍이 필요하므로 여러 사람이 밟는 발풍구가 오랫동안 사용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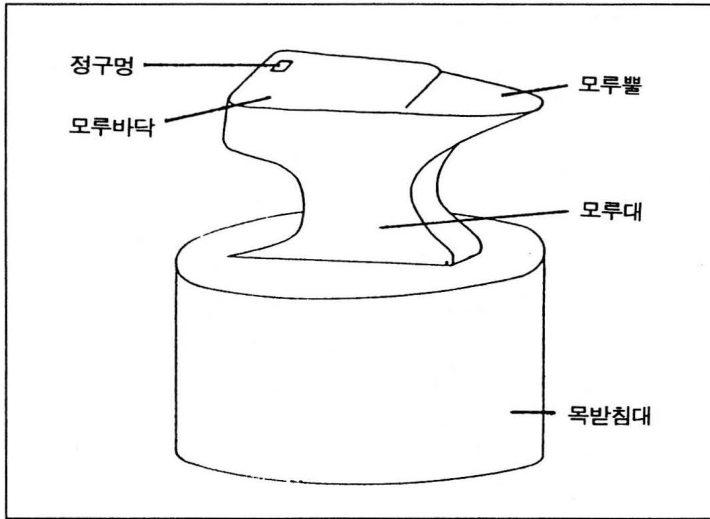


— 나무상자 풀무 —



— 가죽손잡이 풀무 —

- ③ 모루 : 모루란 화덕에서 달군 쇠를 두드리는 강철판을 말하는데 대형·중형·소형이 있고 그 모양도 위에서 보았을 때 삼각형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그 모양자체가 완전히 원통형으로 된 것도 있다. 지금 대부분의 대장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삼각형 모양의 모루인데 달군 쇠를 두드리기에도 편리하도록 꼬트머리에 뾰족한 뿔처럼 생긴 부분도 있고 구멍이 뚫린 곳도 있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모루는 일제시대에 일본식 모루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도 원통형 모루를 사용하는 대장간도 있지만 조선시대는 아마 원통형 모루가 주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모루의 설치 위치는 화덕의 앞쪽에 화덕과 가깝게 설치되어 있다. 그래야 달군 쇠를 식기 전에 바로 두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모루의 전체 높이는 대개 대장장이의 허리 높이쯤인데 이것은 작업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모루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모루 밑에 굵은 통나무를 받쳐 단단히 고정시켜 둔다. 또 한가지 부연해 둘 것은 모루의 높이와 화덕의 높이가 거의 같다는 점이다. 그래야 화덕에서 꺼낸 쇠를 수평으로 모루에 이동하여 빠른 시간 내에 쇠를 두드려 물건을 만드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



- 모루의 각 부분 명칭 -

- ④ 집게 : 대장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의 하나가 집게이다. 집게는 여러 종류가 있어 만드는 연장에 따라 쇠의 두께나 길이에 따라 쓰이는 종류가 다르다. 단, 공통점이 있다면 집게의 자루가 상당히 길다는 점이다. 이것은 몇 백도가 되는 화덕의 불 속에서 달군 쇠를 끄집어 낼 때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가장 많이 쓰이는 집게로는 끝이 긴 일자집게와 끝이 동그란 방울집게가 있다.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것은 5~6가지이지만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사용될 새로운 집게가 필요하다면 다시 집게를 만들어 써야 하므로 집게 수는 점점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대장간에 걸려 있는 집게는 적어도 20개 이상에서 40개가 넘는 곳도 있다.

⑤ 메 : 달군 쇠를 집게로 집어서 모루에 뉘어 얹어 놓고 두들기는데 메(망치)가 있어야 한다. 메는 크게 대·중·소로 나누어지는데 대장장이가 달군 쇠를 집게로 집고 모루채로 메질꾼들이 두드려야 할 부분을 먼저 두드려 준다. 이때 대장장과 메질꾼들 사이에 호흡이 맞아서 일사불란하게 두들겨야 능률도 오르고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오랫동안 메질을 해 본 사람이라면 대장과 메질꾼 사이에 호흡이 저절로 맞아서 세사람이면 3박자로 네사람이면 4박자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두드린다. 작두나 곡괭이 또는 팽이 같은 것을 만드는 비교적 큰 쇠를 다룰 때에는 큰 망치를 사용하며 칼이나 낫 등 좀 작은 기구를 만들 때는 중간망치로 두들긴다.

마지막으로 호미의 날이나 칼날 등 이들을 나무 자루에 끼우는 슴베 부분을 만들 때는 작은 망치로 대장장이 두들겨 만든다.

⑥ 물통 : 쇠를 달구어 담금질을 할 때에는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을 담아 두는 통이 물통이다. 이 물통은 어떤 형태의 모양이 있는데 둥근 원통형의 물통이 있고 길쭉한 형태의 물통도 있다.

재래식 대장간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것은 통나무를 세로로 갈라 안을 파내어 배처럼 만든 구유 모양의 물통이다.

물통의 위치는 모루와 가까운 곳에 두는데 대장장이가 서서 작업을 하는 뒤편이나 옆쪽에 위치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 ⑦ 솥돌 : 대장간 앞뜰에는 만들어진 칼이나 낫, 도끼 등을 갈기 위하여 대형의 솥돌을 두세 군데 장치해 둔다. 옛날에는 대장장이가 시간이 날 때 칼이나 낫을 갈아주기도 했다. 장날 같은 때는 일거리가 많아 바빠서 갈아줄 수가 없다. 이럴 때에는 사용자가 직접 연장을 갈아서 가져간다. 솥돌로 사용하는 돌은 황각색의 퇴적암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돌이 부드러우면서 쇠가 잘 갈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솥돌의 폭은 5~6cm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야 날이 휘어진 낫을 갈기에 적절하다. 솥돌을 장치할 때는 사람이 앉은 앞쪽을 좀 높게 뒤쪽을 좀 낮게 나무로 된 솥돌 받침대를 받쳐서 고정해 둔다. 솥돌은 좀 키가 높아야 낫을 갈 때 낫자루가 땅에 닿지 않는다.
- 칼이나 낫을 갈 때에는 칼날이 솥돌 면에 사뿐히 끌고루 당도록 하여 가는데 솥돌에 물을 뿌려서 가는 것이 윤활유 역할을 하여 힘이 적게 들고 더 잘 갈리는 것이다.

2) 인적구성

대장간 일은 대장장이 한 사람으로서는 어렵다. 작은 기구를 만드는 일이라면 몰라도 옛날 대장간에서는 적어도 세사람은 있어야 할 수가 있다.

첫째는, 대장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풀무질을 하는 풀무꾼이 있어야 하며 셋째는, 달군 쇠를 두들겨서 모양을 만드는 메질꾼이 있어야 한다. 큰 대장간일수록 메질꾼이 많았다.

보통 대장간에도 2~3명의 메질꾼은 있었다.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을 소개 해 본다.

① 대장장이

대개 대장간의 주인으로 대장간 일을 경영해 나가는 사람이다. 대장장이를 줄여서 대장(大匠)이라고 부르는데 유능한 대장일수록 아랫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며 아랫사람들을 잘 부려서 일을 능동적으로 해낸다.

② 메질꾼

메질꾼은 달군 쇠를 큰 망치로 두들기는 일을 맡은 사람인데 팔 힘이 좋은 청·장년들이 맡아 하게 된다. 메질꾼은 대장간에서 몇 년간의 일을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어느 정도 대장간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간혹, 대장간 전속이 아니면서 임시로 일을 거들어 주기 위해 메질을 해주는 사람도 있기는 하나 서툴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므로 단련되지 않은 사람은 오래 견디기가 어렵다. 메질꾼들은 대장일을 배워서 나중에 독립하여 대장간을 차리는 경우가 많다.

③ 풀무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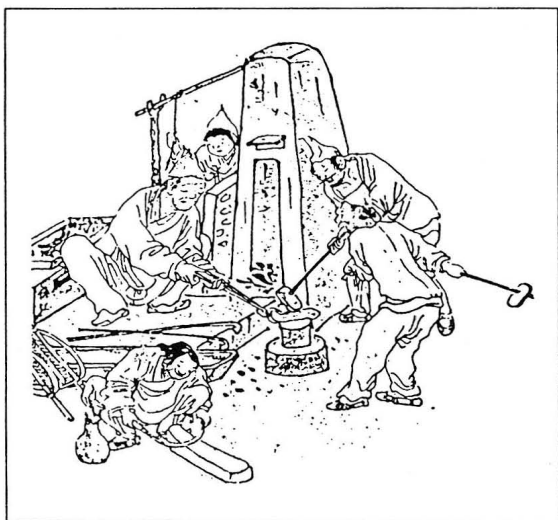
풀무질을 하는 사람을 풀무꾼이라고 한다. 대개 열네댓살의 소년이 풀무질을 한다. 대장간에 들어온지 한 1년은 지나야 풀무질을 시킨다. 영세한 대장간에는 대장의 아들이나 부인이 나와서 풀무질을 해주는 경우도 많다. 풀무꾼 소년이 풀무질

에 익숙하고 나이가 차면 메질꾼으로 승격하게 된다. 풀무질이 서툴면 절대로 메질꾼으로 승격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의 불문율이었다.

④ 심부름꾼

대장간에 처음 들어온 열서너살 정도의 어린아이로서 대장간에서 불심부름을 하거나 불피우는 나무 가져다 대기, 끓여 놓은 쇠를 옮기는 일 등을 하면서 대장간의 허드렛일을 하는 아이다. 심부름꾼이 없는 작은 대장간에서는 대장의 아내나 아이들이 나와 도와주는 경우도 많다.

심부름하는 소년이 대장간의 돌아가는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심부름을 잘 해내면 1~2년 후에 대개 풀무질을 시키게 된다. 조선시대 대장간의 모습을 단원 김홍도의 풍화 속에서 볼 수 있다.



- 단원 김홍도의 <대장간> -

화면 중앙에 세로로 길쭉한 화덕이 높이 자리잡고 있고 화덕에는 새빨간 불이 타오르고 있다. 대장장이는 솟자리를 칸 토방에 앉아 빨갛게 단 쇠를 집게로 집어 모루위에 놓았는데 두 사람의 메질꾼이 신나게 메질을 해낸다. 화덕의 옆에서 풀무꾼 소년이 풀무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림이다. 근래의 대장간 풍경과 그리 다를 것도 없는 모습이다. 다르다면 둥근 모루를 사용했던 점과 대장이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4. 대장간의 위치

물질문명이 발달되지 못했던 농경사회에서는 대장간은 면단위의 마을 하면 어디나 한 두군데는 있었는데 대개 장터 근방에 있었던 것이 상례이다.

그래서 장날이 되면 장보러 가면서 무디어진 쟁이나 낫, 칼 등을 대장간에 맡겨서 다시 갈아 켜던 것이다.

대장간은 꼭 장터나 근방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나 삼거리 혹은 다리근방, 나루터부근, 큰 마을의 어귀 등에도 대장간이 있었다. 대장간이 없는 벽촌에서도 농사는 지어야 하므로 떠돌이 대장장이가 몇 가지 기본적인 연장을 싸들고 다니면서 대장일을 해 주기도 했다. 대장간의 이름을 전라도에서는 “성냥간”이라 부르기도 했으며 경상도에서는 “편수간”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5. 대장간의 기능

1) 기구만드는 기능

대장간의 기능 중에 가장 큰 역할은 여러 가지 연장을 만드는 일이었다. 농사짓는데 필요한 팽이, 곡팽이, 호미, 낫, 쇠스랑, 작두 등을 만들어 내었고 생활 도구로서는 도끼, 망치, 칼, 목수들이 사용하는 연장, 한옥 건축에 쓰이는 꺾쇠, 돌쩌귀, 문고리 등을 만들기도 했고 못을 만들었는가 하면 말의 발에 붙이는 편자 등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2) 작업의 기능

① 풀무질

풀무질을 하는 사람은 대개 대장간에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은 소년이 맡게 되는데 밀고 당기고 하는 풀무질을 반복하는 것이 보기보다 힘이 많이 들었다. 풀무질도 기술이 있어야 한다.

아무렇게나 풀무의 손잡이를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달구는 쇠에 따라 연장의 종류에 따라 바람을 세게 불어넣기도 하고 약하게 넣을 줄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대장의 지시에 따라 하기도 하지만 대개 풀무꾼이 상황을 판단하여 알아서 해내야 한다.

풀무질은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므로 오래하고 나면 어깨가 아파서 밤잠을 자기가 고통스럽다고 한다. 풀무질의 고된 작업을 잊기 위해 불렀던 풀무 소리는 지방마다 많다.

----- ■ 풍구소리

구술자 : 인제문화원 원장 박 해 순

풀미풀떡 풀미풀떡

여기메가 어디매뇨 두메산골 인제로다
인제땅의 삼재골에 승냥간을 지어놓고
가는세월 한평생을 베림질로 살아가네
천하지본 농군네들 농사쟁기 베릴적에
승냥뚝에 검은숫을 듬뿍듬뿍 올려놓고
풍기독에 간압쇠로 힘찬바람 불어넣어
쇠부치로 붉게달귀 메망치로 내려쳐서
반달같은 낮베리고 여물씨는 작두에다
나무찍는 도끼에다 두엄내는 쇠스랑에
김을매는 호미에다 골을파는 팽이에다
모든쟁기 베릴적에 풍구부는 일꾼님네
구슬같은 땀방울로 바지적삼 다젖었네
풀미풀떡 풀미풀떡 메질소리 뚝뚝뚝뚝
풀미풀떡 풀미풀떡 계속해서 뚝뚝뚝뚝
새참올때 되었는데 부지런히 불어보세
우리일꾼 풍구질에 용광로가 되었구나
힘도들고 숨도차니 새참먹고 다시부세!

풀미풀떡 풀미풀떡

어화세상 벗님네야 천하지본 무엇이뇨
이것저것 둘러봐도 농사밖에 더있느냐
여보시오 농군님네 농사절기 알아보세
소한대한 절기에는 날이추워 놀고먹고
입춘우수 절기오니 봄이옴을 알려주고
경칩춘분 돌아오니 개구리가 개골개골
청명곡우 맞았으니 종자씨앗 뿌려보세

농군님네 밭가는소리 앞산올려 퍼저가고
아지랑이 춘삼월에 화전놀이 어서가세
노랑나비 흰나비는 꽃을찾아 너울너울
앞집쳐녀 뒷집총각 눈맞추며 좋아하네
입하소만 절기오니 여름움을 알려주고
망종하지 돌아오니 낮은길고 밤은짧네
소서대서 절기오니 날은덥고 땀만나네
밤이되면 오손도손 이웃들과 모여앉아
모깃불을 피워놓고 옛날얘기 지세우네
풍구부는 일꾼님네 한잔먹고 다시부세!

풀미풀떡 풀미풀떡
입추쳐서 절기오니 가을움을 알려주고
백로추분 돌아오니 추수절을 맞이했네
농군님네 땀방울로 황금들녘 이루었네
풍년일세 풍년일세 어화 좋다 풍년일세
앞집쳐녀 시집가고 뒷집총각 장가가네
여보시오 농군님네 오늘같은 좋은날에
동네잔치 벌여놓고 한잔먹고 놀아보세
얼싸좋다 절싸좋다 춤도추고 놀아보세
한로상강 절기오니 백발서리 내려앉고
입동소설 돌아오니 겨울움을 알려주네
대설동지 절기오니 흰눈오고 날은차네
여보시오 풍구질꾼 이네말을 들어보소
우리신세 한탄말고 가는세월 원망말고
팔자따라 살아가며 한잔먹고 놀아보세
얼싸좋다 절싸좋다 어깨춤이 등실등실

오늘날은 그만하고 내일날에 다시부세!

② 달굼질

쇠를 불에 넣고 바람을 불어넣어 새빨갭게 달구어 내는 일을 달굼질이라 한다. 쇠의 강도에 따라 달구어 내는 정도가 다른데 무쇠보다 강철이 달구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린다. 뿐만 아니라 쇠의 두께와 크기에 따라서도 달굼질하는 시간이 다른 것은 물론이다.

노련한 대장장이는 쇠가 달아서 빨개진 색깔만 보아도 어느 정도 달구어 졌는지 메질을 해서 잘 두들겨 질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③ 집게질

달구어진 쇠를 집게로 집어내는 사람은 대장인데 쇠가 알맞게 달구어 졌을 때 집게로 끄집어내어 메질꾼들이 잘 두들길 수 있도록 모루의 중간에 놓고 방향을 잘 잡아 주어야 한다.

집게로 쇠를 잡고 이리 저리 돌려주는 것도 노련한 대장의 기술인 것이다.

④ 메질

화덕 앞에는 달군 쇠를 두들기는 모루가 놓여있어 3~4명의 힘센 장정이 무거운 망치를 들고 쇠를 두들기는데, 이를 메질이라고 한다.

쇠를 잡은 대장은 작은 망치로 메질꾼들이 두들길 부분을

지적해 주는데 메질하는 것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의 망치가 가는데와 집게로 집어서 돌리는 방향에 따라 정확한 자리를 두들겨야 일이 효과적으로 잘된다. 그리고 메질꾼들 끼리는 순서와 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

메질꾼들의 메질하는 차례로 선임자부터 먼저 한다.

대장간의 메질 소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 시끄럽다기 보다는 소리가 리듬감이 있어 재미있을 정도이다. 이때, 풀무꾼은 화덕에 들어가 있는 다른 쇠를 달구기 위해 팔이 아파도 설새없이 풀무질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은 메질도 풀무질도 모두 기계가 해 대니 편리하기 짝이 없다.

그 뿐만아니라 칼이랑 낫이랑 모두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 내는 시대로 바뀌었으니 더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쇠의 질만은 대장장이의 노련한 경험에 의해 담금질해서 만들어 낸 물건보다는 못하다는 게 대장간 물건을 사용해 본 사람의 한결같은 말이다.

⑤ 담금질

쇠를 달구어 목적하는 기구를 만들고 나면 이 쇠를 식기전에 물에 담가 쇠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장장이의 일 중에 가장 어려운 기술이 담금질이라 한다. 쇠가 덜 달았을 때 담금질을 해서도 안되고 너무 달구어진 상태일 때 해서도 안된다. 쇠가 달구어진 상태를 빗칼로 보아 온도를 짐작하여 담금질에 들어가는 것이다. 담금질도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쇠전체를 물 속에 넣었다가 건지는 경우도 있다.

전자는 강하게 만들어야 할 부분만을 담금질 할 때이고 후자는 쇠 전체를 강하게 만들어야 할 때이다. 곡괭이와 괭이도

끼 등은 전체를 담가 쇠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칼이나 낫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담가 쇠를 강하게 한 다음 칼날 부분은 더욱 단단해야 하므로 그 부분을 다시 담금질하는데 오래 담그지 않고 살짝살짝 담가서 금방 꺼내는데 칼날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담금질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장장이의 기술인 것이다. 숙련된 대장장이는 담금질 한 쇠의 빛깔만 보아도 어느 정도 단단해 졌는가를 알 수 있다. 담갔다가 건졌을 때 식는 빛깔이 흰색으로 변하면 상당히 단단해진 것이고 노란 빛깔이면 좀 덜 단단해진 것이며 푸른 빛깔을 띠는 것은 강도가 아직 낮은 것이다.

담금질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쇠의 종류에 따라 만드는 연장의 종류와 연장에 따라 그 횟수가 달라진다. 호미나 쇠스랑 같은 것은 4~5회 담금질로 가능한가 하면 생선회칼 같은 날이 예리한 연장을 만들 때는 수십 번의 담금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으로 대장간의 작업적 기능을 풀무질, 담금질, 집게질, 메질, 담금질의 순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일들은 모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어렵고 위험한 일이므로 주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떠한 사고가 날지 모른다. 빨갛게 단 쇠는 800~1000도의 높은 온도이므로 사람의 발등에라도 떨어지는 날이면 크게 화상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말없이 자기가 맡은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다.

6. 대장간 기구의 호칭

1) 대장간의 호칭

대장간의 호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나열해 보면 대장간 성냥간·편수간·가지야간 등이 있다. 이중에 가장 많이 불리는 것이 대장간이었고 그 다음 성냥간(승냥간) 이었다.

성냥간이란 호칭은 경상도 쪽에서도 쓰였지만 전라도 쪽에서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았다. 그 밖에 편수간은 조선시대 장인(匠人)의 우두머리를 편수(便首)라고 했던데서 비롯된 것 같고 가지야간은 일본말에서 비롯된 것 같다.

2) 화덕의 호칭

화덕의 호칭도 여러 가지 조사되어 있다. 이를테면 화덕·화독·화통·화로·호도·불매독·불통 등으로 부르고 있다. 경상도 사람들은 주로 화독·화덕으로 많이 부르며 창녕 이남 대장간에서는 불매독, 언양에서는 호도라고도 부른다고 한다.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화통·불통 등으로 목포에서는 화로 광양에서는 불통으로 부른다고 한다.

3) 풀무의 호칭

풀무의 호칭도 여러 가지였는데 경상도에서는 주로 물매·물미·불무 등으로 불렀다고 하며 전라도 지방에서는 풀무·불무·불미 등으로 부른다고 한다.

4) 모루의 호칭

모루의 호칭도 여러 가지로 부른다. 모루·모리·모루덕·모루턱·모루뚝·마루등·마루탱이·머루·머루독머리·머

리다이 등 다양하였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도에서는 모루·모루턱·모리탱이·머리다이 등으로 불렸다. 전라도에서는 모루·모루독·모루뚝이·머루 등으로 부른다고 한다.

5) 물통의 호칭

담금질하는 물통의 호칭으로는 구식통이 단연 많았고 그밖에 구시·구유·구유통·물통 등으로 부르고 있었다. “구시”란 구유의 사투리이다.

7. 대장간의 민속적 의미

대장간은 오행설(五行說)의 다섯 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쇠(金)가 있어야 하고 불(火)이 있어야 하며 불떨 나무(木)가 있어야 하고 화덕을 만드는데 흙(土)이 있어야 하며 담금질을 하는데는 물(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듣고 보니 대장간의 일로서는 딱 들어맞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대장간은 옛날에는 우리의 시골 장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토착적인 철기 문화를 생성해 냈던 것이다. 이제 여기에서 대장간과 관련된 민속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만남의 장소

예전에 대장간이 열리는 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 정기적으로 장이 서는 시골 장터에서야 장날에만 대장간의

문을 열지만 대채의 큰 대장간은 상시로 문을 열어 놓고 일을 하는 곳도 있었다. 어쨌든 대장간이 열리는 날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필요로 하는 기구를 주문하게 되지만 이 기회를 통해 사람들은 안부를 묻고 소식도 전하며 농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사람들끼리는 낮이랑 꿩이랑 대장간에 맡겨 놓고 인근의 국밥 집을 찾아 들어 막걸리 잔을 앞에 놓고 회포를 푸는 것이다.

2) 농경과 건축의 후원자

농사를 짓는 데는 농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논밭을 가는데는 쟁기가 필요하지만 쟁기는 일반적으로 용광로에서 쇠를 녹여 주물로 만들어 낸다. 그러나 주물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대장간에서 두들겨 쟁기의 보습을 만들어 낸 적도 있었다고 한다.

쟁기의 보습은 그렇지 않더라도 대장간이 아니면 만들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있다. 밭을 매는데 필요한 꿩이나 호미는 쓰는 사람의 기미에 맞도록 만들어야 하고 풀베는 낫도 그 쓰임새에 따라 벼나 보리를 베는 것, 풀을 베는 것, 가지치기를 하는 것 등에 따라 낫의 모양과 날의 길이가 다르며 자루까지의 몸체 길이와 자루의 길이도 각각 다르며 그자로 휘어진 각도마저 다르게 만들어야 하므로 대량생산에 의해 만들어진 낫하고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뿐만아니라 용도에 따라 낫이나 호미의 두께나 강도(強度)를 달리 만들어야 하므로 이것도 공장 제품과는 다른 성격의 제품인 것이다.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도록 농기구를 만들어 줌으로써 농부가 농사짓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하

므로 대장간에 농사의 후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주로 목조건축을 하였으므로 집을 짓는데 나무를 다루는 연장을 대장간에서 만들었다. 끌이나 망치·대패·자귀·깍쇠·못 등은 목수들이 집을 짓 데에 필요한 기본 연장들이다. 이러한 연장들을 예전에는 거의 대장간에서 썼으므로 건축하는 데에 대장간이 후원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고사(告祀)와 치성(致誠)

대장간이 번성하기를 비는 뜻에서 주인은 선달 그믐날이나 설날 혹은 보름날 아니면 좋은날을 받아 고사를 지내거나 또 한 치성을 드리는 곳도 많았다. 어떤 집에서는 재수가 좋으라고 매달 고사를 지내는 데도 있었지만 고사나 치성을 드리지 않는 곳도 있었다. 그러나 선달 그믐날 대장간에 불을 밝히는 일은 어디서나 하고 있었다.

4) 금기(禁忌)사항

대장간에서도 금기하는 사항이 있었다. 그러나 전혀 금기를 무시하는 곳도 없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약간의 금기 사항은 대체로 지키는 편이었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아침 일찍 상주나 살생한 사람 즉 부정한 사람이 찾아드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곳이 많았다. 또 걸인이나 여자, 개나 고양이 등의 짐승이 들어오는 것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상주가 들어오면 오히려 재수가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개화된 세상이고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이므로 이러한 금기사항

도 점차 사라지는 것 같다.

금기사항 대신에 반대로 아침에 외지 장터로 일하러 가는 데 꿩이나 노루 같은 짐승이 앞을 가로 질러가면 그날은 재수가 좋은날이라고 했었다 한다. 대신에 여자가 앞을 질러가면 재수가 없다고 하였던 한다.

5) 연장을 버린 대가(代價)

농촌에서는 연장을 사거나 무던 농기구를 다시 버려 쓰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농촌에서는 농기구 없이 일을 할 수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이때 버린 댓가를 돈으로 치르면 가장 간단하겠으나 돈이 귀한 농촌에서는 돈대신에 곡식을 가지고 와서 댓가를 치르고 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아예 마을의 대장간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농기구를 버려주고 그 댓가로 보리철에는 보리를 받고 나락철에는 나락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한다. 연장을 버리는 일 말고 새연장을 구입하거나 특수한 연장을 주문하여 만들게 되면 댓가를 더 치러야 함은 물론이었다.

8. 승냥간 베림질 발굴재현

강원도에서 매년 개최하는 민속경연대회에 따라 1992년도 9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강릉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제 10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우리 인제군에서 “인제 승냥간 베림질”이란 소재를 발굴하여 출연한 바 있다. 당시의 발굴재현한 내용을 담아보고자 한다.

1) 배경

인제군은 우리나라 명산인 설악산을 비롯하여 많은 명승지가 산재하여 있는 산자수려한 고장이다. 따라서 산이 많은데 연유하여 우리 선인들께서는 산에서 얻어지는 임산자원을 바탕으로 생활을 하여왔던 것을 앞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산림문화 소개에 잘 나타나 있다. 그 가운데 한편으로는 평지를 이용하여 논과 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온 고장이며 특히 평지의 전답이 모자라 화전밭을 일구어 밭곡을 지어온 고장이기도 하다. 아울러 농사를 짓기 위하여 관내 각읍면 장터마을 부근에는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간(승냥간)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쇠를 이용하여 농기구 및 생활도구를 만들어 생활을 해 온 옛 대장간(승냥간) 생활민속사를 발굴하여 재현하게 되었다.

2) 고증을 해 주신분 (92년도)

인제군 기린면 현1리	진동하 (72세)
인제군 인제읍 합강2리	최영순 (68세)
인제군 기린면 서1리	마용봉 (75세)
인제군 인제읍 상동1리	이종명 (72세)
인제군 북 면 북1리	손주환 (80세)

3) 인제 승냥간 베림질 재현과장

(시나리오 작성 :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 이만철)

해설자 : 지금으로 부터 인제군에서 출연한 “승냥간 베림질”
그 원형을 놀이화 하여 재현하겠습니다.

출연자 : ○ 큰기수, 농악대, 은기수, 편수, 메질꾼, 풍구질꾼
기타 출연자 등 순으로 두 줄로 서서 입장한다.
○ 입장할 때 농악대는 농악을 크게 쳐준다.
○ 출연자는 소품을 소지하고 농악에 맞추어 흥겹
게 춤을 추며 입장한다.
○ 본부석과 관중을 향해 인사를 하기 위해 최대한
정돈된 상태로 원을 그려 둥그렇게 정열을 하면
서 돌아간다.
○ 이때 작은기수 2명이 둥그렇게 원을 그려 돌아
가는데 리더를 잘하여 돌아간다.

해설자 : 지금 출연하고 있는 팀구성은 인제군에 거주하고 있
는 고령의 노인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분들께
서는 젊은시절부터 일찍이 승냥간에서 농기구를 만
드는 베림질 생활을 직접 체험하였고 또한 20년에서
40년까지 종사하였던 분들이 직접 출연하고 있습니
다. 승냥간은 “대장간”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이곳에
서는 우리 선조들께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구
를 주로 만들어 사용하였고 그외 생활기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던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냥
간 베림질은 농사를 짓는 전국의 어느 곳에서나 이
루어졌으나 산업문명의 발달로 이제는 기계로 편리
하게 만들어져 예전과 같은 선조들의 지혜로운 생활
사가 점점 사라져 없어지기에 당시의 승냥간 베림질

로 편수생활을 하였던 원로님들의 고증을 얻어 발굴 보존함과 장인정신을 후손에게 전승하고자 이 소재를 발굴하여 재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출연자들이 관중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관중께서는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출연자 : ○ 입장을 하여 원을 그려 동그렇게 정열을 하고 간격을 맞춘 다음 소품을 제자리에 놓는다.
- 상쇠는 정열이 다 된 것을 확인하고 농악소리를 멈추게 하면 출연자도 울동을 멈춘다.
 - 이때 징잡이가 징을 크게 울려 주면 출연자는 모두 뒤돌아 관중을 향해 무릎을 꿇고 큰 절로 인사를 한다.
 - 다시 징잡이가 징을 크게 울림과 동시 출연자는 모두 일어나서 소품을 소지하고 다음 이동 과정 장소로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간다.
 - 이때 농악대는 농악소리를 크게 울려 준다.
 - 농악대를 선두로 소품을 소지한 채 풍구질 과정 장소에 소품을 놓는다.
 - 농악대는 후미로 빠져 1열 횡대로 서서 농악을 쳐준다.

제1과정 승냥간 뚝치성

해설자 : 다음 과정은 뚝치성을 지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승냥간 뚝치성은 편수가 평생동안 자기에게 주어

진 직업으로 믿으며 승냥간 운영에 안일무사고를
 빌면서 편수 생활로 먹는 걱정, 입는 걱정, 모든 걱
 정없이 잘살게 해 달라고 치성을 드린다고 합니다.

출연자 : ○ 먼저 집사는 치성드릴 제물을 차려 놓는다.

○ 출연자는 농악에 맞추어 2개의 승냥간 뚝을 중심
 으로 좌, 우 반달모양으로 정열한다.

○ 물론 이때 편수와 비수안은 제수상 옆에 와 있다.

○ 제물준비가 다 차려져 있고 출연자가 다 정열되
 었으면 농악은 멈춘다.

○ 농악이 멈추면 편수는 절을 하고 술을 따라 놓고
 다시 절을 하며 엎드린다.

○ 비수안은 제문(뚝 치성문)을 읽어간다.

○ 출연자는 모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앉는다.

뚝 치성문

해동조선 강원인제 삼재골에 터를잡아
 승냥간을 지어놓고 농사쟁기 베릴적에
 불계부정 택일하여 참쌀로다 술을빚어
 좌우진설 향배하여 흥동백서 좌포우회
 외적내탕 진설하고 소지발원 드리오니
 동방에는 안토지신 남방에는 적토지신
 서방에는 백토지신 북방에는 흙토지신
 중앙무기 오십토로 하강하여
 소 레 로 드린정성 대 레 로 받으시고
 입은덕도 많건만은 새로새덕 비옵나니

소원성취 바라건데 풍기독에 간압쇠는
 맑은청풍 불어넣고 일월같은 맑은불을
 한곳으로 모아올려 주홍같이 붉은쇠로
 농사쟁기 잘만들어 우리농군 농사질 때
 요소요소 사용하여 풍년들게 하옵소서!

- 제문이 끝나면 편수는 다시 절을 하고 일어나서 술을 양쪽 승냥간 뚝에다 고루 쏟는다.
- 편수의 행동이 끝나면 농악은 다시 크게 울려준다.
- 집사는 제물을 걷는다.
- 출연자는 모두 일어나서 율동을 농악에 맞추어 다음 과정인 풍구질 과정 준비를 하며 자기 위치대로 간다.
- 자기 위치로 연출자가 다 정열하여 서게되면 농악, 상쇠는 쇠를 꺾어 농악을 멈춘다.

제2과정 풍구질 숯불 다리기

해설자 : 다음 과정은 풍구질을 하여 숯불을 피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풍구질은 서서 발로 밟으며 하기도 하고 앉아서 하기도 하며 혼자서 하는 것과 둘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풍구는 널판으로 짜고 틈이 생기면 진흙과 쇠똥을 이겨 발랐다고 합니다. 또한 풍구안의 풍구대는 개가죽으로 복을 감아 많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출연자 : ○ 선소리와 후소리를 맞추어 불러가며 풍구질을 계속한다.

- 풍구질꾼외 출연자는 풍구질 후소리를 받으며 춤으로 율동을 움직인다.
- 농악은 뒤에서 약하게 장단만 맞추어 준다.
- 기수는 기를 잡고 소리에 맞추어 율동으로 움직인다.
- 아낙네는 뒤에서 춤을 춘다. 다음 과정인 새참 먹기 준비를 한다.
- 풍구질꾼은 윗저고리를 벗어놓고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일을 한다.
- 한참 동안 풍구질을 하다가 선소리꾼이 “자! 힘도 들고 땀기도한데 쉬었다 하세” 한다.
- 이때 농악은 신나게 올려준다.
- 출연자는 모두 아낙네가 있는 곳으로 모여 새참(술과 옥수수)을 먹는다.
- 아낙네는 막걸리를 남정네들에게 고루 따라준다.
- 출연자는 드문드문 윗저고리를 벗는다.
- 한참 쉬었다가 다음 과정인 베림질을 하기 위하여 각자 제위치로 간다.
- 이때 정열이 되었으면 농악은 멈춘다.

제3과정 농기구 베림질

해설자 : 다음 과정은 농기구를 만드는 베림질 과정이 되겠습니다. 농기구는 주로 강한 쇠를 숯불에 달구어 편수가 집게로 집어서 모루에 얹어 놓고 메질꾼에게 어디 어디를 치라는 지시아래 메질꾼이 메로 번갈아가며 치면서 만듭니다. 주로 낫과 호미, 도끼, 작두,

괘이 등 농사 일에 많이 쓰이는 쟁기를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메질꾼은 한 명에서 부터 3명까지 붙어서 메질을 하였다 하며 편수가 혼자서 마무리 작업을 작은 망치로 자근자근히 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 해설자는 그 외 과정 과정마다 연출 과정을 설명하며 해설한다.

출연자 : ○ 먼저 선소리꾼이 출연자가 제자리에 정열한 것을 확인하고 농악을 멈추게 한다.

○ 선소리꾼이 “자!, 이제 숯불을 다 피웠으니 베림질을 하세”한다.

○ 출연자 모두는 “네”하고 대답한다.

○ 편수는 화독에서 집게로 숯불에 달군쇠를 집어다 모루에 얹는다.

○ 메질꾼은 번갈아 가며 메질을 한다.

○ 이때 메질꾼의 박자에 맞추어 힘을 복돋아 주기 위한 일체감의 선소리와 후소리를 한다.

○ 농악은 약하게 장단을 맞추어 준다.

○ 풍구질은 계속 풍구질을 한다.

○ 나머지 출연자는 쟁기를 숯돌에 갈기도 하고 낫자루, 호미자루 등을 승냥간 툇에다 얹어 놓기도 한다.

○ 아낙네는 뒤에서 율동으로 움직인다.

○ 기수도 제위치에서 계속 율동으로 움직인다.

○ 편수, 메질꾼, 풍구질꾼은 수건으로 땀을 가끔씩 닦는다.

- 출연자중 일부는 화독에다 가끔씩 숯을 넣어준다.
- 한참동안 베림질을 하다가 선소리꾼이 “자!, 힘도 들고 덤기도 한데 잠깐 쉬었다 하세” 한다.
- 출연자는 모두 “네!” 하고 소품들을 놓고 아낙네가 있는 곳으로 모인다.
- 농악은 신명나게 올려준다.
- 아낙네는 새참(술과 옥수수)을 남정네들에게 건네준다.
- 출연자는 막걸리도 마시고 옥수수도 먹고 또한 농악에 맞추어 춤을 빙빙 돌면서 춘다.
- 한참, 쉬었다가 출연자는 다음 과정으로 돌아간다.
- 농악은 출연자가 제자리에 정열하게 되면 멈춘다.

제4과정 담굼질과 자루드리기

해설자 : 다음 과정은 자루드리기 과정입니다. 담굼질은 편수가 쟁기를 다만들은 다음 물에 기술적으로 담구어 쇠의 강, 약을 다루는 과정으로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잘못 담그면 쟁기가 비틀어지고 또한 쇠가 물러진다고 합니다. 자루드리기는 화독에다 쟁기의 자루드리는 곳을 달구어 기둥에 대고 나무자루를 맞추는 과정으로 대개는 쟁기를 치러 온 주인이 직접 자기 마음에 들겠금 만들었다고 합니다. 호미자루와 낫자루는 대개 함경나무와 자작나무를 많이 사용하였다고 하며 자루들이기 전에 화독 위에다 생나무 자루를 약간 엮어 두었다가 드리면 좋다고 합니다. 쟁기의 자루를 드린 다음 쇠붙이로 가락지

를 만들어 자루와 쇠쟁기의 밀착부분에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끼운다고 합니다.

출연자 : ○ 먼저, 농악이 멈춘 다음 선소리꾼이 “자!, 이제는 담굼질과 자루드리기를 하세”하고 다음 작업 과정을 일러준다.

- 출연자는 모두 “네”하고 대답한다.
- 농악은 다시 신나게 올려준다.
- 편수는 담굼질을 계속하면서 쟁기를 한곳에 던진다.
- 풍구질꾼은 계속 풍구질을 하며 땀을 닦는다.
- 쟁기를 치러 온 사람은 각자 쟁기를 들고 화독에다 끝을 달군 후 나무자루를 가지고 기둥에다 대며 힘을 주어 자루를 드린다.
- 기수와 아낙네는 농악에 맞추어 계속 율동으로 움직인다.
- 편수는 가락지를 만들어 자루드린 곳에 감아 끼워준다.
- 솥돌에다 일부 출연자는 쟁기를 계속 갈아준다.
- 일부 출연자는 물통에 물을 부어 준다.
- 한참 하다가 농악은 쇠를 꺾어 다음 과정의 출연자 정열을 알린다.
- 출연자는 소품을 제자리에 놓고 다음 과정 위치로 간다.

제5과정 베림질 모곡걷기

해설자 : 다음 과정은 편수가 일년 동안 베림질을 해주고 마

을 주민에게 가을 추수와 함께 모곡을 걷는 과정입니다. 승냥간 편수는 봄부터 가을추수 기간까지 마을 사람들의 농기구를 만들어 주고 가을에 추수를 걷은 다음 모곡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대개 모곡은 걸곡으로 벼, 조, 두태류 등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편수가 받는 모곡은 1년 동안의 양식 농사로서 그 날에는 동네 사람에게 술과 떡을 빚어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 출연자 : ○ 농악은 아주 작게 울려 박자만 맞춘다.
- 선소리꾼은 “자!, 이제 1년동안 베림질한 댓가로 모곡을 걷으세” 하면 출연자는 “네”하고 대답한다.
 - 메질꾼은 멍석을 깔고 말 그리고 뒷박을 가져다 놓는다.
 - 출연자는 마을 단위별로 가지고 온 모곡을 편수에게 차례 차례 건네준다.
 - 메질꾼은 모곡을 받아 쏟아 놓은 후 한 말, 두 말, 세어 자루에 담는다.
 - 나머지 출연자는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춘다.
 - 모곡을 다 걷은 다음 선소리꾼이 “대내에서 걷은 모곡이 다섯 가마요!”하면 나머지 출연자는 “와”하고 함성을 지른다.
 - 농악은 이때 신나게 동동 울려준다.
 - 선소리꾼이 다시 “삼재골에서 걷은 모곡은 여섯 가마요!”하면 다시 출연자는 “와”하고 함성을 지른다.

- 이때 역시 농악은 크게 뚝뚝 울려준다.
- 모곡을 다 걷은 다음 선소리꾼이 “자! 금년에는 모곡을 걷은 것이 많아 기분이 좋으니 한바탕 잔칫상을 벌리고 놀아나 보세”하면 출연자는 모두 “와”하고 또한 함성을 울리면서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잔칫상으로 모인다.
- 농악은 이때 신나게 쳐준다.
- 아낙네는 술상을 두 군데로 나누어 가져다 놓고 음식을 남정네들에게 건네준다.
- 남정네들은 술을 받아 마시며 간단한 소품을 모두 치켜들고 다음 한마당 과정으로 돌아간다.

제6과정 한마당놀이

해설자 : 이제 1년 동안 베림질한 댓가로 모곡을 많이 받고 풍년을 맞으며 기분 좋게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리는 한마당 놀이가 이어지겠습니다.

- 출연자 : ○ 기수를 중심으로 출연자는 모두 중앙으로 넓게 원을 그려 빙빙 돌면서 춤을 춘다.
- 농악은 더욱 신나게 쳐준다.
 - 출연자는 소품을 치켜올리며 “와!”하는 함성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신나게 춤을 춘다.
 - 한바탕 한마당 놀이를 하다가 농악은 쇠를 바꾸어 기수를 선두로 원을 그리며 마지막 마침 인사를 하기 위한 시작 인사와 같이 둥그렇게 정열한다.
 - 정열이 다 되었으면 징잡이가 징을 울린다.

○ 출연자는 모두 돌아서서 관중에게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한다.

※ 이때 해설자는 관중에게 많은 격려의 박수를 부탁
한다.

○ 징잡이가 다시 징을 울리면 출연자는 모두 일어
나 소품을 소지한다.

○ 농악은 다시 춤가락으로 느리게 쳐주며 기수를
선두로 퇴장한다.

출연 및 복장

직 분	명수	복 장
기 수	3	머리수건 /바지적삼 /주머니 /상투
선 소 리	1	머리수건 /바지적삼 /주머니 /상투 /짚신
비 수 안	1	망건 /바지적삼 /주머니 /짚신
집 사	1	머리수건 /바지적삼 /주머니 /상투 /짚신
편 수	2	머리수건 /바지적삼 /주머니 /상투 /짚신
메 질 꾀	6	머리수건 /바지적삼 /주머니 /상투 /짚신
아 낙 네	4	머리수건 /치마적삼 /짚신
풍 구 질 꾀	8	머리수건 /바지적삼 /주머니 /상투 /짚신
숫 돌 질 꾀	4	머리수건 /바지적삼 /주머니 /상투 /짚신
자루드리기	6	머리수건 /바지적삼 /주머니 /상투 /짚신
화 부	2	머리수건 /바지적삼 /주머니 /상투 /짚신
농 악 대	9	머리수건 /농악대옷 /주머니 /짚신
계	47	

출 · 연 · 자

■ 출연인원 : 51명(남47명 / 여4명)

■ 조 사 : 이만철(인제문화원 사무국장)

■ 재 구 : 박민일(강원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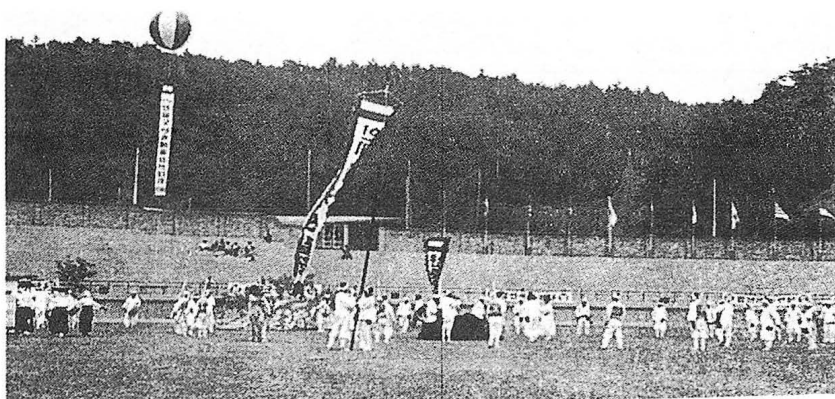
■ 연출지도 : 장복한(춘천여자고등학교 교사)

■ 소리지도 : 박해순(인제 향토민속보존회 회장)

성 명	연령	배 역	성 명	연령	배 역	성 명	연령	배 역
박해순	69	선 소 리	이상주	53	농 악	이주은	79	풍 구
이봉한	67	후 소 리	김순기	71	농 악	박재승	67	풍 구
윤오병	68	큰 기 수	남궁작	54	농 악	김영기	80	풍 구
이종성	75	작은기수	허만영	53	농 악	김호풍	69	풍 구
안내선	73	작은기수	김범수	53	농 악	김용식	72	풍 구
손주환	80	편 수	이용길	53	농 악	이창실	81	화 부
진동하	72	편 수	선순영	69	비수안	김주봉	79	화 부
최용순	65	메 질 끈	이동준	68	집 사	김영규	81	숫돌질끈
안준옥	66	메 질 끈	동상인	77	풍 구	박인국	73	숫돌질끈
박민성	67	메 질 끈	김윤병	72	풍 구	조수길	69	자루드리기
박순복	78	메 질 끈	이창옥	76	풍 구	박종래	78	자루드리기
이규남	70	메 질 끈	조해수	72	풍 구	김용구	72	자루드리기
조성구	68	메 질 끈	이덕환	79	풍 구	강환구	59	자루드리기
김상혁	70	농 악	이만성	75	풍 구	박춘매	72	아 낙 네
이홍주	75	농 악	김문옥	79	풍 구	최필녀	76	아 낙 네
이종명	72	농 악	임경섭	70	풍 구	김은숙	57	아 낙 네
이만석	53	농 악	김근수	76	풍 구	이옥예	56	아 낙 네

麟蹄生業民俗史研究

바지게 선질꾼 民俗史



麟蹄山林産業民俗史研究

－ 바지게선질꾼 民俗史 －

麟蹄郷土史研究所

研究員 李 萬 喆

〈 目 次 〉

1. 머리말
2. 바지게선질꾼 생활사의 특징과 배경
3. 원통장과 양양장의 형성과 역할
4. 바지게선질꾼 민속사
5. 바지게선질꾼 복장과 바지게 설명
6. 바지게선질꾼 재현
7. 결 론

1. 머리말

그동안 우리 고장의 민속사를 수집 조사하여 한 권의 사료 집으로 발간하고자 하는 뜻의 연계 맥락으로 본문에서도 우리 고장 인재에서 우리 선조들의 생활사의 한방면인 바지게선질꾼의 생활민속사를 조사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그러나 우리 고장의 특유한 여건 즉, 자연환경에 따라 선인들의 삶의 모습과 애환 그리고 그 지혜가 담긴 숨결을 정체성이 들어나도록

완벽하게 정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어려웠던 점이 크게 작용되었던 것은 시간이 너무 흘러 늦게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어려웠다. 다행히 당시에 선질꾼으로 종사하였던 촌노들 몇 분이 생존하여 계시기에 또한 그분들이 선뜻 수락하여 생생히 고증을하여 주신 것이 매우 다행이었다. 더불어 1993년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으로 조사되었던 바지계선질꾼의 민속사 자료가 크게 보탬이 되었다.

또한 두 번째로 어려웠던 점으로는 필자의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집필에 별로 경험이 없는 두려움 속에 의욕이 따르지 못하는 점이었다.

글을 쓰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도 잘 알고 있겠지만 필자, 나 자신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얼마만큼 바지계선질꾼 민속사를 잘 조사하여 완벽하게 내놓겠냐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르라는 속담을 새기면서 기왕에 마음을 먹고 뜻을 가졌던 일이기에 읽는이로 하여금 양해와 이해를 구하고 조사 수집하여 정리해 보고자 하는 의욕이 남아 있기에 용기를 잃지 않고 필자는 성의껏 자료를 모아 집필에 옮기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시간에 좀 쫓기는 점이 있었다. 좀 핑계아닌 핑계같지만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뚜렷하게 빛이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는 일이 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주어진 일만 간단하게 문화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또한 나 자신만을 돌아보고 주위의 눈치를 생각하지 않고 문화원 일을 볼 수는 있지만 필자는 그렇게 편의주의에는 양심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일을 여건이 따른다면 찾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에 좀 쫓기는 것

만은 사실이였다. 그러다보니 전문성을 갖고 민속사 조사에 일념하기란 좀 바쁘다고 하는 시간이 이유가 되었다.

1) 바지계선질꾼 민속사의 조사경위

앞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우리고장 민속사의 뿌리를 찾아 정리하여 맥을 이어가고 후대에 보존 전승하게 함은 그 어느 하나라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조사하여 정리하고자 하는 바지계선질꾼 민속사는 우리고장 인제에서 옛 선인들이 삶을 영위하였던 대표적인 생활사였기 때문에 필히 조사가 있어야 할 중요한 민속사이기 때문이다.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옛 시절에 험준한 산길로 여러개의 영(嶺)을 넘으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영서와 영동의 교량 역할을 하여야만 생활을 영유하였던 바지계선질꾼의 생활사에 대한 자세한 민속사는 우리 고장의 특유한 민속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바지계선질꾼의 민속사를 정리하는데도 선인들의 생활사 또한 그 당시의 교통관계 및 시장(市場)관계 그리고 무역을 하였던 산물(産物) 등도 나타나고 있기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의한 중요한 바지계선질꾼 민속사조사 정리는 다음과 같다.

2)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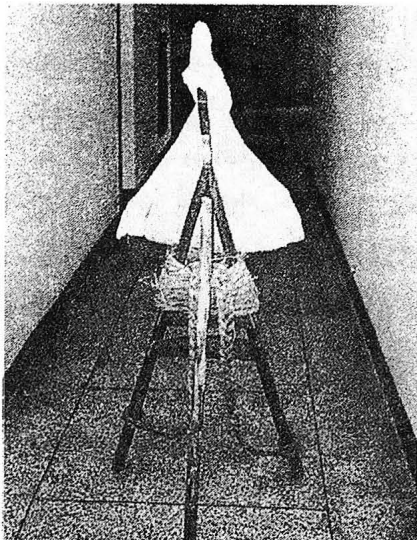
바지계선질꾼 민속사의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는데는 앞에서 머리말에 언급하였던 바와같이 어려서 그시대에 직접 선질꾼 생활을 하였던 원로 노인네가 생존하여 계시기에 용

이하였다. 필자는 노인회관을 찾아가 녹음기와 사진기를 갖추고 고증을 얻을 수 있는 촌노들을 찾아 뵙고 취지를 말씀드리는데 방법을 택하였다.

다행히 인분이 있는 관계속에 노인분들은 당시의 상황을 너무나도 자세히 말해주셨다. 또한 1993년 제11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삼척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될 당시 필자는 우리 군에서 바지계선질꾼 민속사를 놀이로 구성하여 출연하는데 관심을 갖고 연출지도를 하였던 경험이 있었다. 물론, 그 원형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지도하고 출연하였던 것이 금번 조사때 정리하는데는 많은 보탬이 되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용어를 잘 모르는 것은 한국민속대사전을 찾아보면서 정리하게 되었고 모아 두었던 재현 당시의 사진을 취합하면서 정리하였다.

필자는 차도가 막혀 있었던 옛 시절 불재로를 이용하여 영동과 영서간 문물을 교역하였던 선질꾼의 민속사에 관하여 특별히 관심이 있어 93년도에는 당시에 선질꾼에 종사하였던 인제군 북면 원통5리에 거주하고 있는 김용철 할아버지께 선지계를 직접 만들어 달라고하여 현재 전시실에 보관하고 있다.

또한 바지계선질꾼 민속사를 경연대회에 출연하여 그 원형을 재현함으로 널리 알리게 되었으며 K.B.S 방송국에서 특별히 우리고장 인제에 찾아와 김용철 할아버지에게 복장과 지계를 갖추어 당시에 선질꾼이 다녔던 기린면 진동리 산길에 직접가서 촬영을 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모든 연관성있는 바지계선질꾼 민속사의 관계 경험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매우 좋은 성과의 바탕이 되었다.



— 김용철씨가 만든 선지게 —



— 바지게를 지고 재현하는 김용철씨 —

3) 고증을 해 주신분

김춘봉(85) 인제군 인제읍 합강1리

이주은(82) 인제군 인제읍 합강2리

선순영(78) 인제군 인제읍 상동1리

김용철(78) 인제군 북 면 원통5리

2. 바지게선질꾼 생활사의 특징과 배경

1) 특징과 배경

역사속에 지녀온 우리 선인들의 삶의 모습과 애환 그리고

슬기로운 지혜는 어느 고장에서나 잘 정리되어 보존 전승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그 고장의 자연환경에 따라 삶의 모습들은 많은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당시에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여 주위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삶을 영유하여야 하는 조건이 따라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즉, 인간은 자연의 순리에 지배를 받고 살아왔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노동의 고초에서 애환을 서로가 달래주며 두레정신으로 울역을 한다든가 무리를 지어 힘을 모아 함께 삶을 영유하였던 것은 어느 고장이나 공통으로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밝히고자 하는 바지개선질꾼은 어느 지역에서나 삶을 영유하기 위하여 한가지의 수단으로 짐을 나르며 살아온 선인들의 생활사이다. 그러나 우리고장 인제에서 이루어졌던 선질꾼 민속사는 그 특징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도로가 없었던 시절, 자연환경에 따라 험준한 산길과 높은 영을 몇 개씩 넘어가며 영서에서는 곡물을 지고 가고 그 곡물로 영동에서 나는 해산물을 교환하여 다시 돌아오는 교량역할로 생활을 하였던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삶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찾아 고초의 아픔을 달래가며 살아야만 했던 선질꾼 생활로써 지리적 자연환경의 배경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험준한 산길을 걸어야 했고 또한 높은 영을 힘겹게 넘어야 했다. 또한 영서에는 곡물이 생산되고 영동에서는 해산물이 생산되는 배경에서 물물교환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조건의 배경이 따라야만 했기 때문에 선질꾼 생활이 필수적으로 행하여 졌다. 아울러 선질꾼에 의해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배경으로 인하여 자연이 장터가 생기게 되었고 또한 장사꾼이 생기게 되는 삶의 배경이 이루어 졌다.

3. 원통장과 양양장의 형성과 역할

1) 원통장

1900년대를 전후하여 인제군 북면 원통6리(자연지명 : 제 주도)는 산간교역의 중심지로써 곡물/어물/임산물 등 잡화상이 성행되었던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물상객주 2개소를 합하여 점포 80여호가 있었고 그중 우시장은 춘성군 샘밭 우시장과 원통 우시장이 강원도에서 제일 컸던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 이렇게 원통장이 컸던 까닭은 원통장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과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당시 원통장/서화장은 동해안의 물산이 집결되어 다시 양구·홍천지역으로 유입되는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통장을 중심으로 물자를 유통시켰던 주인공들이 바로 선질꾼들 이었는데 이들은 바지계에 물건을 지고 험준한 산길을 여러명이 모여 넘나들곤 했다.

이들이 영동으로 넘어갈 때는 주로 곡물류를 지고 갔으며 넘어올 때는 해산물(어류·소금)을 지고 넘어왔다. 한편, 원통장이 컸던 요인으로는 인제군의 지형 특성과 이 시기를 전후하여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인제군은 앞서서도 거듭 밝혔듯이 높은 산이 많은 까닭에 교통이 매우 불편한 곳이다. 이처럼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먼곳까지 나와서 물건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일제시대를 전후하여 급증한 사람들은 모이기 편한 가까운 곳에 자연스럽게 원통장이 형성되었다고 보아진다.

이로 인하여 이시기에 원통장뿐 아니라 인제군에는 많은 시장이 나타났다. 1923년도에 이르면 몇 가지 점에서 인제군의 시장은 서서히 기반을 다져왔다. 먼저 이시기에 주목할 점은 남면 관대리에 시장이 새로 생기게 된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매우 급속한 변화로 인제군에서는 원통장→인제장→관대장→양구읍장으로 이어지는 상인경로가 형성되었다. 원래 관대장이 서는 관대리는 원래 조선시대 마로역이 있었던 지역으로 관터 또는 관대라고 불리던 곳이다. 다시 말하면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큰 역로였고 중요한 교통로의 한 지점이었다.

따라서 관대리는 쉽게 시장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양구와 연결되는 시장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시장은 1930년대에 이르러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우선 이시기에 이르면 시장이 가장 많이 생겨서 인제군 구석구석에 정기 시장이 형성되었다.

읍면	시장명	1912	1923	1926	1938	1963	1976	1994	비 고
인제읍	麟蹄場(상동리)	3, 8	3, 8	3, 8	2, 7	2, 7	4, 9	4, 9	
	貴屯場(귀둔리)					5, 10			
남 면	冠垈場(관대리)		4, 9	4, 9	3, 8				
	禦論場(어론리)				4, 9				
	新南場(신남리)					3, 8	3, 8	3, 8	
	陰陽場(부평리)	4, 9							
북 면	元通場(원통리)	2, 7	2, 7	2, 7	1, 6	1, 6	2, 7	2, 7	
	龍垈場(용대리)				3, 8				

읍면	시장명	1912	1923	1926	1938	1963	1976	1994	비고
서화면	瑞和場(서화리)	4, 9	4, 9	4, 9	4, 9				
	伊布場(이포리)		1, 6	1, 6	4, 9				
	長承場(장승리)				3, 8				
	天桃場(천도리)						1, 6	1, 6	1975년 설립
기린면	縣里場(현 리)	3, 8	4, 9	4, 9	3, 8	3, 8	3, 8	3, 8	
상남면	上南場(상남리)					4, 9			1983년 분면. 5년전 폐지
내 면	蒼村場(창촌리)	1, 6	3, 8	3, 8	2, 7	1, 6	1, 6		현재 홍천군 소속
	廣院場(광원리)				1, 6				
계	군내 시장 수 (도내시장총수)	6 (83)	7 (95)	7 (110)	11 (146)	6 (92)	5 (91)	5 (51)	

— 인제군 정기 시장 변천 현황표 —

인제군은 해방이후가 되면서 북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의 시장과 아울러 몇 개의 시장이 없어지게 된다. 1963년의 기록에 의하면 서화면 이포장과 장승장이 북한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남면의 관대장과 어론장 북면의 용대장 서화면의 서화장 등이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시장들이 없어진 요인은 서화장의 경우에 휴전선 지역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용대장과 관대장, 어론장 등이 폐지된 까닭은 인제군이 고성군보다 양양군과의 교류가 보다 더 활발해졌으며 상남면으로 통하는 교통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같은 추정은 이시기에 새로 생긴 시장인 인제읍의

귀둔장 상남면의 상남장 등이 양양군 또는 홍천군과 통하는 지점에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제읍의 귀둔장은 그후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린면의 현리장과 인제읍장으로 흡수되었다.

2) 양양장

조선시대때의 양양군의 정기 시장을 먼저 동국문헌 비고에 기록되어 있는 것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기록에 의하면 18세기에 양양군의 정기시장은 모두 5개로 기록되어 있다. 양양읍장(3, 8일), 동산장(4, 9일), 물치장(4, 9일), 부동장(3, 8일), 상운장(5, 10일) 등으로 이루어졌었다. 양양읍장은 林園十六志에 의하면 관문밖의 임두리란 곳에 있었다고 하며 아마도 이곳에서 당시에 많이 생산되었다는 쌀과 면포, 마포 그리고 방어 등의 생선류와 과일, 종이류 등을 거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동상장과 상운장은 각각 강릉으로 가는 도로상에 있었다.

물치장은 양양의 북쪽 전망이 넓은 바다쪽에 있었으며 이곳에는 미역을 비롯하여 멸치 등이 많이 났었다고 하며 선박이 출입하는 어항이 있었다고 한다. 18세기에는 양양이 다른 강원도 지역보다 시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것은 당시 양양도호부라고 할 만큼 행정의 중심지역이었을 뿐아니라 양양과 영서지역과의 교류중심지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비록 양양지역에 시장이 많이 있었지만 이시장이 하나의 순회 경로가 되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개시일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동해안에 있던 시장들인 양양읍장/물치장/동산장/상운장의 개시일이 서로 이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20년대를 들어가서는 시장이 정기적으로 서게 될 만큼 커지게 되었다. 이곳에 주로 거래되는 물품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어류와 다른지역 등에서 생산되는 곡류였을 것이다.

읍면	시장명	1912	1923	1926	1938	1963	1976	1994	비고
襄陽邑	邑內場(南門里)	4, 9	4, 9	4, 9	4, 9	4, 9	4, 9	4, 9	
降峴面	沕溜里場(沕溜里)	20, 25 30	5, 10	5, 10	5, 10	5, 10	3, 8		
縣南面	銅串場(市邊里)	5, 10							
	仁邱場(仁邱里)			5, 10	5, 10	5, 10	5, 10		
土城面	橋岩場(橋岩里)		1, 6	1, 6	1, 6				1962년 고성군 편입
縣北面	其土門場(其土門里)		5, 10	5, 10	5, 10				
道川面	東草場(東草里)				3, 8	상설			1956년 상설 시장존재
西 面	西林場(西林里)				3, 8				1956년 상설 시장존재
東草市	東草市場(대포동)					상설	5, 10		현 속초시
계	군내 시장 수 (도내시장총수)	3 (83)	4 (95)	5 (110)	7 (146)	3 (92)	4 (91)	1 (51)	

— 양양군 정기 시장변천 현황표 —

옛날에는 인제장(또는 원통장)→양양장→물치장→고성 교암리장→간성장의 순으로 다녔다 한다. 그때 짐꾼 장사꾼이 있었는데 이를 바지계꾼 또는 선질꾼이라고 불렀다. 선질꾼은 생선파는 장사꾼인데 주된 품목은 생선류와 소금이었다 한다.

바지계꾼은 인제 원통에서 곡류를 가져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이었다. 양양에서 한계령으로 넘어가면 원통으로 빠지는 길이 있다. 인제 원통 방면으로 갈때는 생선, 소금 등을 가

지고 가고 양양에서 올때는 곡류를 바지계에 한짐씩 무겁게 지고 온다. 이러한 물물교환을 “바꿈”이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선질꾼은 전문적인 장사꾼이 아니라 생계의 유지를 위한 물물교환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다. 즉, 봄철에 먹을것이 없을 때 선질꾼이 주로 활동하여 바꿈이를 하게 된다. 이와같은 선질꾼은 주로 청장년때 나이로는 16세 정도 총각 시절에 시작하여 약 10여년씩 하기도 하였다. 당시의 생계는 매우 어려웠으며 결혼은 대체적으로 20세가 넘어 하였다 한다. 선질꾼 생활은 먹고살기 위함과 장가밑천을 위하여도 하였다 하며 약 40세까지 하였다 한다.

3) 장타령

춘천이라	샘밭장	신발이젖어	못보고
홍천이라	구만리장	길이멀어	못보고
이귀저귀	양구장	당귀많아	못보고
한자두자	삼척장	배가많아	못보고
명주바뀌	원주장	값이비싸	못보고
횡설수설	횡성장	발통이많아	못보고
감많은	강릉장	값이싸서	못보고
이통저통	홍천장	알것많아	못보고
엄성덤성	고성장	심심해서	못보고
이천저천	이천장	개천많아	못보고
철덕철덕	철원장	길이질어	못보고
령넘어라	영월장	담배많아	못보고
어화지화	금화장	놀이좋아	못보고
희희충충	회양장	길이험해	못보고

이장저장	평강장	강물없어	못보고
정들었다	정선장	갈보 많아	못보고
화목 많은	화천장	떼꾼 많아	못보고
지금왔다	인제장	일이바빠	못보고
안창곱창	평창장	술국 좋아	못봤네

4. 바지계선질꾼 민속사

그동안 바지계선질꾼에 대한 민속사는 이미 알려져 있는데 다시 한번 당시에 직접 인제와 양양을 오고가며 선질꾼 생활을 하였던 인제군 인제읍 상동1리에 거주하는 김용구(74세) 씨의 고증 조사를 통한 자료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1995년도에 발행한 강원도 시장민속책자 인제군편에 잘 기록되어 있기에 이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선질꾼이란 서서 쉰다는 의미에서 선질꾼이라 부른다.

즉, 이들은 설때도 앉지않고 서서 휴식을 취한다. 보통 선질꾼은 바지계이거나 통지게 모두를 다 지고 다니는데 통지게는 바지계보다 가볍다. 가벼운 이유는 통지게 짐의 무게 중심이 바지계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다. 선질꾼이 지고 다니는 무게는 대략 쌀 한가마니(1백근정도) 정도의 양을 지고 영(嶺)을 넘나 들었다.

선질꾼은 짐을지고 팔로 귀를 만질 수 없어야만 장사를 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짐이 무거우면 팔을 귀까지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주로 양양으로 다녔는데 다니는 길은 인제읍이나 원통에서 덕산→덕적→가리산→조침령→박달령→양양서림→양양장의 순이었다. 이곳 주위의 영으로는 곰배령/조침령/박달령(단목령)/한계령/진부령/미시령 등이

있다. 선질꾼은 영길-장길을 이렇게 부름으로 다녔는데 조침령/박달령/한계령/부곡령 등으로 넘나들었다. 이가운데 조침령은 말이 다니기 쉬운데 김용구옹은 주로 이곳을 이용하였다 한다. 박달령은 말이 다니기에 힘들 정도로 험한 길이었다. 그러나 박달령에서 양양으로 넘나들면 길이 험한 대신 거리가 짧다. 오색령은 돌이 많다. 오색은 가리산을 넘어서 쌍다리에 서 왼쪽 골짜기를 넘어간다. 그러면 한계령에서 오색으로 빠진다. 양구 장꾼들의 경우에 주로 미시령으로 넘어 다닌다.

선질꾼이 넘는 고개 가운데 제일 높은 고개는 곰배령이었다.

그리고 선질꾼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기린면 지역이었다. 기린면에서 영을 넘어서 양양군 서림리에 가기 까지는 주막 6~7곳이 있다. 주막에서는 밥값으로 10전~15전을 받았다. 밥값으로 받는 돈은 말에게 주는 먹이 값을 의미하며 사람이 숙박하고 밥먹는 값은 형식상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인제에서 영동으로 갈때는 콩/팥 등 발곡식을 싣고가고 영동(양양)에서 올때는 어물 종류인 고등어/소금/미역 등을 가지고 오는데 주로 소금에 절인 고등어를 많이 가지고 왔다. 가고오는 중간에는 쉬는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다. 콩의 경우에는 주로 메주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힘이 좋은 선질꾼의 경우 한 번에 고등어 50손(100마리)과 소금 한가마니를 지고 다닐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마꾼의 1/3에 해당된다. 마꾼의 경우 한 번에 많을때는 20명 정도가 함께가고 그 경우 말은 24~25필 정도가 된다.

말은 “덕굴레”로 치장을 하는데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당시에 말가격이 일제시대 말경에 20~30원 정도였다. 쌀 열가마에 해당되는 말에 찬란한 휘장을 달아서 못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이들은 선질꾼보다 자금이나 운송물품에 있어서

더 나은 조건을 갖추었으므로 약간의 우월의식이 있었다. 평지일 경우에는 말에 타고 다닌다. 말꾼은 그지방 토착인이 대부분이다. 한편 선질꾼 가운데는 인근에서 자본을 대주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말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말꾼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쉬는 곳은 마방집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선질꾼들도 같이 잔다. 이들은 각각 단골집이 있었다. 말꾼의 경우에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물건은 콩/팥 각각 10말정도(총 20말)를 실을 수 있다. 말꾼들이 마방에 가서 말을 땔때는 제일 첫머리에 메는데 이는 아침 일찍 말을 꺼내 가기 위해서이다. 또 하나 이유는 말에게 밥을 먹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바깥쪽에 땄다.

말들을 매둔 곳을 지나치면 말들이 뒷발질을 하기 때문이다. 말꾼들은 말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밤새도록 자는 곳을 드나 들면서 말먹이를 먹이는데 이 때문에 선질꾼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다. 지금 생각나는 마방은 기린면 쇠나들이라는 곳에 한 곳이 있었다. 말꾼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말로 마방이 망할려면 당나귀가 낀다고 했다. 이러한 말의 의미는 당나귀는 보리를 지고 다니므로 마방에서 마죽을 팔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사를 하기 위하여 출발하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중간 중간에 주막이 있으며 양양까지는 하루 반 정도가 걸렸다. 짐이 많은 경우 이틀정도가 소요된다.

선질꾼이나 마꾼이 취급하는 품목은 모두 같다. 그 당시에는 물물교환을 하였다고 한다. 말장수는 선질꾼과 달리 당시에 멋있는 사람들이었다.

차림새로는 말장수들이 주로 쓰는 맥고자가 있었는데 창이 넓은 멋있는 것이었다. 또한 말장수는 “오입속”이라고 하였

다. 이 말을 두고 말장수의 멋이라고 하였다. 주막집에서는 색시(여자)를 두고 그곳을 지나는 장사꾼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데 이때 이러한 호객을 즐기다가 말을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당시에 일매(매사냥꾼)/이총(포수)/삼마(마꾼)/사첩(첩)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마꾼일은 재미있고 해 볼만한 일로 자랑삼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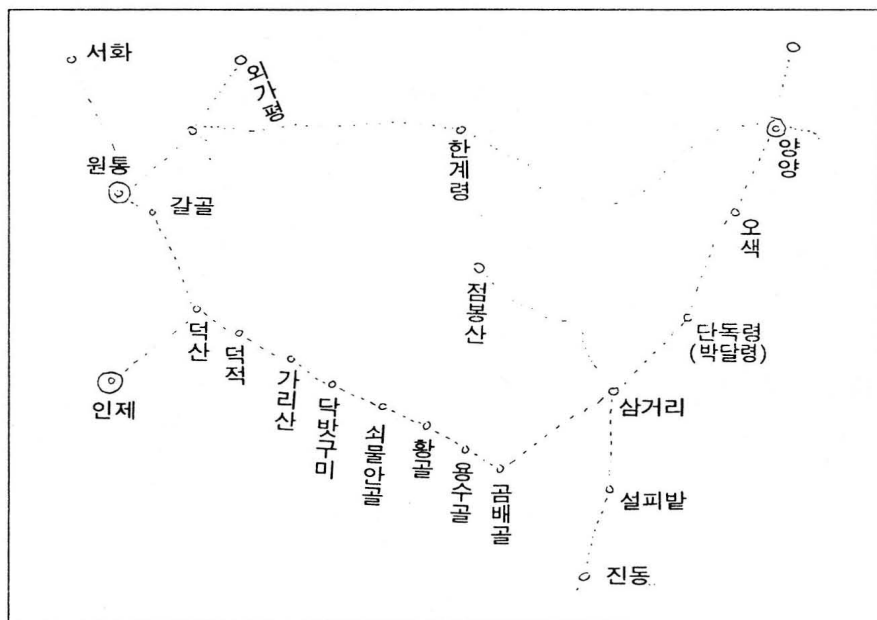
반면에 선질꾼은 광목수건을 두르는데 모자는 쓰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짚신(짚새기)은 항상 여유로 지게뒤에 달고 다닌다. 그런데 이 짚신 안에는 갈지직(넷가에서 크는 갈대)을 넣어서 신고 다녔다. 이 갈대꽃은 엄지발가락을 싸서 열지 않게 하는 감발의 재료로 이것으로 감싸면 열지 않는다고 한다.

옷도 광목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다녔다. 선질꾼은 마꾼처럼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친목이 형성되어 같이 다녔다. 선질꾼의 경우에 상인의 고용자이어서 단지 물건을 운반하는 운반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김용구옹은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부친에게 떼를 써서 자본을 얻어냈다 한다. 양양에서 가지고 온 물건은 인제의 고정 상인에게 넘기기도 하고 스스로 장사에 나서기도 하였다. 고정상인을 물산객주라고 한다. 상인 스스로가 팔러 나서는 것은 가가호호(家家戶戶)를 방문하면서 값싼 곡물을 직접 구할 수 있으며 또한 구해온 영동의 어물과 해산물을 높은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영동에서 구해 온 물건은 늦어도 3~4일이면 모두 팔린다.

장사의 경우에 날씨가 아주 나쁘지 않을 경우에 쉬지않고 계속 장사를 한다. 마꾼의 경우에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없어지게 되었다. 김용구옹은 대략 22살 전후까지 선질꾼 생활을 하였는데 징용나가기 전까지 하였다. 일제시대 말경 보국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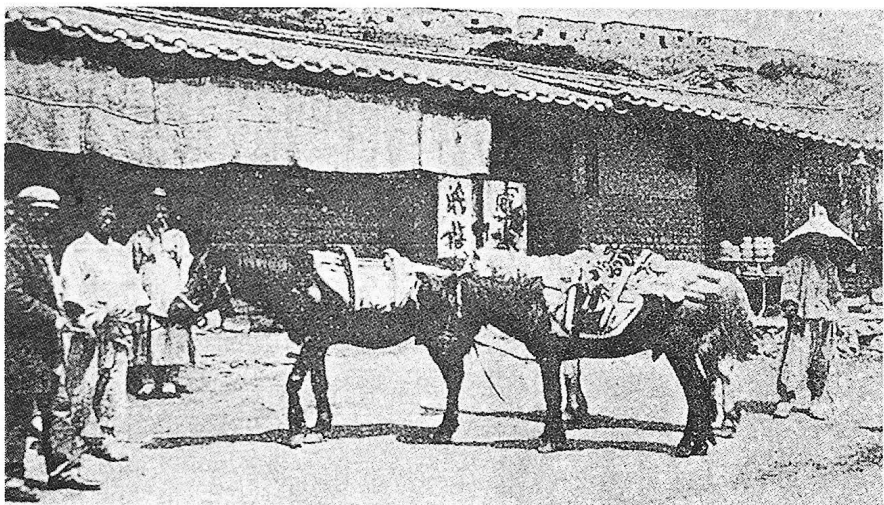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가는 징용대의 이름)에 징용을 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이시기부터 마꾼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마꾼이 완전히 없어지고 해방된 후 춘천에서 진부령으로 길이나고 지금의 봉고차와 같다고 볼 수 있는 목탄차가 다니게 되었다. 그리고 이 길로 우마차가 다녔다. 이 우마차가 다닌 이후에 특히 선질꾼이 없어지게 되었다.



— 인제·양양간 바지계선질꾼 통로 —



■ 지게꾼은 시골살림이 어려워서 장터에 나와 짐을 날라주고 그 대가를 받아 식구의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의 애환인들 심상했을리 있겠는가~



■ 좁은 길로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는 말을 이용하여 짐을 맡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5. 바지게선질꾼 복장과 바지게 설명

1) 선질꾼 복장

현대처럼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예전에는 주로 무명·광목 옷을 해 입고 살았다. 물론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사는 집에서는 좋은 비단 옷감으로 온 식구가 옷을 만들어 입고 지냈지만 대부분 촌락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속옷도 제대로 못입고 대개 흰광목으로 바지저고리를 만들어 입고 일할때나 나들이를 갈때나 입고 살았다. 더군다나 지게꾼으로 삶을 영유하고 살았던 선질꾼들도 예외가 없었다.

인제군 북면 원통5리에 살고있는 김용철옹은 당시에 선질꾼 생활사를 소생히 알려 주는 가운데 본인이 직접 입었던 복장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증을 해 주었다. 바지는 흰광목으로 지어 입고 주로 광목천으로 허리띠를 매었으며 저고

리도 흰광목으로 넉넉하게 만들어 옷고름을 달아 매어 입고 지냈다 한다.

머리에는 모자를 쓰지않고 흰광목천으로 넓게 수건을 만들어 메고 다녔다 하며 양말대신 흰광목으로 누런 물을 들여 감발(발싸개)을 하고 다녔다 한다.

바지가락 끝에는 대님(재내이)를 묶고 신발은 짚신을 신고 다녔다 한다. 짚신은 꼭 여유로 한 두 켤레씩 바지계 뒤에다 달고 다니다 신고 다니던 짚신이 떨어지면 바꿔신고 다녔다 한다. 짚신은 직접 본인이 만들었다 하며 겨울에는 가래나무 껍질을 삶아서 말렸다 신으로 만들어 신었고 여름에는 싸리나무 껍질을 벗겨 말려서 만들어 신고 다녔다고 한다. 선질꾼은 무거운 짐을 지고 비가오나 눈이오나 크게 지장이 없으면 계속 다녀야 했기 때문에 아무리 튼튼히 짚신을 삼아 신고 다녀도 3~4일이면 떨어져 못신고 다녔다 한다. 그러기에 짚신을 삼는 일도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2) 바지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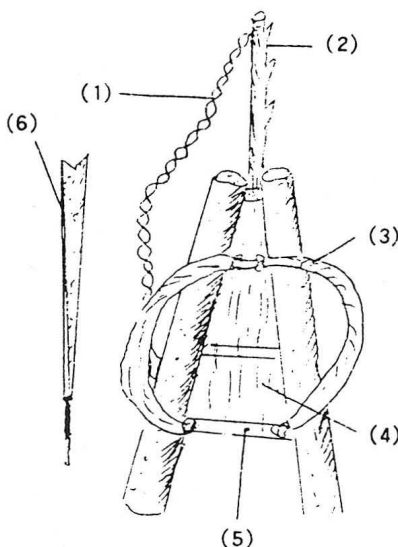
선질꾼들이 짐을 계속나르기에 필수적인 바지계는 선질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장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선질꾼들은 짐을 지고 다닐때는 물론 지계가 망가지지 않게 잘 보살피며 다녔고 주막집에서 숙식을 할 때는 매우 안전한 곳에 보관하였다 다시 사용하였다고 한다. 바지계는 주로 질이 단단하고 뒤틀리지 않으며 가벼운 다름나무로 만들었다 한다. 다름나무는 지금도 목공예를 하는 사람들이 목기나 여러 모양의 공예품을 만드는데 매우 좋은 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침대를 만들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바

지게의 중요한 특징은 지게 다리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지게 다리가 없는 대신 밧줄을 이용하여 짐을 동겨 매고 다니므로 밧줄이 지게 다리 역할을 하겠끔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외 보통지게와 다른 것은 지게 상부에 꼬챙이를 달아매어 짐을 싣고 밧줄을 꼬챙이에 동여매는 것이 다른 점이다.

꼬챙이에는 밧줄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에워져 있다. 그외 멜비(멜빵)와 등태 쇠장은 보통지게와 같이 만들어 사용하였다 한다.

◆ 바지게 구조

- ① 밧 줄 : 짐을 동여매는 끈
- ② 꼬챙이 : 짐을 싣고 밧줄을 매는 대
- ③ 멜비(멜빵) : 지게를 지는데 어깨에 부착하는 끈
- ④ 등 태 : 지게를 질 때 등이 바치지 않게 완충시키는 것
(주로 짚으로 만듦)
- ⑤ 쇠 장 : 지게 목발위에 양쪽으로 박아 고정시키는 막대기
- ⑥ 작대기 : 집고 다니며 지게받침 겸용으로 사용



6. 바지게선질꾼 재현

1993년 9월 16일과 17일 2일간에 걸쳐 제11회 강원도 민속

예술경연대회가 삼척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바 있다.

때를 같이하여 우리고장 인제에서는 바지계선질꾼 민속사를 발굴하여 재연함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방송공사 K.B.S 춘천방송국장(임강호)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바지계선질꾼의 민속사를 널리 알리게 되었고 기록 보존 계승에 정립을 하게 되었다.

물론 재현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당시에 선질꾼 생활을 하였던 촌노들을 찾아 고증을 받았다. 아울러 재현하는 과정의 시나리오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심있는 몇 사람이 모여 중지를 모아 작성하였다.

이후 관심있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인제읍 남북리 강건너 살귀미 밤나무밑 그늘 밑에서 약 20일동안 재현의 연습을 거듭하였다.





— 제11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재현하는 사진 —

● 출연과정

- 출연자 : ○ 큰기수를 선두로하여 농악대, 작은기수, 물상객 주, 선질꾼, 아낙네 등으로 입장한다.
- 입장할 때는 농악은 소리를 크고 경쾌하게 울려 준다. 동시에 출연진 전원은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입장한다.
 - 또한 출연진은 농악소리 장단에 맞추어 지게작대기로 지게목발을 맞추어 치면서 입장한다
 - 큰기수는 중앙에 자리를 잡고 출연진은 둥그렇게 원을 그려 둘러서면서 간격을 맞춘다음 소품을 중앙부 쪽으로 내려놓는다.

- 상쇠는 간격을 맞추며 소품을 다 내려 놓을 것을 확인한 후 농악소리를 멈추게한다.
- 출연자는 모두 관객을 향하여 돌아서 있다.
- 이때 징잡이는 징을 크게 울려주며 아울러 출연자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관중에게 인사를 한다.
- 조금 후 징잡이는 다시 징을 쳐주며 출연자는 모두 일어나서 춤을 추며 소품을 다시 소지한다.
- 출연자는 소품을 다 소지하고 농악대는 농악을 쳐주며 제자리로 가고 출연자도 각자 열을 맞추어 다음 출연순서의 장소로 들어간다.

● 제1과장

- 출연자 : ○ 선질꾼은 원통물상 시장에서 지게에다 곡물을 짊어놓고 밧줄로 묶은 다음 영동물상으로 떠나갈 준비를 한다.
- 이때 농악은 경쾌하게 쳐준다.(출연자는 춤을 추는 율동으로 한다.)
 - 기수 및 아낙네도 농악에 맞추어 춤을춘다.
 - 다음 선소리꾼은 선질꾼이 지게에다 짐을 짊어놓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
 - 다시 선소리꾼은 장타령을 부르고 선질꾼은 후소리를 받는다.
 - 장타령이 끝나면 선소리꾼은 “자!, 이제 영동물상 시장으로 떠나세”라고 한다.
 - 출연자는 모두 “네”하고 지게를 걸머진다.
 - 다시 선소리꾼은 소리를 주며, 선질꾼은 후소리

를 받아가며 지게 작대기로 지게목발을 치며 출
상길에 오른다.

- 이때 물상객주는 손을 흔들어 잘 갔다오라고 하
고 선질꾼도 물상객주에게 잘 다녀오겠다고 손
을 흔들어 준다.

해설자 : 이제 선질꾼들은 원통물상 시장에서 곡물(주로 두
태류<콩·팥>)을 지게에 짊어지고 밧줄로 단단히
묶은다음 영동물상 시장으로 어물을 구하기 위하여
출상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선질꾼은 험준한 산길
을 오르고 내리면서 힘든 것을 달래고 선질꾼의 신
세로 살아가는 것을 한탄하며 애환이 담긴 소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선질꾼이 지
고 있는 지게의 다리가 없는것과 목발이 길며 지게
상단부에 막대를 세워 밧줄로 짐을 올려 매어 막대
기에 동겨 매 놓은 것이 보통지게와는 다른점입니
다. 또한 선질꾼의 복장중 발에다 양말이나 버선을
신지않고 누렇게 물들인 광목으로 바림치가 나오도
록 칭칭감아 돌려매어 짊신을 신었다는 것이 특이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감발(발싸개)이라고 하며 주
로 주황색깔로 하였다 합니다. 여기에 지게의 모양
이나 감발을 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실질적인 고증
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게는 가볍고 뒤틀리지 않는 다름나무로 만들었으
며 비상용 짊세기를 가지고 다녔다 합니다.

출연자 : ○ 계속 소리를 주고 받으며 선질꾼은 목발을 지게

작대기로 치며 가다가 령(嶺)을 넘을때는 수건으로 땀을 닦기도 하고 수건을 관중에게 흔들어 주면서 소리를 한다.

- 농악은 장구만 약하게 쳐준다.(출상길에 소리를 할 때)

해설자 : 당시 인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넘어 오가는 지금의 미시령밑에 ‘샛령’과 지금의 기린면 진동리 설피밭을 지나 단목령(박달령) 또는 조침령을 넘어 오색으로 내려가 양양을 다녔다고 합니다. 또한 선질꾼은 7명에서부터 많게는 20명까지 조를 짜서 다녔다고 합니다. 당시 선질꾼들은 가다가 힘이들면 쉬어 갔다는데 쉴때는 지게를 벗지않고 선채로 쉬었다고 합니다.

● 제2과장 주막에서 한마당놀이

- 출연자 : ○ 주막집 아낙네는 선질꾼에게 막걸리를 바가지로 퍼서 건네주면서 갇은 애교를 부리며 춤을 춘다.
- 선질꾼들은 주모가 건네주는 술을 마시며 취중에 젖은 모습으로 신나게 춤을 추며 돌아간다.
 - 농악은 신나게 계속 쳐준다.
 - 이때 기수와 물상객주도 춤의 율동으로 움직인다.
 - 약 5분간 놀다가 농악은 멈춘다.
 - 선소리꾼은 주막집에서 농악이 멈추게되면 “자! 날이 샳으니 다시 떠나보세”하면 선질꾼은 “네” 하고 대답하며 지게를 다시 진다.

- 선소리꾼은 다시 소리를 주며 선질꾼은 후소리를 받으며 지게작대기로 목발을 치면서 떠나간다.
- 주모는 잘다녀 오라고 손을 흔들어 주며 선질꾼도 주모에게 잘있으라고 손을 흔들어 준다.
- 이때 농악은 장구만 약하게 쳐준다.
- 선소리꾼과 선질꾼은 계속 소리를 하면서 영동시장까지 온다.
- 영동물상 시장에 다 도착하게 되면 선소리꾼은 소리를 멈추고 “자! 이제 영동시장에 다 왔으니 짐을 풀고 장을 보세”하면 선질꾼들은 지게를 내려놓고 짐을내려 놓는다.
- 이때 농악은 신나게 쳐준다.

해설자 : 이제 선질꾼은 인제 원통물상 시장에서 출발하여 주막집에서 1박하고 영동물상 시장에 도착을하여 지게로 가지고 온 곡물을 어물과 교환하고 있습니다. 어물종류로는 대게 고등어·미역·소금 등 이었다고 합니다.

● 제3과장 영동물상 장보기

- 출연자 :
- 선질꾼들은 영동물상 시장에서 물상객주와 가지고 간 곡물과 어물을 바꾸어 지게에 짊어 놓는다.
 - 선소리꾼은 선질꾼이 지게에 어물을 다 짊어 놓았으면 확인을 하고 농악을 멈추게 한다(농악은 멈춘다).
 - 이어서 장타령을 부른다. 물론 선소리와 후소리

를 받으며 이어진다.

- 이때 농악은 장구만 약하게 쳐준다.
- 장타령이 끝나면 선소리꾼은 다시 “자! 이제 영동장을 다 보았으니 집으로 떠나가 보세”하면 선질꾼은 일제히 “네”하고 지계를 진다.
- 다음 선소리꾼은 소리를 주며 선질꾼은 후소리를 받으며 지계작대기로 지계목발을 치면서 장단에 맞추어 귀가길에 오른다.
- 이때 영동물상 객주는 잘가라고 선질꾼들에게 손을 흔들어 준다. 선질꾼들도 물상객주에게 잘있으라고 선질꾼들에게 손을 흔들어 준다.
- 이때 농악은 장구만 약하게 쳐준다.
- 선질꾼이 다시 주막집에 도착하게 되면 선질꾼은 “힘도들고 배도 고프니 잠시 잠깐 쉬었다가세”하면 선질꾼은 “네”하고 일제히 지계를 벗어 놓는다.
- 선질꾼은 수건으로 땀도 닦고 웃저고리도 벗어놓고 담배도 피운다.
- 아낙네는 바가지에다 막걸리를 퍼서 선질꾼에게 준다.
- 이때 농악은 신나게 쳐준다.
- 선질꾼은 농악에 맞추어 신나게 쳐준다.

해설자 : 이제 선질꾼들은 영동물상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힘도들고 배도 고파서 잠깐 주막집에 들러 쉬어가면서 밥도먹고 술도 마시는 과정입니다. 당시에 눈이 많이 올때는 길이 막혀서 3~5일씩 주막에서 묵어 다녔다고 합니다.

- 출연자 : ○ 선소리꾼은 한참 놀다가 시간이 약 5분간 흐르면 농악을 멈추게 한다.
- 농악은 멈춘다.
 - 선소리꾼은 “자! 이제 집으로 떠나가 보세”하면 선질꾼은 “네”하고 다시 지계를 걸머친다.
 - 선소리꾼은 소리를 주고 선질꾼은 후소리를 받으며 지계작대기로 목발을 치면서 계속 원통물상 시장까지 온다.
 - 령을 넘을때는 관중에게 손을 흔들어 준다.
 - 이때 농악은 장구만 약하게 쳐준다.

● 제4과장 원통물상 시장보기

- 출연자 : ○ 선질꾼은 원통물상 시장에 선질꾼들이 도착하게 되면 소리를 멈춘다.
- 이때 농악은 신나게 울려준다.
 - 선질꾼들은 지계를 벗어 놓는다.
 - 물상객주와 선질꾼의 흥정 가운데 장사가 이루어진다.

해설자 : 이제 선질꾼들은 영동에서 가지고 온 어물들을 원통 시장에서 물상객주와 흥정을 하며 사고파는 과정입니다. 당시에 원통시장에서 사고 판어물들은 우마차에 실려 홍천·양구를 거쳐 춘천과 서울로 운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원통물상 시장은 영서지방의 물물교역장 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 출연자 : ○ 잠시있다 선소리꾼은 농악을 멈추게 한다. (농악은 멈춘다)
- 물상객주와 선질꾼의 흥정이 끝나면 물상객주는 선질꾼 대표에게 돈을 건네준다.
 - 선질꾼은 돈을 건네받으며 일제히 고맙다고 인사하며 “야!”하고 소리를 친다.

● 제5과장 한마당놀이

- 출연자 : ○ 농악대는 농악을 크게 신나게 쳐주며 중앙으로 온다.
- 선질꾼·기수·아낙네·물상객주 등 모두 중앙으로 농악소리에 맞추어 온다.
 - 중앙에 출연자가 모이게 되면 농악은 쇠를 꺾어 다른 장단으로 신나게 쳐주며 빙빙돈다.
 - 출연자는 농악장단에 계속 맞추어 농악대를 따라 돌며 신나게 춤을 추고 또한 이때 “야!”하고 함께 합성을 지른다.
 - 이때 각자 소품은 소지하여야 한다.
 - 약 5분간 계속 돌다가 농악이 선두로 원을 크게 그리며 빠진다.
 - 출연자는 농악의 후미를 따라 원을 그리며 춤과 함께 돈다.
 - 출연자는 원을 그려 간격을 맞추고 정돈이 다 되었으면 소품을 중앙 방향으로 내려 놓는다.
 - 상쇠는 농악을 멈추게 한다.
 - 출연자는 이때 사방으로 관중을 향해 서 있다.

- 다음 징잡이는 징을 올려준다.
- 출연자는 모두 엎드려 인사를 한다.

해설자 : 관중에게 많은 박수를 청한다.

- 출연자 : ○ 징잡이는 다시 징을 쳐준다.
- 출연자는 모두 일어나서 소품을 소지한다.
 - 농악은 앞에서 리드하여 기수를 선수로 퇴장한다.

■ 바지게선질꾼 소리

▶ 선소리 지도 : 박 해 순

여기메가	어디메뇨	두메산골	인제로다
옛날옛날	아주옛날	첩첩산중	인제에선
산을넘고	영을넘어	원통장을	보았는데
넘어갈땐	곡물이요	넘어올땐	어물이라
인제땅의	원통장에	물상객주	영감님은
바지게꾼	모여놓고	곡물자루	나눠주고
산을넘고	영을넘어	영동장을	보라하네
가련하다	가련하다	바지게로	짐을져서
세상살이	살아가는	우리신세	가련하다
먹을것을	얻기위해	입을것을	찾기위해
짐을져서	살아가는	우리신세	가련하다
다람나무	바지게에	김서방은	콩자루요
이서방은	팔자루라	두태류를	끓어지고
원통장을	출발할때	머리수건	동겨매고

물상객주	영감님께	인사하고	출발하네
산을넘고	물을건너	귀둔골을	지나면서
잠시잠깐	쉬었다가	다시또한	출발하네
곰배령과	조침령을	단 숨 에	넘고넘어
배 판리를	지나가네	삼거리에	도달하니
주막집이	보이누나	잠깐쉬어	땀을닦고
점심참을	요기하니	배부르고	등따시네
내갈길이	멀고멀어	잠시쉬고	다시가네
넷가지나	골을지나	소길따라	다시가네
박달령의	정상위에	바지계를	걸터놓고
수건벗어	땀을닦고	저고리끈	풀어놓고
곰방담배	한대피고	쉬었다가	다시가네

내갈길이	멀다하여	앞사람은	빨리가고
뒷사람은	성큼성큼	발 길 을	재촉하네
가다보면	영이있고	가다보면	넷가있네
오색영을	넘고넘어	서루재를	지나오니
양양장이	보이누나	가세가세	어서가세
양양장에	도착하니	물상객주	영감님은
어서반겨	맞아주네	콩자루와	팔자루를
바지게서	풀어놓고	영감님과	홍정하세
검은콩은	약콩이요	하얀콩은	메주콩이다
적두팔은	약팔이요	하얀팔은	떡속감이다
검은콩은	명태와 바꾸고	하얀콩은	미역과
적두팔은	소금과 바꾸고	하얀팔은	고등어산다
얼씨구좋다	곡물이요	절씨구좋다	어물이다

물물교환
한잔하세

다해노니
춤추세

장을잘봐
홍타령에

기분좋네
젖어보세

가세가세
양양장을
어서빨리
가세가세
서루재를
내를건너
박달령에
하얀연기
박서방의
그소리를
첩첩산중
비둑비둑
바지계꾼
장가한번
박달령을
서한해가
배가고파
주막집의
물장구에
한잔두잔
세잔네잔
노자노자
흘러흘러

원통장으로
보고나니
집에가서
오던길로
넘고지나
영을넘어
다시올라
풍기면서
한탄소리
들오보소
소쩍새는
비들기도
이내몸은
못가보고
지나내려
저물어서
짐을풀고
설화아낙네
소리주며
들고나니
들고나니
젊어노자
가는세월

가세
바지계엔
원통장에
어서빨리
오색령을
산길따라
바지계를
담배한대
절로절로
애절하기
님을찾아
그누구를
사십평생
세월세월
삼거리에
주막집에
밥을먹고
술타령을
술타령을
홍타령이
내일일이
늪어지면
즐거웁게

어물이듬뿍
짐을푸세
다시가세
넘고지나
어서가세
걸터놓고
파울적에
나울적에
짜이없네
울고있네
슬피찾네
지나도록
다보냈네
도착하니
머물렀네
누었는데
하자하네
하자하네
절로나네
걱정없네
못노나니
놀다가세

얼싸좋다 소리하며 절싸좋다 춤을추세

가세가세	원통장으로	가세	
날도밝고	갈길머니	어서빨리	떠나보세
다람나무	바지게에	어물들을	다시지고
주막집을	떠날적에	주막집에	아낙네는
생긋생긋	웃으면서	잘가라고	손짓하네
어제밤의	술타령은	물위에 뜬	거품이요
어제밤의	홍타령은	이른아침	이슬이라
짚신끈을	질끈매고	머리수건	동겨매고
산길따라	꼬불꼬불	오던길로	다시가세
삼거리지나	영을넘고	강을건너	오다보니
곰배령을	다왔구나	우리모두	쉬어가세
김서방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이서방의	중이적삼	땀방울에	다젖었네
가세가세	원통장으로	가세	
잠깐쉬었다	다시가세	원통장으로	다시가세
바쁜걸음	건다보니	원통장에	다왔구나
물상객주	영감님은	우리들을	반겨주네

출 연 자

- 출연인원 : 50명 (남 44명 / 여 6명)
- 조 사 : 이만철(인제문화원 사무국장)
- 연출지도 : 이만철(인제문화원 사무국장)
- 소리지도 : 박해순(인제향토민속 보존회장)

성 명	배 역	성 명	배 역	성 명	배 역
박해순	선 소 리	이상주	농 악	김범수	지 게 꾀
이봉한	후 소 리	박재승	농 악	박공모	지 게 꾀
윤오병	큰 기 수	남궁작	농 악	김송자	지 게 꾀
선순영	작은기수	이만석	농 악	주영숙	지 게 꾀
동상인	작은기수	김은숙	농 악	김옥영	지 게 꾀
심한오	물상객주	육영숙	농 악	조춘자	지 게 꾀
최영순	물상객주	한상열	지 게 꾀	장옥순	지 게 꾀
김유근	서 기	이종명	지 게 꾀	이정순	지 게 꾀
최명수	서 기	함태석	지 게 꾀	남영숙	지 게 꾀
박춘매	아 낙 네	이덕환	지 게 꾀	심순옥	지 게 꾀
최필녀	아 낙 네	안내선	지 게 꾀	한명여	지 게 꾀
허봉애	아 낙 네	조성구	지 게 꾀	김기수	지 게 꾀
전옥련	아 낙 네	김기석	지 게 꾀	이옥선	지 게 꾀
김상혁	농 악	허만영	지 게 꾀	장순자	지 게 꾀
조해수	농 악	김용수	지 게 꾀	이하남	지 게 꾀
이주은	농 악	유대봉	지 게 꾀	김인자	지 게 꾀
이만석	농 악	강창복	지 게 꾀		

※ 1993년 9월 16일부터 17일간에 삼척에서 민속경연대회가 개최되었을 때 출연했던 명단임

7. 결 론

우리 고장 인제의 민속사를 수집조사 정리하여 재현하고 또한 기록으로 남겨 전승 보존하게 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큰 과제라는 것은 누누히 말을 함으로써 누구나 잘 알고 있으라 믿는다.

그러나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정리하여 재현하기란 그리 쉬운일은 아니다. 그러기전에 이러한 자료를 발굴하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지역마다 몇사람이나 될까 의문부터 들게된다. 필자는 비록 이고장 인제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기에 우리 고장 인제의 민속에 관하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사료집도 편찬해보고 민속사 재현에도 시나리오로 틀을짜서 인력을 동원하여 재현하는데 이과정 저과정 고쳐가며 연출지도를 몇 년째 해 왔지만 과연 이러한 일에 동참을 해 주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았던 점에 매우 아쉬움이 있다고 본다.

우리 고장의 민속사란 우리 조상님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어떠한 지혜로 살아왔는지 그 숨결이 담겨있는 뿌리인 것이다.

이러한 민속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후대에 전승시켜 시대적 생활상을 계속 보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말하면서 지나간 패쾌한 일을 밝히는 일보다는 눈 앞에 떨어져 언는 일에 더욱 관심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동참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민속경연대회에 출연하기 위하여는 약 15일 이상의 연습을 하게 되는데 매년 출연에 필요한 인원이 50명 이상이 동원되어야 함에도 평균연습을 할 때는 정원 절반의 인원으

로 연습을 하게 되고 대회에 나갈 때 임박해서야 억지로 인원을 맞추게 된다. 이때 집행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은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경연대회에 출연하는 것을 위주로 민속사를 발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고장의 민속사를 널리 알리고 기록 보존하고 전승하는 사업의 일환이기에 필자는 꼭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풍성한 민속문화를 함께 공유하면서 그 정체성을 밝히고 원형을 보존하여 후대에 계 전승시켜 주는데 단절되지 않도록 공동체의식을 누구나 함께 갖자는데 깊은 뜻을 갖고 또한 글을 읽는 이로하여금 꼭 그렇게 의식을 갖으리라 기대하고자 한다.

麟蹄生業民俗史研究

인제 다릿골 무쇠점간 民俗史



麟蹄生業民俗史研究

— 인제 다릿골 무쇠점간 民俗史 —

麟蹄郷土史研究所

研究員 李 萬 喆

〈目次〉

- | | |
|-----------------|----------------------|
| 1. 머리말 | 4. 무쇠점간의 인적구성 |
| 2. 다릿골 무쇠점간 민속사 | 5. 인제 다릿골 무쇠점간 발굴 재현 |
| 3. 무쇠점간의 구성 | |

1. 머리말

사람이 집단을 이루고 살아왔던 곳의 민속사는 그 방법과 모양 그리고 형태는 비록 모두 다르지만 주위의 환경과 자연 조건이 비슷한 곳의 삶의 생활법은 거의 같다.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무쇠점간 민속사 또한 우리 고장에서만 이루어졌던 민속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쇠돌 <철광석>이 나는 고장에서는 쇠를 녹여 그 무엇인가 생산품을 만들어 당시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도구·용기, 기구등을 만드는 슬기로운 지혜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철광석을 녹이는 무쇠점간 역시 전국 어디서나 이

루어 졌었지만 특히 우리 고장 남면 신남리에서 예전에 무쇠점간이 이루어져 발을 가는 보습과 무쇠술을 만들었기에 이미 이 민속사에 관심을 가지고 발굴한바 있으며 이러한 우리 고장 옛 선인들의 민속사를 한 권의 책으로 편간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데 무쇠점간 민속사도 예외가 아니기에 본문에서 다루어 취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펜을 들고 원고를 집필하려고 하였지만 무쇠점간의 민속사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불충분하기에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이슈가 된다. 그러나 어느것 하나라도 우리 고장 민속사는 게을리지 않고 좀더 그 자료를 수집하여 취합하고자 하는 의욕과 욕심이 앞서기에 그간 나름대로 모아 놓은 자료를 보충하여 본 자료집에 편집을 하고자 한다.

본문의 내용이 미흡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보충하여 기록할 부분이 필요하면 다음 기회에 보충하여 발간하고자 하오니 요인되는 원고를 제공하여 주심을 기대한다.

2. 다릿골 무쇠점간 민속사

1) 인제의 자연환경과 배경

우리 인제군은 산이 많고 특히 바위와 돌이 많은 지역으로 옛부터 우리 선인들은 그 산림자원을 이용하며 생활을 영유했은 지혜의 고장이다.

따라서 우리 인제군은 그 어느 지역보다 산림문화의 발전을 지속시켜 왔으며 그 대표적인 예는 민속생활사를 발굴하여 매년 개최되는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연한 인제

뗏목/숯습기/심메마니/개운동 배만들기/갈이남박만들기/채독만들기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우리 고장의 민속사로 특히 선인들이 삶을 영유한 것은 그 무엇보다 산이 많은 가운데 그속에서 임산자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자연환경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에따라 바닷가에서는 어촌문화가 발달하였을 것이고 농경지가 많은 곳에서는 농경문화가 그 어느 곳보다 발달하였을 것이고 넓은 평야지대에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여 온 것이 민속사의 공통점인 것이다.

이러한 자연적인 조건의 환경에따라 우리 고장 인제에서는 또 하나의 자원으로 철광석이 나오는 곳이 있었으며 또한 인근지역인 홍천군 두촌에서 철광석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우리 인제군 북면 월학리 구미동 마을 뒷산 계곡에서 철광석이 나왔고 서화면 서흥리에 무쇠점간이 있었다.

이러한 자원으로 무쇠점간을 마련하여 철광석을 녹여 생활에 필요한 농기구와 무쇠솥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데는 주위의 자연환경이 따르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2) 다릿골 무쇠점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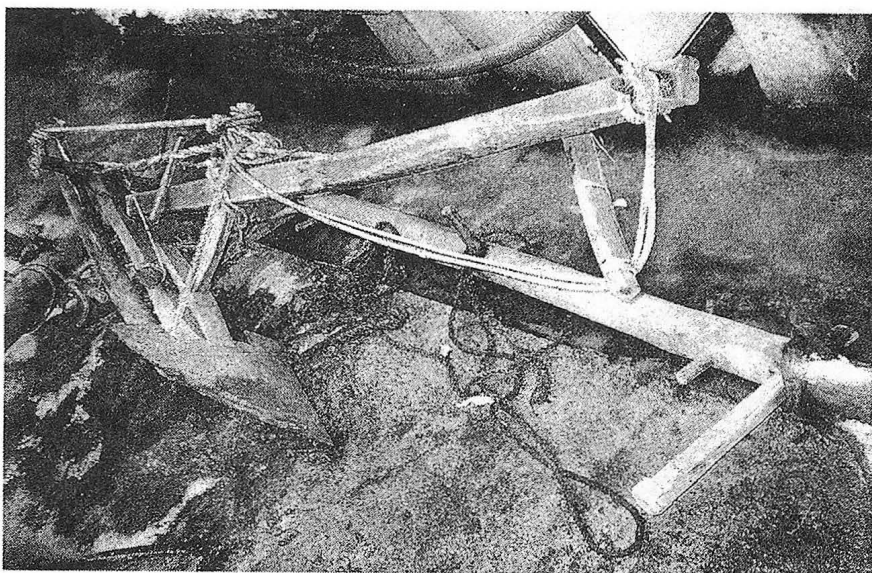
인제군 남면 신남리 북쪽 일부 마을을 자연명으로 “다릿골”이라고 불렀었다. 그 지명은 마을 어귀에 큰 다리가 있어 다릿골이라고 불렀다 한다.

바로 이 다릿골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60여년전에 무쇠점간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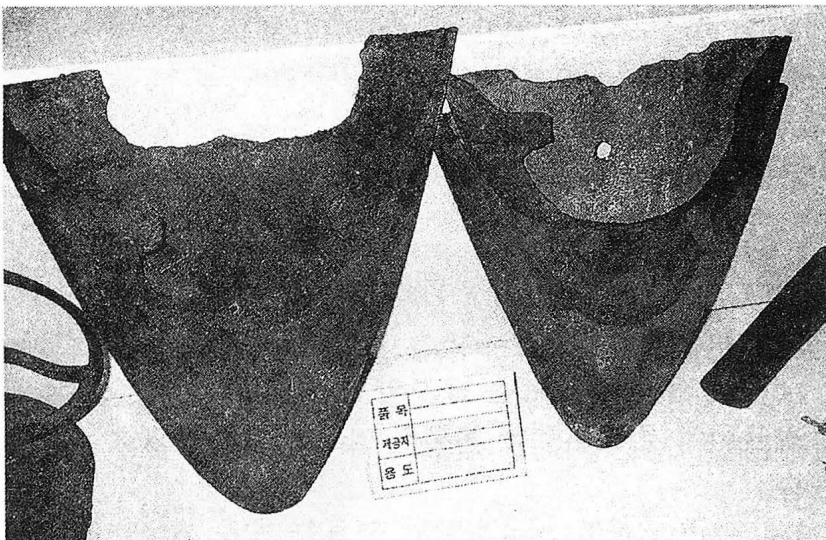
이 무쇠점간에서는 홍천군 두촌에서 또는 인제군 북면 월

학리 구미동 마을 뒷산에서 나오는 철광석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데 소를 이용하여 논과 밭을 가는데 쓰이는 보습과 밭을 짓는데 쓰이는 무쇠술 또는 가마술을 만들었다고 한다. 또한 이렇게 쇠돌(철광석)을 녹여 농기구와 생활용 기구를 만드는 곳을 점간(즘간) 또는 무쇠점간(무쇠즘간)이라 하였다고 당시에 이 다릿골에서 일해왔던 남면 신남2리에 살고 있는 김학수(79세)씨는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다.

인제군 남면 다릿골 무쇠점간 민속사는 우리 선인들의 지혜와 애환이 가득 담긴 매우 중요시되는 민속사중의 하나이기에 우리 고장의 옛 민속사를 집필하고자 하는 본문에 그 내용을 담고자 한다.



— 연장에 맞추어진 보습 —



- 보 습 -

3) 고증을 해 주신분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연하기 위하여 '88년도와 '94년도 그리고 '95년도에 다릿골 무쇠점간 민속사를 발굴한바 있고 또한 이에따라 '88년도에는 영월군에서 '94년도에는 태백시에서 '95년도에는 속초 공설운동장에서 재현한바 있다. 다릿골 무쇠점간 민속사를 발굴하는데 당시에 무쇠점간 생활에 종사하였던 분들의 고증인으로는 다음과 같다.

▶ 고 증 인

인제군 남면 신남2리 김학수(79세)

인제군 남면 신남2리 최경선(80세)

인제군 남면 신남2리 조만환(78세)

인제군 남면 신남2리 최광철(69세)

3. 무쇠점간의 구성

1) 풀 무 (풍구)

쇳돌(철광석)를 불에 달구어 녹이기위함과 보습을 무쇠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의 열이 필요한데 풀무(풍구)를 사용하여 송풍을 하면 화덕의 연료가 타면서 높은 열을 내게된다.

인제 다릿골에서 사용되었던 연료는 주로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었던 숯을 썼다고 한다. 풀무(풍구)는 여러사람이 양쪽으로 올라가 밟으면 강한 송풍을 낼 수 있어 그 열은 대단한 고성능이었다한다.

풀무의 구조는 길이가 20자 넓이는 4자 높이는 3자 정도의 긴 육면체로 양쪽 끝은 높고 가운데가 낮아서 양쪽에 6~8명씩 올라가 널판을 바람을 일으켜 그바람이 가운데 있는 간압선을 통해 화독으로 들어가게 된다. 또한 풀무의 양쪽에는 펄때기라는 판자가 있어 한쪽에서 밟을때는 다른 한쪽의 펄때기로 바람이 들어가게 해주고 다른쪽의 펄때기는 바람이 새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옆으로 바람이 새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풍구통(풀무) 밖에는 돌과 진흙으로 담을 쌓고 위에 나뭇지에는 쇠뚝을 발랐다고 한다.

간압선을 통해 송풍되는 바람은 숯이 잘 피워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사용되었던 숯은 백탄만 사용하였다고 한다. 백탄의 특징은 검탄에 비해 열량이 높고 쇳소가 나뭇가

스가 없다고 한다.

2) 화 덕

화덕을 일명 뚝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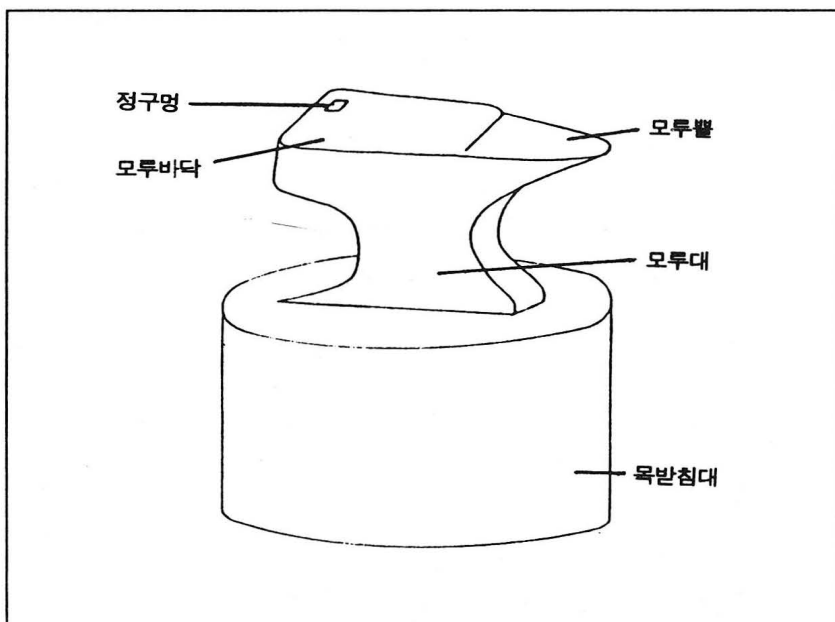
화덕은 쇠를 달구는 화로 역할을 하는 시설물로써 진흙을 이겨 적당한 돌과 함께 쌓아 발라가며 만든다. 둥글게 원형으로 쌓아올리다 사람이 작업하는데 마침맞게 허리높이 쪼매 쇠를 달굴 수 있도록 불을 피우는 화구를 만들고 그 위로 좁게 쌓아 올리면서 굴뚝을 만들어 연기나 가스가 점간 밖으로 빠져 나가도록 장치를 한다. 화구에 숯을 피우기 위해 풀무에서 화독의 속을 통해 화구까지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통로를 장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쇠를 달구고 녹일때에는 풀무에 올라가 양쪽에서 밟으면 간압선을 통하여 송풍되는 바람이 선을 타고 들어가 화독의 화구에서 숯을 피우게 된다.

3) 모 루

모루란 화덕의 화구에서 숯불에 의해 달군쇠를 두들길 수 있는 받침의 철판을 말한다. 모루는 화구의 앞에 의하여 놓아져 달군쇠를 식기전에 빨리 두들길 수 있도록 하게하며 높이는 화구의 놀이와 같게 설치한다. 모루를 고정시키며 움직이지 않도록 모루밑에 굵은 통나무를 받쳐 단단히 고정시킨다. 모루는 원통형과 삼각형의 모루가 있으며 대부분 삼각형 모루를 사용하였는데 모루의 한쪽 끝에 뾰족한 뿔처럼 생긴부분이 있고 구멍이 뚫린 곳이 있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 모루의 각 부분 명칭 -

4) 집 게

집게는 화구에서 달구어진 쇠를 모루까지 옮기는데 집는 것이며 또한 달구어진 쇠를 모루위에 집어서 다루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집게는 다루고자 하는 쇠의 두께나 길이 등에 따라 쓰이는 종류가 많으므로 점간에서는 평균 20~40가지의 집게가 있었다 한다.

여러 가지 집게의 공통점은 자루가 길다는 것이다. 이것은 화구에서 쇠를 집어서 모루로 옮기는데 그 강한열에 손과 몸

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예전에 가장 많이 쓰여졌던 집계로는 끝이긴 일자집계와 끝이 동그란 방울집계를 많이 사용하였다고 한다.

5) 메 (망치)

달구어진 쇠를 집계로 집어서 모루위에 얹어 놓고 두들기는데 메(망치)가 역할을 하게 된다. 메는 대·중·소로 나누어지는데 대장장이(편수)가 달구어진 쇠를 집계로 집고 모루채로 메질꾼들이 두들겨야 할 부분을 먼저 두들겨 준다. 이때 대장장이(편수) 매질꾼들 사이에 호흡이 맞아서 일사불란하게 두들겨야 능률도 오르고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오랫동안 메질을 해 본 사람이라면 편수와 매질꾼 사이에 호흡이 저절로 맞아서 세사람이면 3박자로 네사람이면 4박자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두들긴다. 작두나 곡괭이 또는 팽이 같은 것을 만드는 비교적 큰 쇠를 다룰때에는 큰 망치를 사용하며 칼이나 낫 등 좀 작은 기구를 만들때는 중간망치로 두들긴다. 마지막으로 호미의 날이나 칼날 등 이들을 나무자루에 끼우는 슴배 부분을 만들때는 작은망치로 대장이 두들겨 만든다.

4. 무쇠점간의 인적구성

무쇠점간에서 철광석을 녹이고 또한 보습과 무쇠술 등을 만드는데는 여러사람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인적구성으로 대장장이(편수), 매질꾼, 풍구질꾼 그외 잔심부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쇠점간 주인은 이러한 인적자원을 항시 고정되게 거느리고 있으며 일하는 사람들도 각자 점간주인에게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항시 부탁을 한다고 한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점간에서 벌어야 한다는 관념 때문이다. 그러면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소개 해보고자 한다.

① 대장장이 (편수)

무쇠점간에서 기술이 가장 뛰어나 철광석을 녹일 때 주관 일을 맡으며 특히 보습과 무쇠술을 만들 때 기술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시말해서 화독앞에서 철을 녹여서 쇳물을 보습과 무쇠술 가다(틀)에 넣어 제품을 만들 때 가장 머리를 써가며 풍구질꾼, 매질꾼, 쇳물나르는 사람 그외 잡부들을 적절하게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② 매질꾼

보습과 무쇠술같은 가다(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그외 모루에 달군쇠를 얹어놓고 망치로 두들겨서 제품을 만들 때 망치(매질)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무쇠점간에서는 가다(틀)에다 쇳물을 부어 식은 다음 제품이 나오는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질꾼은 그리 필요치 않다고 한다.

③ 풀무꾼

무쇠점간 풀무질꾼은 밝는 풍구(풀무)이기 때문에 여러명

으로 한다.

풀무위에 양쪽으로 갈게 올라가 풀무를 밟게 되는데 보통 한쪽에 4~6명이 올라간다. 물론 사람이 적을때는 2~3명씩 올라가 밟게되는데 이때에는 풍구를 밟을 때 매우 힘들게 된다고 한다.

풍구질꾼은 완전히 노동이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한참을 밟게되면 몸에서 땀방울이 비오듯 떨어진다고 한다. 이때에는 옷저고리를 벗어 버리고 바지가락은 접어 치켜 올리고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밟아가는데 양쪽에서 풍구(풀무) 소리를 맞추어 밟으면 힘이 들 든다고하여 이들은 항상 풀무를 밟을 때에는 풀무질 소리를 하였다고 한다.

④ 잡 부

점간에서 일을 한 경력이 제일 적은 사람으로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이것저것 잡일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점간 주인이 편의대로 이것저것 잔일을 시키면 마다하지 않고 말을 들어 일을 하게 된다.

즉, 잔심부름까지도 맡아 하는 역할을 한다.

5. 인제 다릿골 무쇠점간 발굴재현

인제 다릿골 무쇠점간 발굴재현은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연하기 위하여 1988년도와 1994년도 그리고 1995년도에 발굴하여 재현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고장에서 예전에 이루어졌던 민속사이기에 중요시하여 당시에 무쇠점간에서 직접 종사하였던 원로 노인네들을 찾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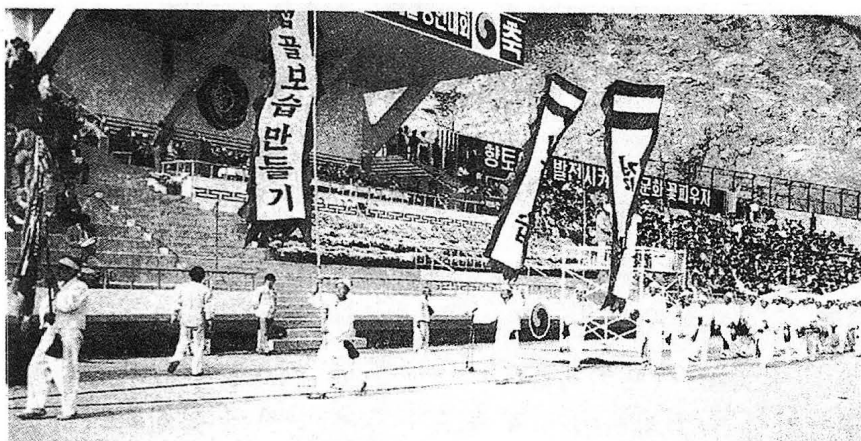
을 받고 다시 감수를 거듭하면서 발굴을하여 재현하였다. 이렇게 3년을 경연대회에 출연하게 됨으로 무쇠점간 민속사는 널리 알리게 되었으며 그 기록으로 보존 전승케 되었다. 아울러 금번 민속사료집을 발간하는데 예외가 아닌 민속사이기에 그 내용을 수록하고자 한다.

이에 1995년도에 속초 공설운동장에서 재현한 시나리오를 열거해 본다.

출 연 과 장 순 서

■ 입장과 인사

기수를 선두로하여 점간주인, 물상객주, 농악대 기타 출연자 순으로 농악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며 입장하여 3줄로 입정한 후 농악의 신호에 따라 소품을 내려놓고 좌.우.전.후 스탠드를 향하여 인사를 한다.



경연대회에서 입장하는 모습

● 제1과장 : 고철수집

농악대는 후미로 가서 농악을 울려주고 엇장수는 앞으로 나와 가위질을 계속하며 엇을 팔고 또한 점간주인과 대저울 끈도 앞으로 나와 춤을 추며 좌, 우 및 후미에 있는 나머지 출연진도 농악에 맞추어 계속 춤을 춘다.

다시 농악이 약하게 울리면 대저울로 고철을 달아 점간주인에게 넘긴다.



철광석을 캐는 경연 모습

● 제2과장 : 독제사

먼저 집사가 점간의 독앞에 자리를 깔고 상위에 제물을 차려놓으면 점간주인이 술을 한 잔 부어놓고 배례를 한다음 앉

아있는 사이에 비수안은 옆에 앉아 비문을 읽는다. 이때 출연자 모두는 무릎을 꿇고 앉는다.

비문을 다 읽은 후 점간주인은 배례를 하고 잔을 들어 독과 풍구의 군데군데에 술을 조금씩 붓는다.



경연에서 독제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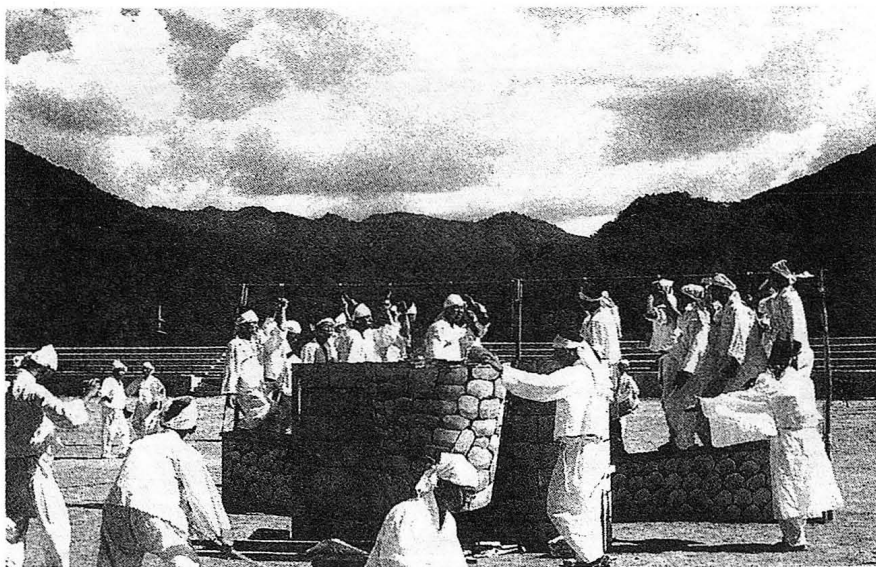
● 제3과장 : 풍구질과 씻물놀이

농악은 약하게 쳐주고 풍구질꾼은 풍구에 올라가 선소리에 맞추어 후렴을 받으며 풍구질을 한다. 화부는 불을 계속 살피며 피우면서 점간주인은 “불어, 불어”라고 소리를 외치며 힘을 북돋는다. 한참동안 풍구질을 하다가 선소리꾼이 잠시 쉬었다 하자고 하면 농악은 크게 올려주고 아낙네는 술과 안주를 가지고 앞으로 나오고 풍구질꾼은 아낙네의 술과 안주를 받아

먹으며 윗저고리를 일부 벗으며 쉰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풍구질꾼은 풍구틀로 가고 아낙네도 제자리로 간다.

다시 농악은 멈추고 선소리꾼은 풍구질 노래를 계속하며 풍구질꾼은 후렴을 받으며 풍구질을 계속한다. 한편에서는 씻물을 받아다가 무쇠솥과 보습 형틀에 쏟아 붓는다.



경연에서 풍구질 하는 모습

● 제4과장 : 가마솥 보습만들기와 판매

풍구질을 계속하는 가운데 씻물을 가마솥과 보습덩이(모형틀)에 가져다 붓다가 풍구질꾼은 풍구틀에서 내려와 풍구틀을 원을 그려 돌면서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춘다. 농악이 다시 약하게 멈추는 사이에 풍구질꾼은 그 자리에 앉아 쉬고 씻물 운반

인과 점간주인이 가마솔과 보습덩이에서 제품을 떼어 놓는다.

이때 점간주인은 제품을 만져 높이 들고는 잘 만들어졌다고 소리를 친다.

제품을 모형틀에서 다 떼어 놓으면 물상개주는 지계꾼 10명을 데리고 점간주인에게 가서 가마솔과 보습을 사가지고 지계꾼과 더불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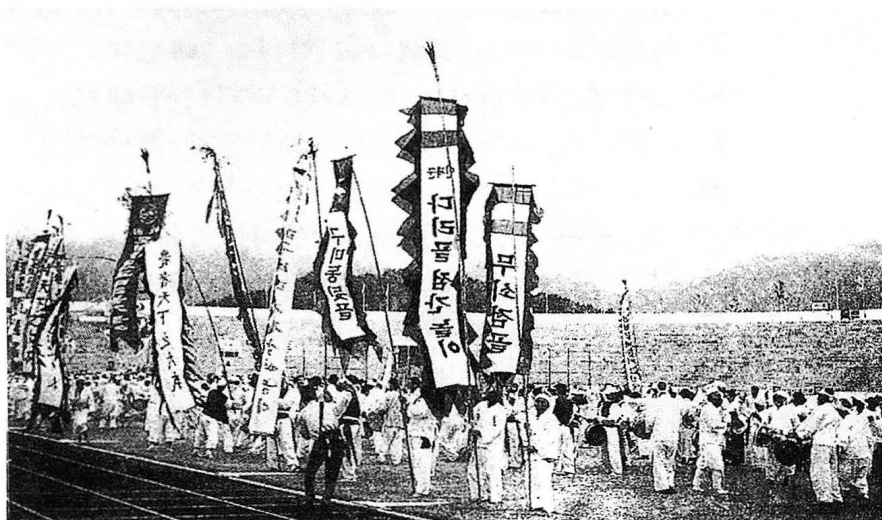
경연에서 한마당 놀이 모습

● 제5과장 : 한마당놀이

출연자 모두는 가벼운 소품을 가지고 중앙의 기수를 중심으로 원을그려 돌면서 춤을 춘다. 농악은 좌·우·전·후를 돌면서 흥겹게 크게 올려준다.

한참동안 한마당놀이를 하다가 기수를 선두로 농악대 등

모두가 줄을이어 원을 그리며 다시 징소리가 나면 관중에게
넙죽 절을 하고 다시 징소리에 맞추어 일어나서 줄을 지어 춤
을추며 퇴장한다.



■ 입 장 해 설

해설자 : 지금부터 인제군에서 출연하는 『인제 다릿골 점간』
의 원형을 놀이화하여 재현해 보이겠습니다.

인제군 남면 신남리를 옛부터 다릿골이라 하였으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전에 점간이 있었고 이 점간
에서 농사를 지을 때 밭을가는 보습과 밭을 지을 때
쓰는 무쇠술과 가마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점간주인은 생활의 수단으로 인근에서 사람을 얻어
풍구질과 가마술과 보습을 만드는 힘든 일을 하며
생활을 영유하였다고 하며 아울러 풍구질꾼과 제품

을 만드는 인근 사람들도 이 점간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모두가 살기어려운 시절이었고 무쇠점간 일이란 매우 힘들고 고된 일이기에 서로가 신뢰와 정을 쌓으며 서로의 고통을 달랬다고 합니다. 배고프고 힘들 때면 운명을 한탄하며 한 잔의 막걸리에 애환이 깃든 노래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가며 한많은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습은 인제 지역은 물론 인근 양구와 홍천지역까지 널리 알려져 이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선인들이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점간일을 술한 애환속에서도 버리지 않고 삶의 수단으로 여겨왔던 시절을 생각하며 당시 직접 무쇠점간 일에 종사하였던 노인분들의 생생한 고증을 받고 자료를 수집하여 오늘의 민속놀이를 재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발굴목적은 민족예술면을 초점을 맞추었다가 보다 그 당시의 생활사를 후손에게 알리고 전승 본존시키는데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출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점간에서 종사하였던 어른을 위시하여 이 지역주민 57명으로 구성되어 재현하고 있습니다.

● 입장과 인사

출연자 : · 큰기수(다릿골 점간놀이)를 선두로하여 3줄로 입장하며 양옆으로는 풍구질꾼과 옛장수, 아낙네 순으로 19명씩 입장하고 가운데 줄에는 점간주인,

농악대, 화부, 쇧물운반인, 물상객주 순으로 19명이 입장한다.

- 입장할 때 농악대는 농악을 경쾌하게 울려주며 출연자 전원은 농악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동작을 맞추고 춤을 추며 입장한다. 또한 간단한 소품은 입장할 때 가지고 들어간다.
- 큰기수는 맨앞에 자리를 잡고 출연자 전원은 간격을 3줄로 맞춘다음 소품을 옆에다 자연스럽게 내려 놓는다.
- 상쇠는 출연자가 간격을 맞추어 소품을 다 내려 놓는 것을 확인한 후 농악을 멈추게 한다.
- 출연자는 좌·우·전·후로 앞의 관객을 보고 돌아선다.
- 이때 징잡이는 징을 크게 울려주며 출연자 모두는 징소리에 맞추어 무릎을 꿇고 넙죽 엎드려 관중에게 인사를 한다.
- 조금후 징잡이는 다시한 번 징을 울려주고 출연자 모두는 징소리와 함께 인사를 마치고 일어서며 각자 내려놓은 소품을 소지한다.
- 농악이 다시 울려주면 출연자는 각자 다음 과장 연출자리로 간다.

● 제1과장 고철수집

농악이 잠깐 멈춘다음 선소리꾼이 “자!, 우리모두 고철을 수집하러 가세”라고 하면 출연자 모두는 “예”하고 크게 대답한다.

- 이어서 엿장수가 가위질을 하며 다른 지게엿장수와 함께 양옆의 출연자 앞을 한바퀴 돌면서 엿을 팔며 고철을 수집한다.
- 엿장수가 엿을 팔며 한바퀴 도는 동안 다른 출연자는 엿장수가 앞을 지날 때 가지고 있던 고철을 수집한다.
- 이때 농악은 약하게 울려주며 가락을 맞추고 다른 출연자는 흥겨웁게 엿파는 소리에 맞추어 율동을 하며 춤을 춘다.
- 엿장수가 엿을 팔며 한바퀴 돌아 앞에와서 지게를 벗어놓고 고철을 지게에서 내려 놓는다.
- 이때 대저울꾼은 대저울을 들고 고철을 몇 번 달아 넘긴다.
- 점간주인은 고철을 인수하고 엿장수에게 돈을 건네준다.
- 이때 농악대는 약하게 농악을 울려준다.
- 대저울꾼은 고철을 달 때 몇 관이라는 숫자를 크게 소리친다.
- 점간주인이 고철을 다 수집하였으면 농악은 크게 다시 울려준다.
- 출연자 모두는 다음 과장으로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간다.
- 이때 풍구질꾼은 수집한 고철을 풍구틀 옆으로 가져다 놓는다.

● 제2과장 뚝 제사

- 농악이 계속 울리는 가운데 집사는 뚝앞에 자리를 깔고 제사상을 놓은다음 제물을 차려 놓는다.
- 출연자 모두는 뚝을 향하여 모두 꿇어 앉는다.(농악은 멈춘다)
- 다음 제물을 다 차려놓으면 점간주인은 자리에 올라 배례를 한 번 다시 술잔을 받아 상위에 놓는다.

- 집사는 빈 술잔을 들어 점간주인에게 들게 한다음 술을 잔에 붓고 다시 술잔을 받아 상위에 놓는다.
- 점간주인은 다시 일어나 배례를 한 번하고 엎드려 있다.
- 이때 비수안은 비문을 읽는다.
- 비문을 다 읽으면 점간주인은 다시 일어나 배례를 한 번하고 술잔을 들고 양옆의 뚝에다 술을 군데군데 조금씩 나누어 붓는다.
- 제사가 끝나면 집사는 제물을 거둔다.
- 이때 다시 농악은 크게 울려준다.
- 출연자 모두는 다음 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 제3과장 풍구질과 쇧물놀이

- 농악은 멈춘다.
- 선소리꾼은 “자!, 이제 뚝제사를 잘 지냈으니 풍구질을하여 쇧물을 놀이세!”하고 소리를 친다.
- 출연자 모두는 “예!”하고 크게 대답을 하며 풍구질꾼은 각자 풍구위로 올라간다.
- 화주는 이때 뚝에 불을 붙인다.
- 선소리꾼은 풍구질소리를 선창하고 후소리꾼과 풍구질꾼은 후렴을 받으며 서서히 풍구질을 한다.
- 풍구질이 계속되는 동안 점간주인은 “불어라 불어!”라고 크게 소리를 친다.
- 이때 농악은 아주 적게 가락을 맞추어 울려준다.
- 한참동안 풍구질을 하다가 선소리꾼은 “힘도 들고 숨도찬데 잠시잠깐 쉬었다 하세!”하고 한다.
- 풍구질꾼은 “예!”하고 크게 대답하고 풍구에서 내려온다.

- 아낙네는 새참거리로 술동이와 함지에 담은 먹거리를 가지고 앞으로 나온다.
- 이때 풍구질꾼은 아낙네 옆으로 모인다.
- 아낙네는 바가지로 술을 떠서 풍구질꾼에게 건네주고 다른 아낙네는 안주를 집어준다.
- 풍구질꾼은 술과 안주를 받아 마시며 땀을 닦고 일부는 웃저고리를 벗기도 한다.
- 이때 농악은 경쾌하게 울려준다.
- 한참동안 새참을 먹으며 쉬다가 농악이 멈추면 선소리꾼은 “자!, 이제 그만 쉬고 풍구질이나 다시하세”하고 소리친다.
- 풍구질꾼은 “예!” 하고 대답한 후 차례차례 열을지어 풍구틀로 올라간다.
- 이때 풍구질꾼은 웃저고리도 벗고 바지가랭이도 일부 걷어 올린다.
- 선소리꾼은 다시 소리를 하며 후소리꾼과 풍구질꾼은 후렴을 받으며 풍구질을 계속한다.
- 화주는 뜰에 불이 “퍽” “퍽” 피어 오르도록 조정한다.
- 농악은 소리에 맞추어 북과 장고만 아주적게 은은히 울려준다.
- 점간주인은 옆에서 “불어라 불어!” 라고 크게 소리를 친다.
- 한참동안 풍구질을 하는동안 쇳물운반인은 붉은 쇳물을 받아 앞에놓인 가마솥과 보습모형틀에 계속 가져다 붓는다.
- 어느정도 계속하다 선소리꾼이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다시 불어보세” 라고 한다.
- 풍구질꾼은 “예”하고 풍구에서 내려와 풍구틀을 둥그렇게 돈다.
- 농악은 다시 경쾌하게 울려준다.

● 제4과장 가마솥 · 보습만들기와 판매

- 농악은 아주 약하게 울려준다.
- 점간주인과 쇧물운반인은 모형틀에서 가마솥과 보습을 꺼내어 놓는다.
- 이때 점간주인은 가마솥과 보습을 점검하며 잘된 것은 잘 만들었다고 높이 들고 좋아한다.
- 잘 만들지 못한 제품은 먼곳으로 내던져 버린다.
- 이렇게 제품을 다 꺼내어 한자리에 모아 놓는다.
- 점간주인은 “자!, 가마솥과 보습을 잘만들어 놓았으니 모두 사가시오” 라고 크게 소리를 친다.
- 이때 농악은 크게 울려주고 물상객주는 지계꾼을 데리고 제품을 사러 앞으로 나온다.
- 이때 다른 출연자는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춘다.
- 잠깐 농악은 멈춘다.
- 점간주인은 제품을 물상객주에게 숫자를 세며 판다.
- 지계꾼은 물건을 지계에 얹는다.
- 다시 물상객주와 지계꾼은 물건을 지고 잘있으라 하고 떠난다.
- 점간주인은 잘가라고 손을 흔들어 준다.

● 제5과장 한마당놀이

- 농악은 크게 울려주며 중앙의 기수를 중심으로 빙빙 돈다.
- 출연자 모두는 중앙의 기수를 중심으로 농악대 뒤를따라 빙빙 돈다.
- 출연자는 소품을 높이 들고 가벼운 것은 하늘 높이 던지면

서 소리를 크게 “와” “와” 하고 지른다.

- 출연자는 계속 농악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며 돌아간다.
- 한참동안 신나게 한마당놀이를 하다가 기수를 선두로하여 농악대는 출연자를 이끌고 원을 넓게 그리면서 퇴장인사 준비를 한다.
- 상쇠는 출연자 모두가 원을 그려 정리가 되면 쇠를 꺾어 친다.
- 출연자 모두는 소품을 제자리에 내려 놓는다.
- 징잡이는 징을 울린다.
- 출연자는 모두 엎드려 관중에게 인사를 한다.

해설자 : • 관중들에게 많은 박수를 청한다.

출연자 : • 다시 징소리를 울려준다.

- 출연자는 모두 일어나서 소품을 소지한다.
- 농악은 천천히 올려주면서 선두로 퇴장한다.
- 출연자도 농악대 뒤를따라 춤을추며 퇴장한다.



- 경연 후 기념사진 -

■ 쇧돌(철광석) 채취소리

에－헤라	철광석아	에－헤라	철광석아
어화세상	벗님네야	에－헤라	철광석아
이내소리	들어보소	에－헤라	철광석아
옛날옛날	아주옛날	에－헤라	철광석아
인제서화	무쇠점골	에－헤라	철광석아
인제북면	구미동에	에－헤라	철광석아
세상에서	제일가는	에－헤라	철광석아
철광석이	나왔는데	에－헤라	철광석아
송곳같은	곡괭이로	에－헤라	철광석아
한번캐면	한덩어리	에－헤라	철광석아
두번캐면	두덩어리	에－헤라	철광석아
닷근짜리	쇠망치로	에－헤라	철광석아
한번치면	한덩어리	에－헤라	철광석아
두번치면	두덩어리	에－헤라	철광석아
똑딱똑딱	망치소리	에－헤라	철광석아
철컹철컹	괭이소리	에－헤라	철광석아
우리일꾼	잘도캐네	에－헤라	철광석아
철광석을	캐는소리	에－헤라	철광석아
인제남면	다릿골에	에－헤라	철광석아
점간에다	알려주고	에－헤라	철광석아
점간주인	소리듣고	에－헤라	철광석아
흥겨워서	춤추네	에－헤라	철광석아
여보시오	일꾼네들	에－헤라	철광석아
부지런히	쇧돌캐서	에－헤라	철광석아
점간에서	불에녹여	에－헤라	철광석아

농사쟁기	잘만들어	에－헤라	철광석아
우리농군	농사질때	에－헤라	철광석아
겨리소에	쟁기걸어	에－헤라	철광석아
어려어라	소리하며	에－헤라	철광석아
앞밭뒷논	갈고갈아	에－헤라	철광석아
모를심고	콩을심어	에－헤라	철광석아
농사풍년	맞이하여	에－헤라	철광석아
인제농촌	부촌으로	에－헤라	철광석아
내손으로	만들으세	에－헤라	철광석아
에－헤라	철광석아	에－헤라	철광석아
우리일꾼	씻돌깎때	에－헤라	철광석아
구슬같은	땀방울에	에－헤라	철광석아
적삼바지	다젖었네	에－헤라	철광석아
가련하다	우리신세	에－헤라	철광석아
어찌하여	사시사철	에－헤라	철광석아
비가오나	눈이오나	에－헤라	철광석아
씻돌개는	사람됐나	에－헤라	철광석아
어떤사람	팔자좋아	에－헤라	철광석아
고대광실	높은집에	에－헤라	철광석아
사귀에다	풍경달고	에－헤라	철광석아
부귀영화	누리는데	에－헤라	철광석아
우리일꾼	어찌하여	에－헤라	철광석아
한평생을	힘든일로	에－헤라	철광석아
살아야만	하겠는가	에－헤라	철광석아
오늘날은	그만캐고	에－헤라	철광석아
내일다시	캐오보세	에－헤라	철광석아

■ 똑제사 제문

해동조선	강원인제	다릿골에	터를잡아
무쇠점간	지어놓고	보습솔을	만들적에
불계부정	택일하여	삼색오과	술을빚어
좌우진설	향배해서	소지발원	드리오니
동방에는	백토지신	남방에는	적토지신
서방에는	황토지신	북방에는	흑토지신
모든지신	오시도록	하강하여	드릴적에
소－례로	드린정성	대－례로	받으시고
입은덕도	많건마는	새로새덕	비옵나니
소망성취	바라건데	풍기독에	간압쇠는
맑은청풍	불어넣고	일월같은	맑은불을
한곳으로	몰아올려	고철쇠를	불계달귀
주홍같은	붉은씻물	뎡이뎡이	옹겨부어
보습솔을	만들적에	잘마들게	비나이다.

■ 풍구질 소리

풀무풀떡	풀무풀떡	이풍구를	잘불어서
제일가는	무쇠점간	어텔가나	소문났네
풍구질도	잘도하네	동네방네	우리일꾼
무쇠밥솔	쌀두말에	불티나게	팔려간다
이내팔자	어찌하여	풍구부는	일꾼됐나
구슬같은	땀방울에	등걸잠방	다젖었네
풀무풀떡	풀무풀떡	여보시오	일꾼님네
이내말을	들어보소	나이오십	한평생에
장가한번	못가보고	젊은청춘	점간에서

풍구질로	다늴었네	여보시오	동네사람
누구든지	딸있거든	이내몸을	사위삼소
내평생의	소원이요	여보시오	풍구질꾼
새참올때	되었는데	부지런히	불어보세
권택마님	거동보소	팔꼭치마	휘어감고
사뿐사뿐	걸어오네	여보시오	일꾼님네
힘도들고	숨도차니	새참먹고	쉬었다가
다시불며	일해보세	폴무폴떡	폴무폴떡
어떤사람	팔자좋아	고대광실	높은집에
홍타령만	부르는데	이내팔자	한평생을
풍구질로	살아가네	여보시오	일꾼님네
풍구질에	한탄말고	부지런히	잘붙어서
보습술을	잘만들어	장날마다	팔아다가
한푼두푼	저축하여	색시언어	장가가고
궁궐같은	집을짓고	아들낳고	오복맞아
영화부귀	누리보세	폴무폴떡	폴무폴떡

■ 출연배역 및 인원

- 기 수 : 1명
- 농 악 : 8명
- 선 소 리 : 1명
- 후 소 리 : 1명
- 점간주인 : 1명
- 물상객주 : 1명
- 화 부 : 2명
- 씻물운반인 : 4명(대저울꾼역 포함)
- 엇 장 수 : 2명

- 아 낙 네 : 4명
 - 풍구질꾼 : 32명(지계꾼역 10명 포함)
- 계 57명

■ 소 품

- | | |
|-----------------|--------------|
| · 큰기 : 1개 | · 엇판 : 2개 |
| · 풍구틀 : 2틀 | · 제삿상 : 1개 |
| · 뚝 : 2틀 | · 술병 : 1개 |
| · 남자옷(흰색) : 53벌 | · 술잔 : 1개 |
| · 여자옷(흑.백) : 4벌 | · 제물 : 약간 |
| · 두루마기 2벌 | · 돛자리 : 1개 |
| · 조끼 : 2벌 | · 함지 : 2개 |
| · 갓 : 2개 | · 술동이 : 2개 |
| · 머리수건 : 57개 | · 바가지 : 4개 |
| · 짚신 : 57개 | · 막걸리 : 약간 |
| · 지계 : 12개 | · 안주 : 약간 |
| · 소쿠리 : 2개 | · 숯포 : 2개 |
| · 씻물운반통 : 2틀 | · 무쇠술 : 5개 |
| · 보습 : 5개 | · 무쇠술모형 : 5개 |
| · 보습모형 : 5개 | · 대저울 : 1대 |
| · 고철쇠 : 약간 | |

■ 출연자

- 출연인원 : 60명 (남 56명 / 여 4명)
- 조 사 : 이만철(인제문화원 사무국장)
- 연출지도 : 박해순(인제향토민속보존회장)

성 명	년 령	배 역	성 명	년 령	배 역
박 해 순	71	선 소 리	전 현 길	27	풍구질꾼
장 태 수	39	후 소 리	양 승 용	31	풍구질꾼
김 상 혁	72	농 악	최 태 석	39	풍구질꾼
이 만 식	75	농 악	이 덕 엽	35	풍구질꾼
이 상 주	65	농 악	김 용 식	32	풍구질꾼
김 범 수	77	농 악	김 창 진	30	풍구질꾼
남 궁 작	61	농 악	이 용 하	33	풍구질꾼
김 승 기	31	농 악	김 중 현	29	풍 구 질
허 만 영	74	농 악	목 성 균	29	풍 구 질
이 주 은	63	농 악	유 정 원	29	풍 구 질
김 종 호	44	농 악	최 철 규	30	풍 구 질
박 공 모	73	비 수 안	최 재 혁	29	풍 구 질
김 유 근	65	집 사	변 항 기	30	풍 구 질
최 용 순	62	점간주인	서 수 덕	32	풍 구 질
		아 낙 네	유 회 창	30	풍 구 질
전 옥 련	75	아 낙 네	박 상 덕	31	풍 구 질
박 춘 매	70	아 낙 네	김 재 영	45	풍 구 질
정 길 녀	68	아 낙 네	한 억 용	44	풍 구 질
홍 명 환	40	풍구질꾼	이 천 순	37	풍 구 질
유 지 춘	40	풍구질꾼	송 창 현	24	풍 구 질
김 동 열	44	풍구질꾼	최 병 구	46	화 부
연 제 동	34	풍구질꾼	최 재 영	38	화 부
남 평 우	40	풍구질꾼	김 영 운	45	화 부
전 덕 균	37	풍구질꾼	강 대 욱	32	화 부
오 인 종	31	풍구질꾼	조 성 구	62	화 부
김 진 수	35	풍구질꾼	이 동 선	68	화 부
유 지 관	36	풍구질꾼	이 동 준	56	화 부
장 충 식	41	풍구질꾼	김 한 기	36	큰 기 수
곽 재 환	32	풍구질꾼	안 종 한	38	작은기수
허 병 도	38	풍구질꾼	오 성 현	40	작은기수

망대세우기의 전승형태와 민속문화적 성격

윤형준 · 권태훈

1. 머리말

망대세우기는 인제군 기린면 방동 1리에서 일제시대(1940년대 전후)까지 지속적으로 전승되었던 민속놀이로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승이 단절되었다. 다행히 「제 18회 강원도 민속예술축제(2000. 9.29~30, 횡성 종합운동장)」를 계기로 전병하(남, 71)옹과 용석주(남, 73)옹의 고증을 통하여 재현할 수 있었다.

망대세우기는 정월 신년제(新年祭) 기간에 마을의 풍농과 안녕 등을 바라면서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연행되었던 대동놀이이다. 따라서 공동체 성원 전체의 합의와 노력으로 이 놀이는 연행될 수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망대로 쓰일 소나무를 베어오고, 망대에 달 호롱(등)을 만들고, 망대 아래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공동체의 신명을 느끼는 망대세우기가 정월에 연행되었던 점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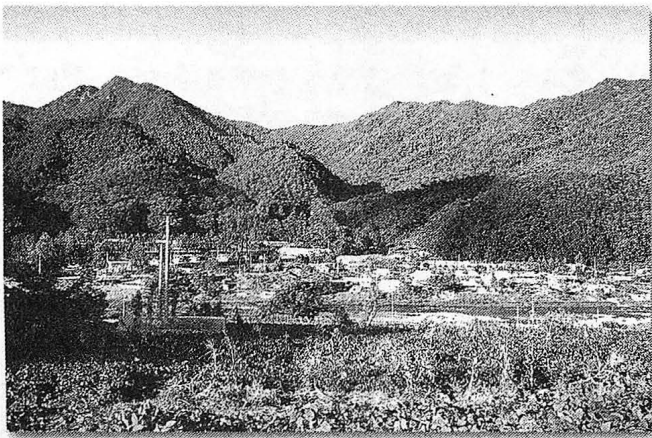
정월은 농촌의 생업력에서 본다면 농한기(農閑期)이지만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자 새로운 생장의 계절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망대세우기가 연행된 점은 우리 고장에서는 이 기다리는 시기를 휴식의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얻기 위한 기원과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들을 준비하는 시기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며, 그 인식의 산물이 바로 망대세우기라고 할 수 있다. 망대세우기의 이러한 특징적인 점은

놀이 과정 중에 농경축원의례적 성격과 대동놀이적 성격, 그리고 생업관행적 성격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마을개관

망대세우기는 인제군 기린면 방동 1리 아룡가지, 둔덕동, 도채동 3개 자연마을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전승되던 민속놀이이다. 방동마을은 고려 시대 안변도호부(安邊都護府) 춘주군의 속현(屬縣)으로 있었으며 조선 태종 13년 계사년(癸巳年:1413) 지방제도 개혁시 춘천군으로 개칭되면서 춘천군의 속현으로 있었다. 1914년 춘천군이 도호부로 승격될 당시에는 현(縣) 소재지였으며, 1916년 행정구역의 통폐합에 따라 방동(芳東)과 동리(東里)를 병합하여 방동리(芳東里)라고 하였다.

방동은 기린면사무소에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주민 대부분이 농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2개의 행정리 방동1, 2리로 구획되어 있다. 전체면적의 92%가 임야로 형성되어 있으며, 고랭지 채소와 약초작목이 농가의 주



방동 1리 마을 전경

소득원이 되고 있다.

망대세우기의 전승지역인 방동 1리에는 총 128가구가 거주하며 남자 202명, 여자 185명, 총 387명이 있다. 농가는 95호이며 경지면적은 밭 96ha, 논 34.9ha 총 130.9ha이다.

3. 전승유래

망대세우기가 언제부터 행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유래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망대의 형태가 다른 지역에서 전승되는 살대, 솟대 등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솟대의 유래가 삼한 시대의 소도(蘇塗)에서 기원했다는 점으로 보아 망대 세우기도 그 유래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망대세우기가 정월대보름에 전승되던 농경축원의례인 지신밟기와 함께 이루어져 마을의 축제와 놀이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전통농경사회에서 다양하게 행해진 정초 농경의례의 한 형태로 보인다.

또한 호롱(등)을 달고 마을과 각 가정의 평안을 빈다는 측면에서는 민간에 풍년기원제의 형태로 전승되던 불교의 연등회(燃燈會)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헌에 따르면 신라시대에는 정월 보름에 간등(看燈)한 사실이 있고, 고려시대에는 국가적인 행사로 연등회를 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적인 의례로서 행해진 연등회가 폐지된 조선시대에도 정월을 “등절(燈節)이라 하여 등을 밝히면서 밤을 세웠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국세시기, 열양세시기 4월 조에는 연등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등간(燈竿)을 자녀의 수대로 세우고 남보다 크고 높은 것을 자랑으로 알았다. 그리고 등간 위에서는 꿩 깃을 끼우고 울긋불긋한 천을 매달거나 둥근 모양의 것을 달기도 하였다.(중략) 등(燈)에는 가족들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쓰거나 써서 붙이는 것이 통례였다.”

이 기록은 비록 4월달의 기록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에서 연등행사가 정

월 보름에서 2월 보름, 4월 8일로 이행되었음을 감안할 때,¹⁾ 이러한 기록과 망대 세우기의 전승형태 상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교행사 및 풍년기원제의 형태로 전승되던 연등회 잔존 형태가 전승되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망대세우기의 전승형태

(1) 정월초 망대의 준비

망대세우기에 필요한 재료는 노네끈(삼베끈), 호룽(등), 망대(소나무)이다. 이 재료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대방의 지시에 의해서 준비를 한다. 대방은 두레조직의 도감(都監), 삼척 살대제의 농장(農長)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로, 한 해 동안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도로보수나 다리축조 등 마을의 실질적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었다. 그 부여된 권위도 대단하여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맡은 일에 태만한 사람은 체벌하는 일까지도 하였다. 대방 이외에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을 좌상²⁾으로 모시기는 하였지만, 좌상은 상징적인 의미의 어른이었으며, 실질적인 마을일은 대방이 주관하였다. 재료를 준비할 때, 노네끈은 마을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대보름까지 함께 준비하며, 호룽은 마을 공동 호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자의 집에서 개인이 만든다. 노네끈은 망대를 고정시키는 줄과 호룽을 다는 줄 두 종류를 만들었다. 망대를 고정시키는 줄은 지름 4cm 정도로 만들어 사방에서 망대를 고정시키는데 이용되었고, 호룽을 다는 줄은 지름 5mm 정도로 망대 끝에 늘어뜨린 후 호룽을 다는 데 사용하였다. 호룽을 다는 노네끈은 보통 약 10~20 가닥 정도 만들었지만, 참여하는 주민의 수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었다.

1) 金宅圭, 『韓國農耕歲時의 研究』, 1991, 嶺南大學校出版部, 68쪽.

2) 좌상을 지칭하여 상좌라고도 불렀다고 한대(전병하, 남, 71).

호룡은 싸리나무를 열십자(十) 형태로 엮어서 창호지를 씌워 만든 후 속에 불을 켤 수 있도록 등잔을 넣어 두었다. 호룡의 크기는 마을 공동호룡일 경우는 폭이 약 40cm, 길이가 약 50cm 정도, 개인 호룡일 경우에는 폭이 약 15cm, 길이 약 20cm 정도 되었다. 호룡의 내부에는 등잔에 기름이나 꿀벌의 밀을 사용하여 불을 밝혔다. 호룡은 한 집에서 하나씩 만드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두 세 개 만드는 집도 있었다.

망대세우기에 필요한 노네끈, 호룡의 제작과 더불어 농민기에 사용될 짚신, 다래끼, 종다래끼, 도리깨 등의 농기구 등도 이 기간 동안에 제작하였다. 농기구는 이 때부터 2월 초하루까지 마을회당이나 각자의 집에서 대방이 지시한 만큼 성심껏 제작한 후 마지막날 마을회당에 모아 놓고 대방의 확인을 받았다. 이러한 망대의 준비과정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결속을 확인하는 계기로가 인식되었으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치부되었다. 이러한 준비기간은 그 자체가 훌륭한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끝나는 망대세우기에 비하면 열흘 이상 걸리는 노네끈 만들기, 호룡 준비 등은 마을 사람들에게 보다 의미 깊게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정월 보름날 아침이 되면 대방이 “망대를 베러 가니 모두 나오시오”라고 영(令)을 내리면 마을 장정들은 ‘도채울’이나 ‘점미골’로 망대를 베러간다. 망대는 주로 소나무를 사용하며, 망대로 사용될 나무를 선정하는데 특별한 금기는 없다. 곧게 서고 굽기가 적당한 것으로 측석에서 선정하여 베었다. 망대는 지름이 약 30-40cm, 높이 약 30m 이상 되는 것으로 장정 서너 명이 목도소리에 맞추어 망대세우는 장소인 마을 회당 앞으로 옮겨왔다. 망대를 가져 온 후 세울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간단하게 나무를 손질하고 망대를 세울 구멍이를 미리 파 놓았다.

(2) 망대세우기와 호룡달기

망대를 세우는 정월보름 저녁 무렵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굿중패가 풍물을 치면 마을주민들은 마을 공터로 모였다. 마을 사람들은 미리 대보를



박대감을 모신 서낭당

에는 망대를 세우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회당 너른마당에 모이게 된다. 한쪽에서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 나무를 가져오던지, 노네편이나 호롱을 준비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게 된다.

이 무렵이면 마을 주민들과 이웃에서 구경은 사람들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었고, 집집마다 아낙네들은 망대를 세우고 나서 먹을 음식과 술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면 좌상을 비롯한 대방은 굿중패를 이끌고 남산 기슭에 좌정하고 있는 박대감 서낭신을 모셔오기 위해 서낭당으로 향한다.³⁾

박대감 서낭신은 인제군 기린면 지역에 널리 서낭신으로 좌정해 있는

3) 서낭기를 모셔오는 시기는 망대를 세우기 전 서낭기를 모셔 온 후 망대를 세운다는 견해(용석주, 남, 73)와 망대를 세운 후 다음날인 열엿새날 아침, 지신밟기를 가기 전에 모셔온다는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전병하, 남, 71). 두 견해 중 이 번 연출에서는 용석주 옹의 제보를 중심으로 서낭기를 모셔오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왜냐하면 망대세우기의 전 과정에서 망대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신체(神體)로 인식되어 제사를 드리거나, 소원을 비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다면 망대 자체가 일반적인 나무에서 신격을 부여받은 신체로 변화되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서낭기를 모셔와서 망대와 함께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과정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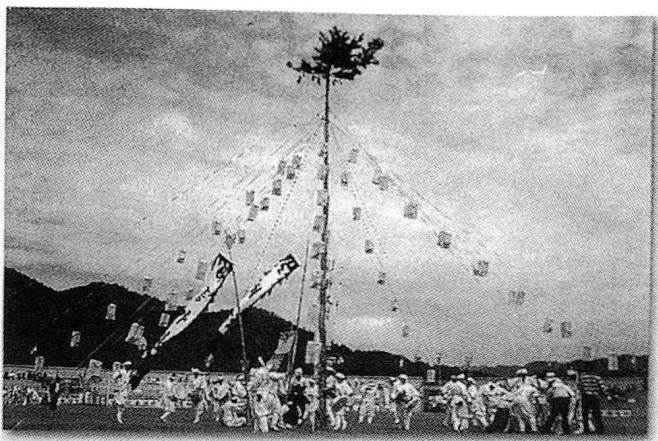


산지당 근경

인물신으로 고려 때 평장사(平章事)를 지낸 인물 박원굉(朴元宏)으로 알려져 있다. 박원굉이 이 곳에서 신격화된 것은 고려가 멸망하자 태조 이성계가 관직으로 나오라고 불렀으나 거부하고, 이 곳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죽었기 때문이다. 좌상과 대방은 굿중패를 이끌고, 신명나는 서낭굿을 치며 서낭당에 도착하면 굿중패는 서낭굿을 치면서 박대감 서낭님에게 망대를 세우겠음을 고하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놀이가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빈다. 이 때 미리 도착한 마을 주민이 준비해 놓은 메(밥)와 주과포(술, 과일, 포) 등으로 간단한 제사를 올린다.

서낭당은 산촌지역에서 볼 수 있는 산지당⁴⁾ 형태로 만들어졌다. 돌로 좌우측에 79~80cm 정도의 높이로 담을 쌓아 지붕은 슬레이트로 덮여놓은 형태이다. 뒷벽은 자연 그대로 언덕을 이용한 형태이다. 신체는 내부에 나무를 가로질러 창호지를 걸어 놓았다. 서낭기는 가로 50cm 세로

4) 방동리 마을신앙은 산지당과 서낭신을 모시고 있다. 산지당은 마을에서 0.7km 떨어진 점미골 계곡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낭당은 점미골 계곡 입구 마을 뒤편에 위치한다. 방동리에서는 정초에 제일을 택일하여 산지당에 먼저 지내고, 박대감 서낭신을 모셨다고 한다. 현재 방동리 마을사람들은 정월과 칠월에 날짜를 고정시켜 제를 지내고 있다.



망대를 세운 모습

250cm 정도의 규격으로 나무를 가로질러 엮고, 중앙에 깃대를 묶었으며, 천을 배접하여⁵⁾으로 만든 것으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써어 있었으며, 망대 세우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당의 뒤쪽 절벽에 기대어 세워놓았다. 박대감 서낭당에서 0.4km 떨어진 점미골 계곡입구에는 서낭당과 함께 모시는 산지당이 있다. 좌상과 대방은 서낭신이 좌정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서낭기를 모시고 굿중패와 함께 망대를 세운 곳으로 모셔왔다.

서낭당에서 서낭기를 모셔 오면 본격적인 망대세우기가 시작된다. 우선 미리 준비해 놓았던 팽장목과 신우대, 수맥이(소나무가지)를 망대 끝에 묶고, 줄을 걸 고리⁶⁾를 박는다. 이후 망대를 고정시킬 노네끈을 나무에 묶고, ‘호룽’을 달 노네끈을 고리에 걸어 둔다.

이렇게 망대 세울 준비가 끝나면 대방이 “자 이제 망대를 세우시오”라고 지시한다. 그러면 마을 청장년들을 중심으로 망대를 세운다. 망대가

5) 한지를 배접하여 사용하였다는 제보도 있다(옹석주, 남, 73).

6) 주로 문고리를 많이 사용하였다.

세워질 무렵 마을 주민들과 구경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망대가 세워지면 마을 청장년들이 굵은 노네끈으로 사방을 고정시켰다.

망대를 세운 후 좌상의 지시로 서낭기를 망대 옆에 함께 세운다. 그 후 좌상은 망대 아래에서 앞으로 2월 초하루까지의 망대세우기 전 과정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간단한 제사를 지냈다. 제사는 약식화된 제사로서 좌상이 망대에 재배한 후에 잔을 한 잔 올리고 무릎을 꿇고 앉는다. 그리고는 곧 바로 동네의 ‘풍농’과 ‘안녕’을 비는 동네소지(대동소지)를 올리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된다.

망대를 세운 후 좌상은 미리 제작하였던 마을 공동의 호룡을 정성껏 달았다. 마을 공동의 호룡을 달게되면 마을사람들은 각 집의 대주(大主) 이름을 쓴 호룡을 가지고 와서 불을 붙인 후 한해 동안의 소원을 빌면서 호룡을 달았다. 호룡을 모두 달아 놓으면 온 동네가 환하여 잔치가 열리는 마을처럼 보였으며, 이러한 풍경은 2월 초하루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호룡을 모두 단 후 마을 주민들은 환한 망대 아래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풍물을 치면서 밤새도록 놀았다고 한다.

(3) 굿중패의 지신밟기

정월 열엿새날 아침 일찍부터 굿중패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걸립을 하게 된다. 이 걸립은 집집마다 또는 타동네까지 약 보름간 걸쳐 이루어졌다. 걸립하는 과정을 이 마을 사람들은 ‘지신을 밟는다’고 한다. 굿중패는 지신밟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망대 주위로 와서 풍물을 신나게 친 후 망대와 함께 붙어 있는 서낭기를 모시고, 지신밟기를 하였다.

굿중패는 서낭기를 앞세우고 상수잼이(1), 부수잼이(1), 징(1), 장고(1), 북(1), 법고(7-8), 무등(8), 화랭이(1)로 구성되었다. 화랭이는 일인다역(一人多役)의 잡색꾼으로서 거지, 포수, 색시 등의 흥내를 내었다고 한다. 서낭기를 선두로 지신밟기를 나가면, 우선 좌상 집부터 밟은 후 대방, 그 외 마을 사람 순으로 밟았다. 지신을 밟기 위해 굿중패가 오면 집주인은 온갖 음식으로 대접하였으며, 실을 서낭기에 매달기도 하였다. 또한 비

단, 벼, 콩 등을 내어 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얻은 물건들 중 옷감류는 서낭당에 갖다 걸었다. 지신밟기가 끝날 쯤이면, “서낭이 온통 울긋불긋하였다”고 한다. 이 지신밟기는 2월 초하루까지 계속되었다.

지신밟기가 끝나면 서낭기를 망대 옆에 잘 모셔 놓은 후 망대 옆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풍물을 치면서 한바탕 논 후 헤어졌다고 한다.⁷⁾

이렇게 즐겁게 노는 한편으로 짬짬이 각자 집이나 마을 회당에 모여서 대방이 지시한 도리깨, 삼태기, 짚신 등의 농기구를 만들었다.

(4) 파굿치기⁸⁾

보름간의 지신밟기가 끝나면 2월 초하루 저녁에 모여 망대와 걸립패를 해체하고 그 동안의 놀이판을 정리하게 된다. 이 날은 ‘농민의 날’ 이라고 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의 잔치 날로 인식되었다. 이는 이 날을 마지막으로 길고 긴 농한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하기 때문이다.

우선 마을 회당과 각자의 집에서 만들었던 농기구들을 지게나 소쿠리에 담아 회당으로 가져와서 각자 분배받은 분량대로 만들었는지를 확인 받는다. 만약 맡은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한 사람은 대방으로부터 질책을 듣거나, 신체적인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대방의 확인이 끝나면 이어서 파굿치기를 한다.

파굿치기는 망대를 풀어 넘기는 과정으로서 망대가 넘어가는 쪽은 풍년이 들고, 그렇지 않은 쪽은 흉년이 든다고 하여 파굿치기의 과정은 큰 관심사였다. 망대를 넘어뜨릴 때 우선 망대를 지탱하는 굵은 노네편을 자르고, 톱으로 밑둥을 자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망대가 어느 한 쪽으로 넘어졌다고 한다.⁹⁾ 망대를 넘어뜨린 후 망대 세우기에 사용된 호룽은 많이 상한

7) 이 때 서낭을 망대 옆에 세워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회당에 풍물과 함께 보관 한 후, 다음 날 지신밟기를 시작할 때 다시 모셔와서 자신을 밟았다는 제보도 있다(전병하, 남, 71).

8) 파굿치기는 ‘파고치기’ 라고도 하며, 좁은 의미로는 망대를 넘어뜨리고, 넘어 지는 방향을 보아 풍흉을 점치는 과정을 말하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이월 초하룻날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농기구 검사, 마을잔치, 망대넘기기 등)을 말한다.

것은 태우고, 상하지 않은 것은 집으로 가져와 가정에서 사용하였다. 또한 망대로 사용된 소나무는 그 자리에서 잘라서 땔감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망대를 모두 소비한 후 마을의 신년제(新年祭) 행사인 망대 세우기는 끝이 나게 된다.

5. 망대세우기의 민속문화적 성격

(1) 농경축원의례적 성격

망대세우기의 농경축원의례적 성격은 풍농을 기원하는 기풍의례(祈豐儀禮), 한해의 농사를 예감하는 점세의례(占歲儀禮)에서 찾을 수 있다.

망대세우기에서 마을의 풍농과 평안을 비는 기풍의례의 성격은 망대를 세운 후 제사를 지내는 절차, 또 마을 공동의 소지를 올리는 절차, 마을공동의 '호롱'을 다는 절차, 마을의 평안을 위해 박대감 서낭신을 모셔와서 지신을 밟는 절차 등 놀이 곳곳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마을의 좌상이 마을의 풍농(豐農)과 평안(平安)을 위해 마을 호롱을 다는 과정은 그 기풍의 마음이 절정에 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망대세우기는 기풍의례의 측면과 더불어 한 해의 농사를 점치는 점세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점세의례는 망대세우기의 마지막 과정인 파굿치기에서 망대가 넘어지는 방향으로 풍농을 점치는 과정에 잘 나타난다. 망대가 넘어지는 방향에 있는 마을이 풍년이 들고, 그렇지 않는 방향의 마을은 흉년이 든다는 관념이다.

이러한 점세적 성격은 대동놀이를 연구한 여러 선학들의 연구업적에 따르면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송석하(宋錫夏)는 줄당기기에 관해 논하면서 원래 기풍(祈豐)적이던 것에 점풍(占風)적인 요소가 추가되었다

9) 망대가 넘어지는 것으로 풍흉을 점친다는 제보(용석주, 남, 73)와 함께 사람이 인위적으로 넘어지는 방향을 조작할 수 있으므로 풍흉을 점친다는 제보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제보도 있었다(전병하, 남, 71).

고 보았고, 손진태(孫晉泰)는 민속상 연사(年事) 풍흉을 점치는 놀이들은 어느 것이나 최초부터 점세행사(占歲行事)로서 기원한 것은 아니고 후세에 사상적 변전을 일으킨 것이라고 보았다.

망대 세우기 연행에 있어서 기풍과 점세의 관계는 망대세우기의 연행과정을 ‘놀이’와 ‘놀이의 결과’로 나누어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기풍은 놀이의 과정을 통해서 구현되는 반면 점세는 주로 싸움의 결과에 관계되어 있다. 기풍이 놀이 그 자체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점세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병하옹(남, 71)의 “넘어지는 방향으로 풍흉을 점칠 수 없다”는 제보를 통하여 점세적 성격은 차츰 변화하고 단순한 놀이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변전하였거나, 최소한 그 변화의 동인을 짐작할 수 있다.

망대세우기의 이러한 기풍과 점세의 성격은 마을 공동체의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공동체의 측면은 마을 공동으로 제사를 지내는 과정과, 마을 전체의 호롱을 다는 과정에서 나타나며, 개인이레의 측면은 개인호롱을 달 때 뚜렛이 나타난다. 개인호롱의 경우 준비나 매다는 것은 철저히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기원의 내용도 개인의 건강과 평안을 비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2) 대동(大同)놀이적 성격

대동놀이로는 마을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의 참여아래 행해지는 놀이로서 놀이의 동참을 통해 ‘모두가 하나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대동놀이로서의 성격은 정월보름 저녁에 망대를 세워놓고, 등을 달고 잔치마당이 밤새도록 이루어졌다는 데서 엿볼 수 있다. 특정한 도구, 물건을 매개로 한 놀이보다는 망대에 등을 달고 여흥에 겨워 마을사람들이 모두 동참하여 음주가무를 하였다는 데서 대동놀이로서의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굿중패가 주도하는 지신밟기와 망대 주위에서의 마을잔치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온 동네 주민들이 참여하여 굿중패의 인도로 마을 곳곳을 돌며 지신밟기를 하고, 또 망대 주위를 돌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흥에 겨워 노는 장면은 신분과 연령을 뛰어 넘어 차별없이 하나되는 모습을 지향했던 우리 조상들의 이상(理想)을 엿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 할 수 있다.

(3) 생업관행적 성격

우선 새해의 시작부터 2월 초하루까지 망대세우기 기간 내내 마을 주민들은 종다래끼, 짚신, 망태기 등의 농기구를 꾸준히 만든다는 점에서 망대세우기가 단순한 놀이가 아닌 생업을 준비하는 한 과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생업이 농사였던 전통사회에서 농한기 동안에 충분히 농사도구를 준비해 두지 않으면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놀이의 연행과 생업활동을 연계함으로써 즐겁게 일 하였던 조상들의 슬기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작업을 함으로 작업능률을 높임과 동시에 앞으로 농사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협업이 필요한 때 손발을 맞추는 노력을 줄임으로써 농사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

6. 결론

지금까지 우리 군의 기린면 방동마을에서 전승되었던 망대세우기의 전 과정과 놀이과정에 내포된 다양한 성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상을 통하여 망대세우기의 몇 가지 특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첫째, 망대세우기는 그 전승 형태 면에서 신년제 기간에 이루어지는 세시풍속의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통사회에서 대부분의 세시풍속은 정월 한 달의 신년제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신년제 보편적 구성요소는 동제, 지신밟기, 편싸움을 들 수 있다. 이 망대세우기는 이러한 신년제의 맥락에 충실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

성을 지냈다고 할 수 있다. 즉, 신을 모셔오기 위해 동민들이 서낭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 망대를 세운 후 동네를 돌면서 지신을 밟고, 또 마을 별로 편을 갈라 망대가 넘어지는 것을 통해 풍흉을 점치는 것 등이다.

반면 보편성 속에서도 이 지역 나름의 생태환경에서 배태된 지역성을 간직하고 있다. 망대로 아주 굽고, 길게 뻗은 황장목을 사용하는 점, 서낭신으로 박대감을 모시는 것 등은 산악지역이라는 생태환경과 ‘역사적 인물의 귀양’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반영물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망대세우기는 그 성격 면에서 각 개별 민속 사상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성격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즉, 망대세우기에는 동제 등에서 이루어지는 기풍과 점세의 농경축원의례적 성격, 편싸움 등에서 나타나는 대동놀이적 성격, 농번기의 협업관행에서 나타나는 생업관행적 성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생업관행적 성격이다. 일반적인 다른 지역의 대동놀이는 놀이의 연행을 통해 대동을 경험함으로써 농번기에 협업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반면, 망대세우기는 실질적인 농사일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월 신년제 기간을 휴식으로만 일관하지 않고, 바쁜 농사철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농사도구의 제작을 놀이과정 속에 포함하여, 일과 놀이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연행한 점은 아주 특징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어렵게 발굴, 재현된 이 민속놀이가 일회성의 재현으로 그치지 않고, 이를 출발점으로 새롭게 전승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향토사자료 - 재판〉
麟蹄民俗史

발행인/방효정

편집인/이만철

발행처/인제문화원

전화/(033)461-6678

팩스/(033)461-0220

인쇄처/동현문화사

인쇄일/2004년 10월 22일

발행일/2004년 10월 25일

〈비매품〉

• 이 책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발간하였습니다.

